



승인 (협의) 번호
제 142017 호

2016년 기준 중견기업 실태조사

2017

Survey of High Potential Enterprise



산업통상자원부

ahpek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이용자를 위하여

1. 2017년 중견기업실태조사는 중견기업 3,558개사(2015년 말 재무기준)를 대상으로 2016년 경영실적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를 모수 추정(Parameter Estimates)한 것으로, 기존 발표된 중견기업 모집단 통계값과 다를 수 있음. 즉, 각 항목의 구성비 분석에는 유용하나 절대 규모로 활용하기에는 다소 제약을 갖고 있음
2. 통계표의 모든 통계수치는 반올림상의 차이로 인해 세부항목의 합과 총계가 일치되지 않을 수도 있음
3. 통계표 중 복수응답 설문은 기업체 구성비 합계가 100.0을 초과함
4. 중견기업실태조사 결과 내용은 중견기업 정보마당(www.hpe.or.kr)에서도 볼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과(044-203-4367) 또는 중견기업연합회(02-3275-2108)에서 가능함

요약

■ 요약 ■

1. 중견기업 실태조사 결과

□ 조사 대상

- 2015년말 기준 중견기업
- 조사기준시점 : 2016년 12월말 기준

□ 조사 내용

- 조사는 기업 일반현황, 중견기업 진입 및 성장, 기술혁신, 인재확보, 국제화 촉진, 수.위탁거래 및 동반성장, 금융 및 자금조달,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8개 부문, 62개 문항으로 구성

□ 중견기업 특성

- 전체 중견기업은 3,558개 기업으로 일반중견기업 2,885개(81.1%), 관계기업 673개(18.9%)
- 업종별로는 제조업(1,488개) 41.8%, 비제조업(2,070개) 58.2%를 차지하고 있음
 - 제조업 상세업종별로는 자동차·트레일러 212개(14.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65개(11.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132개(8.9%) 순으로 분포
 - 비제조업 상세업종별로는 도·소매업 448개(21.5%), 출판·통신·정보 서비스업 301개(14.5%), 건설업 271개(13.1%), 부동산·임대업 192개(9.3%) 순으로 분포
- 매출액 규모별로는 1천억원 미만 기업이 전체의 57.2%로 가장 많고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기업 비중이 낮음
- 종사자 규모별로는 100명 미만인 기업이 47.9%로 가장 많고 종사자 규모가 클수록 기업 비중이 낮음
- 업력별로는 설립된 지 7~20년 미만 기업이 39.3%로 가장 많고, 0~7년 미만 기업이 15.2%로 20년 미만 기업의 비중이 전체의 50%정도 차지함
- 중견기업의 21.4%는 상장기업이며 78.6%는 비상장기업

[표 1] 중견기업 일반 현황

(단위 : %)

구분		사례수	비율
전체		(3,558)	100.0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2,885)	81.1
	관계기업	(673)	18.9
업종	제조업	(1,488)	41.8
	비제조업	(2,070)	58.2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625)	17.6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934)	26.3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474)	13.3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636)	17.9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367)	10.3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253)	7.1
	5천억원 ~ 1조원미만	(179)	5.0
	1조원이상	(90)	2.5
종사자수	50명미만	(1,197)	33.6
	50 ~ 100명미만	(508)	14.3
	100 ~ 200명미만	(610)	17.1
	200 ~ 300명미만	(363)	10.2
	300 ~ 500명미만	(360)	10.1
	500 ~ 1,000명미만	(347)	9.8
	1,000명이상	(173)	4.9
업력	0 ~ 7년미만	(541)	15.2
	7 ~ 20년미만	(1,398)	39.3
	20 ~ 30년미만	(633)	17.8
	30 ~ 40년미만	(414)	11.6
	40 ~ 50년미만	(328)	9.2
	50년이상	(244)	6.9
상장	상장	(760)	21.4
	비상장	(2,798)	7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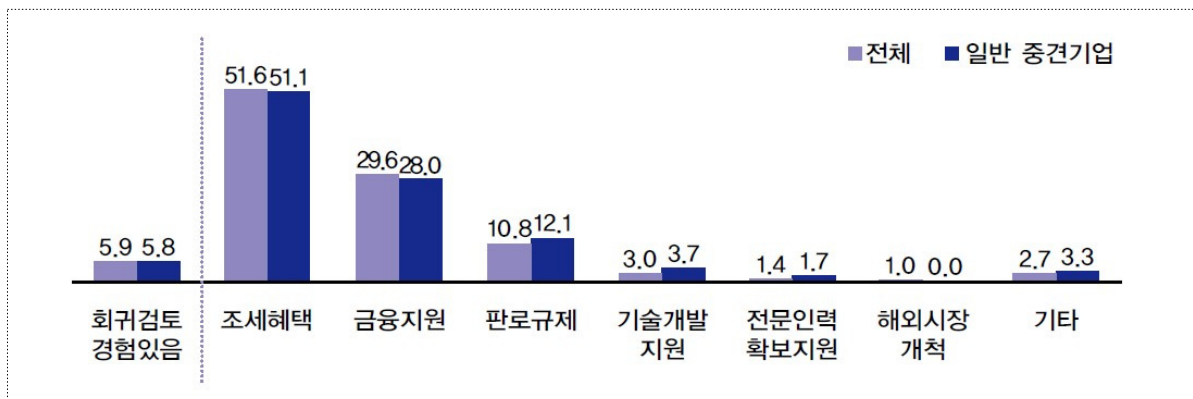
2.1. 중견기업 진입 및 성장

□ 중소기업으로의 회귀 검토 및 검토 요인

- 중소기업으로의 회귀를 검토한 중견기업은 5.9%, 일반 중견기업은 5.8%로 나타남
 - 중소기업으로의 회귀를 검토하게 한 가장 큰 요인으로는 51.6%가 조세혜택을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는 금융지원(29.6%), 판로 규제(10.8%) 순임

[그림 1] 회귀검토 여부 및 회귀검토 요인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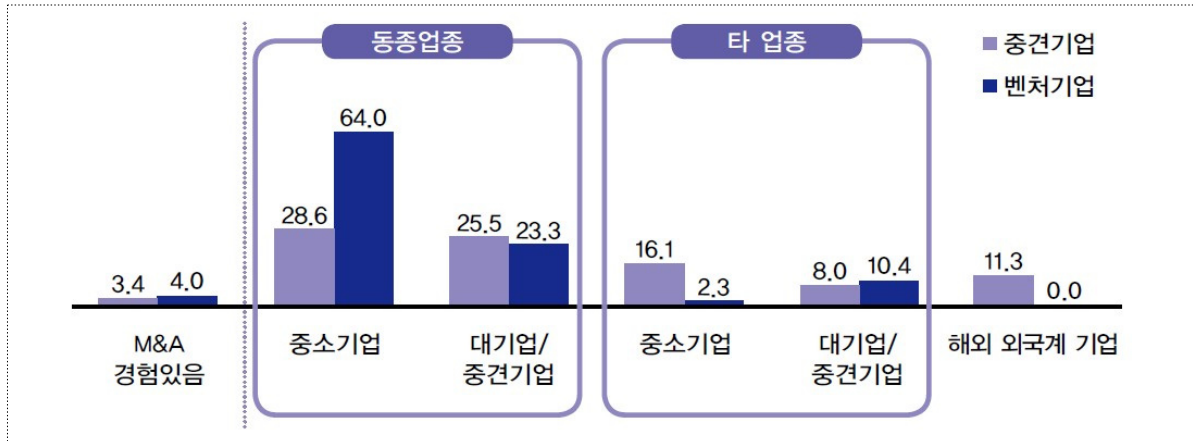


□ 인수합병(M&A)

- 2016년 중견기업의 3.4%는 M&A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경험한 인수합병의 형태에 대해서, 중견기업은 동종업종의 중소기업과의 인수합병(28.6%) 경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동종업종의 대기업/중견기업과 인수합병(25.5%), 타 업종의 중소기업과의 인수합병(16.1%) 순으로 나타남
 - 벤처기업은 동종업종의 중소기업과의 인수합병(64.0%)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동종업종의 대기업/중소기업과의 인수합병(23.3%), 타 업종의 대기업/중소기업과의 인수합병(10.4%) 순으로 나타남

[그림 2] 인수합병(M&A) 경험 유무 및 인수합병(M&A) 형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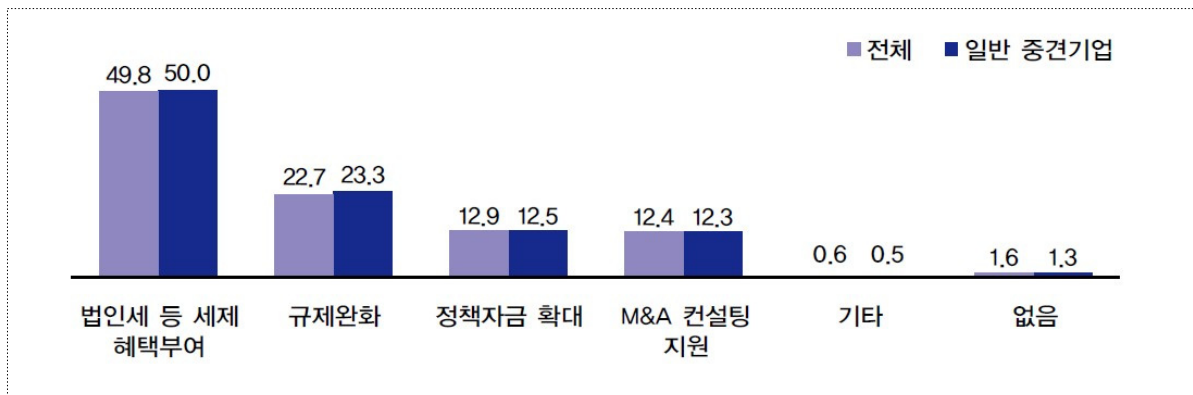


○ 중견기업의 M&A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법인세 등의 세제 혜택부여(49.8%)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규제 완화(22.7%), 정책자금 확대(12.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은 법인세 등의 세제 혜택부여(80.0%), 규제완화(23.3%), 정책자금 확대(12.5%) 순임

[그림 3] 인수합병(M&A) 활성화 필요정책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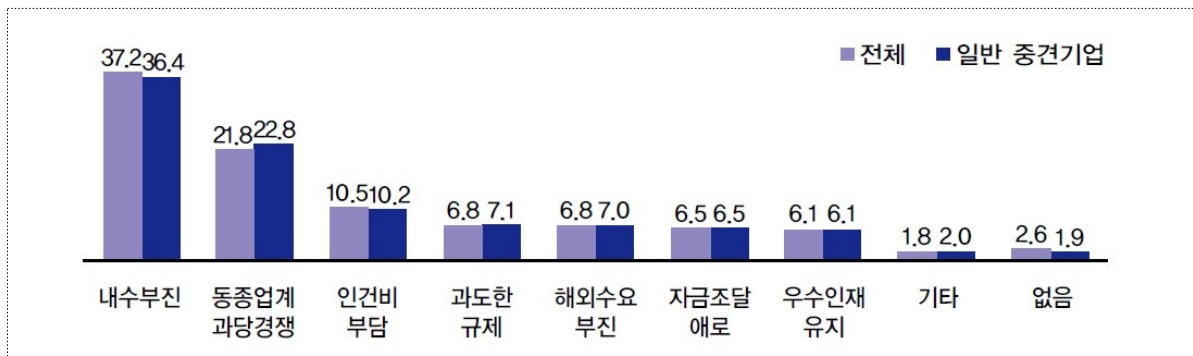


□ 경영 애로사항

- 중견기업은 가장 큰 경영상의 애로사항으로 내수 부진(37.2%)을 꼽았으며, 이어서 동종업계 과당경쟁(21.8%), 인건비 부담(10.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은 내수부진(36.4%), 동종업계 과당경쟁(22.8%), 인건비 부담(10.2%) 등의 순임

[그림 4] 경영 애로사항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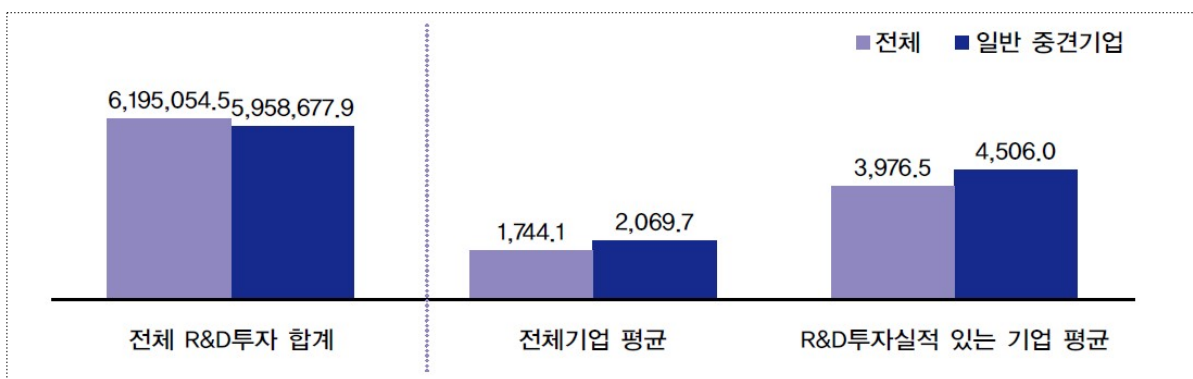
2.2. 기술 혁신

□ R&D 및 설비 투자

- 중견기업은 R&D에 총 6조 1,951억원을 투자하였으며, 기업당 평균 17.4억원을 투자하였으며, 투자경험이 있는 기업은 평균 39.8억을 투자함
- 일반 중견기업은 5조 9,587억을 투자하였으며, 기업당 평균 20.7억원을 투자하였으며, 투자경험이 있는 기업은 평균 45.1억을 투자함

[그림 5] 2016년 R&D 투자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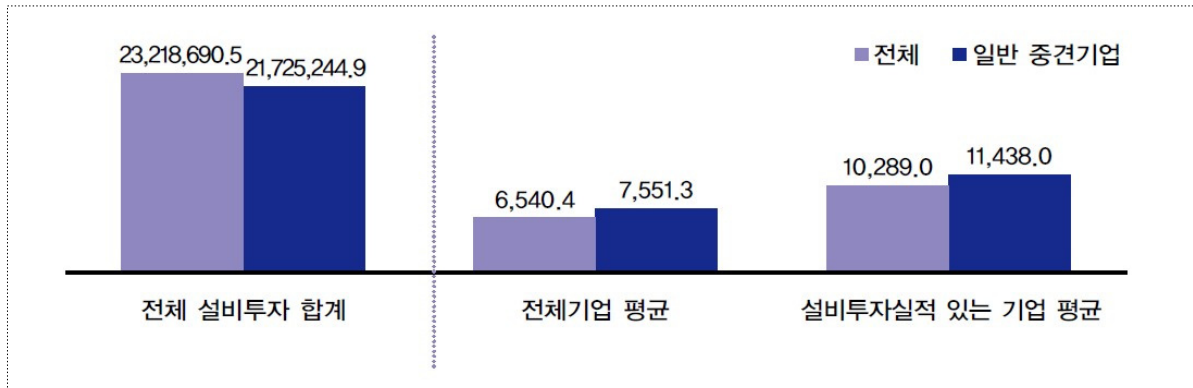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 중견기업은 설비에 총 23조 2,187억원을 투자하였으며, 기업당 평균 65.4억원을 투자하였으며, 투자경험이 있는 기업은 평균 102.9억을 투자함
- 일반 중견기업은 21조 7,252억원을 투자하였으며, 기업당 평균 75.5억원을 투자하였으며, 투자경험이 있는 기업은 평균 114.4억을 투자함

[그림 6] 2016년 설비투자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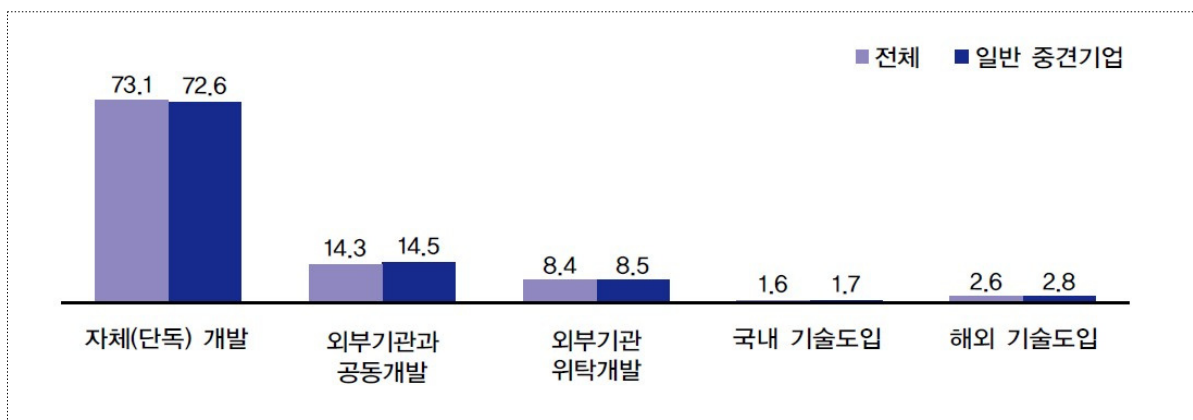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 중견기업은 기술개발 시 자체개발하는 비중이 73.1%로 가장 높고 외부기관과의 공동개발(14.3%), 외부기관 위탁개발(8.4%), 해외기술 도입(2.6%), 국내 기술도입(1.6%) 순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은 자체개발(72.6%), 외부기관과의 공동개발(14.5%), 외부기관 위탁개발(8.5%), 해외 기술도입(2.8%), 국내 기술도입(1.7%) 순임

[그림 7] 기술개발 방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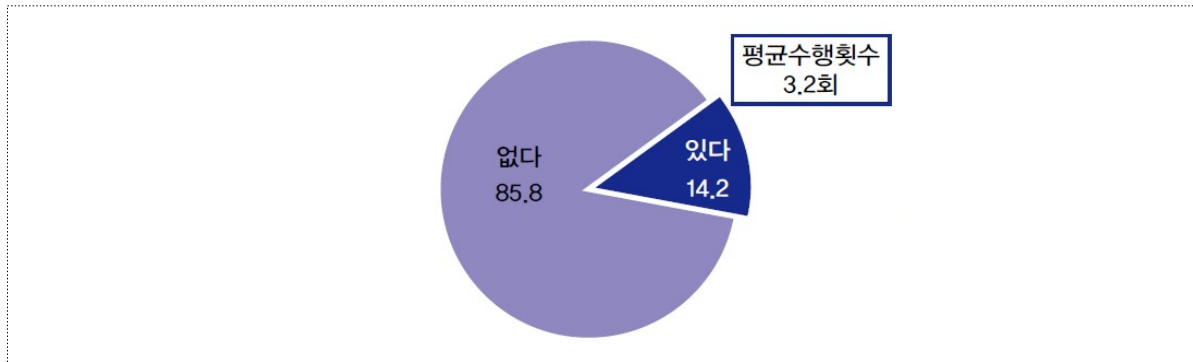


□ R&D관련 정부지원사업 수행

- 중견기업의 14.2%는 2016년에 정부지원 R&D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수행한 기업들의 평균 수행횟수는 3.2회로 나타남

[그림 8] 정부지원 R&D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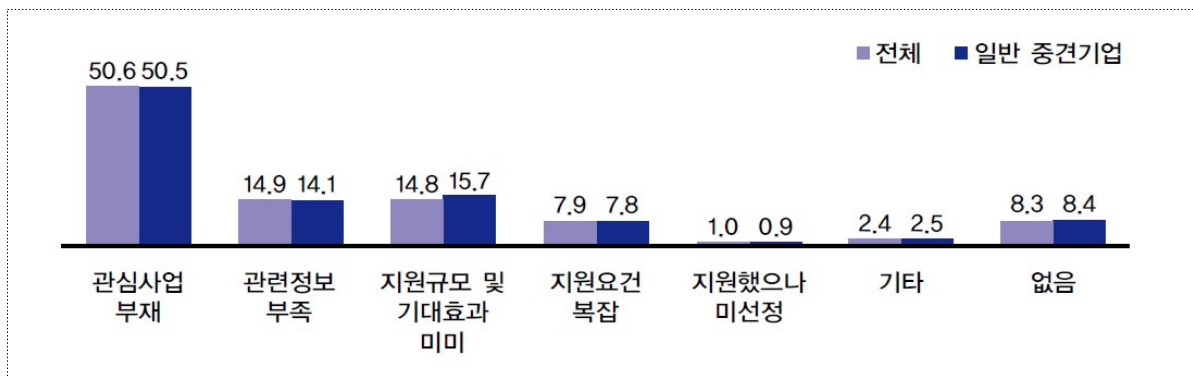
(단위: %)



- 정부지원 R&D사업 수행경험이 없는 기업은 사업 참여에 소극적인 이유에 대해 관심사업의 부재(50.6%)를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이어서 관련정보 부족(14.9%), 지원규모 및 기대효과 미미(14.8%), 지원요건 복잡(7.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은 관심사업의 부재(50.5%), 지원규모 및 기대효과 미미(15.7%), 관련정보 부족(14.1%), 지원요건 복잡(7.8%) 등의 순임

[그림 9] 정부지원 R&D사업 미참여 이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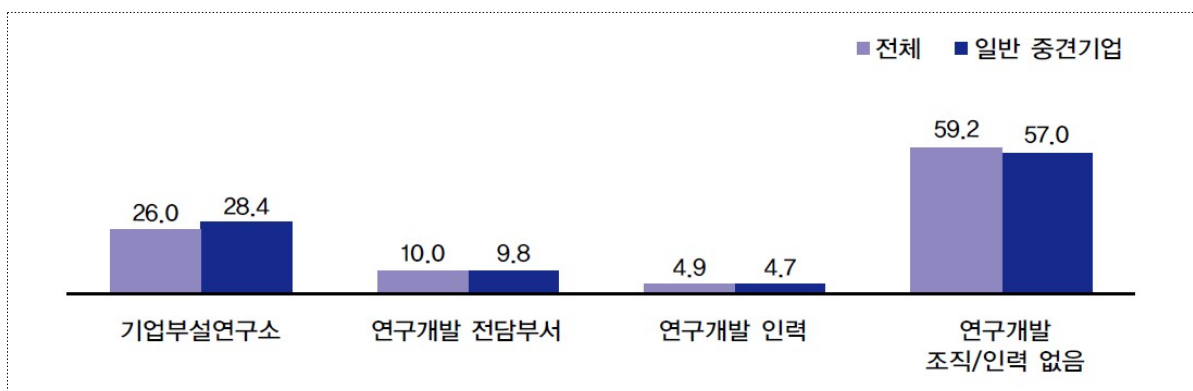
□ 연구개발 조직 형태

○ 중견기업의 26.0%는 기업부설연구소를, 10.0%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4.9%는 연구개발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개발 인력은 평균 35.6명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28.4%), 연구개발 전담부서(9.8%), 연구개발인력(4.7%) 순임

[그림 10] 연구개발 조직형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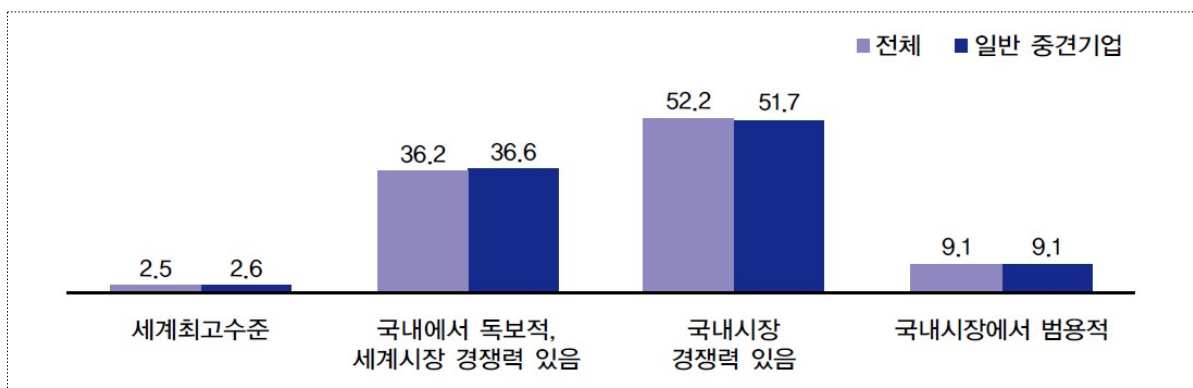
□ 주력기술 수준

○ 보유하고 있는 주력기술이 해당분야에서 독보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응답한 기업의 비중은 중견기업이 2.5%, 일반 중견기업이 2.6%로 나타남

- 주력기술 수준에 있어서 국내시장에서 독보적이며 세계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비중이 중견기업 36.2%, 일반 중견기업 36.6%로 각각 높게 나타남

[그림 11] 주력기술 수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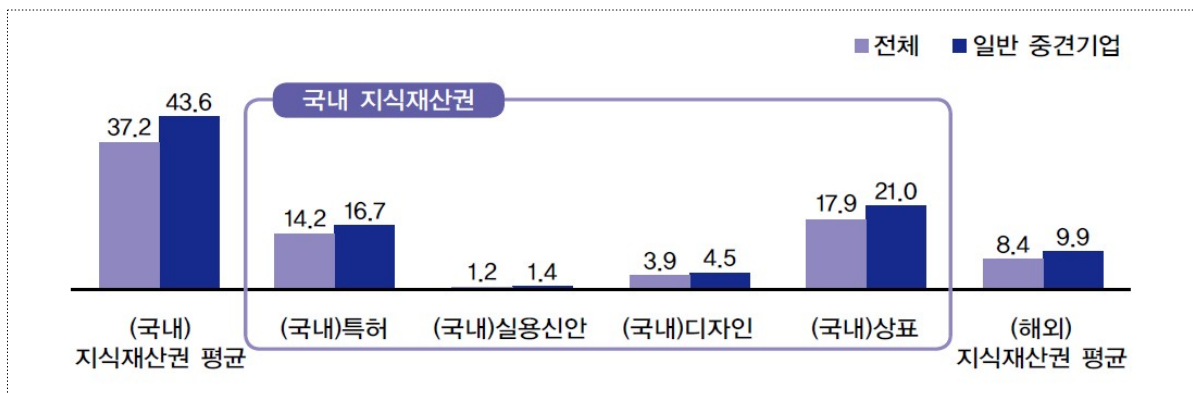


□ 지식재산권

- 중견기업당 평균 37.2건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표 17.9건, 특허 14.2건, 디자인권 3.9건, 실용신안권 1.2건 순으로 보유함
- 일반 중견기업당 평균 43.6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표 21.0건, 특허 16.7건, 디자인권 4.5건, 실용신안권 1.4건 순으로 보유함

[그림 12]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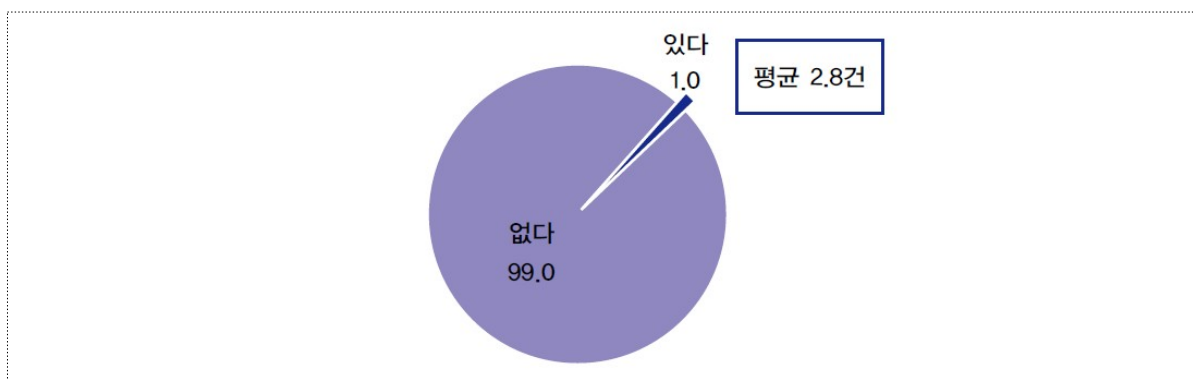
(단위: %)



- 중견기업의 1.0%는 2016년에 지식재산권을 침해당한 경험이 있으며, 침해당한 기업들이 평균 건수는 2.8건으로 나타남

[그림 13] 지식재산권 침해 경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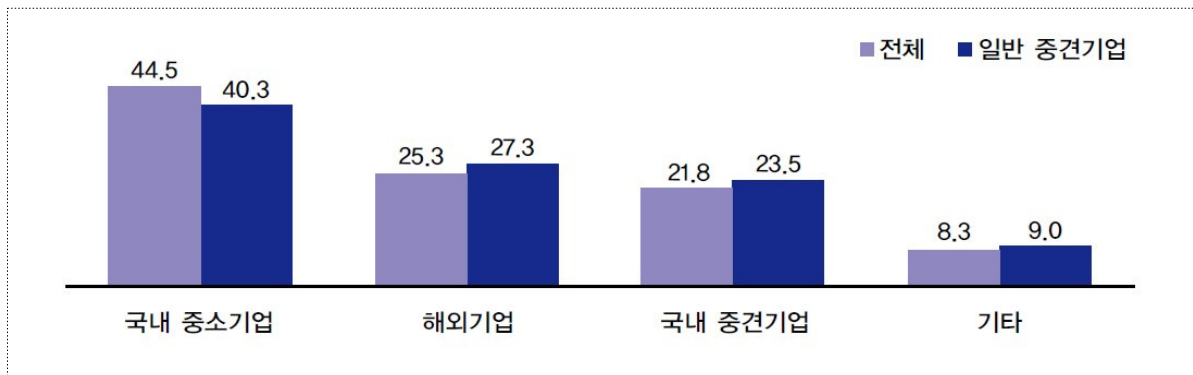


○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주체에 대해, 중견기업은 국내 중소기업(44.5%)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해외기업(25.3%), 국내 중견기업(21.8%), 기타(8.3%) 순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은 국내 중소기업(40.3%), 해외기업(27.3%), 국내 중견기업(23.5%), 기타(9.0%) 순임

[그림 14] 지식재산권 침해한 주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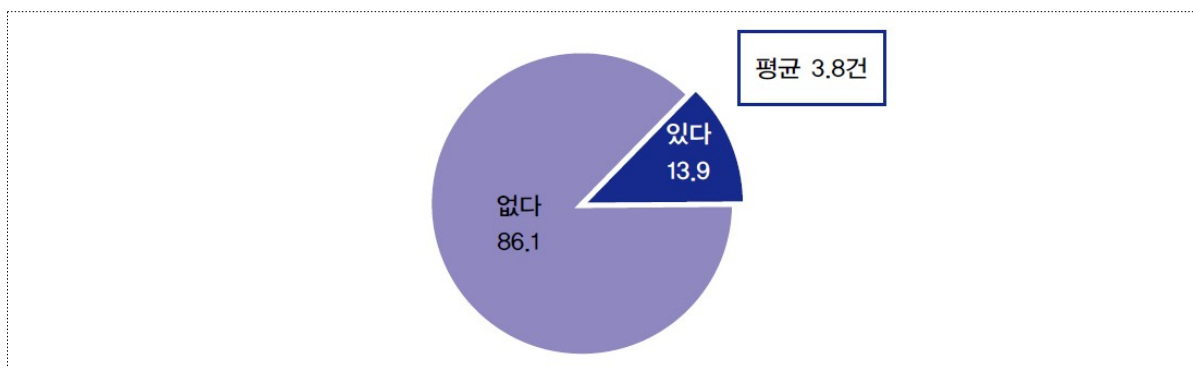


□ 산학협력 활동

○ 중견기업의 13.9%는 2016년에 대학, 연구소 등과 산학협력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활동한 기업들의 평균 건수는 3.8건으로 나타남

[그림 15] 산학협력 활동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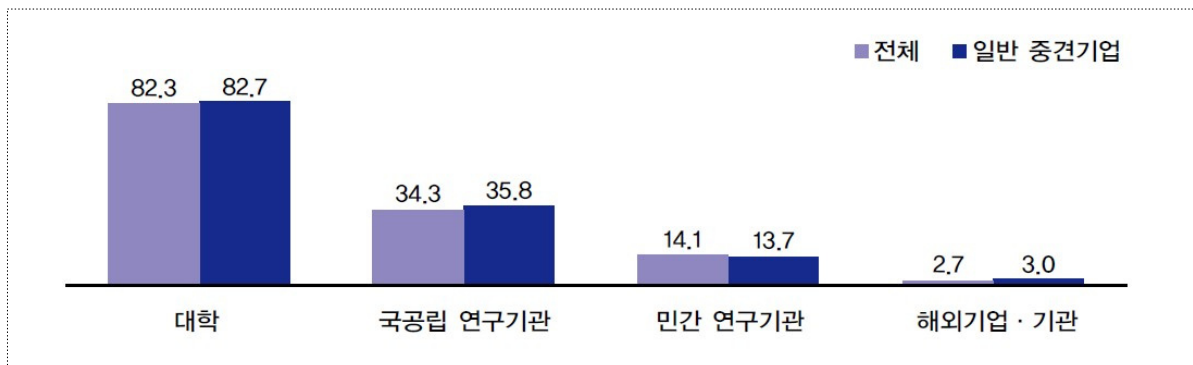
(단위: %)



- 중견기업의 산학협력기관으로는 대학(82.3%)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국공립 연구기관(34.3%), 민간 연구기관(14.1%), 해외기업·기관(2.7%) 순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은 대학(82.7%), 국공립 연구기관(35.8%), 민간 연구기관(13.7%), 해외기업·기관(3.0%) 순임

[그림 16] 산학협력기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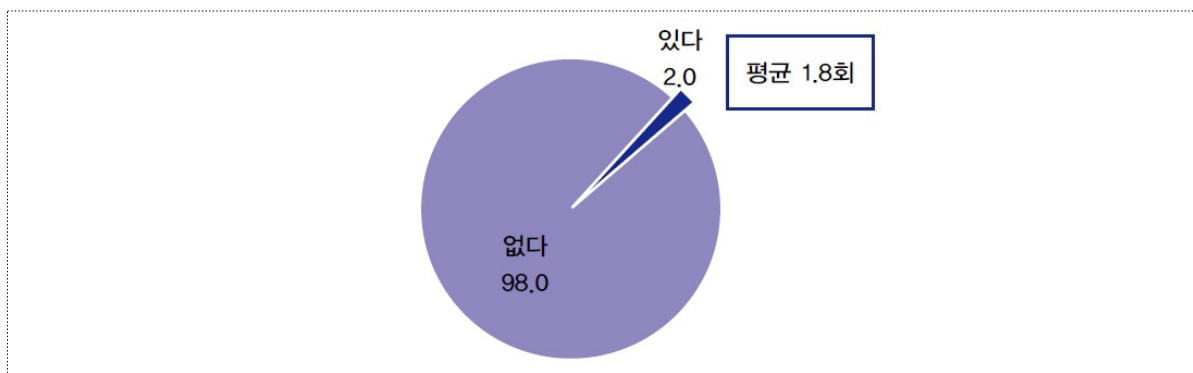


□ 기술이전

- 중견기업의 2.0%는 2016년에 대학, 연구소 등으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은 적이 있으며, 평균 횟수는 1.8회로 나타남

[그림 17] 기술이전 받은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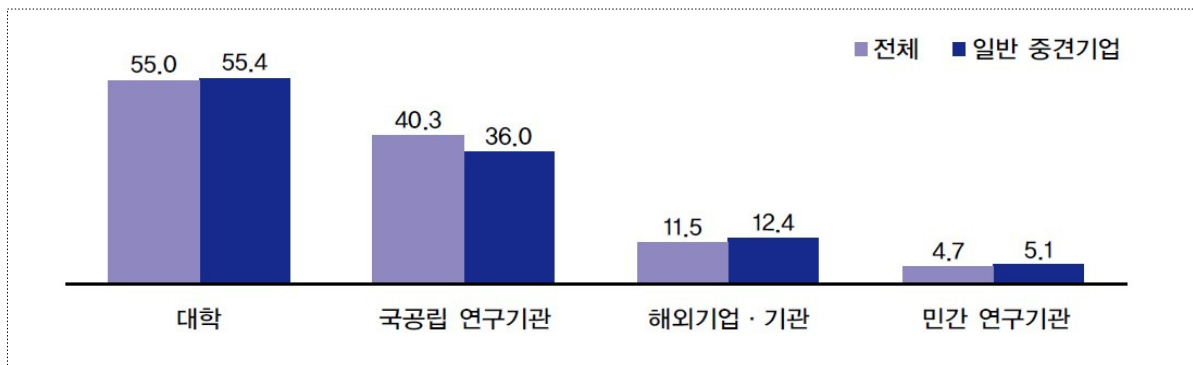
(단위: %)



- 중견기업의 기술이전처로는 대학(55.0%)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국공립 연구기관(40.3%), 해외기업·기관(11.5%), 민간 연구기관(4.7%) 순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은 대학(55.4%), 국공립 연구기관(36.0%), 해외기업·기관(12.4%), 민간 연구기관(5.1%) 순임

[그림 18] 기술이전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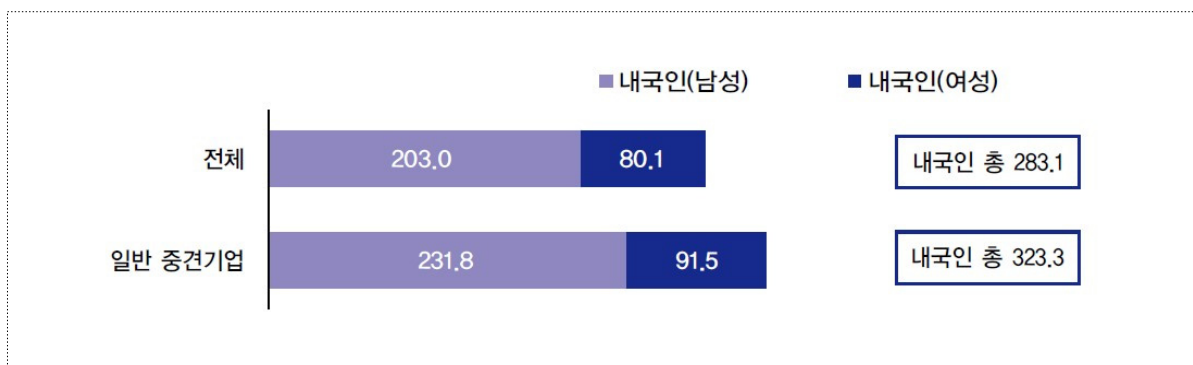
2.3. 인재확보

□ 인력 현황

- 중견기업의 평균 내국인 근로자 수는 283.1명, 남성 203.0명, 여성 80.1명임
- 일반 중견기업의 평균 내국인 근로자 수는 323.3명, 남성 231.8명, 여성 91.5명임

[그림 19] 중견기업 인력 현황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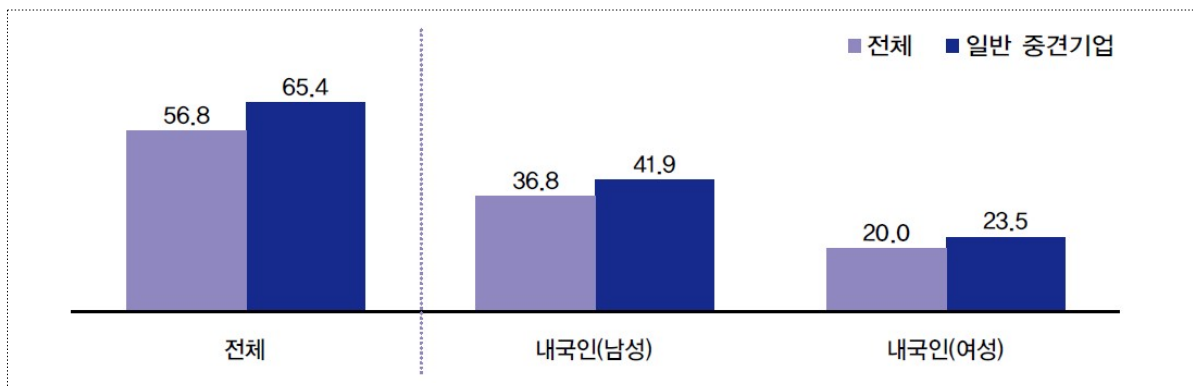


□ 신규 채용

- 중견기업은 2016년 총 200,102명을 채용하였으며, 평균 56.8명(남성 36.8명, 여성 20.0명)을 채용한 것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은 총 186,924명을 채용하였으며, 평균 65.4명(남성 41.9명, 여성 23.5명)을 채용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20] 2016년 채용실적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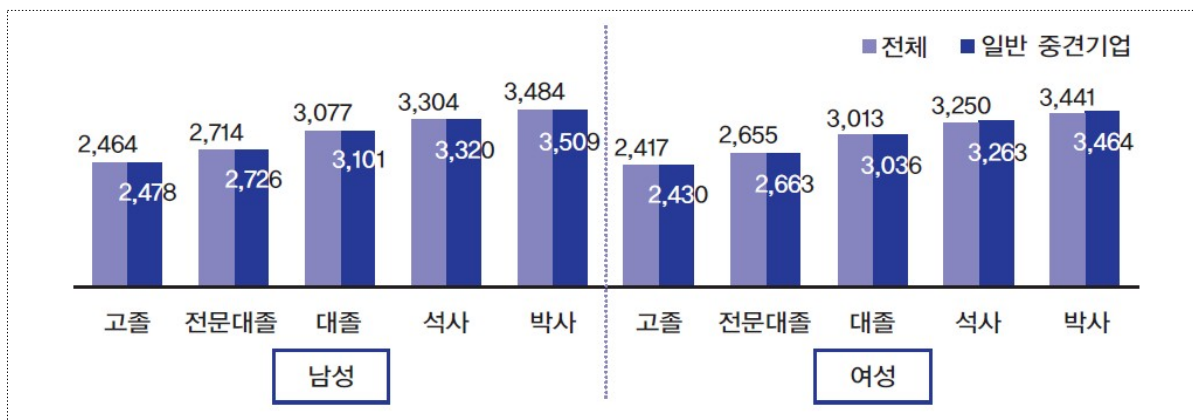


□ 신입사원 초임

- 신입사원 초임 수준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임

[그림 21] 신입사원 초임

(단위: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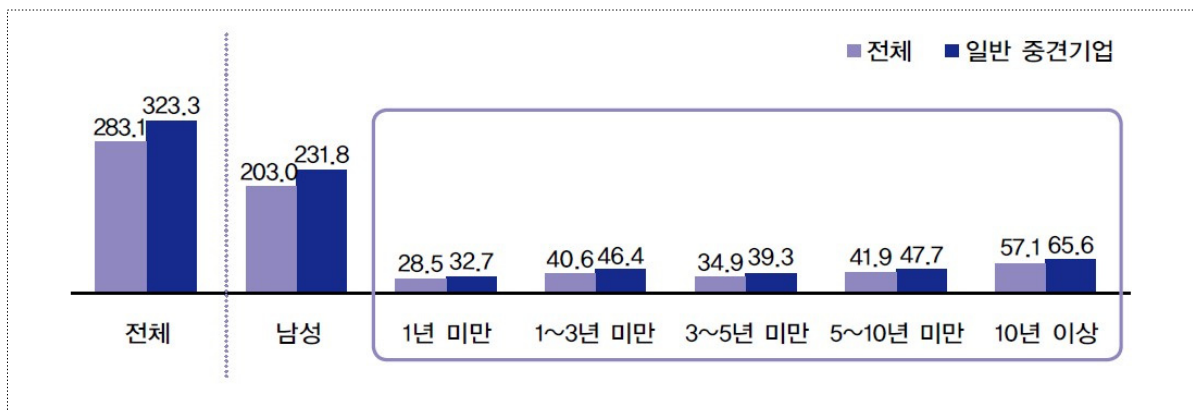


□ 재직연수

- 중견기업 남성직원의 재직연수별 분포는 10년 이상 57.1명, 5~10년 미만 41.9명, 1~3년 미만 40.6명, 3~5년 미만 34.9명, 1년 미만 28.5명 순임
- 일반 중견기업 남성직원의 재직연수별 분포는 10년 이상 65.6명, 5~10년 미만 47.7명, 1~3년 미만 46.4명, 3~5년 미만 39.3명, 1년 미만 32.7명 순임

[그림 22] 재직연수별 현황 - 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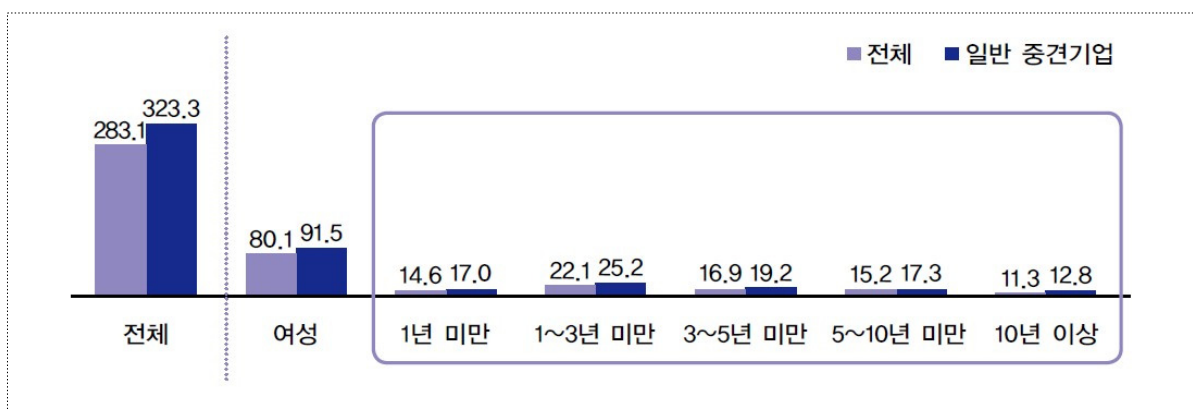
(단위: 명)



- 중견기업 여성직원의 재직연수별 분포는 1~3년 미만 22.1명, 3~5년 미만 16.9명, 5~10년 미만 15.2명, 1년 미만 14.6명, 10년 이상 11.3명 순임
- 일반 중견기업 여성직원의 재직연수별 분포는 1~3년 미만 25.2명, 3~5년 미만 19.2명, 5~10년 미만 17.3명, 1년 미만 17.0명, 10년 이상 12.8명 순임

[그림 23] 재직연수별 현황 - 여성

(단위: 명)



□ 이직

- 중견기업의 이직자는 평균 58.8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 38.3명, 여성 20.5명으로 전체 근로자수 대비 이직자 비율은 20.6%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의 이직자는 평균 68.2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 44.0명, 여성 24.2명으로 전체 근로자수 대비 이직자 비율은 20.8%로 나타남

[그림 24] 이직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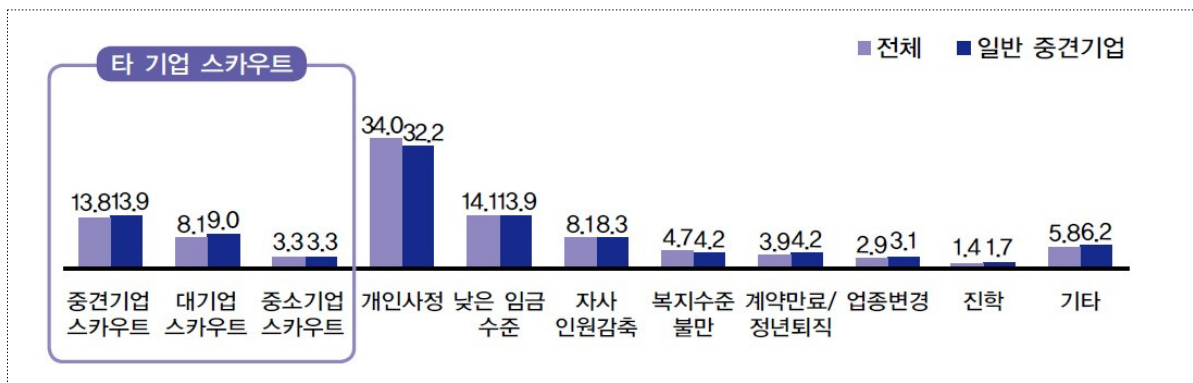
(단위: 명)



- 중견기업 이직자의 주요 이직원인은 개인사정(34.0%), 타 기업 스카우트 25.2%(중견기업스카우트(13.8%), 대기업 스카우트(8.1%), 중소기업 스카우트(3.3%)), 낮은 임금수준(14.1%), 자사 인원감축(8.1%) 순임
- 일반 중견기업 이직자의 주요 이직원인은 개인사정(32.2%), 타 기업 스카우트 26.2%(중견기업 스카우트(13.9%), 대기업 스카우트(9.0%), 중소기업 스카우트(3.3%)), 낮은 임금수준(13.9%), 자사 인원감축(8.3%) 순임

[그림 25] 주요 이직원인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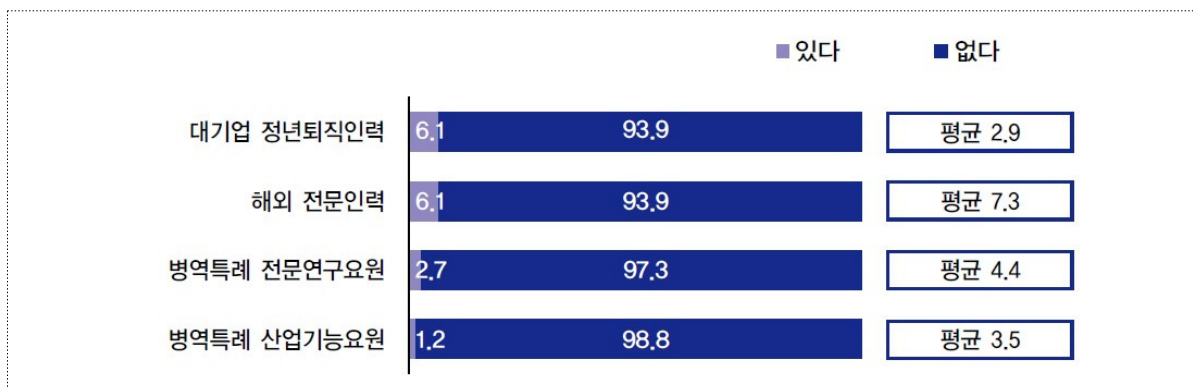


□ 유형별 보유인력

- 중견기업의 6.1%는 대기업 정년퇴직인력을, 6.1%는 해외 전문인력을, 2.7%는 전문연구요원(병역특례), 1.2%는 산업기능요원(병역특례)을 보유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정년퇴직인력 평균 2.9명, 해외 전문인력 평균 7.3명, 전문연구요원(병역특례) 평균 4.4명, 산업기능요원(병역특례) 평균 3.5명을 보유함

[그림 26] 유형별 보유인력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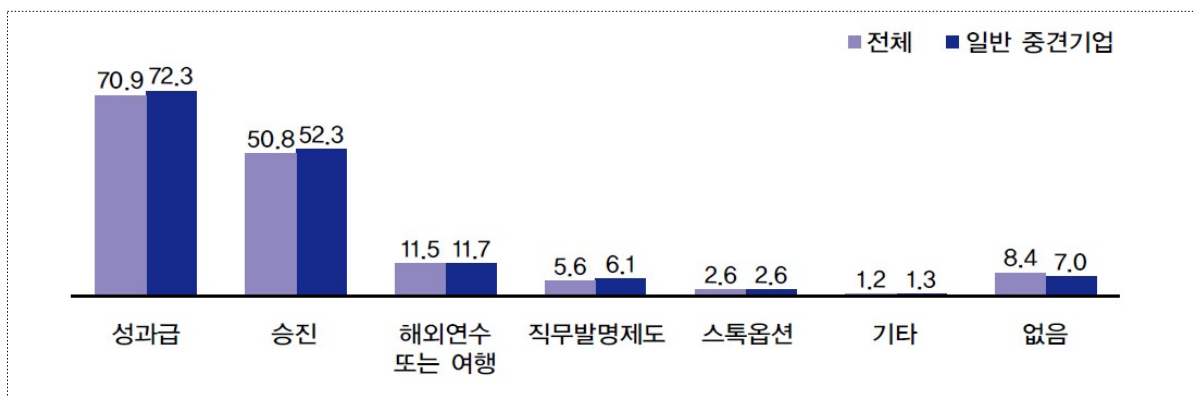


□ 성과보상 제도

- 중견기업의 성과보상 제도는 성과급(70.9%)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승진(50.8%), 해외연수 또는 여행(11.5%), 직무 발명제도(5.6%) 순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은 성과급(72.3%), 승진(52.3%), 해외연수 또는 여행(11.7%), 직무 발명제도(6.1%) 순임

[그림 27] 성과보상 제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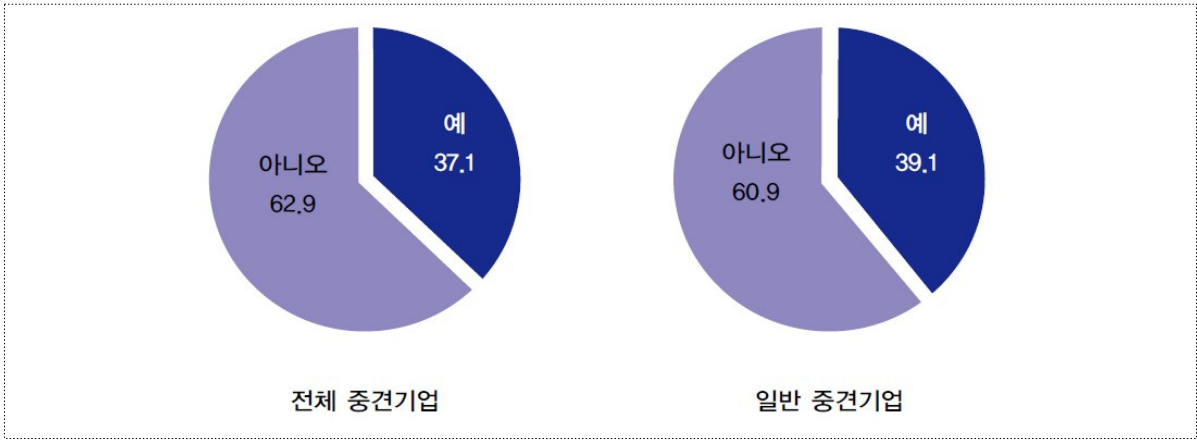
2.4. 국제화 촉진

□ 수출

- 중견기업 전체 중 해외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은 37.1%이며, 일반 중견기업은 39.1%가 해외 수출 실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28] 해외 수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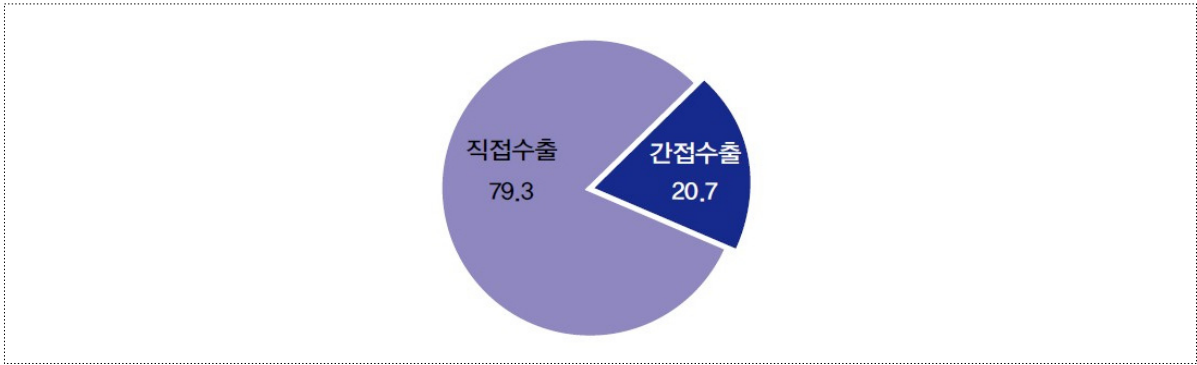


□ 직/간접수출 비중

- 전체 수출 중견기업 중 직접수출을 하는 기업은 79.3%, 간접수출을 하는 기업은 20.7%로 직접수출 비중이 간접수출 비중의 3배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29] 직/간접수출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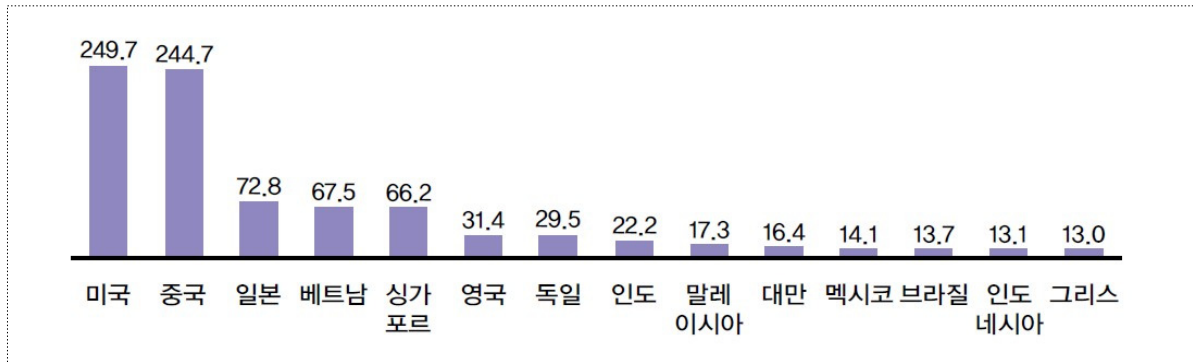


□ 주요 수출지역 및 금액

- 해외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들의 전체 수출금액은 1,063억불이며, 수출한 국가는 미국(249.7억불), 중국(244.7억불), 일본(72.8억불), 베트남(67.5억불) 순으로 나타남

[그림 30] 주요수출 국가별 수출금액(상위 14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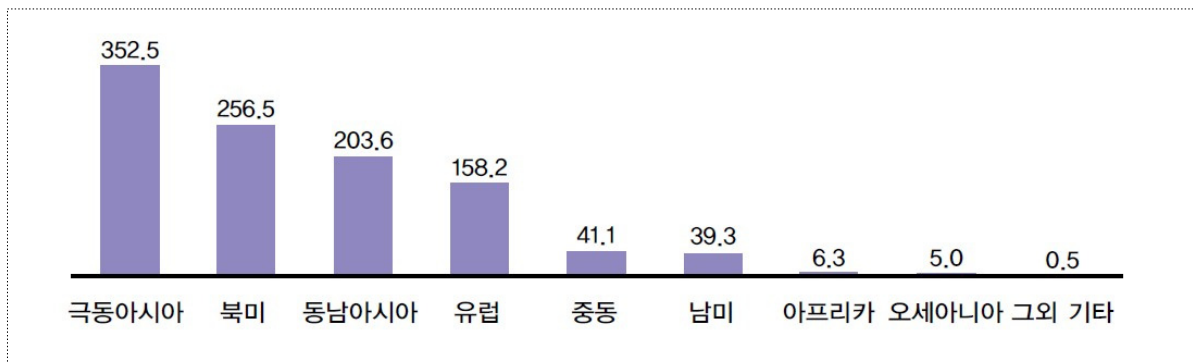
(단위: 억불)



- 해외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들의 대륙별 수출금액은 극동아시아(352.5억불), 북미(256.5억불), 동남아시아(203.6억불), 유럽(158.2억불) 순으로 나타남

[그림 31] 주요수출 대륙별 수출금액

(단위: 억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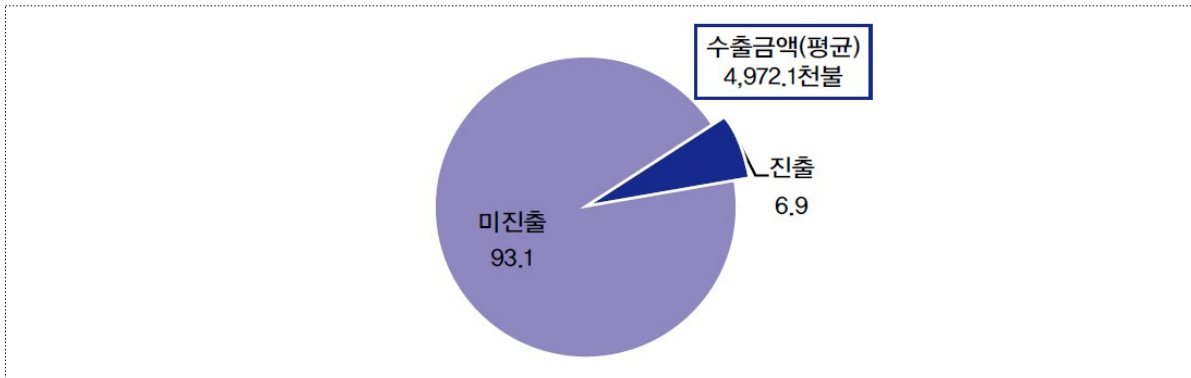


□ 해외 신규 진출

- 2016년 해외로 신규 진출한 기업은 6.9%이며, 이들의 평균 수출금액은 4,972.1천불로 나타남

[그림 32] 신규 진출 국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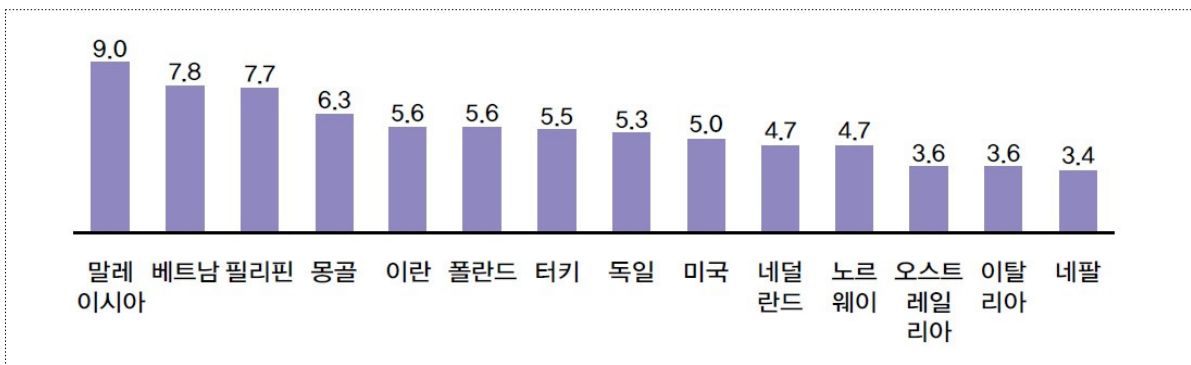


□ 신규 진출 지역

- 해외 수출기업의 신규 진출지역으로는 말레이시아가 9.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베트남(7.8%), 필리핀(7.7%), 몽골(6.3%), 이란(5.6%), 폴란드(5.6%)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33] 신규 진출 국가(상위 14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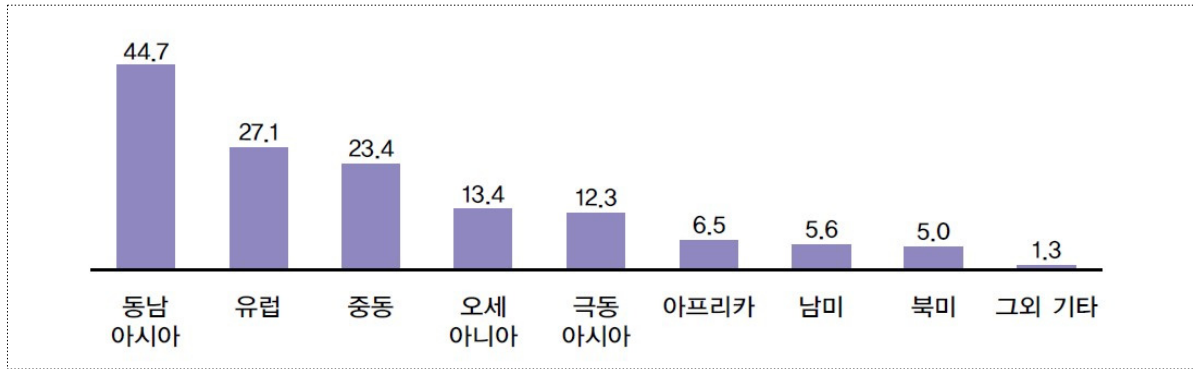
(단위: %)



- 해외 수출기업의 신규 진출 대륙으로는 동남아시아가 44.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유럽(27.1%), 중동(23.4%), 오세아니아(13.4%), 극동아시아(12.3%), 아프리카(6.5%)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34] 신규 진출 대륙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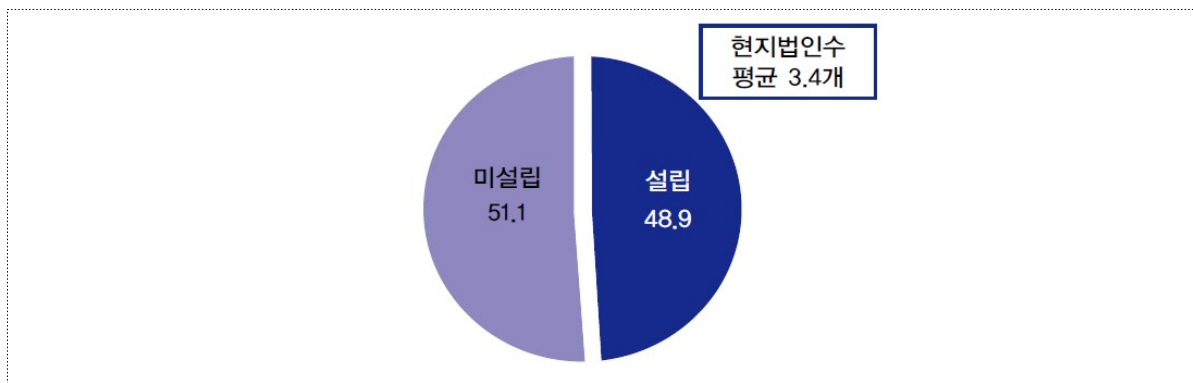


□ 현지법인 설립

- 수출기업 중 해외에 현지법인이 있는 기업은 48.9%이며, 기업당 평균 3.4개의 현지법인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5] 현지법인 설립여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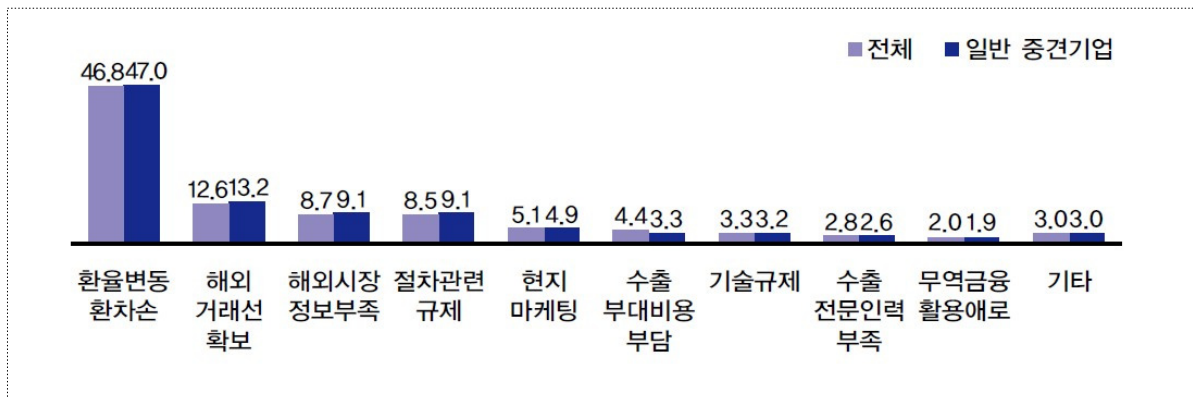


□ 수출시 애로사항

- 수출 중견기업의 수출시 애로사항으로는 환율변동 환차손(46.8%)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으며, 이어서 해외 거래선 확보(12.6%), 해외시장 정보부족(8.7%), 절차관련 규제(8.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은 환율변동 환차손(47.0%), 해외 거래선 확보(13.2%), 해외시장 정보부족(9.1%), 절차관련 규제(9.1%) 등의 순임

[그림 36] 수출시 애로사항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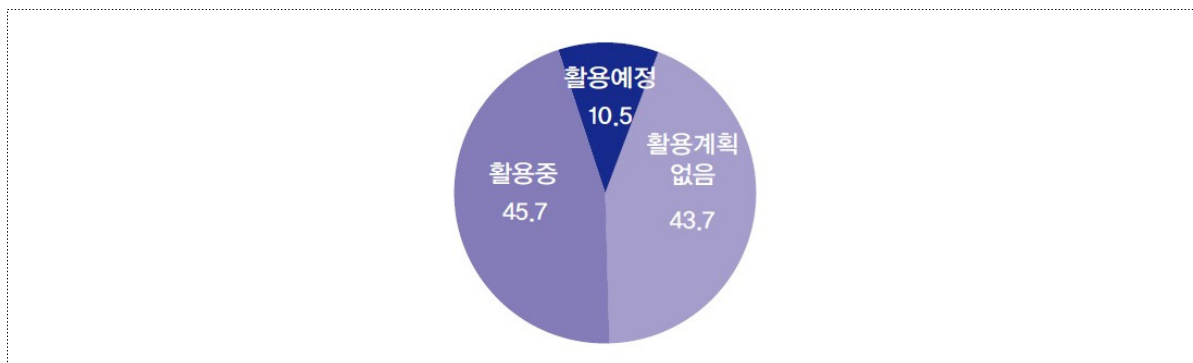


□ FTA 활용 여부

- 수출 중견기업 중 FTA를 이미 활용하고 있는 기업은 45.7%, 활용예정 기업은 10.5%, 활용예정인 없는 기업은 43.7%로 나타남

[그림 37] FTA 활용 여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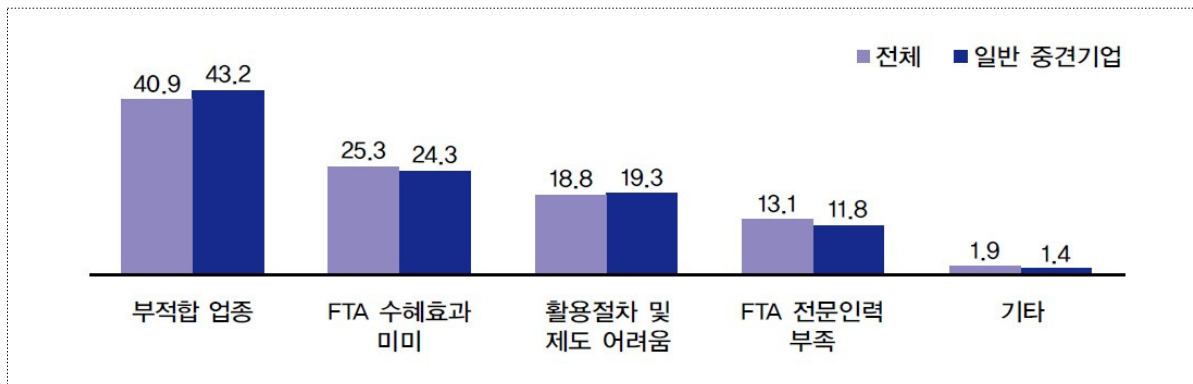


□ FTA 미활용 사유

- 수출 중견기업이 FTA를 활용하지 않는 사유는 부적합 업종(40.9%)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FTA 수혜효과 미미(25.3%), 활용절차 및 제도 어려움(18.8%) 순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은 부적합 업종(43.2%), FTA 수혜효과 미미(24.3%), 활용절차 및 제도 어려움(19.3%) 순임

[그림 38] FTA 미활용 사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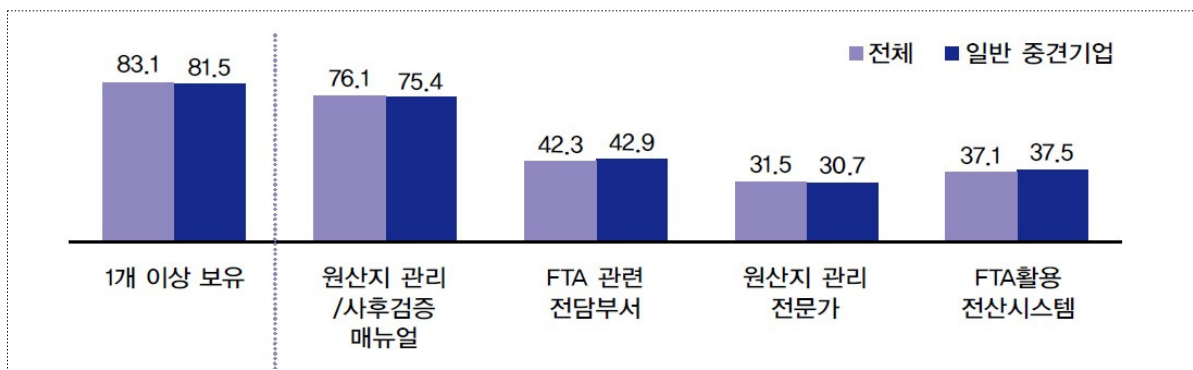


□ FTA 활용 내부시스템 구축

- FTA를 활용하는 중견기업의 83.1%는 1개 이상의 FTA 관련 내부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원산지 관리/사후검증 매뉴얼(76.1%), FTA관련 전산부서(42.3%) 등의 순으로 구축비율이 높게 나타남
- FTA를 활용하는 일반 중견기업의 81.5%가 1개 이상의 FTA 내부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원산지 관리/사후검증 매뉴얼(75.4%), FTA관련 전담부서(42.9%) 등의 순으로 구축비율이 높게 나타남

[그림 39] FTA활용 내부시스템 구축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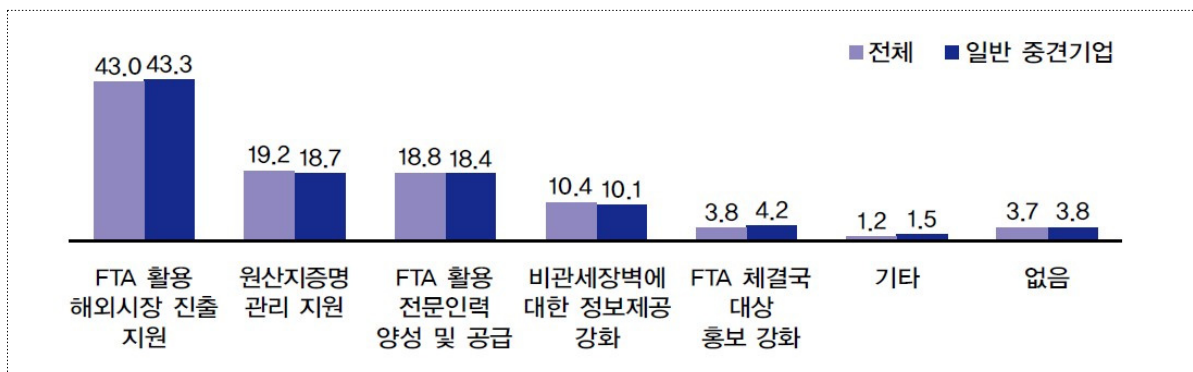


□ FTA 활용을 위한 정부지원

- FTA 활용을 위한 정부지원으로는 FTA 활용 해외시장 진출 지원(43.0%)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원산지증명 관리 지원(19.2%), FTA 활용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18.8%), 비관세장벽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10.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은 FTA 활용을 위한 정부지원으로 FTA 활용 해외시장 진출지원(43.3%), 원산지 증명 관리 지원(18.7%), FTA 활용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18.4%) 등의 순으로 응답함

[그림 40] FTA활용을 위한 정부지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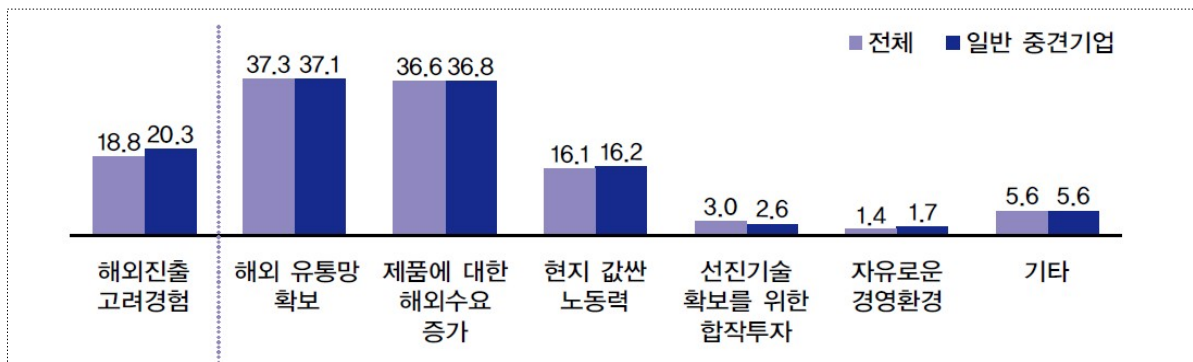


□ 해외진출 고려 여부

- 해외진출을 고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해외 유통망 확보(37.3%)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제품에 대한 해외수요 증가(36.6%), 현지 값싼 노동력(16.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의 해외진출을 고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해외 유통망 확보(37.1%), 제품에 대한 해외수요 증가(36.8%), 현지 값싼 노동력(16.2%) 등의 순임

[그림 41] 해외진출 고려 여부 및 이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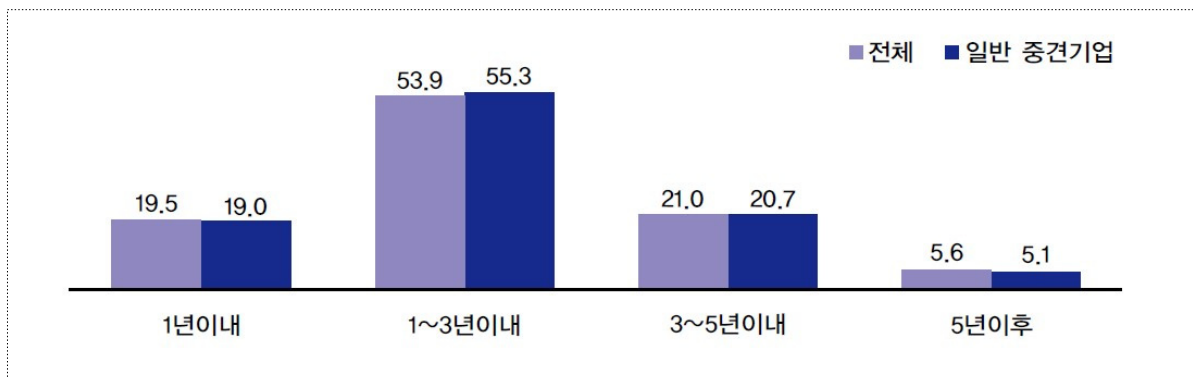


□ 신규 해외진출 계획시점

- 신규 진출 계획이 있는 중견기업의 신규 해외진출 계획시점은 1~3년 이내가 53.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3~5년 이내(21.0%), 1년 이내(19.5%), 5년 이후(5.6%) 순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의 경우 1~3년 이내(55.3%), 3~5년 이내(20.7%), 1년 이내(19.0%), 5년 이후(5.1%) 순임

[그림 42] 신규 해외진출 계획시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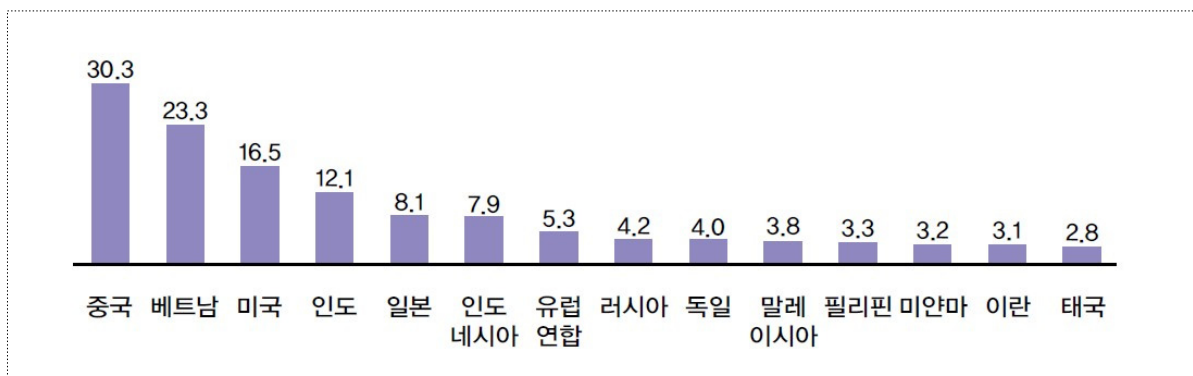


□ 희망하는 신규 진출 국가

- 향후 신규 해외진출 계획이 있는 중견기업이 진출하고자 하는 국가로는 중국이 30.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베트남(23.3%), 미국(16.5%), 인도(12.1%), 일본(8.1%)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43] 희망하는 신규 진출 국가 1+2+3순위(상위 14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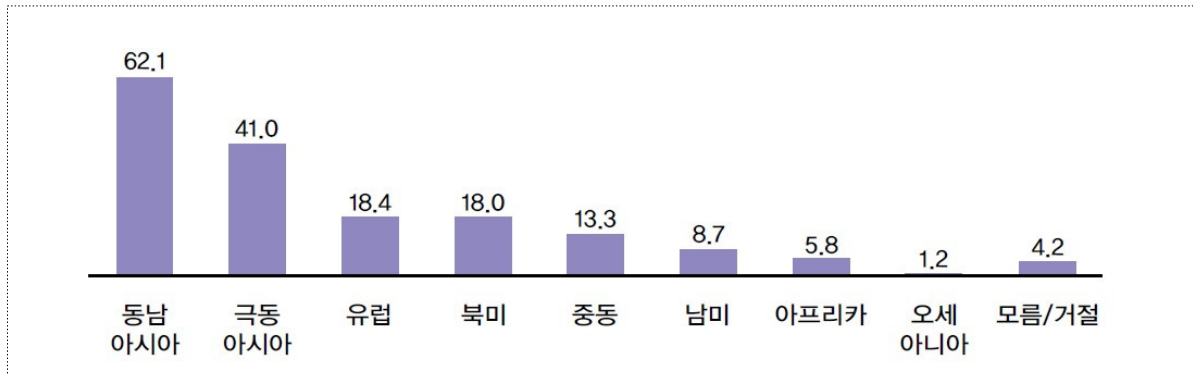
(단위: %)



- 향후 신규 해외진출 계획이 있는 중견기업이 진출하고자 하는 대륙으로는 동남아시아가 62.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극동아시아(41.0%), 유럽(18.4%), 북미(18.0%), 중동(13.3%)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44] 희망하는 신규 진출 대륙 1+2+3순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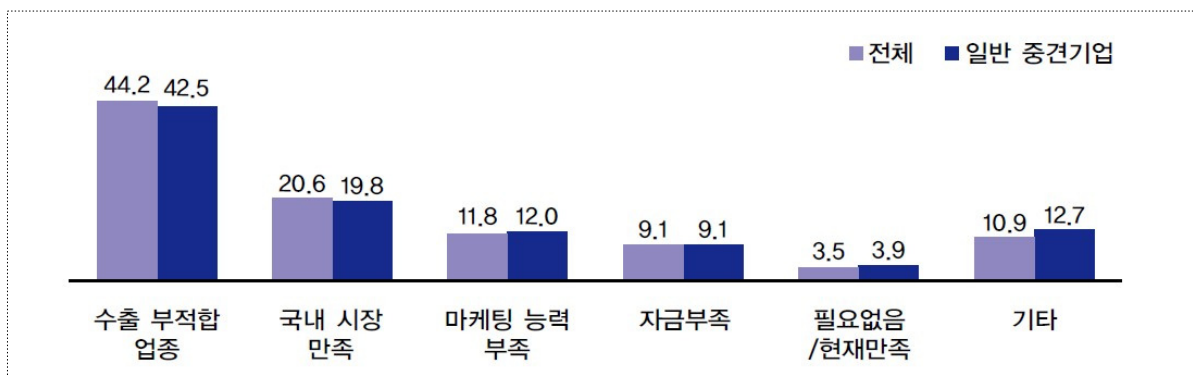
□ 신규 해외진출 미고려 이유

- 신규 해외진출을 고려하지 않는 중견기업은 주요 사유로 수출 부적합 업종(44.2%)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국내 시장 만족(20.6%), 마케팅 능력 부족(11.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은 수출 부적합 업종(42.5%)이 가장 높았으며, 국내 시장 만족(19.8%), 마케팅 능력 부족(12.0%) 등의 순임

[그림 45] 신규 해외진출 미고려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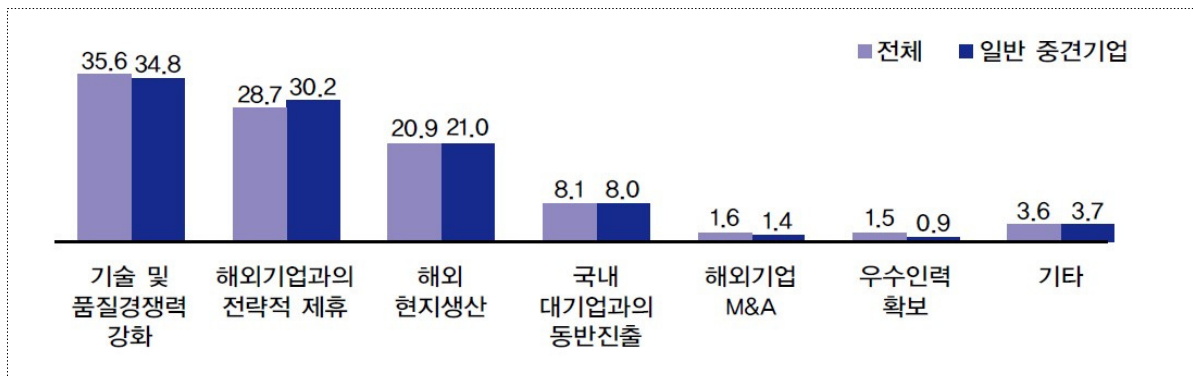
(단위: %)



- 신규 진출 계획이 있는 중견기업은 해외수출(진출)시 전략으로 기술 및 품질경쟁력 강화(35.6%)를 가장 우선으로 하며, 그 다음 해외기업과의 전략적 제휴(28.7%), 해외 현지생산(20.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의 해외수출(진출)시 전략은 기술 및 품질경쟁력 강화(34.8%), 해외기업과의 전략적 제휴(30.2%), 해외 현지생산(21.0%), 국내 대기업과의 동반 진출(8.0%) 등의 순임

[그림 46] 해외 수출(진출)시 전략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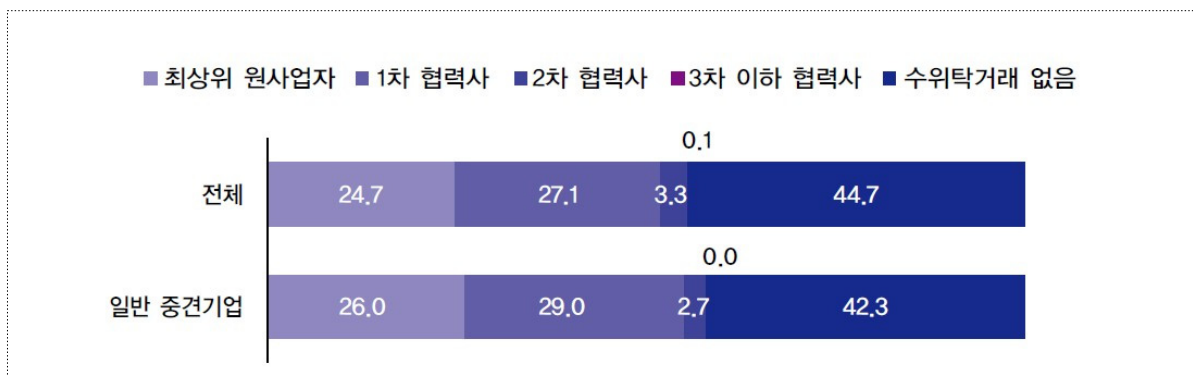
2.5. 수.위탁거래 및 동반성장

□ 수.위탁 거래 단계

- 중견기업의 55.3%가 수.위탁거래를 하고 있으며, 일반 중견기업 역시 57.7%가 수 위탁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단계별로는 1차 협력사인 경우가 27.1%로 가장 많았고 최상위 원사업자인 경우가 24.7%, 2차 협력사인 경우가 3.3%, 3차 이하 협력사인 경우가 0.1% 순임

[그림 47] 수.위탁거래 수행기업의 단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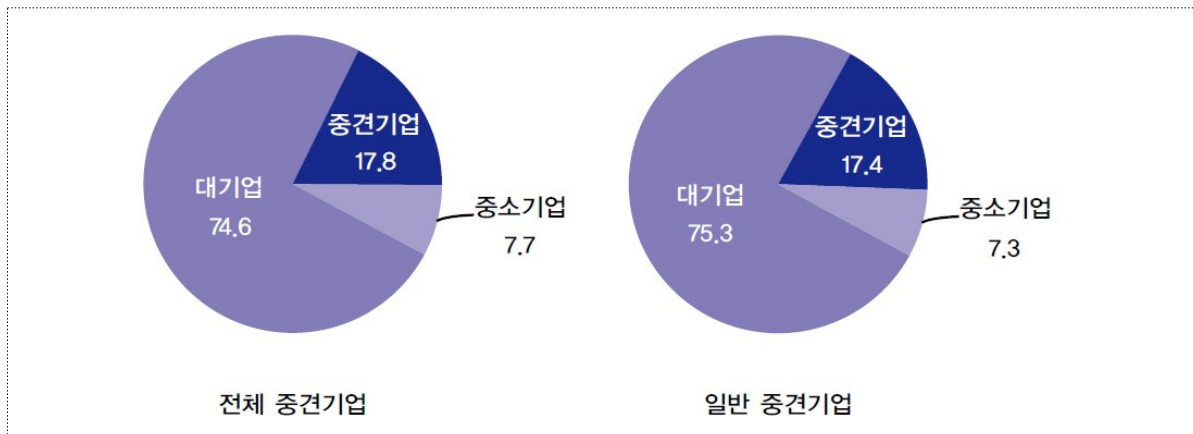


□ 위탁거래 현황

- 수탁 중견기업의 거래대상별 매출 비중을 보면 74.6%가 대기업과 거래를 하고 있으며, 17.8%는 중견기업, 7.7%는 중소기업과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은 전체 1,442억 17백만원 중 75.3%(평균:1,086억 67백만원)가 대기업과 거래를 하고 있으며, 17.4%(평균: 250억 72백만원)는 중견기업, 7.3%(평균: 104억 76백만원)는 중소기업과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48] 위탁기업 거래 비중

(단위: %, 하도급 관계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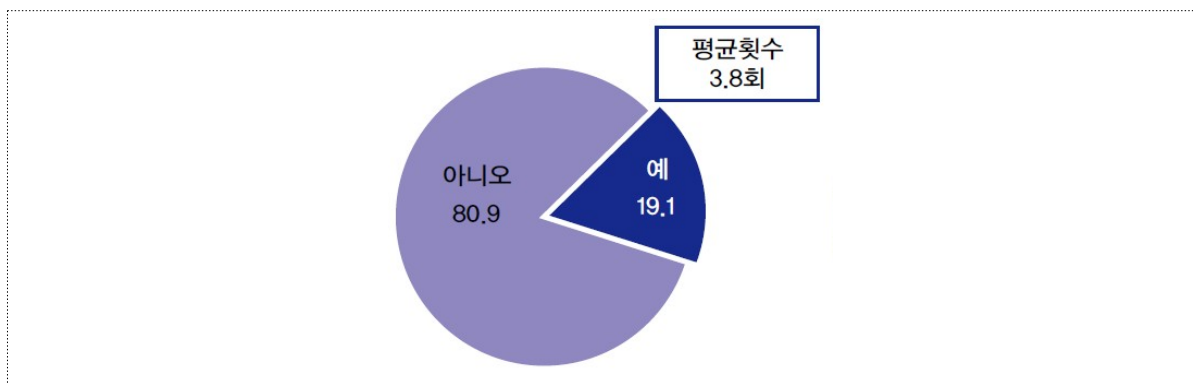


□ 납품단가 인하

- 수탁 중견기업의 19.1%는 납품단가 인하요구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험 횟수는 평균 3.8회로 나타남

[그림 49] 납품단가 인하요구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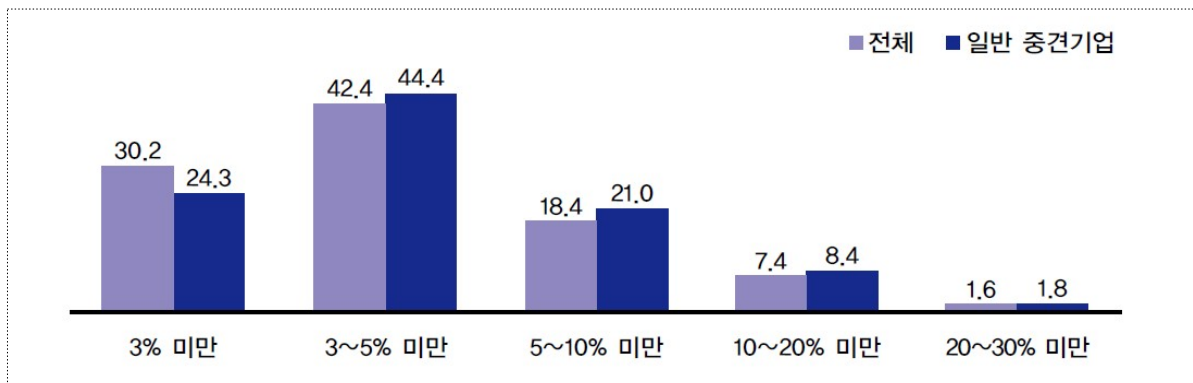
(단위: %)



- 중견기업의 평균 단가인하율은 3~5% 미만(42.4%)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3% 미만(30.2%), 5~10% 미만(18.4%) 순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의 평균 단가인하율은 3~5% 미만(44.4%), 3% 미만(24.3%), 5~10% 미만(21.0%) 순임

[그림 50] 평균 단가인하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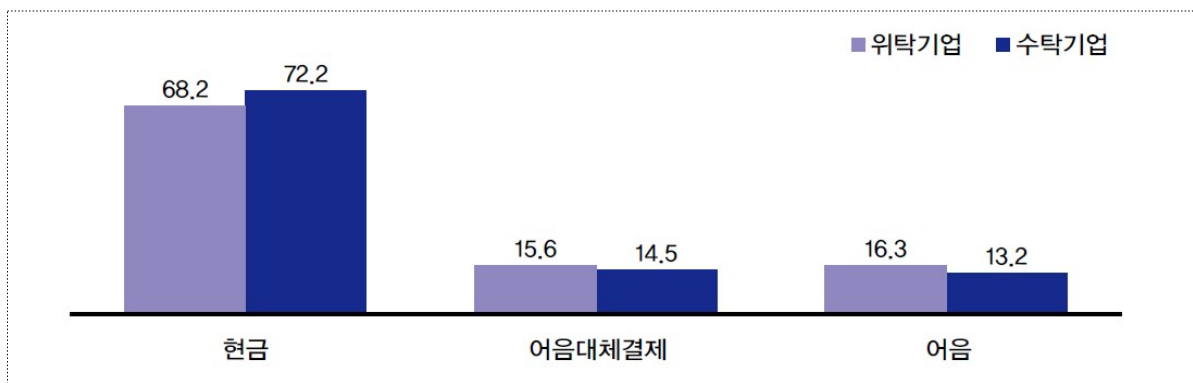


□ 수.위탁거래 결제기간/수단

- 중견기업의 위탁기업 결제 수단 비중은 현금(68.2%)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어음(16.3%), 어음대체결제(15.6%) 순으로 나타남
- 수탁기업의 결제 수단 비중은 현금(72.2%), 어음대체결제(14.5%), 어음(13.2%) 순임

[그림 51] 수.위탁거래 결제수단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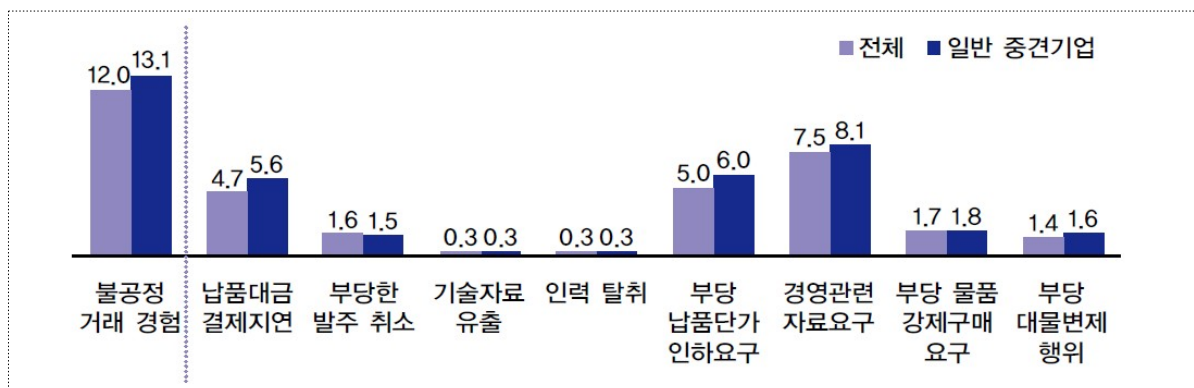


□ 불공정 거래

- 수탁 중견기업 중 12.0%는 불공정거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험유형은 경영관련 자료요구(7.5%), 부당 납품단가 인하요구(5.0%), 납품대금 결제지연(4.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의 13.1%가 불공정거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험유형은 경영관련 자료요구(8.1%), 부당 납품단가 인하요구(6.0%), 납품대금 결제지연(5.6%)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52] 불공정거래 경험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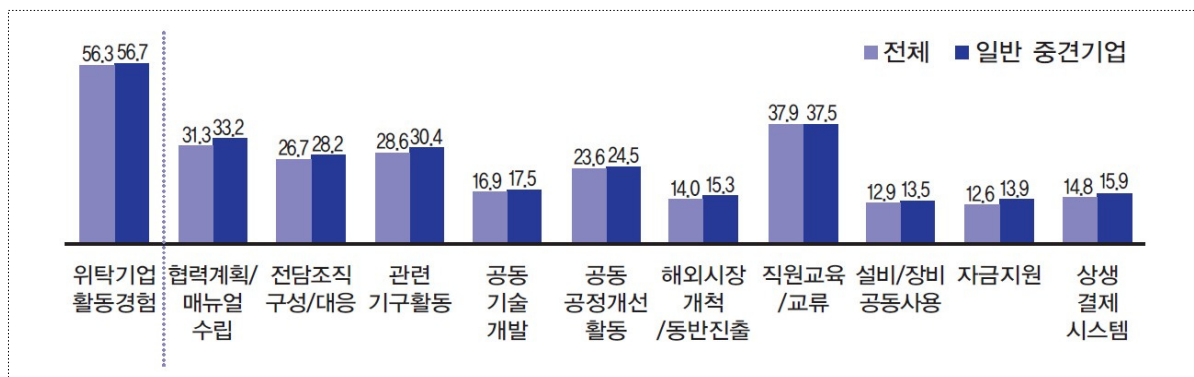


□ 위탁기업과의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활동

- 수탁 중견기업의 56.3%는 위탁기업(모기업)과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직원교육/교류(37.9%), 협력계획 및 매뉴얼 수립(31.3%), 관련 기구활동(28.6%) 등이 높게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의 56.7%는 위탁기업(모기업)과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원교육/교류(37.5%), 협력계획/매뉴얼 수립(33.2%), 관련 기구활동(30.4%) 등이 높게 나타남

[그림 53] 위탁기업과의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활동 수행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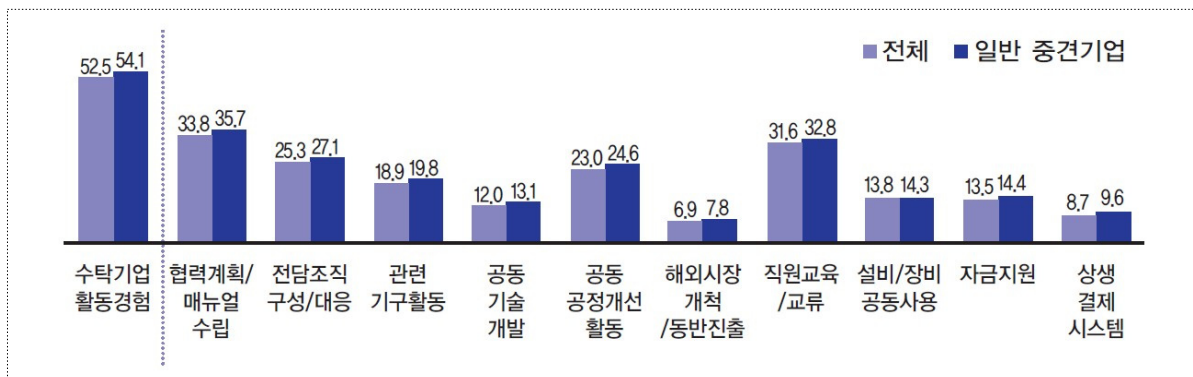


□ 수탁기업과의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활동

- 위탁 중견기업의 52.5%는 수탁기업(협력사)과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협력계획 및 매뉴얼 수립(33.8%), 직원교육/교류(31.6%), 전담조직 구성/대응(25.3%) 등이 높게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의 54.1%는 수탁기업(협력사)과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협력계획/매뉴얼 수립(35.7%), 직원교육/교류(32.8%), 전담조직 구성/대응(27.1%) 등이 높게 나타남

[그림 54] 수탁기업과의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활동 수행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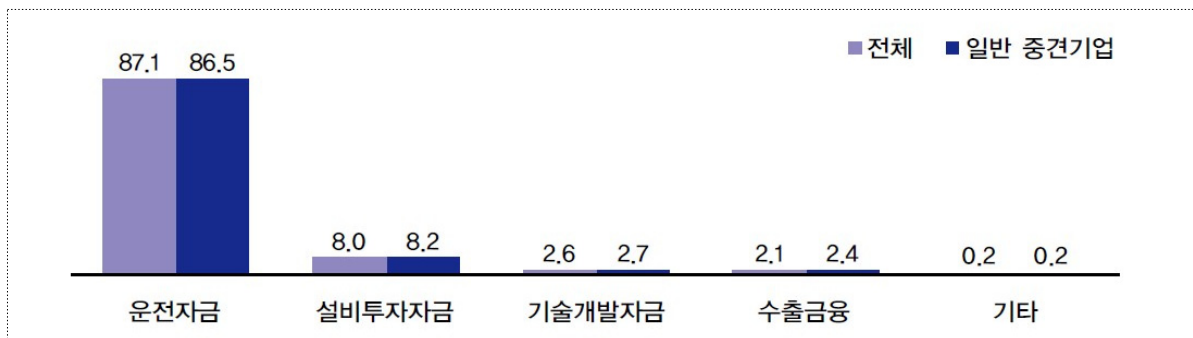
2.6. 금융 및 자금조달

□ 자금조달 용도

- 중견기업의 자금조달 용도는 운전자금(87.1%)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설비투자자금(8.0%), 기술개발자금(2.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의 자금조달 용도는 운전자금(86.5%), 설비투자자금(8.2%), 기술개발자금(2.7%) 등의 순임

[그림 55] 자금조달 용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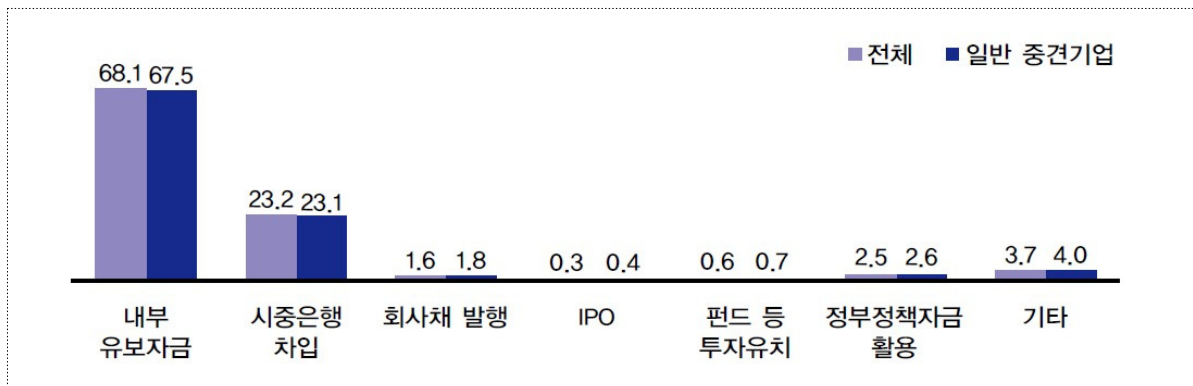


□ 자금조달원

- 중견기업의 자금조달원은 내부 유보자금(68.1%)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시중은행 차입(23.2%), 정부정책자금 활용(2.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의 자금조달원은 내부 유보자금(67.5%), 시중은행 차입(23.1%), 정부정책자금 활용(2.6%) 등의 순임

[그림 56] 자금조달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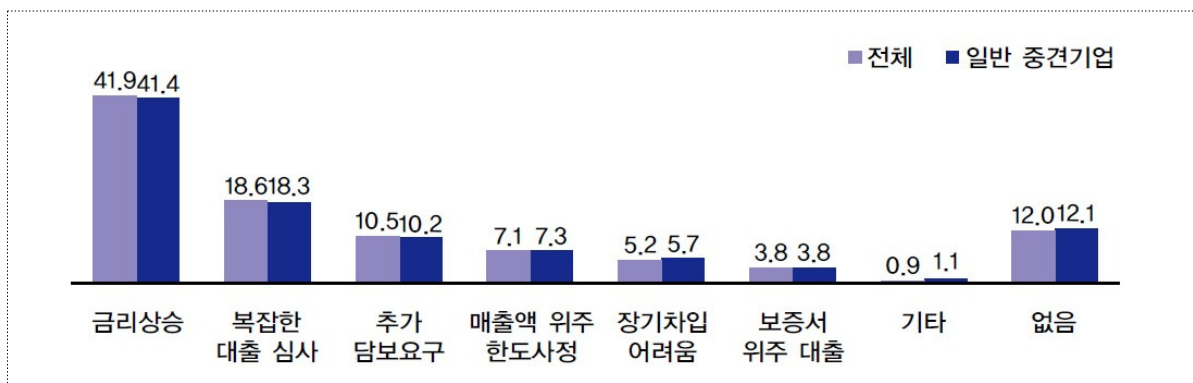


□ 외부 자금조달 애로사항

- 중견기업의 외부자금조달 애로사항으로는 금리상승(41.9%)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복잡한 대출심사(18.6%), 추가 담보요구(10.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의 외부자금조달 애로사항은 금리상승(41.4%), 복잡한 대출심사(18.3%), 추가 담보요구(10.2%) 등의 순임

[그림 57] 외부 자금조달 애로사항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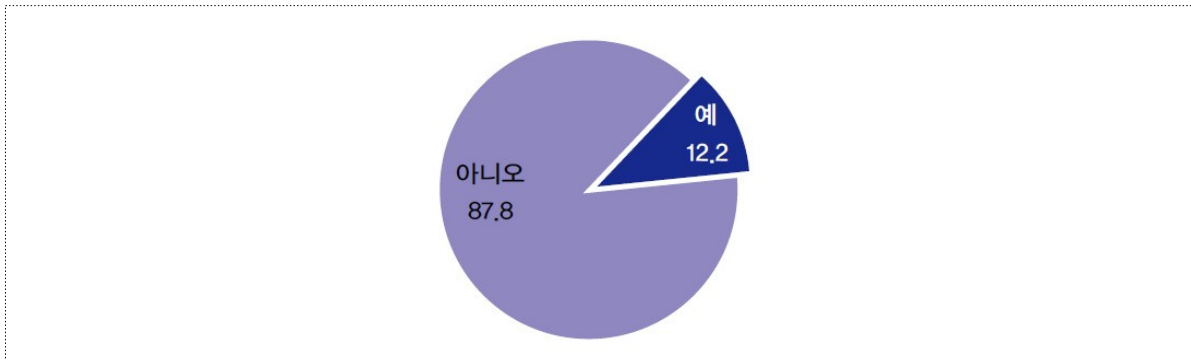


□ 정책자금 활용 여부

○ 중견기업의 12.2%는 정책자금을 활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58] 정책자금 활용 여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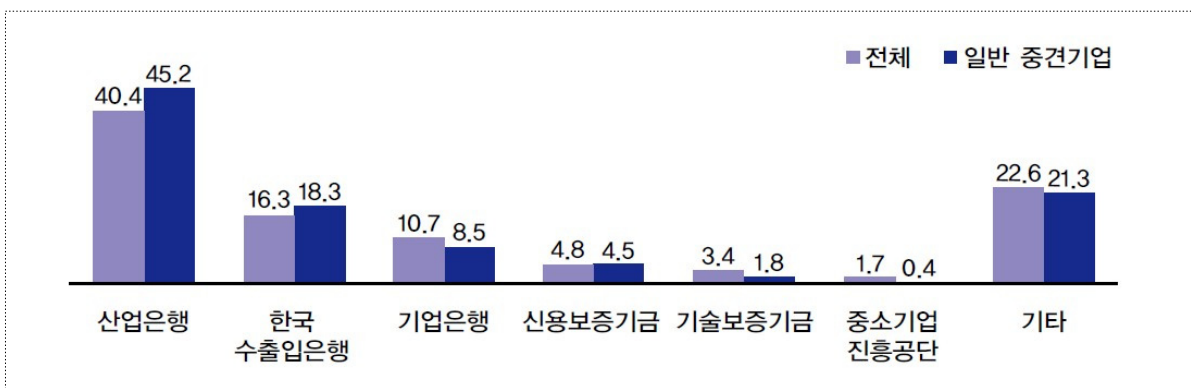
□ 기관별 정책자금 활용 비중

○ 중견기업의 기관별 정책자금 활용 비중은 산업은행(40.4%)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한국수출입은행(16.3%), 기업은행(10.7%) 순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의 정책자금 기관별 출처는 산업은행(45.2%), 한국수출입은행(18.3%), 신용보증기금(8.5%) 순임

[그림 59] 기관별 정책자금 활용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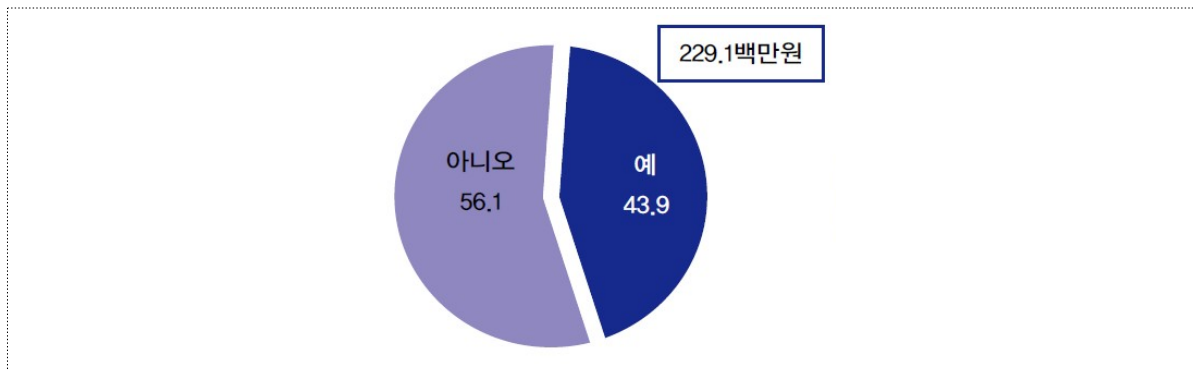
2.7. 기업의 사회적 책임

□ 사회공헌활동

- 중견기업의 43.9%는 사회공헌활동 수행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60] 사회공헌활동 수행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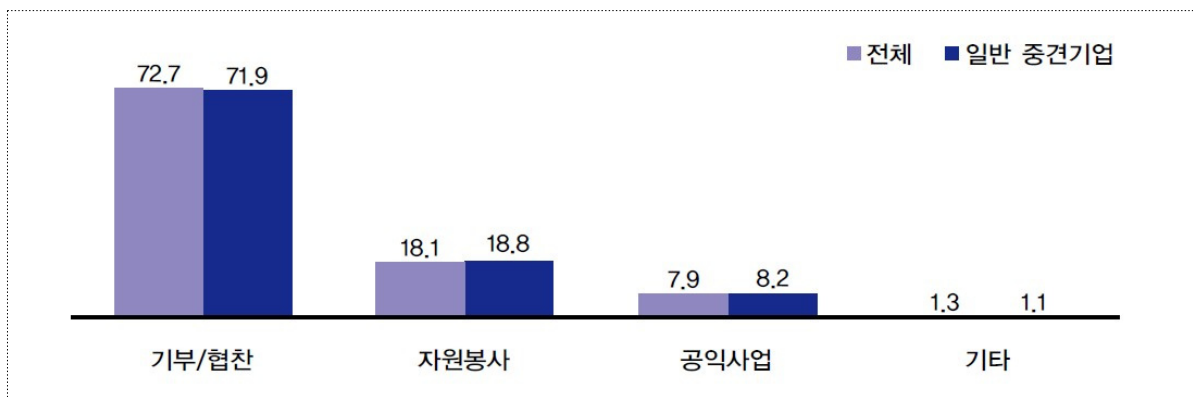
(단위: %)



- 중견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수행 유형으로는 기부/협찬(72.7%)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자원봉사(18.1%), 공익사업(7.9%) 순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수행 유형은 기부/협찬(71.9%), 자원봉사(18.8%), 공익사업(8.2%) 순임

[그림 61] 사회공헌활동 수행 유형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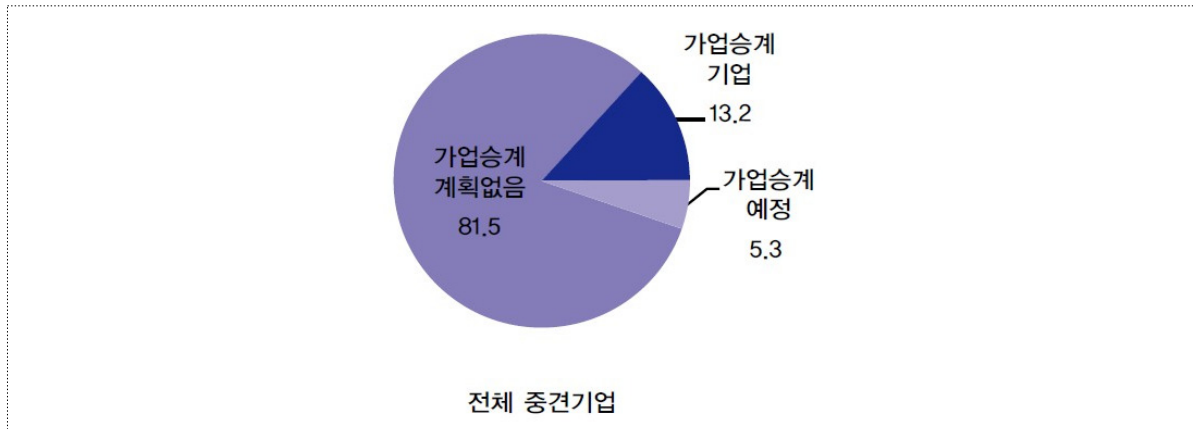


□ 가업승계

- 중견기업의 81.5%는 가업승계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3.2%는 가업승계 기업, 5.3%는 가업승계 예정 기업인 것으로 나타남

[그림 62] 가업승계 도입 여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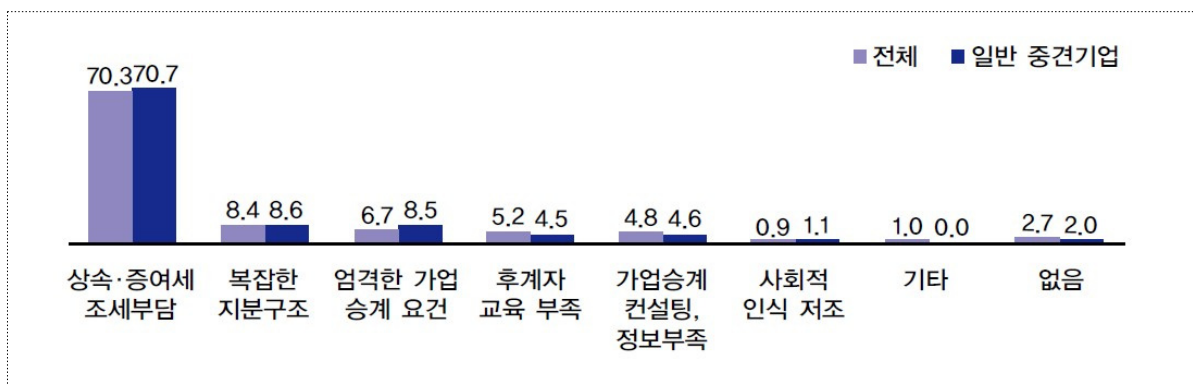


- 중견기업의 가업승계 애로사항으로는 상속·증여세 조세부담(70.3%)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복잡한 지분구조(8.4%), 엄격한 가업 승계 요건(6.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의 가업승계 애로사항은 상속·증여세 조세부담(70.7%), 복잡한 지분구조(8.6%), 엄격한 기업 승계 요건(8.5%) 등의 순임

[그림 63] 가업승계 애로사항

(단위: %)



●●● 목 차 ●●●

제 1 장 조사개요	3
1절 조사목적	3
2절 중견기업의 정의	4
1. 중견기업 정의 및 범위	4
2. 중견기업 기준	5
3절 조사설계	7
1. 조사개요	7
2. 조사내용	8
3. 표본설계	9
제 2 장 중견기업 실태조사 결과	15
1절 중견기업 특성	15
1. 중견기업 기초 정보	15
2. 일반중견기업 기초 정보	17
3. 관계기업 기초 정보	18
2절 중견기업 진입 및 성장	19
1. 중소기업으로의 회귀 검토	19
2. 인수합병 (M&A)	26
3. 중견기업 경영 애로	33
3절 기술혁신	38
1. 중견기업의 기술/설비 투자	38
2. R&D관련 정부지원사업 수행	52
3. 연구개발	56
4. 지식재산권	60
4절 인재확보	79
1. 인력현황	79
2. 직원 복지	102

5절 국제화 촉진	104
1. 수출	104
2. 현지법인	119
3. FTA 활용	127
6절 수.위탁 거래 및 동반성장	156
1. 수.위탁 거래 현황	156
2.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166
7절 금융 및 자금조달	175
1. 자금조달	175
2. 정책자금의 활용	184
8절 기업의 사회적 책임	188
 부 록. 설 문 지	 199

●●● 표 목 차 ●●●

[표 1-1] 중견기업의 범위.....	4
[표 1-2] 기업 규모에 따른 관련 법령.....	4
[표 1-3] 업종별 중견기업 규모기준.....	5
[표 1-4] 조사개요.....	7
[표 1-5] 조사내용.....	8
[표 2-1] 중견기업 일반 현황.....	16
[표 2-2] 일반 중견기업 일반 현황.....	17
[표 2-3] 관계기업 일반 현황.....	18
[표 2-4] 중소기업 회귀 검토 유무.....	20
[표 2-5] 중소기업 회귀 검토 요인 : 1순위.....	22
[표 2-6] 중소기업 회귀 검토 요인 : 1순위(계속).....	23
[표 2-7] 중소기업 회귀 검토 요인 : 1+2순위.....	24
[표 2-8] 중소기업 회귀 검토 요인 : 1+2순위(계속).....	25
[표 2-9] 인수합병(M&A) 경험.....	27
[표 2-10] 경험한 인수합병(M&A) 형태.....	29
[표 2-11] M&A활성화 필요정책 : 1순위.....	31
[표 2-12] M&A활성화 필요정책 : 1+2순위.....	32
[표 2-13] 경영 애로사항 : 1순위.....	34
[표 2-14] 경영 애로사항 : 1순위(계속).....	35
[표 2-15] 경영 애로사항 : 1+2순위.....	36
[표 2-16] 경영 애로사항 : 1+2순위(계속).....	37
[표 2-17] 2016년 R&D 투자실적.....	40
[표 2-18] 2017년 R&D 투자계획.....	43
[표 2-19] 2016년 설비투자 실적.....	46
[표 2-20] 2017년 설비투자 계획.....	49
[표 2-21] 기술개발 방식.....	51
[표 2-22] 정부지원 R&D사업 수행 경험.....	53
[표 2-23] 정부지원 R&D사업 미참여 이유.....	55
[표 2-24] 연구개발 조직형태 및 인력수.....	57
[표 2-25] 기술수준 정의.....	58
[표 2-26] 주력기술 수준.....	59
[표 2-27]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	61
[표 2-28] 지식재산권 등록현황 : 평균.....	63
[표 2-29] 지식재산권 등록현황 : 평균(계속).....	64

[표 2-30] 지식재산권 등록현황 : 합계.....	65
[표 2-31] 지식재산권 등록현황 : 합계(계속).....	66
[표 2-32] 지식재산권 침해경험.....	68
[표 2-33] 지식재산권 침해한 주체.....	70
[표 2-34] 산학협력 활동 경험.....	72
[표 2-35] 협력기관.....	74
[표 2-36] 기술이전 받은 경험.....	76
[표 2-37] 기술이전처.....	78
[표 2-38] 중견기업 인력 현황.....	80
[표 2-39] 2016년 채용실적.....	82
[표 2-40] 2017년 채용계획.....	84
[표 2-41] 남성 신입사원 초임 : 평균.....	86
[표 2-42] 여성 신입사원 초임 : 평균.....	87
[표 2-43] 남성 재직연수별 현황 : 평균.....	89
[표 2-44] 여성 재직연수별 현황 : 평균.....	91
[표 2-45] 이직자 현황.....	93
[표 2-46] 주요 이직원인 : 1순위.....	95
[표 2-47] 주요 이직원인 : 1순위(계속).....	96
[표 2-48] 주요 이직원인 : 1+2순위.....	97
[표 2-49] 주요 이직원인 : 1+2순위(계속).....	98
[표 2-50] 유형별 보유인력.....	100
[표 2-51] 유형별 보유인력.....	101
[표 2-52] 성과보상 제도.....	103
[표 2-53] 해외 수출 여부.....	105
[표 2-54] 직/간접수출 비중.....	107
[표 2-55] 주요수출 국가 1+2+3+4+5순위(상위 14개).....	109
[표 2-56] 주요수출 국가 1+2+3+4+5순위(상위 14개)(계속).....	110
[표 2-57] 주요수출 대륙 1+2+3+4+5순위.....	112
[표 2-58] 주요수출 국가별 수출금액(상위 14개).....	113
[표 2-59] 주요수출 대륙별 수출금액.....	114
[표 2-60] 신규 진출 여부.....	116
[표 2-61] 신규 진출 국가별 수출금액(상위 14개).....	117
[표 2-62] 신규 진출 대륙별 수출금액.....	118
[표 2-63] 현지법인 설립.....	120
[표 2-64] 진출 국가별 현지법인 설립 현황(상위 14개).....	121
[표 2-65] 진출 대륙별 현지법인 설립 현황.....	121
[표 2-66] 수출시 애로사항 : 1순위.....	123
[표 2-67] 수출시 애로사항 : 1순위(계속).....	124

[표 2-68] 수출시 애로사항 : 1+2순위	125
[표 2-69] 수출시 애로사항 : 1+2순위(계속)	126
[표 2-70] FTA 활용 여부	128
[표 2-71] FTA 미활용 사유	130
[표 2-72] FTA활용 내부시스템 구축 비율	132
[표 2-73] FTA활용을 위한 정부지원 : 1순위	134
[표 2-74] FTA활용을 위한 정부지원 : 1순위(계속)	135
[표 2-75] FTA활용을 위한 정부지원 : 1+2순위	136
[표 2-76] FTA활용을 위한 정부지원 : 1+2순위(계속)	137
[표 2-77] 해외진출 고려 여부	139
[표 2-78] 해외진출 고려 이유 : 1순위(단위 : %, 해외진출 고려 기업 670개사)	141
[표 2-79] 해외진출 고려 이유 : 1+2순위	142
[표 2-80] 신규 해외진출 계획시점	144
[표 2-81] 희망하는 신규 진출 국가 1+2+3순위(상위 14개)	146
[표 2-82] 희망하는 신규 진출 국가 1+2+3순위(상위 14개)(계속)	147
[표 2-83] 희망하는 신규 진출 대륙 1+2+3순위	148
[표 2-84] 신규 해외진출 미고려 이유	150
[표 2-85] 해외 수출(진출)시 전략 : 1순위	152
[표 2-86] 해외 수출(진출)시 전략 : 1순위(계속)	153
[표 2-87] 해외 수출(진출)시 전략 : 1+2순위	154
[표 2-88] 해외 수출(진출)시 전략 : 1+2순위	155
[표 2-89] 수.위탁거래 단계	157
[표 2-90] 위탁기업과의 거래 현황	159
[표 2-91] 납품단가 인하 요구 경험 및 평균단가인하율	161
[표 2-92] 수탁거래 결제기간/수단	163
[표 2-93] 위탁거래 결제기간/수단	165
[표 2-94] 불공정거래 경험을	167
[표 2-95] 불공정거래 경험을(계속)	168
[표 2-96] 위탁기업과의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활동 수행비중	170
[표 2-97] 위탁기업과의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활동 수행비중(계속)	171
[표 2-98] 수탁기업과의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활동 수행비중	173
[표 2-99] 수탁기업과의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활동 수행비중(계속)	174
[표 2-100] 주요 자금조달 용도	176
[표 2-101] 주요 자금조달원 비중	178
[표 2-102] 외부 자금조달 애로사항 : 1순위	180
[표 2-103] 외부 자금조달 애로사항 : 1순위(계속)	181
[표 2-104] 외부 자금조달 애로사항 : 1+2순위	182
[표 2-105] 외부 자금조달 애로사항 : 1+2순위(계속)	183

[표 2-106] 정책자금 활용 여부.....	185
[표 2-107] 기관별 정책자금 활용 비중.....	187
[표 2-108] 사회공헌활동 수행 여부.....	189
[표 2-109] 사회공헌활동 유형별 비중.....	191
[표 2-110] 가업승계 도입 여부.....	193
[표 2-111] 가업승계시 애로사항 : 1순위.....	195
[표 2-112] 가업승계시 애로사항 : 1순위(계속).....	196
[표 2-113] 가업승계시 애로사항 : 1+2순위.....	197
[표 2-114] 가업승계시 애로사항 : 1+2순위(계속).....	198

●●● 그림 목 차 ●●●

[그림 2-1] 중소기업 회귀 검토 유무.....	19
[그림 2-2] 중소기업 회귀 검토 요인 : 1순위.....	21
[그림 2-3] 인수합병(M&A) 경험.....	26
[그림 2-4] 경험한 인수합병(M&A) 형태.....	28
[그림 2-5] M&A 활성화 필요정책 : 1순위.....	30
[그림 2-6] 경영 애로사항.....	33
[그림 2-7] 2016년 R&D 투자 유무.....	38
[그림 2-8] 2016년 R&D 투자금액.....	38
[그림 2-9] 2017년 R&D 투자계획 유무.....	41
[그림 2-10] 2017년 R&D 투자금액.....	41
[그림 2-11] 2016년 설비투자 유무.....	44
[그림 2-12] 2016년 설비투자금액.....	44
[그림 2-13] 2017년 설비투자 계획 유무.....	47
[그림 2-14] 2017년 설비투자금액.....	47
[그림 2-15] 기술개발 방식.....	50
[그림 2-16] 정부지원 R&D사업 수행경험.....	52
[그림 2-17] 정부지원 R&D사업 미참여 이유.....	54
[그림 2-18] 연구개발 조직형태 및 인력수.....	56
[그림 2-19] 주력기술 수준.....	58
[그림 2-20]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	60
[그림 2-21] 지식재산권 등록현황 : 평균.....	62
[그림 2-22] 지식재산권 침해 경험.....	67
[그림 2-23] 지식재산권 침해한 주체.....	69
[그림 2-24] 산학협력 활동 경험.....	71
[그림 2-25] 산학협력기관.....	73
[그림 2-26] 기술이전 받은 경험.....	75
[그림 2-27] 기술이전처.....	77
[그림 2-28] 중견기업 인력 현황 : 평균.....	79
[그림 2-29] 2016년 채용실적 : 평균.....	81
[그림 2-30] 2017년 채용계획 : 평균.....	83
[그림 2-31] 신입사원 초임 : 평균.....	85
[그림 2-32] 남성 재직연수별 현황 : 평균.....	88
[그림 2-33] 여성 재직연수별 현황 : 평균.....	90
[그림 2-34] 이직자 현황 : 평균.....	92

[그림 2-35] 주요 이직원인 : 1순위	94
[그림 2-36] 유형별 보유인력	99
[그림 2-37] 성과보상 제도	102
[그림 2-38] 해외 수출	104
[그림 2-39] 직/간접수출 비중	106
[그림 2-40] 주요수출 국가 1+2+3+4+5순위(상위 14개)	108
[그림 2-41] 주요수출 대륙 1+2+3+4+5순위	111
[그림 2-42] 주요수출 국가별 총수출금액(상위 14개)	113
[그림 2-43] 주요수출 대륙별 총수출금액	114
[그림 2-44] 신규 진출 여부	115
[그림 2-45] 신규 진출 국가(상위 14개)	117
[그림 2-46] 신규 진출 대륙	118
[그림 2-47] 현지법인 설립	119
[그림 2-48] 수출시 애로사항	122
[그림 2-49] FTA 활용 여부	127
[그림 2-50] FTA 미활용 사유	129
[그림 2-51] FTA활용 내부시스템 구축 비율	131
[그림 2-52] FTA활용을 위한 정부지원 : 1순위	133
[그림 2-53] 해외진출 고려 여부	138
[그림 2-54] 해외진출 고려 이유	140
[그림 2-55] 신규 해외진출 계획시점	143
[그림 2-56] 희망하는 신규 진출 국가 1+2+3순위(상위 14개)	145
[그림 2-57] 희망하는 신규 진출 대륙 1+2+3순위	145
[그림 2-58] 신규 해외진출 미고려 이유	149
[그림 2-59] 해외 수출(진출)시 전략 : 1순위	151
[그림 2-60] 수·위탁거래 단계	156
[그림 2-61] 위탁기업과의 거래 비중	158
[그림 2-62] 납품단가 인하 요구 경험	160
[그림 2-63] 수탁거래 결제기간/수단	162
[그림 2-64] 위탁거래 결제기간/수단	164
[그림 2-65] 불공정거래 경험율	166
[그림 2-66] 위탁기업과의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활동 수행비중	169
[그림 2-67] 수탁기업과의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활동 수행비중	172
[그림 2-68] 주요 자금조달 용도	175
[그림 2-69] 주요 자금조달원 비중	177
[그림 2-70] 외부 자금조달 애로사항	179
[그림 2-71] 정책자금 활용 여부	184
[그림 2-72] 기관별 정책자금 활용 비중	186

[그림 2-73] 사회공헌활동 수행 여부.....	188
[그림 2-74] 사회공헌활동 유형별 비중.....	190
[그림 2-75] 가업승계 도입 여부.....	192
[그림 2-76] 가업승계시 애로사항.....	194

제1장

조사개요

제 1 장 조사개요

1절 조사목적

□ 조사목적

- 현재까지의 정부의 산업 관련 정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위주로 추진되어 왔으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연결하는 중견기업의 성장을 위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했음
 - 특히 대기업의 공정거래나 중소기업, 벤처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춘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건실하게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적어 중소기업의 중견기업으로의 지속 성장이 어려움
- 산업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중견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중견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을 2014년 7월 22일 시행하고, 동법 제24조(중견기업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 제1항에 의거하여 중견기업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 중견기업 실태조사를 통해 중견기업에 대한 현황 및 실태를 파악 및 분석하여 효과적인 중견기업 시책수립 및 개발에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2015년 11월 국가승인 통계(승인번호 제142017호)로서 중견기업 실태조사를 최초로 실시, 공표함
- 주요조사 항목은 중견기업의 인력, 자금, 경영, 성장장애요인 및 정부지원 활용현황 등이며 실태조사 결과는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을 도모하고, 나아가 글로벌 전략을 수립, 보완하여 중견기업이 우리나라 경제의 튼튼한 허리로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는데 활용하고자 함
- 조사결과는 매년 보고서 및 보도자료를 통해 중견기업 정보마당과 KOSIS 사이트에 게시됨

2절 중견기업의 정의

1. 중견기업 정의 및 범위

-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되지 않은 기업”을 의미
- 중소기업 : 3년간 평균 매출액 등이 업종별로 400억원(숙박 및 음식업)~1,500억원(1차 금속 제조업 등) 이하 등 중소기업기본법령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호출자가 금지된 기업집단 1)(’16년, 27개 집단, 1,128개 기업)

[표 1-1] 중견기업의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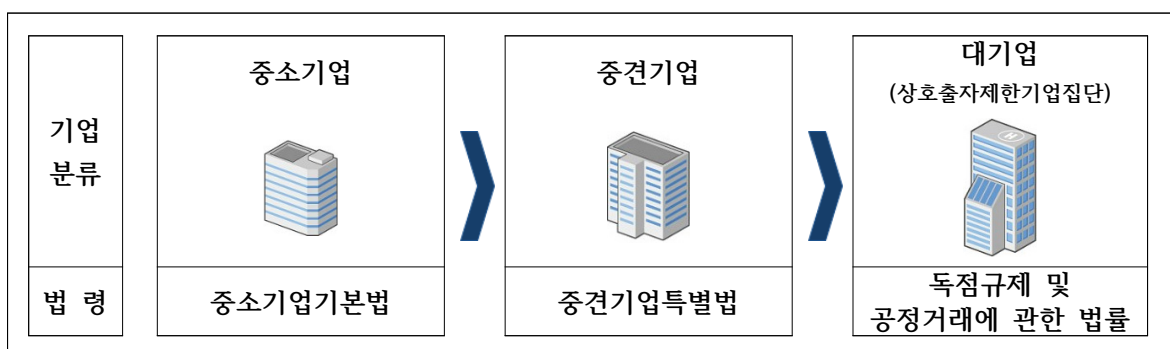
『중견기업법』 제2조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닐 것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아닐 것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2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이 아닐 것
-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기업(외국법인 포함)이 해당 기업의 주식 등을 30%이상 직/간접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
-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업(64), 보험 및 연금업(6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66)을 영위하는 기업이 아닐 것
-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 아닐 것

[표 1-2] 기업 규모에 따른 관련 법령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16.9.29)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자산기준이 5조에서 10조로 상향되었으나 본 조사는 ’14년 말 중견기업을 모집단으로 적용하였으므로 모집단 산출 시 이전 기준인 자산총액 5조원을 적용함(’15년, 61개 집단, 1,696개 기업)

2. 중견기업 기준

- 중견기업을 판단하는 기준은 규모, 상한, 독립성 3가지이며 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중견기업에 해당
- (규모기준) 주된 업종²⁾에 따른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으로 유예기간³⁾을 경과한 기업

[표 1-3] 업종별 중견기업 규모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중견기업 규모 기준
제조업 (6개업종)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3년 평균 매출액 1,500억원 초과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1차 금속 제조업	C24	
	전기장비 제조업	C28	
	가구 제조업	C32	
농업, 임업 및 어업		A	3년 평균 매출액 1,000억원 초과
광업		B	
제조업 (12개업종)	식료품 제조업	C10	
	담배 제조업	C12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 제외)	C1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 제외)	C16	
	코르크,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 제외)	C2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 제외)	C2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2) 주된 업종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간주

3) 중소기업 지원혜택의 중단에 따른 경영전략 수립 등의 준비기간으로서 규모기준을 충족한 사업년도의 다음 사업년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과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예기간(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을 부여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중견기업 규모 기준
건설업		F	
도매 및 소매업		G	
제조업 (6개업종)	음료 제조업	C11	3년 평균 매출액 800억원 초과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E	3년 평균 매출액 600억원 초과
운수업		H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년 평균 매출액 400억원 초과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숙박 및 음식점업		I	
금융 및 보험업		K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교육 서비스업		P	

- **(상한기준)** 재무상태표 상 자산총계(자본총계+부채총계)가 5,000억원 이상인 기업
- **(독립성기준)** 계열관계에 따른 판단기준으로 기업의 규모와는 상관없이 기업 간의 주식 등 출자관계가 아래의 2가지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30% 이상의 주식 등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해당기업의 최다출자자(최대주주)인 경우
 - 지배·종속관계가 있는 관계기업⁴⁾의 경우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매출액을 합산하여 규모기준을 벗어나는 기업

4) 관계기업 :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지배 또는 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

3절 조사설계

1. 조사개요

- 2015년 재무 기준으로 선정된 중견기업 3,558개를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
- 조사방법은 개별 면접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설문기간과 회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응답자의 편리에 따라 전화, fax, E-mail 조사를 병행하여 실시
- 모집단 구성비에 맞도록 유효표본에 가중치(weight)를 부여 후 통계분석을 실시함

[표 1-4] 조사개요

구분	내 용
조사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 재무 기준으로 선정된 중견기업 3,558개 → 일반 중견기업 2,885개, 관계기업 673개
조사 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조사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 09월 ~ 2017년 11월
표본추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유형×업종×매출규모로 표본 역등할당 ▪ 표본추출 시 기업유형×업종×매출규모 셀 내에 기업체를 지역별로 정렬 후 계통추출 함
신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뢰도 95%, 표본오차 ±2.01%
조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접조사, 전화, fax, E-mail 조사를 병행
자료수집 도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화된 설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
표본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본틀 : 2015년 말 기준 중견기업 3,558개 ▪ 표본 크기 결정식 $n = \frac{\left(\sum_{h=1}^L N_h S_h \right)^2}{N^2 \left(\frac{B}{1.96} \right)^2 + \sum_{h=1}^L N_h S_h^2}$ <p>여기에서 B : 허용오차 = $1.96 * \sqrt{\widehat{Var}(\overline{y_{st}})}$,</p> <p>$\overline{y_{st}}$: 표본평균, 상대표준오차 : $\frac{\sqrt{\widehat{Var}(\overline{y_{st}})}}{\overline{y_{st}}}$</p> <p>$N$: 모집단 크기, N_h : 부모집단 크기, S_h^2 : 부모집단의 분산</p> ▪ 표본 할당식 $n_h = n * \frac{(N_h S_h)^p}{\sum_{h=1}^L (N_h S_h)^p}, \quad 0 < p \leq 1$

2. 조사내용

[표 1-5] 조사내용

구분	내 용
기업 일반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답기업 기본정보 - 대표자 정보 - 주요 고객유형
중견기업 진입 및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의 회귀 검토 경험 여부 - 회귀 검토 주요 요인 - M&A 경험 여부 및 형태 - M&A 활성화를 위한 필요정책 - 경영애로요인
기술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D 투자 및 설비투자 실적 - 기술개발방식 - 정부지원 R&D사업 수행 경험 - 정부지원 R&D사업 소극적 이유 - 연구개발 조직/인력 현황 - 주력 기술 수준 - 지식재산권 등록 현황 및 침해 경험 여부 - 산학협력 활동 및 기관 - 기술이전 경험 및 기술이전처
인재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현황 및 채용 실적 - 신입사원 초임 - 재직연수 - 이직 현황 및 이직 이유 - 보유인력 유형 - 성과 보상 제도
국제화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수출 여부 및 실적(국가) - 현지법인 현황 및 국가 - 수출시 애로사항 - FTA활용, 시스템 구축현황 및 필요 정부지원 - 해외 진출 고려 여부 및 요인, 진출 시점, 진출 국가 - 해외 진출시 고려하는 전략
수·위탁거래 및 동반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위탁거래 단계 및 거래 현황 - 납품단가 인하 요구 및 단가인하율 - 수·위탁거래 결제기간 및 수단 - 주거래 위탁기업과의 불공정 거래 경험 - 수·위탁기업과의 결제기간 및 수단 - 수·위탁기업과의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활동
금융 및 자금조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금조달 용도 및 자금조달원 - 자금조달 애로사항 - 정책자금 활용 경험 및 기관별 활용 비중
기업사회적 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공헌활동 수행 경험 및 유형 - 가업승계 여부 및 애로사항

3. 표본설계

□ 모집단

- 2015년 재무 기준으로 선정된 중견기업 3,558개

□ 층화

- 2개 업종별 × 2개 기업유형 × 8개 매출규모로 층화를 실시
 - 업종(2개) : 제조업, 비제조업
 - 기업유형(2개) : 일반중견기업, 관계중견기업
 - 매출규모(8개) : 1백억원미만, 1백억원~5백억원미만, 5백억원~1천억원미만, 1천억원~2천억원미만, 2천억원~3천억원미만, 3천억원~5천억원미만, 5천억원~1조원미만, 1조원이상

□ 표본의 크기 결정

- 전체 표본수는 대표성을 고려하여 1,036개로 설정함
- 표본 크기 결정식

$$n = \frac{\left(\sum_{h=1}^L N_h S_h \right)^2}{N^2 \left(\frac{B}{1.96} \right)^2 + \sum_{h=1}^L N_h S_h^2}$$

여기에서 B : 허용오차 = $1.96 * \sqrt{\widehat{Var}(\bar{y}_{st})}$, \bar{y}_{st} : 표본평균,

$$\text{상대표준오차} : \frac{\sqrt{\widehat{Var}(\bar{y}_{st})}}{\bar{y}_{st}}$$

N : 모집단 크기

N_h : 부모집단 크기

S_h^2 : 부모집단의 분산

○ 표본할당식

$$n_h = n^* \frac{(N_h S_h)^p}{\sum_{h=1}^L (N_h S_h)^p}, \quad 0 < p \leq 1$$

□ 표본사업체 추출

- 조사모집단을 제조업_일반중견기업, 비제조_일반중견기업, 제조_관계중견기업, 비제조_관계중견기업으로 층화 후 층내에서 사업체를 매출액 크기로 층화함
- 각 구분별 매출액 층내에 속한 사업체를 매출액 순으로 정렬한후, 계통추출함

□ 추정식

- 업종별 평균 추정치 : $\bar{y}_h = \bar{Y}_{h1} + \sum_{i=2}^4 w_{hi} \bar{y}_{hi}$

여기에서 $\bar{y}_{hi} = \frac{1}{n_{hi}} \sum_{j=1}^{n_{hi}} y_{hij}$

h : 제조, 비제조

\bar{Y}_{h1} : 전수층의 평균

\bar{y}_{hi} : 각 층의 표본평균

n_{hi} : 각층에 할당된 표본의 크기

i : 업종내 매출액 층

y_{hij} : 업종내 매출액 층에 속한 사업체 j 의 특성 값

$$w_{hi} = \frac{N_{hi}}{n_{hi}}$$

- 업종별 표본평균에 대한 분산 추정 : $\hat{Var}(\bar{y}_h) = \sum_{i=2}^4 w_{hi}^2 \hat{Var}(\bar{y}_{hi})$

여기에서 $\hat{Var}(\bar{y}_{hi}) = \frac{1}{n_{hi}-1} \sum_{j=1}^{n_{hi}} (y_{hij} - \bar{y}_{hi})^2$

- 업종별 총계 추정치 : $\hat{\tau}_{st} = \sum_{h=1}^4 \hat{\tau}_h = \tau_1 + \sum_{h=2}^4 N_h \bar{y}_h$, $h=1$ 은 전수층

- 업종별 총계의 분산 추정치 : $\hat{Var}(\hat{\tau}_h) = \sum_{h=2}^4 N_h^2 \left(\frac{N_h - n_h}{N_h} \right) \frac{s_h^2}{n_h}$
- 업종별 표본평균의 허용오차 : $\pm 1.96 * \sqrt{\hat{Var}(\bar{y}_h)}$
- 표본평균의 상대표준오차 : $\frac{\sqrt{\hat{Var}(\bar{y}_h)}}{\bar{y}_h} * 100(\%)$

제2장

중견기업 실태조사 결과

제 2 장 중견기업 실태조사 결과

1절 중견기업 특성

1. 중견기업 기초 정보

- 중견기업은 3,558개 기업으로 일반중견기업 2,885개(81.1%), 관계기업 673개(18.9%)
 - '16년 중견기업실태조사 모집단(14년 재무기준) : 2,979개(일반중견기업 2,379개, 관계중견기업 600개)
 - 중견기업법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기준(5조→10조) 변경에 따라 조사대상 중견기업(15년 재무기준)은 3,558개로 전년 대비 579개 증가함
- 업종별로는 제조업 1,488개(41.8%), 비제조업 2,070개(58.2%)로 전년 대비 비제조업의 비중이 증가함
 - '16년 중견기업실태조사 모집단(14년 재무기준) : 제조업 1,331개(44.7%), 비제조업 1648개(55.3%)
- 매출규모별로는 1천억원 미만 기업이 전체의 57.2%로 가장 많고 매출규모가 클수록 기업 비중이 감소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 변경(자산총액 5조원→10조원)으로 인해 모든 매출 구간에서 중견기업의 수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매출 1백억원 미만·1조원 이상 기업군의 비중이 커짐
 - 매출 1백억원 미만 : '16년 425개(14.3%), '17년 625개(17.6%)로 증가
 - 매출 1조원 이상 : '16년 57개(1.9%), '17년 90개(2.5%)로 증가
- 종사자수별로는 100명 미만인 기업이 47.9%로 가장 많고 종사자 수가 많을수록 기업 비중이 감소함
 - '16년 중견기업 실태조사 모집단 분포 대비, 50명 미만 기업 비중은 증가('16년 28.9%→'17년 33.6%)한 반면, 1,000명 이상 기업 비중은 감소함('16년 5.4%→'17년 4.9%)
- 업력별로는 설립된 지 7~20년 미만 기업이 39.3%로 가장 많고, 0~7년 미만 기업이 15.2%로 20년 미만 기업의 비중이 전체의 50%정도 차지함

[표 2-1] 중견기업 일반 현황

(단위 : %)

구분		사례수	비율
전체		(3,558)	100.0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2,885)	81.1
	관계기업	(673)	18.9
업종	제조업	(1,488)	41.8
	비제조업	(2,070)	58.2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625)	17.6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934)	26.3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474)	13.3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636)	17.9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367)	10.3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253)	7.1
	5천억원 ~ 1조원미만	(179)	5.0
	1조원이상	(90)	2.5
종사자수	50명미만	(1,197)	33.6
	50 ~ 100명미만	(508)	14.3
	100 ~ 200명미만	(610)	17.1
	200 ~ 300명미만	(363)	10.2
	300 ~ 500명미만	(360)	10.1
	500 ~ 1,000명미만	(347)	9.8
	1,000명이상	(173)	4.9
업력	0 ~ 7년미만	(541)	15.2
	7 ~ 20년미만	(1,398)	39.3
	20 ~ 30년미만	(633)	17.8
	30 ~ 40년미만	(414)	11.6
	40 ~ 50년미만	(328)	9.2
	50년이상	(244)	6.9
상장	상장	(760)	21.4
	비상장	(2,798)	78.6

2. 일반중견기업 기초 정보

- 전체 중견기업 중, 일반중견기업은 총 2,885개로 전체 중견기업의 81.1%를 차지
- 일반 중견기업은 제조업이 41.6%, 비제조업이 58.4%로 비제조업의 비중이 약간 높음
- 매출규모별로는 1천억원 미만 기업의 비중이 48.5%로 가장 많고, 매출규모가 클수록 기업 비중이 낮음
- 업력별로는 설립된 지 7~20년 미만 기업의 비중이 37.7%로 가장 많음

[표 2-2] 일반 중견기업 일반 현황

(단위 : %)

구분		사례수	비율
전체		(2,885)	100.0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2,885)	100.0
	관계기업	-	-
업종	제조업	(1,199)	41.6
	비제조업	(1,686)	58.4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435)	15.1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654)	22.7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310)	10.7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597)	20.7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366)	12.7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253)	8.8
	5천억원 ~ 1조원미만	(179)	6.2
	1조원이상	(90)	3.1
종사자수	50명미만	(887)	30.7
	50 ~ 100명미만	(370)	12.8
	100 ~ 200명미만	(474)	16.4
	200 ~ 300명미만	(315)	10.9
	300 ~ 500명미만	(338)	11.7
	500 ~ 1,000명미만	(336)	11.6
	1,000명이상	(165)	5.7
업력	0 ~ 7년미만	(451)	15.6
	7 ~ 20년미만	(1,088)	37.7
	20 ~ 30년미만	(518)	18.0
	30 ~ 40년미만	(340)	11.8
	40 ~ 50년미만	(276)	9.6
	50년이상	(212)	7.3
상장	상장	(664)	23.0
	비상장	(2,221)	77.0

3. 관계기업 기초 정보

- 전체 중견기업 중, 관계기업은 총 673개로 전체 중견기업의 18.9%를 차지
- 관계기업은 제조업이 42.9%, 비제조업이 57.1%로 비제조업의 비중이 약간 높음
- 매출액 규모별로는 500억원 미만 기업의 비중이 69.8%로 가장 많고, 3천억원 이상 기업은 없음
- 업력별로는 설립된 지 7~20년 미만 기업의 비중이 46.1%로 가장 많음

[표 2-3] 관계기업 일반 현황

(단위 : %)

구분		사례수	비율
전체		(673)	100.0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	-
	관계기업	(673)	100.0
업종	제조업	(289)	42.9
	비제조업	(384)	57.1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190)	28.2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280)	41.6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164)	24.4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39)	5.8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1)	0.1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	-
	5천억원 ~ 1조원미만	-	-
	1조원이상	-	-
종사자수	50명미만	(310)	46.1
	50 ~ 100명미만	(138)	20.5
	100 ~ 200명미만	(136)	20.2
	200 ~ 300명미만	(48)	7.1
	300 ~ 500명미만	(22)	3.3
	500 ~ 1,000명미만	(11)	1.6
	1,000명이상	(8)	1.2
업력	0 ~ 7년미만	(90)	13.4
	7 ~ 20년미만	(310)	46.1
	20 ~ 30년미만	(115)	17.1
	30 ~ 40년미만	(74)	11.0
	40 ~ 50년미만	(52)	7.7
	50년이상	(32)	4.8
상장	상장	(96)	14.3
	비상장	(577)	85.7

2절 중견기업 진입 및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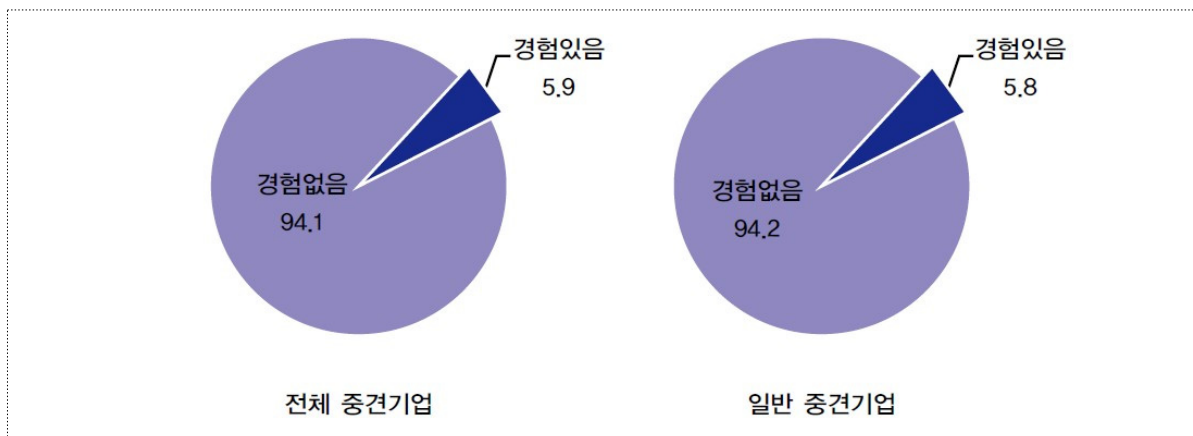
1. 중소기업으로의 회귀 검토

□ 중소기업으로의 회귀 검토 여부

- 중소기업으로의 회귀를 검토한 중견기업은 5.9%, 일반 중견기업은 5.8%로 나타남

[그림 2-1] 중소기업 회귀 검토 유무

(단위: %)



특성별 분석

- 매출규모 5백억원~1천억원 미만 기업의 8.2%가 회귀 검토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천억원~2천억원 미만 기업의 8.0%가 회귀를 검토한 적이 있음
 - 1조원 이상의 기업은 중소기업으로 회귀를 검토한 경험이 전혀 없음을 알 수 있음
- 종사자 수별로는 50~100명 미만 기업의 10.0%가 회귀 검토 경험이 있으며, 100~200명 미만 기업의 8.3%가 회귀 검토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대체적으로 매출액(5백억원~1천억원 미만), 종사자 수(50~100명 미만), 업력 (20~30년 미만) 등에서 중간 규모인 기업들이 회귀검토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작년과 유사한 결과를 보임

[표 2-4] 중소기업 회귀 검토 유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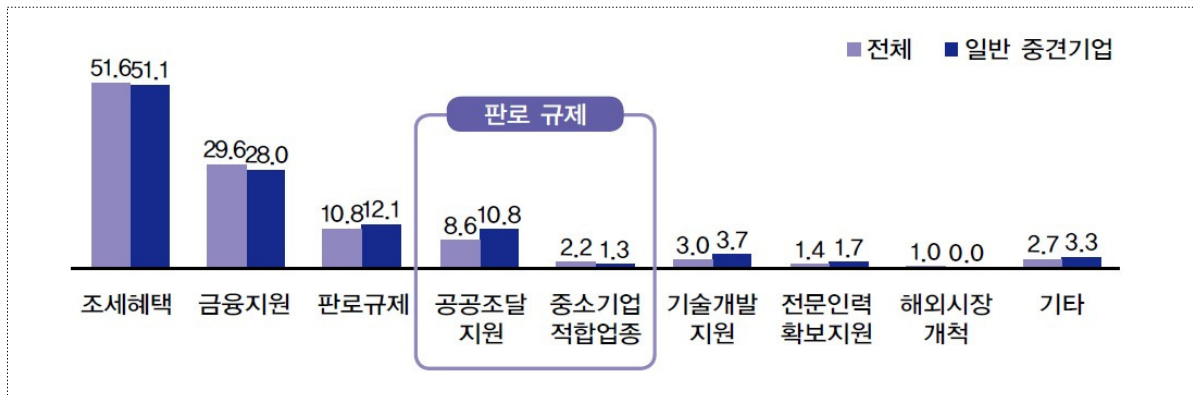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검토경험 있음	검토경험 없음
전체		(3,558)	5.9	94.1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2,885)	5.8	94.2
	관계기업	(673)	6.3	93.7
업종	제조업	(1,488)	6.2	93.8
	비제조업	(2,070)	5.7	94.3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625)	6.9	93.1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934)	5.7	94.3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474)	8.2	91.8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636)	8.0	92.0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367)	4.6	95.4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253)	1.7	98.3
	5천억원 ~ 1조원미만	(179)	1.8	98.2
	1조원이상	(90)	0.0	100.0
수출여부	수출있음	(1,320)	6.7	93.3
	수출없음	(2,238)	5.5	94.5
종사자수	50명미만	(1,197)	6.4	93.6
	50 ~ 100명미만	(508)	10.0	90.0
	100 ~ 200명미만	(610)	8.3	91.7
	200 ~ 300명미만	(363)	4.8	95.2
	300 ~ 500명미만	(360)	3.3	96.7
	500 ~ 1,000명미만	(347)	1.0	99.0
	1,000명이상	(173)	0.0	100.0
업력	0 ~ 7년미만	(541)	3.8	96.2
	7 ~ 20년미만	(1,398)	7.7	92.3
	20 ~ 30년미만	(633)	8.2	91.8
	30 ~ 40년미만	(414)	4.0	96.0
	40 ~ 50년미만	(328)	3.4	96.6
	50년이상	(244)	0.0	100.0
매출유형	B2B	(2,832)	6.2	93.8
	B2C	(622)	5.7	94.3
	B2G	(104)	0.0	100.0
상장	상장	(760)	4.0	96.0
	비상장	(2,798)	6.5	93.5

□ 중소기업으로의 회귀검토 요인

- 중소기업으로의 회귀를 검토하게 한 가장 큰 요인으로는 51.6%가 조세혜택을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는 금융지원(29.6%), 판로 규제(10.8%) 순임
- 판로 규제는 공공조달 지원(8.6%), 중소기업 적합업종(2.2%)으로 나타남

[그림 2-2] 중소기업 회귀 검토 요인 : 1순위

(단위: %, 중소기업 회귀 검토 기업)



특성별 분석

- 일반중견기업과 관계기업 모두 조세혜택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응답함
 - 금융지원을 두 번째 회귀검토 요인으로 뽑은 것은 동일하나 관계 기업 35.7%, 일반 중견기업 28.0%로 관계기업의 응답 비중이 훨씬 높게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 및 관계기업 모두 판로 규제를 세 번째 회귀 검토 요인으로 응답하였으나 일반 중견기업은 공공조달 지원(10.8%)을, 관계기업은 중소기업 적합업종(5.8%)을 선택한 비중이 높아 기업 규모별로 차이가 존재함
- 매출규모별로 1백억원 미만 기업은 금융지원(61.7%), 5천억원~1조원 미만 기업은 조세혜택(100.0%)을 회귀 검토 요인으로 응답함
- 업력 0~7년 미만 기업은 기술개발 지원(21.9%)을 회귀 검토 요인이라고 가장 높게 응답하여 타 기업군 대비 차이가 있음

[표 2-5] 중소기업 회귀 검토 요인 : 1순위

(단위 : %, 중소기업 회귀 검토 기업 210개사)

구분		조세혜택	금융지원	계	판로 규제	
					공공조달 지원	중소기업 적합업종
전체		51.6	29.6	10.8	8.6	2.2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51.1	28.0	12.1	10.8	1.3
	관계기업	53.4	35.7	5.8	0.0	5.8
업종	제조업	54.4	20.7	15.9	13.5	2.4
	비제조업	49.3	36.6	6.9	4.8	2.1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20.5	61.7	5.7	0.0	5.7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62.4	10.9	16.2	16.2	0.0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51.2	31.6	8.6	8.6	0.0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53.3	28.9	12.2	12.2	0.0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82.7	17.3	0.0	0.0	0.0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50.0	0.0	50.0	0.0	50.0
	5천억원 ~ 1조원미만	100.0	0.0	0.0	0.0	0.0
	1조원이상	-	-	-	-	-
수출여부	수출있음	59.1	21.8	13.4	10.9	2.5
	수출없음	46.1	35.2	9.0	7.0	2.0
종사자수	50명미만	37.1	40.6	11.4	8.2	3.2
	50 ~ 100명미만	43.9	39.2	11.0	11.0	0.0
	100 ~ 200명미만	72.2	10.6	6.2	6.2	0.0
	200 ~ 300명미만	48.1	34.1	17.8	17.8	0.0
	300 ~ 500명미만	81.3	0.0	18.7	0.0	18.7
	500 ~ 1,000명미만	100.0	0.0	0.0	0.0	0.0
	1,000명이상	-	-	-	-	-
업력	0 ~ 7년미만	16.2	20.6	0.0	0.0	0.0
	7 ~ 20년미만	46.5	35.8	10.1	8.1	2.0
	20 ~ 30년미만	64.5	20.3	15.1	10.8	4.3
	30 ~ 40년미만	65.8	34.2	0.0	0.0	0.0
	40 ~ 50년미만	56.8	20.7	22.5	22.5	0.0
	50년이상	-	-	-	-	-
매출유형	B2B	50.9	26.3	13.1	10.4	2.7
	B2C	54.6	45.4	0.0	0.0	0.0
	B2G	-	-	-	-	-
상장	상장	69.0	15.4	15.7	9.2	6.5
	비상장	48.2	32.3	9.9	8.5	1.4

[표 2-6] 중소기업 회귀 검토 요인 : 1순위(계속)

(단위 : %, 중소기업 회귀 검토 기업 206개사)

구분		기술개발 지원	전문인력 확보지원	해외시장 개척	기타
전체		3.0	1.4	1.0	2.7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3.7	1.7	0.0	3.3
	관계기업	0.0	0.0	5.2	0.0
업종	제조업	6.8	0.0	2.4	0.0
	비제조업	0.0	2.4	0.0	4.8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6.9	0.0	5.1	0.0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0.0	0.0	0.0	10.6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8.6	0.0	0.0	0.0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0.0	5.6	0.0	0.0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0.0	0.0	0.0	0.0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0.0	0.0	0.0	0.0
	5천억원 ~ 1조원미만	0.0	0.0	0.0	0.0
	1조원이상	-	-	-	-
수출여부	수출있음	0.0	3.2	2.5	0.0
	수출없음	5.1	0.0	0.0	4.6
종사자수	50명미만	4.4	3.7	2.9	0.0
	50 ~ 100명미만	5.8	0.0	0.0	0.0
	100 ~ 200명미만	0.0	0.0	0.0	11.1
	200 ~ 300명미만	0.0	0.0	0.0	0.0
	300 ~ 500명미만	0.0	0.0	0.0	0.0
	500 ~ 1,000명미만	0.0	0.0	0.0	0.0
	1,000명이상	-	-	-	-
업력	0 ~ 7년미만	21.9	0.0	0.0	41.3
	7 ~ 20년미만	3.0	2.6	2.0	0.0
	20 ~ 30년미만	0.0	0.0	0.0	0.0
	30 ~ 40년미만	0.0	0.0	0.0	0.0
	40 ~ 50년미만	0.0	0.0	0.0	0.0
	50년이상	-	-	-	-
매출유형	B2B	3.6	1.6	1.3	3.2
	B2C	0.0	0.0	0.0	0.0
	B2G	-	-	-	-
상장	상장	0.0	0.0	0.0	0.0
	비상장	3.6	1.6	1.2	3.2

[표 2-7] 중소기업 회귀 검토 요인 : 1+2순위

(단위 : %, 중소기업 회귀 검토 기업 210개사)

구분		조세혜택	금융지원	판로 규제		
				계	공공조달 지원	중소기업 적합업종
전체		73.3	57.9	33.4	16.7	16.7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72.2	52.9	38.9	19.5	19.4
	관계기업	77.8	77.8	11.4	5.6	5.8
업종	제조업	72.7	57.9	34.0	19.2	14.8
	비제조업	73.8	57.9	32.9	14.8	18.1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36.0	66.9	36.6	0.0	36.6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83.8	52.1	32.4	16.2	16.2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79.2	61.5	32.4	23.8	8.6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82.2	70.6	23.9	17.8	6.1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82.7	33.3	49.4	49.4	0.0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100.0	0.0	100.0	0.0	100.0
	5천억원 ~ 1조원미만	100.0	0.0	0.0	0.0	0.0
	1조원이상	-	-	-	-	-
수출여부	수출있음	77.4	51.9	40.1	30.3	9.8
	수출없음	70.4	62.2	28.6	7.0	21.6
종사자수	50명미만	64.6	54.4	35.6	15.5	20.1
	50 ~ 100명미만	76.4	73.0	34.2	16.8	17.4
	100 ~ 200명미만	78.0	55.4	33.5	16.2	17.3
	200 ~ 300명미만	65.9	69.6	17.8	17.8	0.0
	300 ~ 500명미만	100.0	26.5	18.7	0.0	18.7
	500 ~ 1,000명미만	100.0	0.0	100.0	100.0	0.0
	1,000명이상	-	-	-	-	-
업력	0 ~ 7년미만	36.8	36.8	41.3	0.0	41.3
	7 ~ 20년미만	72.2	64.7	34.7	15.7	19.0
	20 ~ 30년미만	80.7	52.1	31.7	22.1	9.6
	30 ~ 40년미만	100.0	66.3	14.6	14.6	0.0
	40 ~ 50년미만	56.8	37.8	45.0	22.5	22.5
	50년이상	-	-	-	-	-
매출유형	B2B	75.5	57.4	35.1	18.8	16.3
	B2C	62.9	60.2	25.1	6.6	18.5
	B2G	-	-	-	-	-
상장	상장	82.4	67.0	33.4	17.8	15.6
	비상장	71.6	56.2	33.4	16.5	16.9

[표 2-8] 중소기업 회귀 검토 요인 : 1+2순위(계속)

(단위 : %, 중소기업 회귀 검토 기업 206개사)

구분		기술개발 지원	전문인력 확보지원	해외시장 개척	기타
전체		8.5	7.8	2.4	5.1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9.2	8.4	1.7	5.1
	관계기업	5.6	5.6	5.2	5.2
업종	제조업	19.2	2.5	5.5	5.5
	비제조업	0.0	12.0	0.0	4.8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6.9	0.0	5.1	12.0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0.0	21.1	0.0	10.6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14.7	6.1	0.0	0.0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12.2	5.6	0.0	0.0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17.3	0.0	17.3	0.0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0.0	0.0	0.0	0.0
	5천억원 ~ 1조원미만	0.0	0.0	0.0	0.0
	1조원이상	-	-	-	-
수출여부	수출있음	13.1	5.9	5.8	2.5
	수출없음	5.1	9.1	0.0	7.0
종사자수	50명미만	8.2	11.0	2.9	2.9
	50 ~ 100명미만	5.8	0.0	0.0	5.8
	100 ~ 200명미만	6.2	15.8	0.0	11.1
	200 ~ 300명미만	13.6	0.0	16.8	0.0
	300 ~ 500명미만	26.5	0.0	0.0	0.0
	500 ~ 1,000명미만	0.0	0.0	0.0	0.0
	1,000명이상	-	-	-	-
업력	0 ~ 7년미만	21.9	0.0	0.0	63.2
	7 ~ 20년미만	5.7	7.6	2.0	2.0
	20 ~ 30년미만	0.0	14.2	5.2	0.0
	30 ~ 40년미만	19.1	0.0	0.0	0.0
	40 ~ 50년미만	39.7	0.0	0.0	0.0
	50년이상	-	-	-	-
매출유형	B2B	10.2	6.2	1.3	6.2
	B2C	0.0	15.7	8.2	0.0
	B2G	-	-	-	-
상장	상장	0.0	0.0	8.7	0.0
	비상장	10.1	9.3	1.2	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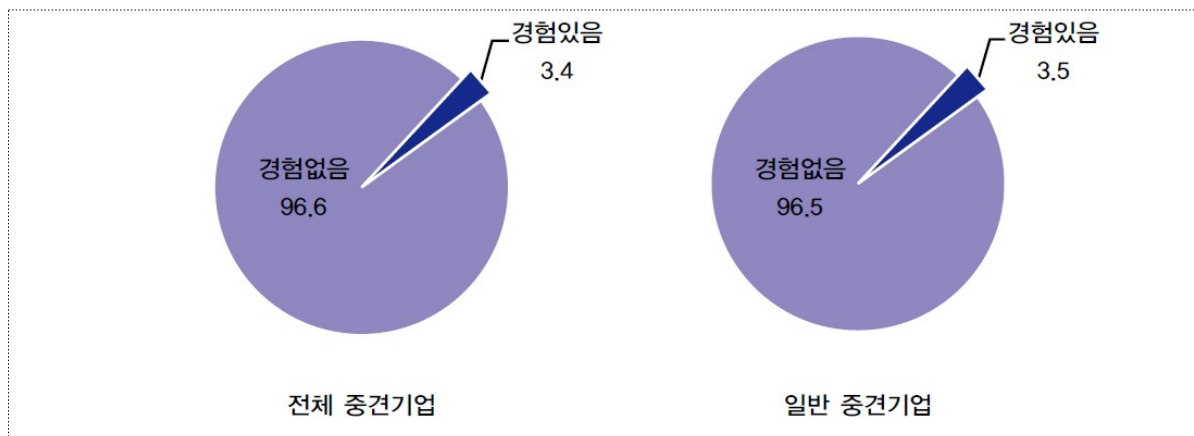
2. 인수합병 (M&A)

□ 인수합병(M&A) 경험

- 중견기업의 3.4%는 2016년에 M&A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M&A를 경험한 기업의 평균 인수 규모는 461.6억원임
- 일반 중견기업의 M&A 경험은 3.5%(평균인수규모: 504.4억원), 관계기업은 2.9%(평균 인수 규모:255.6억원)으로 나타남

[그림 2-3] 인수합병(M&A) 경험

(단위: %)



특성별 분석

- 매출규모별로는 대체적으로 매출규모가 클수록 인수합병 경험의 기회가 많음
 - 매출 5천억원~1조원 미만 기업의 경우 인수합병 경험율이 13%, 평균 인수규모 1,230억원으로 타 기업군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나 인수합병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보임
- 종사자수별로는 50명 미만 기업의 경우 1.1%만이 인수합병을 경험한 반면, 500~1,000명 미만 기업의 인수합병 경험율은 7.9%로 높게 나타남
- 매출액·종사자수가 증가할수록 인수합병 경험율 또한 상승하여 양의 상관관계를 보임
- 상장기업의 6.5%, 비상장기업의 2.4%가 M&A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상장기업의 평균 인수규모는 283.8억원, 비상장기업은 604.7억원으로 비상장기업의 평균 인수규모가 상장기업에 비해 약 2배 이상 큼

[표 2-9] 인수합병(M&A) 경험

(단위 : %,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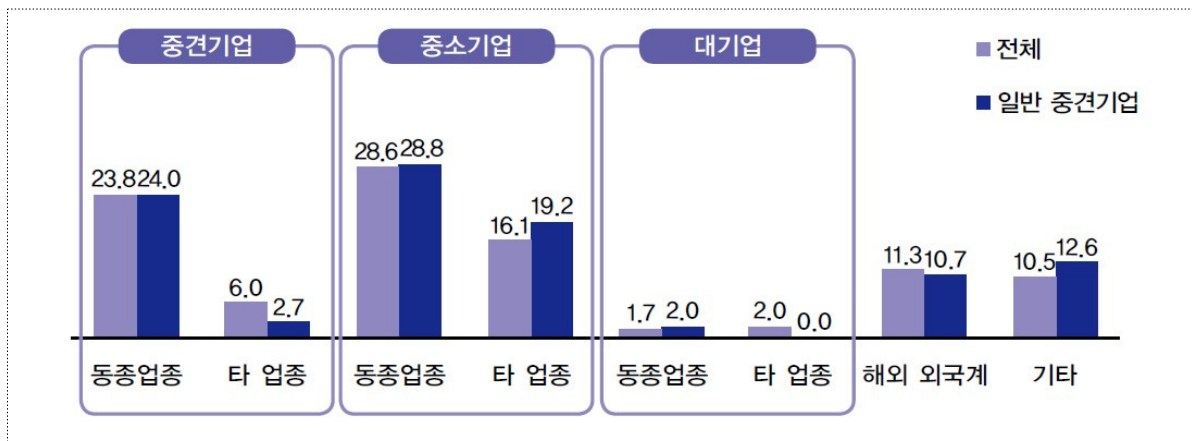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인수합병 경험 있음		인수합병 경험 없음
			평균 인수 규모		
전체		(3,558)	3.4	461.6	96.6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2,885)	3.5	504.4	96.5
	관계기업	(673)	2.9	255.6	97.1
업종	제조업	(1,488)	4.7	623.2	95.3
	비제조업	(2,070)	2.5	262.7	97.5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625)	1.1	214.2	98.9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934)	1.5	234.1	98.5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474)	2.1	372.9	97.9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636)	4.6	184.0	95.4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367)	5.4	340.8	94.6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253)	4.3	442.8	95.7
	5천억원 ~ 1조원미만	(179)	13.0	1,230.3	87.0
	1조원이상	(90)	7.9	700.0	92.1
수출여부	수출있음	(1,320)	5.9	265.6	94.1
	수출없음	(2,238)	1.9	797.0	98.1
종사자수	50명미만	(1,197)	1.1	199.7	98.9
	50 ~ 100명미만	(508)	2.9	290.2	97.1
	100 ~ 200명미만	(610)	4.9	279.4	95.1
	200 ~ 300명미만	(363)	3.3	161.1	96.7
	300 ~ 500명미만	(360)	4.1	323.5	95.9
	500 ~ 1,000명미만	(347)	7.9	326.5	92.1
	1,000명이상	(173)	5.5	2,864.2	94.5
업력	0 ~ 7년미만	(541)	3.9	196.7	96.1
	7 ~ 20년미만	(1,398)	2.2	161.5	97.8
	20 ~ 30년미만	(633)	2.0	1,735.3	98.0
	30 ~ 40년미만	(414)	4.4	316.5	95.6
	40 ~ 50년미만	(328)	5.2	257.3	94.8
	50년이상	(244)	8.2	362.2	91.8
매출유형	B2B	(2,832)	3.8	476.2	96.2
	B2C	(622)	1.4	360.8	98.6
	B2G	(104)	5.5	341.5	94.5
상장	상장	(760)	6.5	283.8	93.5
	비상장	(2,798)	2.4	604.7	97.6

□ 경험한 인수합병(M&A) 형태

- M&A를 경험한 기업의 인수합병 형태로는 동종업종 중소기업과의 인수합병(28.6%)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동종업종 중견기업(23.8%), 타 업종 중소기업(16.1%) 등의 순임

[그림 2-4] 경험한 인수합병(M&A) 형태

(단위: %, 인수합병 경험 기업)



특성별 분석

- 일반 중견기업은 동종업종의 대기업 인수합병이 2.0%, 타 업종은 없었으며, 관계 기업은 동종업종의 대기업 인수합병은 없었으며, 타 업종은 12.4%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은 관계기업 대비 동종업종 기업과 인수합병 비중이 높은 반면, 관계기업은 일반 중견기업 대비 타 업종과 인수합병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임
- 매출규모별로는 2천억원~3천억원 미만 기업은 동종업종 중소기업과의 인수합병(57.9%)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1조원 이상의 기업은 타업종의 중소기업과의 인수합병(60.3%)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남
- 종사자수별로는 300~500명 미만 기업은 동종업종 중소기업(61.4%), 1,000명 이상 기업은 타 업종의 중소기업(34.7%)과 인수합병 비중이 높음
 - 매출 및 종사자수가 중간 규모인 기업은 동종업종 중소기업과의 인수합병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매출액이 높고 종사자 수가 많은 기업은 타 업종 중소기업과의 인수합병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2-10] 경험한 인수합병(M&A) 형태

(단위 : %, 인수합병 경험 기업 121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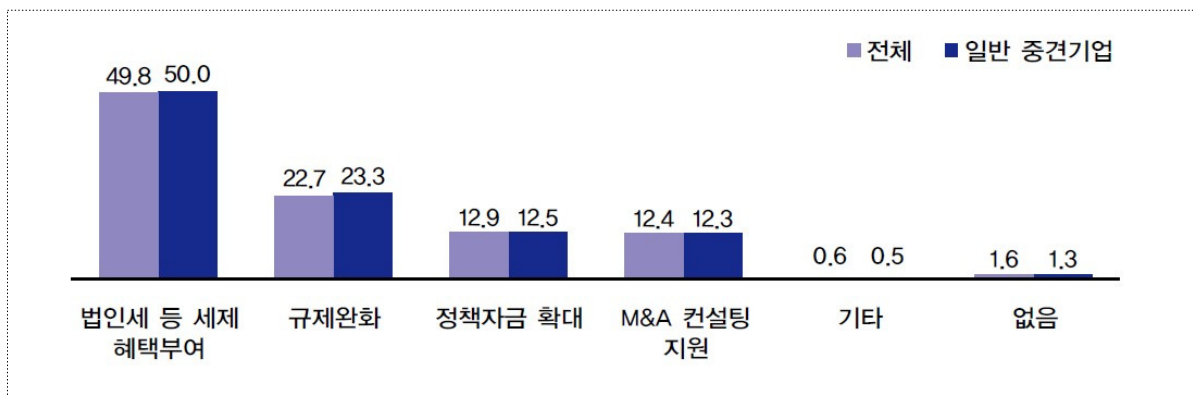
구분		중견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해외 외국계	기타
		동종업종	타 업종	동종업종	타 업종	동종업종	타 업종		
전체		23.8	6.0	28.6	16.1	1.7	2.0	11.3	10.5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24.0	2.7	28.8	19.2	2.0	0.0	10.7	12.6
	관계기업	23.0	23.0	27.5	0.0	0.0	12.4	14.2	0.0
업종	제조업	21.5	6.5	32.9	15.4	2.9	0.0	10.5	10.3
	비제조업	27.0	5.3	22.7	17.0	0.0	4.8	12.3	10.9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32.1	32.1	0.0	0.0	0.0	35.8	0.0	0.0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0.0	0.0	39.2	0.0	0.0	0.0	20.2	40.5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32.7	0.0	0.0	32.7	0.0	0.0	34.5	0.0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27.7	8.1	32.1	10.7	0.0	0.0	10.7	10.7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28.4	13.7	57.9	0.0	0.0	0.0	0.0	0.0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39.9	0.0	20.3	19.6	0.0	0.0	20.3	0.0
	5천억원 ~ 1조원미만	22.8	0.0	14.2	28.3	8.7	0.0	8.7	17.3
	1조원이상	0.0	0.0	39.7	60.3	0.0	0.0	0.0	0.0
수출여부	수출있음	22.7	5.8	33.4	18.0	0.0	0.0	17.5	2.6
	수출없음	26.0	6.3	19.9	12.6	4.7	5.7	0.0	24.9
종사자수	50명미만	16.7	16.7	21.3	0.0	0.0	18.6	26.8	0.0
	50 ~ 100명미만	0.0	18.4	0.0	22.6	0.0	0.0	21.0	37.9
	100 ~ 200명미만	45.3	0.0	27.8	17.5	0.0	0.0	9.4	0.0
	200 ~ 300명미만	47.7	0.0	26.2	0.0	0.0	0.0	0.0	26.2
	300 ~ 500명미만	22.6	16.0	61.4	0.0	0.0	0.0	0.0	0.0
	500 ~ 1,000명미만	15.4	0.0	41.9	27.9	0.0	0.0	7.4	7.4
	1,000명이상	0.0	0.0	0.0	34.7	21.2	0.0	23.0	21.2
업력	0 ~ 7년미만	38.8	0.0	0.0	0.0	0.0	17.2	29.7	14.3
	7 ~ 20년미만	0.0	6.9	34.3	40.3	0.0	0.0	18.5	0.0
	20 ~ 30년미만	19.6	0.0	41.7	24.1	14.6	0.0	0.0	0.0
	30 ~ 40년미만	16.4	15.2	48.8	0.0	0.0	0.0	19.6	0.0
	40 ~ 50년미만	23.2	11.1	14.8	0.0	0.0	0.0	0.0	51.0
	50년이상	57.9	0.0	27.2	14.9	0.0	0.0	0.0	0.0
매출유형	B2B	21.8	4.3	29.8	15.2	1.9	2.3	12.8	12.0
	B2C	0.0	30.7	32.0	37.3	0.0	0.0	0.0	0.0
	B2G	100.0	0.0	0.0	0.0	0.0	0.0	0.0	0.0
상장	상장	22.6	4.2	31.1	19.2	0.0	0.0	19.4	3.6
	비상장	25.0	7.5	26.4	13.5	3.1	3.7	4.3	16.5

□ M&A 활성화를 위한 정책

- 중견기업의 M&A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법인세 등의 세제 혜택부여(49.8%)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규제 완화(22.7%), 정책자금 확대(12.9%) 등의 순임. 또한, M&A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 없다고 응답한 기업도 전체의 1.6%로 나타남

[그림 2-5] M&A 활성화 필요정책 : 1순위

(단위: %)



특성별 분석

- 일반 중견기업의 50.0%가 M&A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등 세제 혜택부여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23.3%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 일반 중견기업의 종합순위(1+2순위)도 동일하게 법인세 등 세제 혜택부여(70.8%), 규제 완화(50.5%), 정책자금 확대(30.3%) 순으로 나타남
- 매출규모별 종합순위(1+2순위)는 규모가 클수록 법인세 등 세제 혜택부여 정책 응답율이 높았으며, 그 중에서도 1조원 이상의 기업에서 92.1%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매출유형별 종합순위(1+2순위)는 B2B, B2C, B2G 기업 모두 법인세 등 세제 혜택부여를 1순위로 응답하였으나, B2B기업은 법인세 등 세제 혜택부여, B2C기업 및 B2G 기업은 규제완화를 선택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2-11] M&A활성화 필요정책 : 1순위

(단위 : %)

구분		사례수	법인세 등 세제 혜택부여	규제완화	정책자금 확대	M&A 컨설팅 지원	기타	없음
전체		(3,558)	49.8	22.7	12.9	12.4	0.6	1.6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2,885)	50.0	23.3	12.5	12.3	0.5	1.3
	관계기업	(673)	48.9	19.9	14.1	12.8	1.1	3.1
업종	제조업	(1,488)	53.1	19.2	13.5	12.2	0.4	1.5
	비제조업	(2,070)	47.4	25.2	12.4	12.5	0.8	1.8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625)	44.2	25.7	14.8	13.8	0.8	0.8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934)	47.8	24.6	13.3	11.3	0.9	2.1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474)	46.5	22.8	12.8	15.4	0.5	2.0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636)	55.3	17.0	13.7	10.2	0.9	2.8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367)	51.1	19.2	14.0	14.9	0.0	0.7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253)	53.1	26.4	8.6	10.2	0.0	1.7
	5천억원 ~ 1조원미만	(179)	57.8	21.6	7.1	13.4	0.0	0.0
	1조원이상	(90)	57.2	27.0	7.9	7.9	0.0	0.0
수출여부	수출있음	(1,320)	51.9	18.7	14.7	13.8	0.0	0.9
	수출없음	(2,238)	48.6	25.0	11.8	11.6	1.0	2.1
종사자수	50명미만	(1,197)	48.1	26.9	11.7	12.5	0.2	0.6
	50 ~ 100명미만	(508)	45.4	23.5	15.3	9.6	3.3	2.8
	100 ~ 200명미만	(610)	52.7	20.4	10.6	13.5	0.4	2.4
	200 ~ 300명미만	(363)	50.3	19.8	13.5	14.3	0.0	2.1
	300 ~ 500명미만	(360)	50.8	20.7	17.1	8.9	0.0	2.6
	500 ~ 1,000명미만	(347)	51.8	20.4	12.3	14.6	0.0	0.8
	1,000명이상	(173)	57.0	14.2	12.6	14.9	0.0	1.2
업력	0 ~ 7년미만	(541)	48.9	24.5	16.0	8.8	0.8	1.0
	7 ~ 20년미만	(1,398)	50.2	23.1	12.5	12.6	0.5	1.1
	20 ~ 30년미만	(633)	49.4	25.6	10.3	9.8	1.6	3.3
	30 ~ 40년미만	(414)	54.3	16.2	12.1	16.0	0.0	1.3
	40 ~ 50년미만	(328)	49.9	20.0	14.3	13.6	0.0	2.1
	50년이상	(244)	43.0	24.5	16.1	15.3	0.0	1.0
매출유형	B2B	(2,832)	52.0	21.6	13.1	11.0	0.5	1.7
	B2C	(622)	41.6	28.0	12.0	15.9	0.9	1.5
	B2G	(104)	40.1	19.5	10.1	28.0	2.3	0.0
상장	상장	(760)	51.4	22.1	13.2	11.7	0.0	1.6
	비상장	(2,798)	49.3	22.9	12.7	12.6	0.8	1.7

[표 2-12] M&A활성화 필요정책 : 1+2순위

(단위 : %, 중복응답)

구분		사례수	법인세 등 세제 혜택부여	규제완화	정책자금 확대	M&A 컨설팅 지원	기타	없음
전체		(3,558)	69.6	50.1	31.3	24.5	0.7	1.6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2,885)	70.8	50.5	30.3	24.2	0.6	1.3
	관계기업	(673)	64.4	48.0	36.0	25.8	1.1	3.1
업종	제조업	(1,488)	70.5	48.8	35.5	24.6	0.5	1.5
	비제조업	(2,070)	69.0	51.0	28.4	24.4	0.8	1.8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625)	60.3	50.8	29.9	27.8	0.8	0.8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934)	69.1	49.5	31.8	22.9	0.9	2.1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474)	64.9	49.8	29.8	27.5	0.5	2.0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636)	72.3	46.6	36.2	23.9	0.9	2.8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367)	71.4	50.2	35.2	25.1	0.0	0.7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253)	74.4	50.4	29.1	25.7	0.0	1.7
	5천억원 ~ 1조원미만	(179)	86.2	51.5	23.2	19.1	1.1	0.0
	1조원이상	(90)	92.1	71.4	17.5	11.1	0.0	0.0
수출여부	수출있음	(1,320)	71.7	48.3	36.8	27.3	0.2	0.9
	수출없음	(2,238)	68.4	51.1	28.1	22.8	1.0	2.1
종사자수	50명미만	(1,197)	67.2	51.9	27.7	26.0	0.2	0.6
	50 ~ 100명미만	(508)	67.4	47.1	37.5	21.3	3.3	2.8
	100 ~ 200명미만	(610)	64.2	45.9	36.2	26.2	0.4	2.4
	200 ~ 300명미만	(363)	74.7	54.7	29.0	26.2	0.0	2.1
	300 ~ 500명미만	(360)	70.2	46.8	34.8	19.5	0.6	2.6
	500 ~ 1,000명미만	(347)	77.6	52.9	26.0	26.0	0.0	0.8
	1,000명이상	(173)	84.1	52.0	29.9	21.2	0.0	1.2
업력	0 ~ 7년미만	(541)	71.8	56.6	27.2	20.4	0.8	1.0
	7 ~ 20년미만	(1,398)	67.2	49.5	32.1	24.7	0.5	1.1
	20 ~ 30년미만	(633)	70.6	51.9	30.1	21.4	1.6	3.3
	30 ~ 40년미만	(414)	76.7	41.7	33.8	28.0	0.0	1.3
	40 ~ 50년미만	(328)	70.9	50.2	31.9	25.1	0.5	2.1
	50년이상	(244)	64.0	52.3	31.2	30.0	0.0	1.0
매출유형	B2B	(2,832)	71.6	49.1	31.7	23.8	0.6	1.7
	B2C	(622)	61.4	53.5	31.3	26.1	0.9	1.5
	B2G	(104)	64.4	55.7	22.3	33.1	2.3	0.0
상장	상장	(760)	71.2	51.2	31.7	25.7	0.0	1.6
	비상장	(2,798)	69.1	49.7	31.2	24.1	0.9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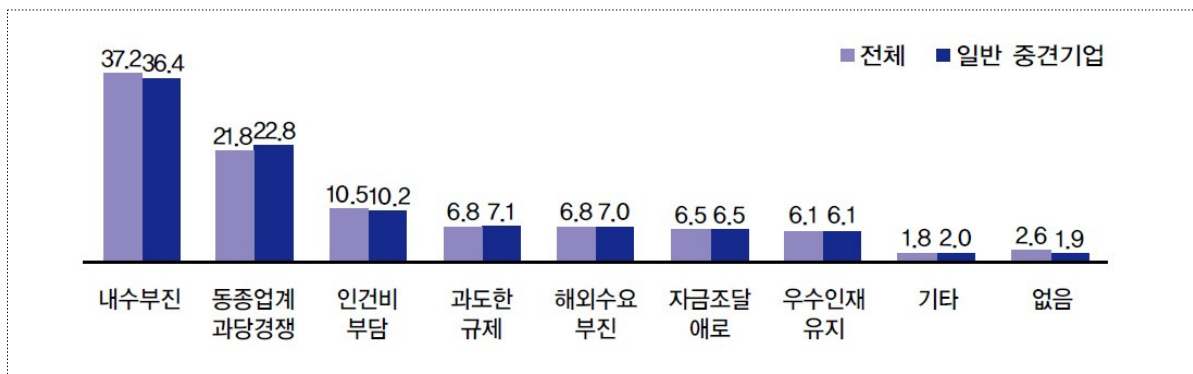
3. 중견기업 경영 애로

□ 경영 애로사항

- 중견기업은 가장 큰 경영상의 애로사항으로 내수 부진(37.2%)을 꼽았으며, 이어서 동종업계 과당경쟁(21.8%), 인건비 부담(10.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은 내수부진(36.4%), 동종업계 과당경쟁(22.8%), 인건비 부담(10.2%)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2-6] 경영 애로사항

(단위: %)



특성별 분석

- 응답기업 특성별로 비율 차이는 있으나 모든 기업군에서 내수부진, 동종업계 과당경쟁 순으로 나타남
- 제조업은 내수부진 다음으로 인건비 부담(12.1%), 해외수요 부진(11.7%) 순으로 나타난 반면, 비제조업은 인건비 부담(9.3%), 과도한 규제(8.6%) 순으로 나타남
- 수출기업은 해외수요 부진(13.4%), 인건비 부담(8.6%) 순이지만, 내수기업은 인건비 부담(11.6%), 과도한 규제(8.2%) 순으로 조사됨
- 제조업과 수출기업이 인건비 부담과 해외수요 부진에 대한 애로를 토로한 반면, 비제조업 및 내수기업은 과도한 규제에 대한 애로사항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작년과 동일하게 업력이 짧은 신생기업보다 업력이 긴 기업일수록 내수부진에 대한 애로점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음

[표 2-13] 경영 애로사항 : 1순위

(단위 : %)

구분		사례수	내수부진	동종업계 과당경쟁	인건비 부담	과도한 규제
전체		(3,558)	37.2	21.8	10.5	6.8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2,885)	36.4	22.8	10.2	7.1
	관계기업	(673)	40.7	17.8	11.9	5.2
업종	제조업	(1,488)	37.6	18.7	12.1	4.2
	비제조업	(2,070)	36.9	24.1	9.3	8.6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625)	24.8	21.1	13.1	10.0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934)	37.0	23.9	13.8	9.0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474)	42.7	23.2	10.1	6.4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636)	38.9	19.5	12.8	4.1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367)	41.8	23.0	2.3	4.6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253)	39.4	24.0	4.2	4.2
	5천억원 ~ 1조원미만	(179)	47.7	17.5	5.2	5.9
	1조원이상	(90)	39.7	12.6	4.8	0.0
수출여부	수출있음	(1,320)	35.9	20.5	8.6	4.3
	수출없음	(2,238)	38.0	22.6	11.6	8.2
종사자수	50명미만	(1,197)	34.4	20.9	10.0	10.7
	50 ~ 100명미만	(508)	42.4	21.7	9.0	6.3
	100 ~ 200명미만	(610)	37.6	26.3	11.7	4.3
	200 ~ 300명미만	(363)	38.7	22.0	9.8	3.1
	300 ~ 500명미만	(360)	35.8	25.4	9.2	4.5
	500 ~ 1,000명미만	(347)	42.6	16.1	8.7	5.3
	1,000명이상	(173)	29.3	16.8	22.0	4.9
업력	0 ~ 7년미만	(541)	26.7	16.5	12.1	15.5
	7 ~ 20년미만	(1,398)	34.4	21.8	10.7	7.5
	20 ~ 30년미만	(633)	37.4	22.4	11.5	5.0
	30 ~ 40년미만	(414)	46.4	18.8	11.0	3.0
	40 ~ 50년미만	(328)	35.5	29.3	11.1	2.9
	50년이상	(244)	54.4	20.9	3.0	7.2
매출유형	B2B	(2,832)	36.7	20.8	11.1	6.4
	B2C	(622)	39.4	24.9	9.6	8.0
	B2G	(104)	37.2	32.7	0.0	10.1
상장	상장	(760)	38.7	20.5	8.1	5.0
	비상장	(2,798)	36.7	22.3	11.2	7.3

[표 2-14] 경영 애로사항 : 1순위(계속)

(단위 : %)

구분		사례수	해외수요 부진	자금조달 애로	우수인재 유치	기타	없음
전체		(3,558)	6.8	6.5	6.1	1.8	2.6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2,885)	7.0	6.5	6.1	2.0	1.9
	관계기업	(673)	5.9	6.3	6.1	0.8	5.5
업종	제조업	(1,488)	11.7	7.3	4.6	2.3	1.5
	비제조업	(2,070)	3.3	5.9	7.2	1.4	3.3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625)	3.4	8.5	8.8	1.5	8.7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934)	3.9	3.0	5.4	1.5	2.4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474)	7.1	3.7	5.0	0.5	1.2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636)	7.6	8.6	5.8	2.8	0.0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367)	9.5	9.3	5.5	3.2	0.7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253)	7.8	11.1	6.0	2.6	0.8
	5천억원 ~ 1조원미만	(179)	10.2	4.1	7.5	0.0	1.8
	1조원이상	(90)	31.9	7.9	3.1	0.0	0.0
수출여부	수출있음	(1,320)	13.4	6.5	7.0	2.7	1.0
	수출없음	(2,238)	2.9	6.4	5.6	1.2	3.5
종사자수	50명미만	(1,197)	3.9	5.6	7.2	2.0	5.4
	50 ~ 100명미만	(508)	5.4	9.6	3.9	0.0	1.7
	100 ~ 200명미만	(610)	7.4	5.2	6.5	0.5	0.5
	200 ~ 300명미만	(363)	8.0	6.7	4.5	4.1	2.9
	300 ~ 500명미만	(360)	6.7	7.0	7.7	3.1	0.8
	500 ~ 1,000명미만	(347)	12.3	7.4	4.7	2.9	0.0
	1,000명이상	(173)	14.7	4.1	6.9	0.0	1.2
업력	0 ~ 7년미만	(541)	2.8	6.2	10.5	3.1	6.5
	7 ~ 20년미만	(1,398)	6.6	7.6	5.9	1.6	3.9
	20 ~ 30년미만	(633)	5.7	8.2	8.2	0.8	0.8
	30 ~ 40년미만	(414)	10.9	4.3	5.0	0.0	0.6
	40 ~ 50년미만	(328)	9.1	4.4	2.7	4.0	1.1
	50년이상	(244)	6.2	3.2	2.9	2.3	0.0
매출유형	B2B	(2,832)	7.8	6.7	6.1	2.0	2.5
	B2C	(622)	3.3	6.3	6.6	0.0	1.9
	B2G	(104)	0.0	0.0	4.4	6.3	9.3
상장	상장	(760)	12.4	6.6	5.8	2.9	0.0
	비상장	(2,798)	5.0	6.4	6.2	1.4	3.4

[표 2-15] 경영 애로사항 : 1+2순위

(단위 : %, 중복응답)

구분		사례수	내수부진	동종업계 과당경쟁	인건비 부담	해외수요 부진
전체		(3,558)	49.8	45.4	21.0	13.9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2,885)	48.8	47.5	20.1	14.5
	관계기업	(673)	54.0	36.6	24.8	11.4
업종	제조업	(1,488)	51.7	41.6	23.7	24.7
	비제조업	(2,070)	48.3	48.2	19.0	6.1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625)	37.8	40.9	19.8	6.4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934)	50.7	46.4	25.2	8.7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474)	55.1	42.3	19.2	12.4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636)	49.6	49.9	25.6	21.3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367)	55.8	44.9	14.7	18.2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253)	53.9	53.0	15.3	13.0
	5천억원 ~ 1조원미만	(179)	55.9	43.0	17.9	19.5
	1조원이상	(90)	47.6	36.4	9.6	49.4
수출여부	수출있음	(1,320)	47.6	44.6	19.1	28.4
	수출없음	(2,238)	51.0	45.9	22.1	5.4
종사자수	50명미만	(1,197)	47.3	40.6	15.1	7.1
	50 ~ 100명미만	(508)	52.4	52.8	23.4	12.1
	100 ~ 200명미만	(610)	50.8	47.4	24.4	17.7
	200 ~ 300명미만	(363)	56.3	43.8	18.1	16.3
	300 ~ 500명미만	(360)	48.4	53.8	22.0	15.3
	500 ~ 1,000명미만	(347)	53.4	39.9	25.9	24.0
	1,000명이상	(173)	36.5	46.7	36.5	24.4
업력	0 ~ 7년미만	(541)	42.6	38.5	19.6	8.2
	7 ~ 20년미만	(1,398)	43.7	45.1	20.7	12.3
	20 ~ 30년미만	(633)	56.5	44.7	25.5	13.3
	30 ~ 40년미만	(414)	59.9	45.3	20.4	19.9
	40 ~ 50년미만	(328)	46.2	51.6	23.4	19.8
	50년이상	(244)	64.2	49.0	10.1	13.9
매출유형	B2B	(2,832)	48.4	43.5	21.1	16.0
	B2C	(622)	55.8	51.6	23.7	6.9
	B2G	(104)	50.0	60.8	2.6	0.0
상장	상장	(760)	49.2	47.2	17.9	26.0
	비상장	(2,798)	49.9	44.9	21.9	10.1

[표 2-16] 경영 애로사항 : 1+2순위(계속)

(단위 : %, 중복응답)

구분		사례수	자금조달 애로	과도한 규제	우수인재 유치	기타	없음
전체		(3,558)	13.4	13.0	12.7	3.4	2.6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2,885)	13.7	13.6	12.8	3.8	1.9
	관계기업	(673)	12.2	10.5	12.3	1.6	5.5
업종	제조업	(1,488)	13.7	8.3	9.4	3.9	1.5
	비제조업	(2,070)	13.2	16.4	15.1	3.0	3.3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625)	17.7	16.7	17.1	2.6	8.7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934)	7.8	14.7	12.3	3.3	2.4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474)	11.0	12.1	12.2	2.0	1.2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636)	15.7	10.0	10.8	3.8	0.0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367)	17.7	12.2	12.4	4.8	0.7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253)	18.8	10.1	10.2	5.1	0.8
	5천억원 ~ 1조원미만	(179)	9.3	11.9	14.6	3.0	1.8
	1조원이상	(90)	12.7	9.4	7.9	4.8	0.0
수출여부	수출있음	(1,320)	14.9	8.8	13.7	4.6	1.0
	수출없음	(2,238)	12.5	15.5	12.2	2.7	3.5
종사자수	50명미만	(1,197)	15.3	18.1	14.3	3.0	5.4
	50 ~ 100명미만	(508)	12.5	11.3	11.0	2.2	1.7
	100 ~ 200명미만	(610)	10.8	8.9	13.1	2.2	0.5
	200 ~ 300명미만	(363)	16.0	11.1	11.4	6.1	2.9
	300 ~ 500명미만	(360)	11.1	9.5	11.8	5.7	0.8
	500 ~ 1,000명미만	(347)	13.5	11.9	10.8	2.9	0.0
	1,000명이상	(173)	11.6	10.9	14.2	4.2	1.2
업력	0 ~ 7년미만	(541)	9.6	24.5	19.1	6.1	6.5
	7 ~ 20년미만	(1,398)	16.3	11.4	13.5	3.2	3.9
	20 ~ 30년미만	(633)	13.8	13.3	13.8	1.3	0.8
	30 ~ 40년미만	(414)	11.3	10.5	12.1	0.7	0.6
	40 ~ 50년미만	(328)	8.6	10.6	5.6	7.2	1.1
	50년이상	(244)	12.3	13.0	9.1	4.6	0.0
매출유형	B2B	(2,832)	13.7	12.9	13.4	3.5	2.5
	B2C	(622)	13.8	11.3	10.7	2.6	1.9
	B2G	(104)	2.7	25.0	7.1	6.3	9.3
상장	상장	(760)	10.7	10.9	11.8	4.7	0.0
	비상장	(2,798)	14.3	13.7	13.0	3.0	3.4

3절 기술혁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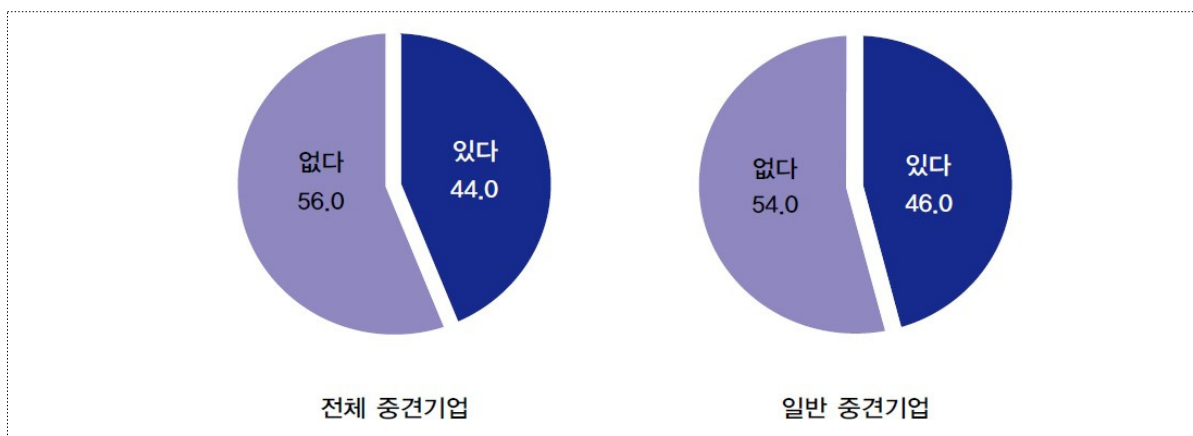
1. 중견기업의 기술/설비 투자

□ 2016년 R&D 투자실적

- 중견기업의 44.0%는 2016년 R&D 투자실적이 있으며, 총 6조 1,951억원을 투자함.
기업당 평균 17.4억원을 투자하였으며, 투자실적이 있는 기업은 평균 39.8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의 46.0%는 투자실적이 있으며 총 5조 9,587억원, 기업당 평균 20.7억원(투자경험이 있는 기업 평균 45.1억원)을 투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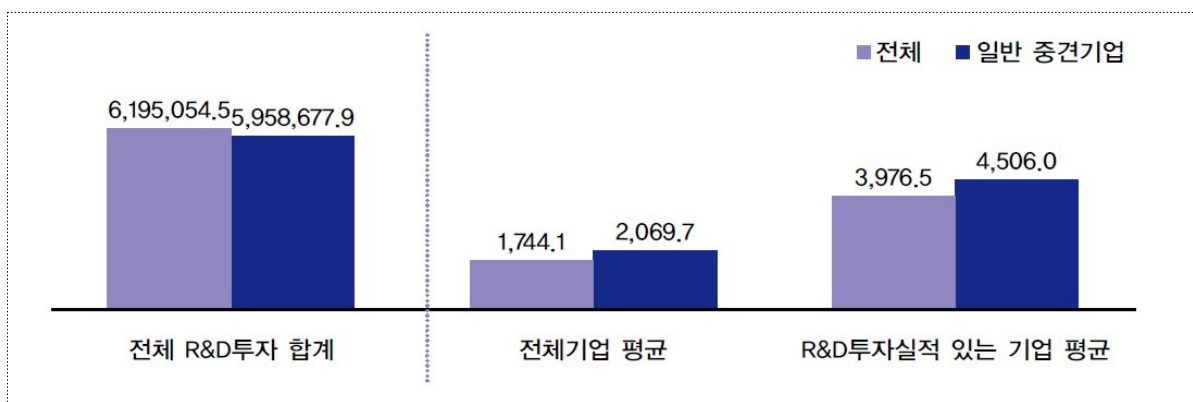
[그림 2-7] 2016년 R&D 투자 유무

(단위: %)



[그림 2-8] 2016년 R&D 투자금액

(단위: 백만원)



특성별 분석

- 업종별로는 2016년에 R&D 투자를 한 기업의 비중이 제조업 72.6%, 비제조업 23.3%로 제조업이 비제조업보다 R&D 투자가 많음
 - R&D 투자금액은 제조업이 전체 5조 3,188억원을 투자, 비제조업이 8,762억원을 투자함
 - 제조업 평균 49.4억원, 비제조업 평균 18.2억원을 R&D에 투자함
- 매출규모가 클수록 2016년에 R&D 투자를 한 기업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음(2천억원~3천억원 미만 제외)
- 수출기업의 77.3%가 2016년에 R&D 투자 실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반면, 내수기업은 24.3%만이 R&D 투자 실적이 있음
- 중견기업의 업력이 길수록 R&D 투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50년 이상 제외)
- 매출규모가 클수록, 업력이 길수록 대체적으로 R&D투자를 하는 비율이 상승하고 비용 또한 크게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남
- 상장 여부별로는 비상장 기업의 33.4%, 상장기업의 77.3%가 R&D 투자 실적이 있음
- 상장기업 및 수출기업이 R&D 투자 경험이 많은 것으로 조사됨

[표 2-17] 2016년 R&D 투자실적

(단위 :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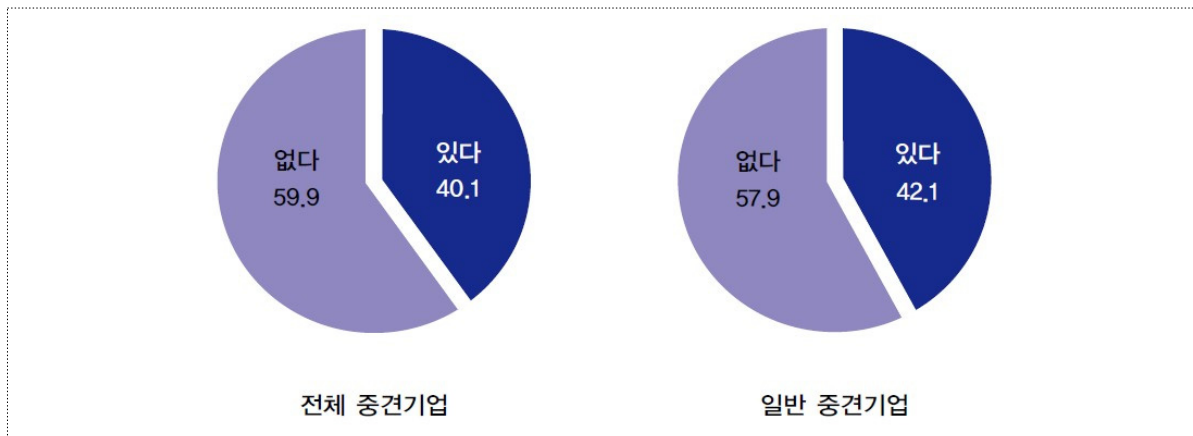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R&D 투자여부		전체 투자금액	평균 투자금액	
			투자함	투자안함		전체 기업	투자실적 있는 기업
전체		(3,558)	44.0	56.0	6,195,054.5	1,744.1	3,976.5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2,885)	46.0	54.0	5,958,677.9	2,069.7	4,506.0
	관계기업	(673)	35.0	65.0	236,376.5	351.2	1,003.6
업종	제조업	(1,488)	72.6	27.4	5,318,817.2	3,581.9	4,935.8
	비제조업	(2,070)	23.3	76.7	876,237.3	423.9	1,824.3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625)	15.2	84.8	70,100.5	112.2	737.6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934)	29.4	70.6	143,572.9	153.7	523.5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474)	46.3	53.7	282,332.3	595.6	1,285.2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636)	62.5	37.5	1,409,410.2	2,237.0	3,601.4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367)	60.8	39.2	909,221.4	2,477.4	4,075.2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253)	66.1	33.9	839,131.6	3,316.7	5,018.5
	5천억원 ~ 1조원미만	(179)	62.3	37.7	937,916.5	5,239.8	8,416.1
	1조원이상	(90)	84.3	15.7	1,603,369.0	17,815.2	21,143.3
수출여부	수출있음	(1,320)	77.3	22.7	5,604,668.0	4,265.6	5,528.9
	수출없음	(2,238)	24.3	75.7	590,386.4	263.8	1,084.8
종사자수	50명미만	(1,197)	13.1	86.9	54,613.9	45.6	347.9
	50 ~ 100명미만	(508)	39.5	60.5	116,960.3	230.2	583.4
	100 ~ 200명미만	(610)	52.7	47.3	272,407.3	449.1	856.1
	200 ~ 300명미만	(363)	62.0	38.0	652,816.5	1,797.3	2,897.9
	300 ~ 500명미만	(360)	72.6	27.4	1,021,069.0	2,836.1	3,907.6
	500 ~ 1,000명미만	(347)	81.7	18.3	2,111,501.8	6,093.7	7,459.7
	1,000명이상	(173)	66.6	33.4	1,965,685.7	11,522.6	17,456.2
업력	0 ~ 7년미만	(541)	27.2	72.8	358,100.1	1,005.2	3,778.8
	7 ~ 20년미만	(1,398)	32.4	67.6	1,235,372.2	863.8	2,681.8
	20 ~ 30년미만	(633)	47.5	52.5	1,019,320.6	1,493.2	3,142.6
	30 ~ 40년미만	(414)	54.8	45.2	999,469.6	2,451.5	4,471.4
	40 ~ 50년미만	(328)	69.3	30.7	1,313,429.2	3,238.2	4,675.0
	50년이상	(244)	64.4	35.6	1,269,362.7	4,708.0	7,309.4
매출유형	B2B	(2,832)	47.4	52.6	5,516,163.9	1,951.9	4,126.9
	B2C	(622)	27.2	72.8	482,981.4	777.0	2,858.2
	B2G	(104)	50.1	49.9	195,909.2	1,875.1	3,746.3
상장	상장	(760)	77.3	22.7	4,569,944.7	5,348.2	6,922.3
	비상장	(2,798)	33.4	66.6	1,625,109.8	602.4	1,810.2

□ 2017년 R&D 투자계획

- 중견기업의 40.1%는 2017년 R&D 투자계획이 있으며, 총 5조 1,786억원을 투자할 계획임. 기업당 평균 14.8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투자계획이 있는 기업은 평균 37.7억원을 투자할 것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 중 42.1%가 2017년 R&D 투자계획이 있으며, 그 금액은 총 4조 9,829억원으로 조사됨. 기업당 평균 17.5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투자계획이 있는 기업은 평균 42.4억을 투자할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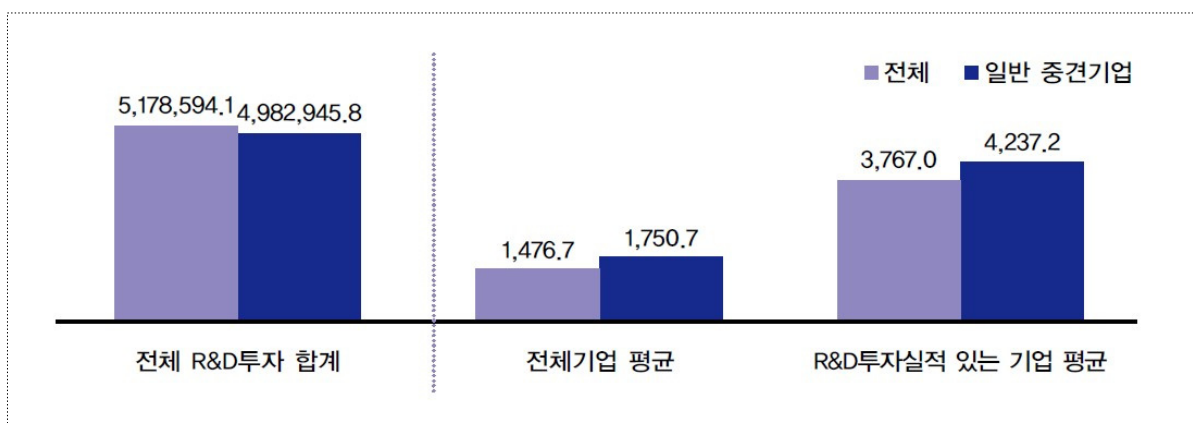
[그림 2-9] 2017년 R&D 투자계획 유무

(단위: %)



[그림 2-10] 2017년 R&D 투자금액

(단위: 백만원)



특성별 분석

- 업종별로는 2017년에 R&D 투자계획이 있는 기업의 비중이 제조업 69.2%, 비제조업 19.1%로 제조업이 비제조업보다 R&D 투자가 많을 것으로 조사됨
 - 2017 R&D 투자계획 금액은 제조업이 전체 4조 3,397억원, 비제조업이 8,389억원임
 - 제조업은 평균 42.9억원, 비제조업 평균 23.1억원을 2017년 R&D에 투자할 예정임(투자계획이 있는 기업 기준)
-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2017년에 R&D 투자를 할 기업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음(5천억원~1조원 미만 제외)
- 수출기업의 74.0%가 2017년에 R&D 투자 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반면, 내수기업은 20.1%만이 R&D 투자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업력별로도 업력이 길수록 R&D 투자계획이 있는 기업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상장 여부별로는 비상장 기업의 29.1%가 2017년에 R&D 투자 계획이 있으며 상장기업은 74.8%가 R&D 투자 계획에 있음
- 상장기업 및 수출기업이 2017년 R&D 투자계획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투자 금액 또한 높은 것으로 조사됨

[표 2-18] 2017년 R&D 투자계획

(단위 :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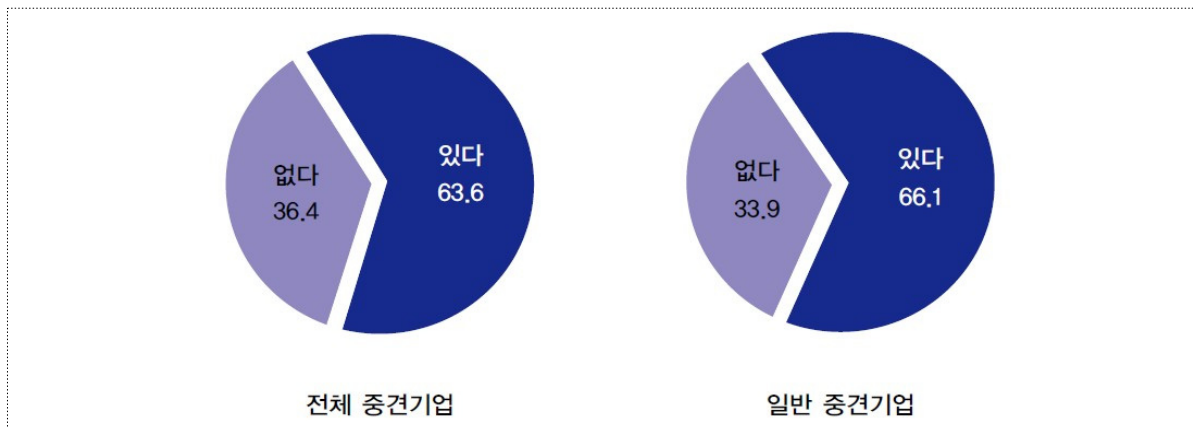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R&D 투자여부		전체 투자금액	평균 투자금액	
			투자함	투자안함		전체 기업	투자실적 있는 기업
전체		(3,558)	40.1	59.9	5,178,594.1	1,476.7	3,767.0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2,885)	42.1	57.9	4,982,945.8	1,750.7	4,237.2
	관계기업	(673)	31.4	68.6	195,648.3	296.2	984.5
업종	제조업	(1,488)	69.2	30.8	4,339,677.7	2,951.3	4,287.1
	비제조업	(2,070)	19.1	80.9	838,916.4	412.0	2,314.5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625)	13.3	86.7	72,594.5	117.8	974.2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934)	24.3	75.7	115,336.1	125.0	535.1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474)	41.2	58.8	251,382.0	533.2	1,302.9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636)	58.8	41.2	1,267,048.4	2,047.2	3,547.5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367)	57.8	42.2	807,031.8	2,232.0	3,906.4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253)	63.5	36.5	730,640.3	2,938.0	4,669.9
	5천억원 ~ 1조원미만	(179)	58.6	41.4	922,696.4	5,213.6	8,974.3
	1조원이상	(90)	76.3	23.7	1,011,864.7	11,242.9	14,730.4
수출여부	수출있음	(1,320)	74.0	26.0	4,678,800.3	3,601.9	4,896.2
	수출없음	(2,238)	20.1	79.9	499,793.8	226.4	1,192.4
종사자수	50명미만	(1,197)	11.5	88.5	65,011.5	54.9	516.8
	50 ~ 100명미만	(508)	30.4	69.6	98,786.1	196.5	663.0
	100 ~ 200명미만	(610)	47.5	52.5	236,995.8	393.8	841.2
	200 ~ 300명미만	(363)	59.0	41.0	616,376.1	1,736.6	2,994.4
	300 ~ 500명미만	(360)	69.5	30.5	850,513.3	2,398.6	3,476.3
	500 ~ 1,000명미만	(347)	78.5	21.5	1,696,038.5	4,966.9	6,356.2
	1,000명이상	(173)	62.2	37.8	1,614,872.8	9,701.7	16,012.2
업력	0 ~ 7년미만	(541)	25.0	75.0	375,554.9	1,060.7	4,424.4
	7 ~ 20년미만	(1,398)	28.8	71.2	837,482.6	589.8	2,093.8
	20 ~ 30년미만	(633)	44.2	55.8	820,949.2	1,234.3	2,888.9
	30 ~ 40년미만	(414)	49.7	50.3	869,552.6	2,147.5	4,353.6
	40 ~ 50년미만	(328)	61.3	38.7	1,223,728.7	3,091.8	5,120.0
	50년이상	(244)	62.9	37.1	1,051,326.1	3,939.0	6,297.5
매출유형	B2B	(2,832)	43.6	56.4	4,482,347.1	1,610.7	3,782.3
	B2C	(622)	22.9	77.1	481,246.8	776.9	3,432.7
	B2G	(104)	47.3	52.7	215,000.3	2,057.9	4,348.3
상장	상장	(760)	74.8	25.2	3,791,585.4	4,517.0	6,072.7
	비상장	(2,798)	29.1	70.9	1,387,008.7	520.0	1,848.4

□ 2016년 설비투자 실적

- 중견기업의 63.6%는 2016년 설비투자 실적이 있으며, 총 23조 2,187억원을 투자함. 기업당 평균 65.4억원을 투자하였으며, 투자실적이 있는 기업은 평균 102.9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 중 66.1%가 2016년 설비투자 실적이 있으며, 그 금액은 총 21조 7,252억원으로 조사됨. 기업당 평균 75.5억원을 투자하였으며, 투자경험이 있는 기업은 평균 114.4억원을 투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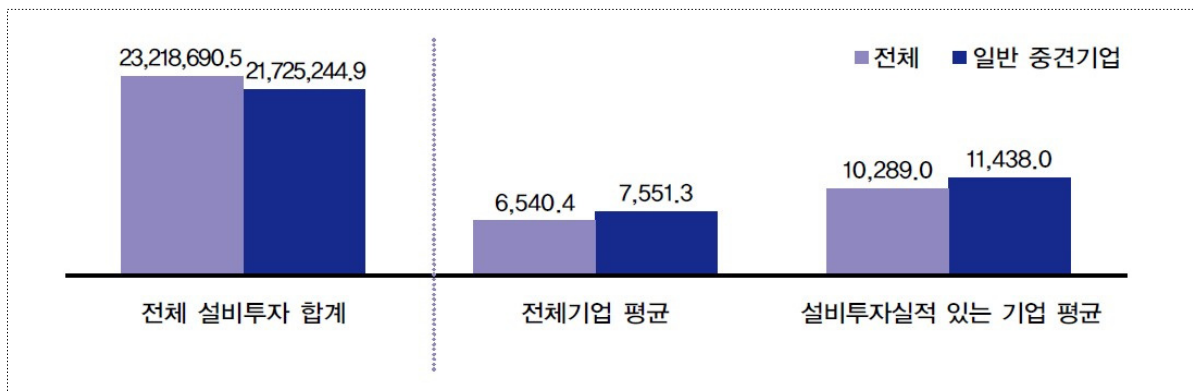
[그림 2-11] 2016년 설비투자 유무

(단위: %)



[그림 2-12] 2016년 설비투자금액

(단위: 백만원)



특성별 분석

- 업종별로는 2016년에 설비투자를 한 기업의 비중이 제조업 83.6%, 비제조업 49.3%로 제조업이 비제조업보다 설비투자가 많음
 - 설비 투자금액은 제조업이 12조 716억원, 비제조업이 11조 1,470억원임
 - 제조업 평균 97.5억원, 비제조업 평균 109.5억원을 설비에 투자함
-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2016년에 설비투자를 한 기업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음(5천억원~1조원 미만 제외)
- 수출기업의 85.1%가 2016년에 설비투자 실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반면, 내수기업은 51.0%만이 설비투자 실적이 있음
- 업력별로도 업력이 길수록 설비투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50년 이상 제외)
 - R&D 투자비용과 같이 대체적으로 매출액이 증가할수록 업력이 길수록 설비투자 비율이 상승하고 비용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상장 여부별로는 비상장 기업의 57.2%, 상장기업의 84.0%가 2016년에 설비투자 실적이 있음
- 상장기업 및 수출기업이 설비투자 경험이 많은 것으로 조사됨

[표 2-19] 2016년 설비투자 실적

(단위 :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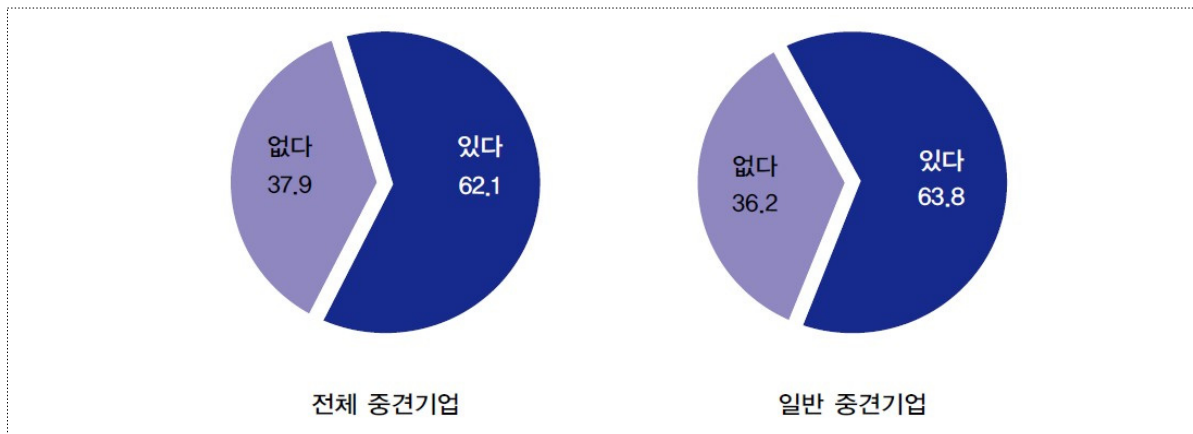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설비투자여부		전체 투자금액	평균 투자금액	
			투자함	투자안함		전체 기업	투자실적 있는 기업
전체		(3,558)	63.6	36.4	23,218,690.5	6,540.4	10,289.0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2,885)	66.1	33.9	21,725,244.9	7,551.3	11,438.0
	관계기업	(673)	53.1	46.9	1,493,445.6	2,219.1	4,180.3
업종	제조업	(1,488)	83.6	16.4	12,071,647.4	8,140.7	9,745.3
	비제조업	(2,070)	49.3	50.7	11,147,043.1	5,392.5	10,950.7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625)	32.5	67.5	680,181.4	1,088.3	3,347.1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934)	55.7	44.3	1,922,373.6	2,058.2	3,698.0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474)	65.4	34.6	2,651,972.7	5,594.9	8,559.4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636)	80.0	20.0	3,823,032.4	6,067.8	7,605.2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367)	80.3	19.7	2,693,813.5	7,340.1	9,143.3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253)	84.0	16.0	2,398,809.7	9,481.5	11,290.3
	5천억원 ~ 1조원미만	(179)	76.7	23.3	4,285,977.7	24,217.2	31,675.6
	1조원이상	(90)	87.4	12.6	4,762,529.4	52,917.0	60,540.6
수출여부	수출있음	(1,320)	85.1	14.9	12,102,770.9	9,205.4	10,825.9
	수출없음	(2,238)	51.0	49.0	11,115,919.6	4,973.0	9,761.9
종사자수	50명미만	(1,197)	38.3	61.7	1,808,806.7	1,511.1	3,942.4
	50 ~ 100명미만	(508)	61.7	38.3	1,628,955.7	3,206.2	5,193.4
	100 ~ 200명미만	(610)	71.9	28.1	2,893,254.8	4,769.5	6,650.4
	200 ~ 300명미만	(363)	85.9	14.1	4,002,454.5	11,019.4	12,834.6
	300 ~ 500명미만	(360)	80.1	19.9	2,587,175.6	7,186.1	8,971.2
	500 ~ 1,000명미만	(347)	90.0	10.0	5,082,191.7	14,666.9	16,301.3
	1,000명이상	(173)	81.9	18.1	5,215,851.4	30,941.0	38,037.3
업력	0 ~ 7년미만	(541)	50.1	49.9	2,065,783.4	5,752.5	11,483.3
	7 ~ 20년미만	(1,398)	54.7	45.3	6,514,381.9	4,561.2	8,363.2
	20 ~ 30년미만	(633)	66.9	33.1	2,930,024.4	4,292.3	6,417.6
	30 ~ 40년미만	(414)	76.6	23.4	3,526,381.0	8,710.3	11,398.3
	40 ~ 50년미만	(328)	83.3	16.7	5,971,876.8	14,723.4	17,673.3
	50년이상	(244)	71.9	28.1	2,210,243.0	8,197.7	11,394.3
매출유형	B2B	(2,832)	65.5	34.5	17,527,340.2	6,206.7	9,493.1
	B2C	(622)	58.7	41.3	5,567,932.8	8,957.5	15,265.1
	B2G	(104)	43.6	56.4	123,417.6	1,181.3	2,707.9
상장	상장	(760)	84.0	16.0	11,474,686.7	13,460.7	16,032.8
	비상장	(2,798)	57.2	42.8	11,744,003.8	4,353.6	7,621.3

□ 2017년 설비투자 계획

- 중견기업의 62.1%는 2017년 설비투자 계획이 있으며, 총 21조 5,189억원을 투자할 계획임. 기업당 평균 61.6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투자계획이 있는 기업은 평균 100.4억원을 투자할 것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 중 63.8%가 2017년 설비투자 계획이 있으며, 그 금액은 총 19조 6,686억원임. 기업당 평균 69.7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투자계획이 있는 기업은 평균 110.5억원을 투자할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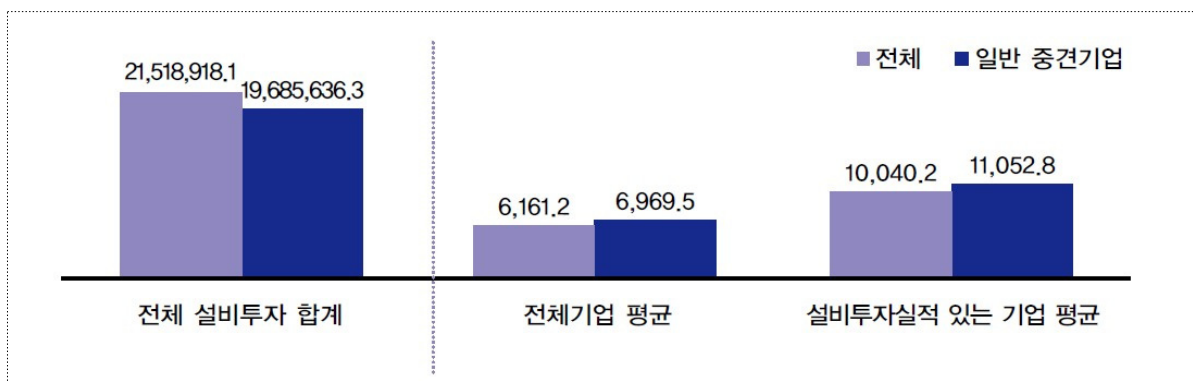
[그림 2-13] 2017년 설비투자 계획 유무

(단위: %)



[그림 2-14] 2017년 설비투자금액

(단위: 백만원)



특성별 분석

- 업종별로는 2017년에 설비투자 계획이 있는 기업의 비중이 제조업 81.8%, 비제조업 47.9%로 제조업이 비제조업보다 설비투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
 - 2017년 설비투자 계획 금액은 제조업 11조 6,266억원, 비제조업 9조 8,923억원임
 - 제조업은 평균 97.1억원, 비제조업은 평균 104.5억원을 2017년 설비에 투자할 예정임(투자계획이 있는 기업 기준)
- 매출규모별로는 매출규모가 클수록 2017년에 설비투자를 할 기업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음(5천억원~1조원 미만 제외)
- 수출기업의 82.2%가 2017년에 설비투자 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반면, 내수기업은 50.2%만이 설비투자 계획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업력별로도 업력이 길수록 설비투자 계획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50년 이상 제외)
- 상장 여부별로는 비상장 기업의 56.6%, 상장기업의 79.5%가 2017년 설비투자 계획이 있음
- R&D 투자계획과 같이 상장기업 및 수출기업의 2017년 설비투자 계획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표 2-20] 2017년 설비투자 계획

(단위 :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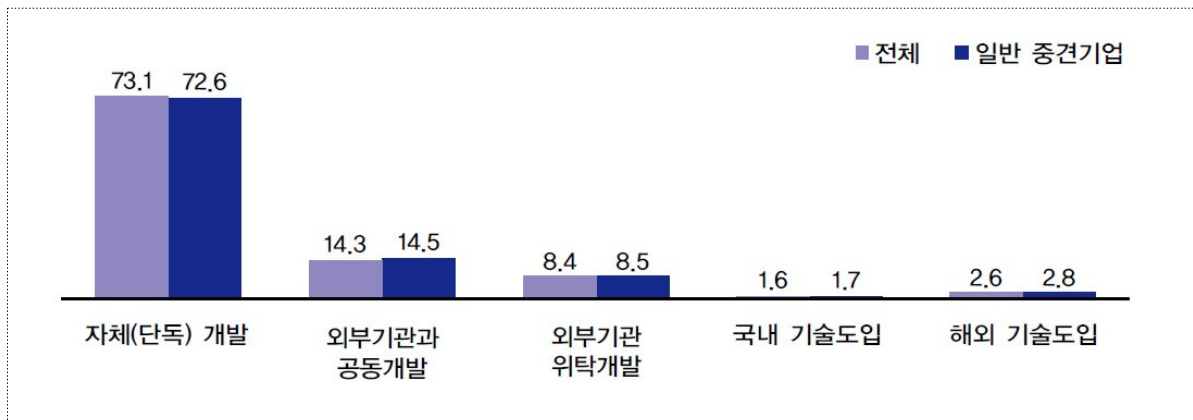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설비투자여부		전체 투자금액	평균 투자금액	
			투자함	투자안함		전체 기업	투자실적 있는 기업
전체		(3,558)	62.1	37.9	21,518,918.1	6,161.2	10,040.2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2,885)	63.8	36.2	19,685,636.3	6,969.5	11,052.8
	관계기업	(673)	54.6	45.4	1,833,281.8	2,744.1	5,061.3
업종	제조업	(1,488)	81.8	18.2	11,626,599.5	7,924.4	9,712.6
	비제조업	(2,070)	47.9	52.1	9,892,318.6	4,884.0	10,454.8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625)	36.7	63.3	835,200.5	1,336.3	3,641.5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934)	53.3	46.7	1,150,528.9	1,239.3	2,339.0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474)	62.4	37.6	3,071,686.3	6,515.8	10,483.8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636)	76.8	23.2	3,205,427.8	5,328.5	7,060.2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367)	74.9	25.1	3,311,039.3	9,302.9	12,558.6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253)	83.1	16.9	2,420,588.9	9,733.5	11,748.7
	5천억원 ~ 1조원미만	(179)	74.9	25.1	3,365,100.4	19,603.7	26,563.7
	1조원이상	(90)	87.4	12.6	4,159,345.9	46,215.0	52,873.0
수출여부	수출있음	(1,320)	82.2	17.8	11,415,625.3	8,803.5	10,748.0
	수출없음	(2,238)	50.2	49.8	10,103,292.8	4,600.9	9,344.9
종사자수	50명미만	(1,197)	38.4	61.6	1,146,482.6	966.8	2,553.8
	50 ~ 100명미만	(508)	62.7	37.3	2,146,524.1	4,248.7	6,799.8
	100 ~ 200명미만	(610)	65.5	34.5	3,086,699.6	5,184.2	8,010.1
	200 ~ 300명미만	(363)	82.7	17.3	3,160,813.9	9,069.0	11,063.5
	300 ~ 500명미만	(360)	78.4	21.6	2,740,730.8	7,791.9	10,000.3
	500 ~ 1,000명미만	(347)	89.2	10.8	4,993,886.1	14,624.8	16,433.9
	1,000명이상	(173)	80.0	20.0	4,243,781.0	25,808.7	32,725.5
업력	0 ~ 7년미만	(541)	50.8	49.2	1,775,734.3	4,944.9	9,725.1
	7 ~ 20년미만	(1,398)	54.3	45.7	5,669,067.9	4,047.4	7,603.0
	20 ~ 30년미만	(633)	66.6	33.4	2,832,988.0	4,272.8	6,516.9
	30 ~ 40년미만	(414)	71.4	28.6	3,618,124.0	8,936.9	12,548.2
	40 ~ 50년미만	(328)	79.0	21.0	5,678,602.5	14,147.3	17,955.2
	50년이상	(244)	67.4	32.6	1,944,401.4	7,376.4	11,065.3
매출유형	B2B	(2,832)	63.6	36.4	16,361,682.5	5,879.8	9,340.4
	B2C	(622)	58.3	41.7	5,063,264.1	8,362.7	14,634.7
	B2G	(104)	43.6	56.4	93,971.5	899.4	2,061.8
상장	상장	(760)	79.5	20.5	10,812,721.2	13,054.1	16,546.6
	비상장	(2,798)	56.6	43.4	10,706,196.9	4,018.3	7,186.3

□ 중견기업의 기술개발 방식

- 중견기업은 기술개발 시 자체개발하는 비중이 73.1%로 가장 높고 외부기관과의 공동개발(14.3%), 외부기관 위탁개발(8.4%), 해외기술 도입(2.6%), 국내 기술도입(1.6%) 순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은 자체개발(72.6%), 외부기관과의 공동개발(14.5%), 외부기관 위탁개발(8.5%), 해외 기술도입(2.8%), 국내 기술도입(1.7%) 순임

[그림 2-15] 기술개발 방식

(단위: %, 기술개발이 있는 기업)



특성별 분석

- 업종별로 제조업은 자체(단독) 개발(76.1%), 외부기관과 공동 개발(13.8%),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개발(6.2%) 순으로 나타났으며, 비제조업의 경우도 자체(64.9%), 외부기관과 공동(15.5%), 외부기관 위탁개발(14.3%) 등의 순으로 조사됨
- 수출기업이 내수기업에 비해 자체개발 비중이 높았으며, 내수기업은 수출기업에 비해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개발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주 거래처별로는 정부/공공기관이 주 거래처인 B2G기업이 다른 기업군에 비해 외부기관과 공동개발(26.1%)이 높게 나타났으며, 소비자가 주 거래처인 B2C기업의 경우 다른 기업군에 비해 해외 기술도입(5.2%)이 높게 나타남

[표 2-21] 기술개발 방식

(단위 : %, 기술개발이 있는 기업 1,535개사)

구분		자체(단독) 개발	외부기관과 공동개발	외부기관 위탁개발	국내 기술도입	해외 기술도입
전체		73.1	14.3	8.4	1.6	2.6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72.6	14.5	8.5	1.7	2.8
	관계기업	75.7	13.3	7.8	1.6	1.6
업종	제조업	76.1	13.8	6.2	1.0	2.9
	비제조업	64.9	15.5	14.3	3.4	1.9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75.2	20.1	3.4	1.3	0.0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71.8	14.3	8.3	2.8	2.7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72.5	13.2	10.1	0.4	3.8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72.1	13.6	10.0	1.8	2.5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76.6	13.0	7.0	1.0	2.4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77.3	14.8	4.3	2.6	1.0
	5천억원 ~ 1조원미만	71.5	13.2	11.1	1.2	2.9
	1조원이상	63.9	18.9	9.6	1.3	6.2
수출여부	수출있음	77.5	13.3	5.4	1.2	2.7
	수출없음	62.8	16.7	15.3	2.8	2.4
종사자수	50명미만	68.1	18.2	10.9	2.7	0.0
	50 ~ 100명미만	72.6	16.7	3.1	3.0	4.6
	100 ~ 200명미만	73.0	8.4	12.2	0.9	5.6
	200 ~ 300명미만	74.8	16.8	4.3	2.3	1.7
	300 ~ 500명미만	77.3	13.4	8.8	0.2	0.2
	500 ~ 1,000명미만	71.0	14.8	10.6	2.1	1.6
	1,000명이상	72.8	18.3	3.2	1.2	4.6
업력	0 ~ 7년미만	77.4	8.5	7.8	4.5	1.9
	7 ~ 20년미만	71.1	15.4	7.9	2.2	3.4
	20 ~ 30년미만	70.0	13.9	11.7	1.2	3.3
	30 ~ 40년미만	74.3	16.2	8.6	0.3	0.7
	40 ~ 50년미만	75.9	13.7	6.1	1.8	2.4
	50년이상	75.2	14.0	7.3	1.0	2.5
매출유형	B2B	74.2	15.0	7.0	1.3	2.4
	B2C	67.3	4.9	19.1	3.5	5.2
	B2G	59.5	26.1	9.8	4.5	0.0
상장	상장	77.5	14.0	5.5	0.9	2.1
	비상장	69.6	14.5	10.6	2.2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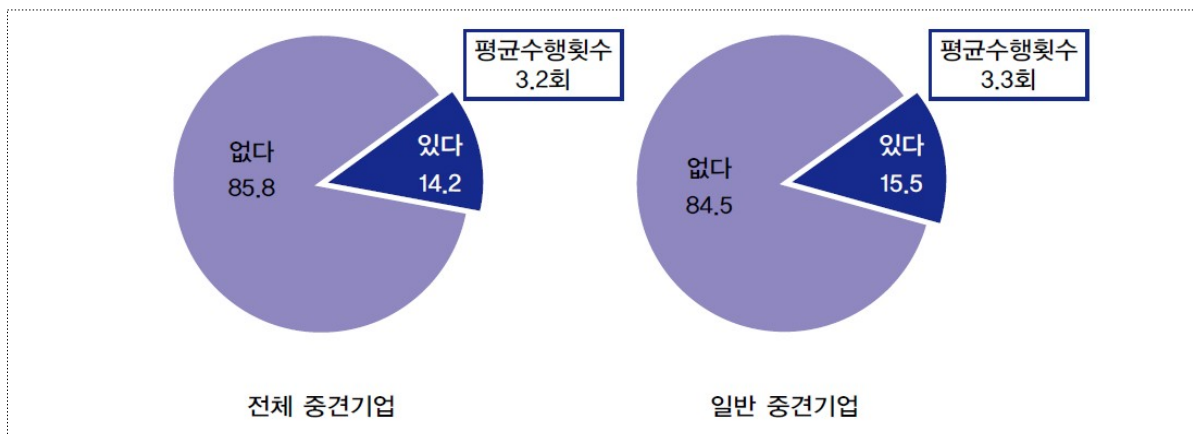
2. R&D관련 정부지원사업 수행

□ 2016년 R&D관련 정부지원사업 수행 여부

- 중견기업의 14.2%는 2016년에 정부지원 R&D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수행한 기업들의 평균 수행횟수는 3.2회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의 15.5%는 2016년에 정부지원 R&D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수행한 기업들의 평균 수행횟수는 3.3회로 조사됨

[그림 2-16] 정부지원 R&D사업 수행경험

(단위: %)



특성별 분석

-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27.9%, 비제조업의 4.3%가 정부지원 R&D사업 참여 경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지원 R&D사업이 비제조업보다 제조업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 매출규모별로는 매출액이 증가할수록 수행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3천억원~5천억원 미만 제외)
- 대체적으로 매출규모가 클수록, 종사자수가 많을수록, 업력이 길수록 정부지원 R&D 사업을 수행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상장기업의 33.6%, 비상장기업의 8.0%가 2016년 정부지원 R&D 사업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남
 - 2016년 R&D사업 활용 건수는 상장기업 3.9건, 비상장기업 2.3건임

[표 2-22] 정부지원 R&D사업 수행 경험

(단위 : %,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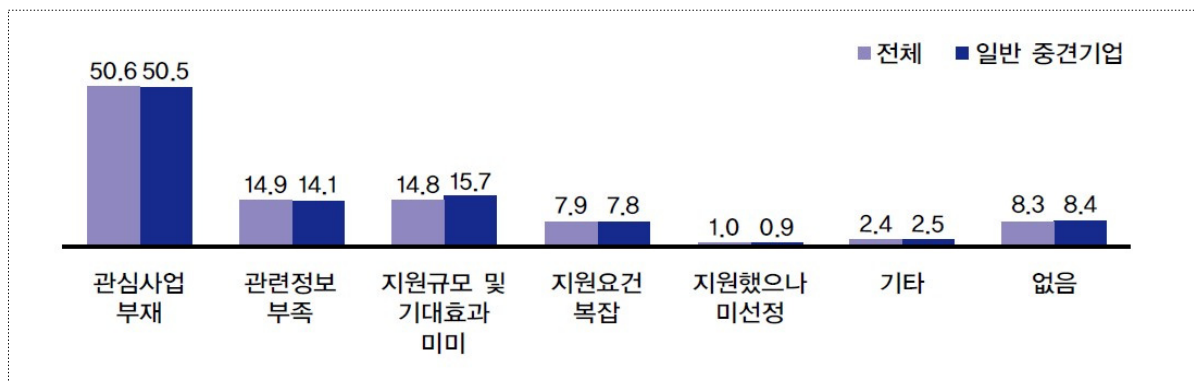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수행경험 있음		수행경험 없음
				평균수행횟수	
전체		(3,558)	14.2	3.2	85.8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2,885)	15.5	3.3	84.5
	관계기업	(673)	8.5	2.7	91.5
업종	제조업	(1,488)	27.9	3.5	72.1
	비제조업	(2,070)	4.3	2.0	95.7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625)	7.2	1.3	92.8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934)	5.9	1.4	94.1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474)	10.5	2.5	89.5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636)	20.1	3.2	79.9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367)	23.1	3.2	76.9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253)	21.6	4.1	78.4
	5천억원 ~ 1조원미만	(179)	24.8	3.6	75.2
	1조원이상	(90)	46.2	6.8	53.8
수출여부	수출있음	(1,320)	31.4	3.6	68.6
	수출없음	(2,238)	4.0	1.5	96.0
종사자수	50명미만	(1,197)	3.6	1.2	96.4
	50 ~ 100명미만	(508)	8.7	1.6	91.3
	100 ~ 200명미만	(610)	8.5	2.2	91.5
	200 ~ 300명미만	(363)	21.3	2.7	78.7
	300 ~ 500명미만	(360)	31.7	3.1	68.3
	500 ~ 1,000명미만	(347)	33.2	4.0	66.8
	1,000명이상	(173)	33.2	6.2	66.8
업력	0 ~ 7년미만	(541)	9.5	2.6	90.5
	7 ~ 20년미만	(1,398)	10.8	2.2	89.2
	20 ~ 30년미만	(633)	11.9	2.6	88.1
	30 ~ 40년미만	(414)	15.8	4.4	84.2
	40 ~ 50년미만	(328)	21.2	4.2	78.8
	50년이상	(244)	30.7	3.9	69.3
매출유형	B2B	(2,832)	16.5	3.2	83.5
	B2C	(622)	4.3	4.2	95.7
	B2G	(104)	8.7	1.0	91.3
상장	상장	(760)	33.6	3.9	66.4
	비상장	(2,798)	8.0	2.3	92.0

□ R&D관련 정부지원사업 참여에 소극적인 이유

- 정부지원 R&D사업 수행경험이 없는 기업은 사업 참여에 소극적인 이유에 대해 관심사업의 부재(50.6%)를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이어서 관련정보 부족(14.9%), 지원규모 및 기대효과 미미(14.8%), 지원요건 복잡(7.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은 관심사업의 부재(50.5%), 지원규모 및 기대효과 미미(15.7%), 관련정보 부족(14.1%), 지원요건 복잡(7.8%) 등의 순임

[그림 2-17] 정부지원 R&D사업 미참여 이유

(단위: %, R&D사업 미참여 기업)



특성별 분석

- 일반 중견기업의 경우 미참여 이유로 관심사업 부재(50.5%), 지원규모 및 기대효과 미미(15.7%)가 높은 반면, 관계기업은 관심사업 부재(51.0%), 관련정보 부족(17.8%) 순으로 나타남
-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36.1%, 비제조업의 58.5%가 관심사업의 부재로 인해 정부지원사업 참여에 소극적이라고 응답함
 - 관심사업의 부재를 원인으로 응답한 비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것은 정부지원 R&D사업이 제조업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상장기업은 관심사업 부재(40.1%), 지원규모 및 기대효과 미미(23.2%) 등의 순으로 나타났지만, 비상장기업은 관심사업 부재(53.0%), 관련정보 부족(14.1%)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2-23] 정부지원 R&D사업 미참여 이유

(단위 : %, R&D사업 미참여 기업 3,055개사)

구분		관심사업 부재	관련정보 부족	지원규모 및 기대효과 미미	지원요건 복잡	지원했으나 미선정	기타	없음
전체		50.6	14.9	14.8	7.9	1.0	2.4	8.3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50.5	14.1	15.7	7.8	0.9	2.5	8.4
	관계기업	51.0	17.8	11.5	8.4	1.5	1.7	8.0
업종	제조업	36.1	19.2	25.3	13.1	1.9	3.0	1.5
	비제조업	58.5	12.6	9.2	5.1	0.5	2.1	12.0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60.9	7.8	7.5	7.2	0.4	1.7	14.6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51.0	18.4	13.2	4.7	0.0	3.2	9.5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57.7	12.6	13.6	8.3	1.7	1.7	4.5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41.9	20.2	20.9	9.5	1.8	2.4	3.4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43.3	13.1	17.3	17.4	2.0	3.0	3.9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46.7	9.8	25.1	4.3	3.3	2.1	8.6
	5천억원 ~ 1조원미만	40.1	15.8	16.9	8.5	0.0	2.5	16.2
	1조원이상	38.2	29.5	17.6	14.8	0.0	0.0	0.0
수출여부	수출있음	34.0	21.7	26.3	11.5	2.3	3.1	1.1
	수출없음	57.6	12.0	10.0	6.5	0.5	2.1	11.4
종사자수	50명미만	57.7	11.1	8.1	5.8	0.9	2.5	13.9
	50 ~ 100명미만	45.8	18.5	17.7	9.5	0.6	2.6	5.3
	100 ~ 200명미만	48.3	16.2	20.2	8.4	0.0	1.1	5.8
	200 ~ 300명미만	50.2	17.8	16.4	5.9	1.9	3.2	4.6
	300 ~ 500명미만	47.3	15.1	20.4	10.1	2.2	1.3	3.6
	500 ~ 1,000명미만	37.6	19.1	22.3	12.8	2.3	4.4	1.4
	1,000명이상	44.6	16.3	13.6	11.5	1.8	2.5	9.6
업력	0 ~ 7년미만	57.1	14.5	12.1	4.1	0.7	3.4	8.1
	7 ~ 20년미만	55.1	15.3	10.5	5.9	1.0	2.0	10.1
	20 ~ 30년미만	46.3	14.0	17.0	10.7	1.3	1.8	8.9
	30 ~ 40년미만	45.0	18.5	19.2	10.2	1.3	2.8	3.0
	40 ~ 50년미만	39.5	13.2	22.7	12.0	1.0	3.7	7.9
	50년이상	52.0	11.9	21.1	8.4	0.0	1.9	4.8
매출유형	B2B	47.7	16.2	15.9	8.7	1.1	2.9	7.6
	B2C	62.0	10.3	10.8	5.9	0.5	0.8	9.7
	B2G	51.5	11.9	13.5	3.0	2.2	0.0	17.9
상장	상장	40.1	18.3	23.2	12.1	0.8	2.8	2.7
	비상장	53.0	14.1	12.9	7.0	1.1	2.3	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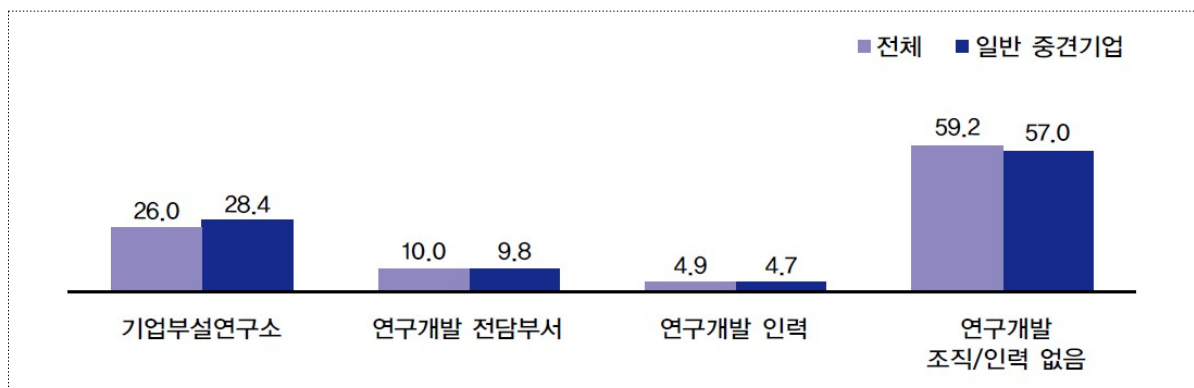
3. 연구개발

□ 연구개발 조직형태

- 중견기업의 26.0%는 기업부설연구소를, 10.0%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4.9%는 연구개발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개발 인력은 평균 35.6명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28.4%), 연구개발 전담부서(9.8%), 연구개발인력(4.7%) 순이며, 연구개발 인력 수는 평균 39.6명으로 나타남

[그림 2-18] 연구개발 조직형태 및 인력수

(단위: %)



특성별 분석

-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52.0%가 기업부설연구소를, 14.1%가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비제조업은 7.2%가 기업부설연구소를, 7.0%가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제조업의 경우 전체의 72.2%가 연구개발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비제조업의 경우 18.3%만이 연구개발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비제조업의 연구개발 인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임
- 대체적으로 매출규모가 크고 종사자 수가 많은 기업일수록 연구개발 조직 및 인력 보유비율도 높으며, 연구개발 인력 수도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수출기업의 79.1%, 내수기업의 18.3%가 연구개발 인력이 있음
- 제조업, 수출기업, 상장기업이 타 기업보다 연구개발 인력 조직이 많음을 알 수 있음

[표 2-24] 연구개발 조직형태 및 인력수

(단위 : %, 명)

구분		사례수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개발 전담부서	연구개발 인력	연구개발 조직/인력 없음	연구개발 인력 수
전체		(3,558)	26.0	10.0	4.9	59.2	35.6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2,885)	28.4	9.8	4.7	57.0	39.6
	관계기업	(673)	15.4	10.8	5.6	68.3	12.5
업종	제조업	(1,488)	52.0	14.1	6.0	27.8	39.4
	비제조업	(2,070)	7.2	7.0	4.0	81.7	25.0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625)	5.3	4.4	3.6	86.6	9.1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934)	11.1	8.4	6.3	74.2	14.5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474)	24.0	9.4	8.1	58.5	12.2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636)	43.8	11.9	2.8	41.5	33.1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367)	39.8	16.3	3.2	40.7	34.0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253)	44.0	14.5	5.1	36.4	44.4
	5천억원 ~ 1조원미만	(179)	44.7	11.6	4.1	39.6	90.7
	1조원이상	(90)	63.7	14.2	3.1	18.9	116.2
수출여부	수출있음	(1,320)	58.8	13.8	6.5	20.9	45.3
	수출없음	(2,238)	6.6	7.8	3.9	81.7	11.1
종사자수	50명미만	(1,197)	3.1	3.5	4.3	89.2	5.5
	50 ~ 100명미만	(508)	17.9	9.1	4.3	68.7	8.9
	100 ~ 200명미만	(610)	28.6	12.7	7.7	51.0	15.4
	200 ~ 300명미만	(363)	32.9	20.0	6.2	40.9	21.1
	300 ~ 500명미만	(360)	51.6	16.3	3.2	28.9	42.4
	500 ~ 1,000명미만	(347)	64.5	11.6	5.5	18.3	61.4
	1,000명이상	(173)	53.8	10.9	0.0	35.3	109.8
업력	0 ~ 7년미만	(541)	13.9	8.6	4.8	72.6	35.3
	7 ~ 20년미만	(1,398)	19.7	7.5	3.3	69.5	28.6
	20 ~ 30년미만	(633)	23.6	11.2	7.8	57.4	29.9
	30 ~ 40년미만	(414)	35.8	10.1	5.5	48.6	41.4
	40 ~ 50년미만	(328)	39.6	17.9	4.2	38.3	38.5
	50년이상	(244)	46.2	10.2	5.8	37.7	52.6
매출유형	B2B	(2,832)	29.5	10.3	4.7	55.5	36.1
	B2C	(622)	10.2	7.8	5.6	76.4	35.7
	B2G	(104)	24.5	15.4	4.8	55.3	23.7
상장	상장	(760)	56.2	16.3	3.7	23.8	49.3
	비상장	(2,798)	16.4	8.0	5.2	70.3	24.5

□ 주력기술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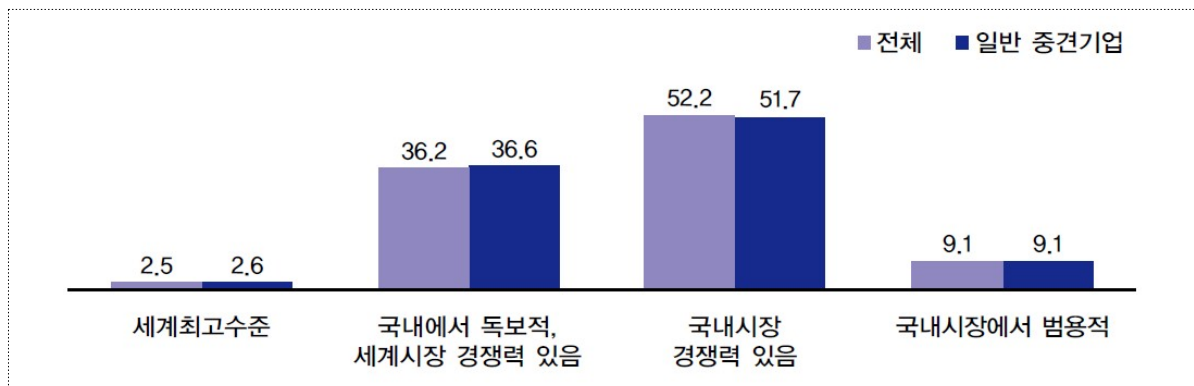
- 보유하고 있는 주력기술이 해당분야에서 독보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응답한 기업의 비중은 중견기업이 2.5%, 일반 중견기업이 2.6%로 나타남
- 주력기술 수준에 있어서 국내시장에서 독보적이며 세계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비중이 중견기업 36.2%, 일반 중견기업 36.6%로 각각 높게 나타남

[표 2-25] 기술수준 정의

기술 수준	기술 수준의 정의
100% 수준	해당분야에서 독보적인 수준
80 ~ 100%	국내시장에서 독보적이며 세계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수준
60 ~ 80%	국내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나 세계시장에서는 일반적인 수준
60% 미만	국내시장에서도 범용적인 기술수준

[그림 2-19] 주력기술 수준

(단위: %)



특성별 분석

- 주력기술이 세계 최고 대비 80~100%라고 응답한 비율은 제조업 43.3%, 비제조업 31.0%로 비제조업보다 제조업이 기술 및 서비스 수준이 높다고 평가함
- B2C기업의 2.7%가 해당분야에서 독보적인 수준이라고 응답하여 B2B기업(2.6%), B2G기업(0.0%)보다 높게 나타남
- 반면, 주 거래처가 정부/공공기관인 B2G기업은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하나도 없어 기업의 서비스를 높게 책정하지 못함

[표 2-26] 주력기술 수준

(단위 : %)

구분		사례수	세계최고수준	국내에서 독보적, 세계시장 경쟁력 있음	국내시장 경쟁력 있음	국내시장에서 범용적
전체		(3,558)	2.5	36.2	52.2	9.1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2,885)	2.6	36.6	51.7	9.1
	관계기업	(673)	2.2	34.2	54.4	9.3
업종	제조업	(1,488)	2.7	43.3	48.7	5.3
	비제조업	(2,070)	2.4	31.0	54.7	11.9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625)	0.8	30.2	54.7	14.3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934)	3.3	31.7	55.4	9.6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474)	2.5	40.5	48.9	8.1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636)	2.2	38.1	51.9	7.7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367)	4.7	39.9	45.5	9.9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253)	3.4	37.8	55.4	3.4
	5천억원 ~ 1조원미만	(179)	1.1	45.5	48.5	4.8
	1조원이상	(90)	0.0	47.7	46.0	6.3
수출여부	수출있음	(1,320)	2.4	46.8	46.3	4.5
	수출없음	(2,238)	2.6	29.9	55.7	11.9
종사자수	50명미만	(1,197)	2.6	27.3	55.5	14.7
	50 ~ 100명미만	(508)	2.8	38.4	48.5	10.3
	100 ~ 200명미만	(610)	1.2	31.9	60.1	6.7
	200 ~ 300명미만	(363)	3.0	44.8	47.5	4.8
	300 ~ 500명미만	(360)	4.2	47.9	45.4	2.5
	500 ~ 1,000명미만	(347)	0.6	48.8	45.6	4.9
	1,000명이상	(173)	5.3	37.7	49.8	7.2
업력	0 ~ 7년미만	(541)	4.0	42.7	48.3	5.1
	7 ~ 20년미만	(1,398)	2.4	37.7	49.6	10.3
	20 ~ 30년미만	(633)	2.5	33.9	50.7	12.8
	30 ~ 40년미만	(414)	1.7	34.7	54.0	9.6
	40 ~ 50년미만	(328)	3.1	32.7	57.3	6.9
	50년이상	(244)	1.8	32.1	64.2	1.9
매출유형	B2B	(2,832)	2.6	38.0	51.5	7.9
	B2C	(622)	2.7	30.6	51.6	15.1
	B2G	(104)	0.0	18.1	73.6	8.3
상장	상장	(760)	1.2	42.8	50.2	5.8
	비상장	(2,798)	2.9	34.0	52.8	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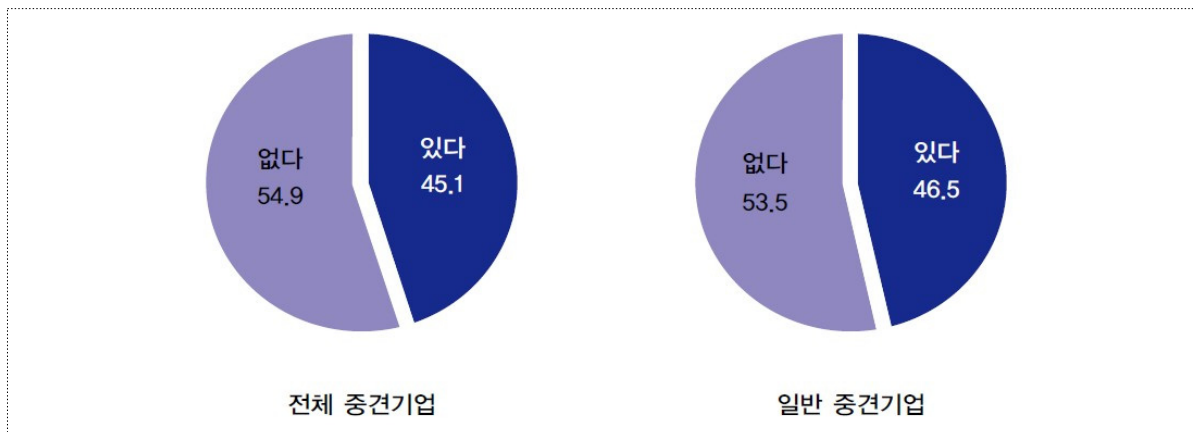
4. 지식재산권

□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

- 중견기업의 지식재산권 보유율은 45.1%이며, 일반 중견기업의 지식재산권 보유율은 46.5%로 나타남

[그림 2-20]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

(단위: %)



특성별 분석

- 일반중견기업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의장권), 상표권 등을 갖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6.5%이며, 관계기업은 39.1%로 일반 중견기업이 관계기업보다 지식재산권 보유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음
-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68.9%, 비제조업의 28.0%가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업종별 편차가 심함
- 업력이 0~7년 미만의 신생기업의 경우 24.0%만이 지식재산권을 갖고 있으며, 업력이 50년 이상된 기업은 63.1%가 지식재산권을 갖고 있어 대체적으로 업력이 길어질수록 지식재산권 보유율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음(30~40년 미만 제외)
- 상장기업의 77.9%, 비상장기업의 34.7%가 지식재산권을 갖고 있음
 - 제조업, 수출기업, 상장기업이 비제조업, 내수기업, 비상장기업보다 지식재산권의 보유 비율이 훨씬 높음

[표 2-27]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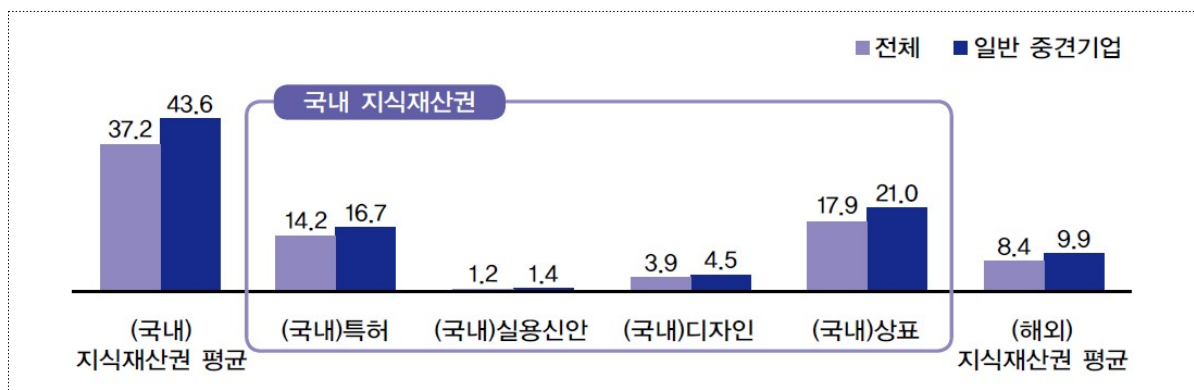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지식재산권 보유	지식재산권 미보유
전체		(3,558)	45.1	54.9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2,885)	46.5	53.5
	관계기업	(673)	39.1	60.9
업종	제조업	(1,488)	68.9	31.1
	비제조업	(2,070)	28.0	72.0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625)	18.2	81.8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934)	28.6	71.4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474)	48.9	51.1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636)	65.8	34.2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367)	63.0	37.0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253)	68.5	31.5
	5천억원 ~ 1조원미만	(179)	63.6	36.4
	1조원이상	(90)	62.1	37.9
수출여부	수출있음	(1,320)	76.5	23.5
	수출없음	(2,238)	26.6	73.4
종사자수	50명미만	(1,197)	16.8	83.2
	50 ~ 100명미만	(508)	37.4	62.6
	100 ~ 200명미만	(610)	51.0	49.0
	200 ~ 300명미만	(363)	67.0	33.0
	300 ~ 500명미만	(360)	71.3	28.7
	500 ~ 1,000명미만	(347)	82.0	18.0
	1,000명이상	(173)	68.7	31.3
업력	0 ~ 7년미만	(541)	24.0	76.0
	7 ~ 20년미만	(1,398)	35.1	64.9
	20 ~ 30년미만	(633)	49.4	50.6
	30 ~ 40년미만	(414)	63.0	37.0
	40 ~ 50년미만	(328)	62.2	37.8
	50년이상	(244)	63.1	36.9
매출유형	B2B	(2,832)	47.3	52.7
	B2C	(622)	34.7	65.3
	B2G	(104)	47.2	52.8
상장	상장	(760)	77.9	22.1
	비상장	(2,798)	34.7	65.3

□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 중견기업은 평균 37.2건(합계:132,368건)의 국내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표 17.9건, 특허 14.2건, 디자인권 3.9건, 실용신안권 1.2건 순임. 해외 지식재산권은 8.4건 보유하고 있으며, 상표권 4.9건, 특허권 2.9건, 디자인권 0.5건, 실용신안권 0.1건 순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은 평균 43.6건(합계:125,972건)의 국내 지식재산권(상표 21.0건, 특허 16.7건, 디자인권 4.5건, 실용신안권 1.4건), 9.9건의 해외 지식재산권을 보유함

[그림 2-21] 지식재산권 등록현황 : 평균

(단위: 건, 지식재산권 보유 기업)



특성별 분석

- 업종별로는 제조업은 평균 70.4건의 국내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비제조업은 평균 13.3건을 보유하여 제조업의 지식재산권 수가 약 5배정도 많음
- 대체적으로 매출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매출액 1조원 이상 기업이 평균 246.6건의 국내 재산권, 85.4건의 해외 재산권을 보유하여 매출액 1백억원 미만 기업(2.8건의 국내 재산권, 1.0건의 해외재산권을 보유)과 편차가 큰 것으로 조사됨
- 매출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연구개발 투자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어 연구개발 전담 조직 및 인력의 보유 비중이 높고, 이러한 연구개발 투자의 결과물로 창출된 지식재산권의 수가 많은 것으로 보임

[표 2-28] 지식재산권 등록현황 : 평균

(단위 : 건, 지식재산권 보유 기업 1,605개사)

구분		국내					해외				
		합계	특허	실용 신안	디자인	상표	합계	특허	실용 신안	디자인	상표
전체		37.2	14.2	1.2	3.9	17.9	8.4	2.9	0.1	0.5	4.9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43.6	16.7	1.4	4.5	21.0	9.9	3.4	0.1	0.6	5.8
	관계기업	9.5	3.5	0.5	1.0	4.5	1.7	0.7	0.0	0.0	0.9
업종	제조업	70.4	30.7	2.5	7.3	29.9	16.4	6.5	0.3	1.1	8.5
	비제조업	13.3	2.4	0.3	1.4	9.3	2.6	0.3	0.0	0.0	2.2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2.8	1.6	0.2	0.1	0.9	1.0	0.7	0.0	0.0	0.2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4.4	1.6	0.1	0.2	2.5	3.0	0.3	0.0	0.0	2.7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15.3	6.4	0.8	2.4	5.7	0.9	0.7	0.0	0.0	0.2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70.0	20.1	2.1	6.9	40.8	18.2	5.9	0.4	2.0	9.9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40.3	19.0	1.0	2.6	17.7	6.5	3.3	0.3	0.4	2.4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53.4	32.1	1.3	4.8	15.1	6.1	2.7	0.1	0.2	3.1
	5천억원 ~ 1조원미만	135.7	39.5	4.7	16.0	75.5	15.1	7.3	0.1	0.4	7.4
	1조원이상	246.6	113.1	9.8	32.5	91.2	85.4	25.8	0.0	1.3	58.2
수출여부	수출있음	84.2	34.7	2.9	8.5	38.2	21.3	7.3	0.3	1.3	12.4
	수출없음	9.5	2.2	0.2	1.2	5.9	0.7	0.3	0.0	0.0	0.4
종사자수	50명미만	2.6	1.2	0.1	0.0	1.3	0.6	0.4	0.0	0.0	0.2
	50 ~ 100명미만	5.3	2.8	0.3	0.3	1.9	0.6	0.3	0.0	0.0	0.2
	100 ~ 200명미만	17.9	5.6	0.5	2.5	9.3	5.6	0.3	0.0	0.0	5.2
	200 ~ 300명미만	27.2	8.6	0.7	3.7	14.2	3.6	1.0	0.0	0.0	2.5
	300 ~ 500명미만	74.6	29.8	1.0	7.8	35.9	23.3	8.6	0.2	3.5	11.0
	500 ~ 1,000명미만	87.3	44.2	4.3	6.9	31.8	14.1	7.3	0.9	0.6	5.3
	1,000명이상	280.3	87.7	9.2	31.5	151.8	62.1	20.0	0.1	1.1	40.9
업력	0 ~ 7년미만	26.3	16.7	2.0	3.7	3.9	7.6	5.5	0.1	0.3	1.6
	7 ~ 20년미만	20.7	5.8	0.4	1.8	12.7	5.4	0.6	0.0	0.8	4.0
	20 ~ 30년미만	32.8	15.9	0.7	3.0	13.2	6.0	2.3	0.2	0.0	3.4
	30 ~ 40년미만	47.0	16.4	4.0	3.7	23.0	5.7	2.3	0.5	0.3	2.7
	40 ~ 50년미만	80.8	29.6	1.5	9.2	40.5	19.9	11.2	0.0	0.6	8.1
	50년이상	70.4	24.8	1.4	9.8	34.3	17.9	1.3	0.1	0.3	16.2
매출유형	B2B	39.8	16.7	1.4	3.9	17.7	7.3	3.6	0.2	0.2	3.4
	B2C	28.5	4.3	0.4	4.3	19.4	14.6	0.4	0.0	2.0	12.2
	B2G	19.2	4.7	1.0	0.1	13.4	0.0	0.0	0.0	0.0	0.0
상장	상장	109.2	39.4	3.7	10.6	55.4	25.7	8.8	0.4	1.6	14.9
	비상장	14.5	6.3	0.4	1.7	6.0	2.9	1.0	0.0	0.1	1.7

[표 2-29] 지식재산권 등록현황 : 평균(계속)

(단위 : 건, 지식재산권 보유 기업 1,605개사)

구분		합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전체		45.6	17.1	1.3	4.4	22.8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53.6	20.1	1.5	5.1	26.8
	관계기업	11.2	4.2	0.5	1.0	5.4
업종	제조업	86.8	37.2	2.8	8.4	38.4
	비제조업	15.9	2.7	0.3	1.4	11.5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3.8	2.3	0.2	0.1	1.1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7.4	1.9	0.1	0.2	5.2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16.2	7.1	0.8	2.4	5.9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88.2	26.0	2.5	8.9	50.7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46.8	22.3	1.3	3.0	20.1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59.5	34.8	1.4	5.0	18.2
	5천억원 ~ 1조원미만	150.8	46.8	4.8	16.4	82.9
	1조원이상	332.0	138.9	9.8	33.8	149.4
수출여부	수출있음	105.5	42.0	3.2	9.8	50.6
	수출없음	10.2	2.5	0.2	1.2	6.3
종사자수	50명미만	3.2	1.6	0.1	0.0	1.5
	50 ~ 100명미만	5.9	3.1	0.3	0.3	2.1
	100 ~ 200명미만	23.5	5.9	0.5	2.5	14.5
	200 ~ 300명미만	30.8	9.6	0.7	3.7	16.7
	300 ~ 500명미만	97.9	38.4	1.2	11.3	46.9
	500 ~ 1,000명미만	101.4	51.5	5.2	7.5	37.1
	1,000명이상	342.4	107.7	9.3	32.6	192.7
업력	0 ~ 7년미만	33.9	22.2	2.1	4.0	5.5
	7 ~ 20년미만	26.1	6.4	0.4	2.6	16.7
	20 ~ 30년미만	38.8	18.2	0.9	3.0	16.6
	30 ~ 40년미만	52.7	18.7	4.5	4.0	25.7
	40 ~ 50년미만	100.7	40.8	1.5	9.8	48.6
	50년이상	88.3	26.1	1.5	10.1	50.5
매출유형	B2B	47.1	20.3	1.6	4.1	21.1
	B2C	43.1	4.7	0.4	6.3	31.6
	B2G	19.2	4.7	1.0	0.1	13.4
상장	상장	134.9	48.2	4.1	12.2	70.3
	비상장	17.4	7.3	0.4	1.8	7.7

[표 2-30] 지식재산권 등록현황 : 합계

(단위 : 건, 지식재산권 보유 기업 1,065개사)

구분		국내					해외				
		합계	특허	실용 신안	디자인	상표	합계	특허	실용 신안	디자인	상표
전체		132,368	50,620	4,334	13,768	63,646	29,750	10,305	444	1,670	17,331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125,972	48,266	4,026	13,084	60,596	28,625	9,826	414	1,670	16,715
	관계기업	6,397	2,354	309	684	3,051	1,124	478	30	0	616
업종	제조업	104,791	45,693	3,734	10,895	44,469	24,379	9,607	419	1,654	12,698
	비제조업	27,577	4,926	601	2,872	19,178	5,371	698	24	17	4,633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1,767	1,012	124	59	572	613	444	24	0	145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4,092	1,473	96	193	2,330	2,796	249	5	17	2,525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7,266	3,032	371	1,161	2,703	440	345	0	0	95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44,489	12,775	1,340	4,404	25,970	11,580	3,749	248	1,266	6,317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14,776	6,957	354	955	6,510	2,386	1,221	123	144	898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13,498	8,130	334	1,205	3,830	1,545	672	26	57	790
	5천억원 ~ 1조원미만	24,284	7,063	832	2,866	13,522	2,703	1,301	12	71	1,319
	1조원이상	22,195	10,178	883	2,924	8,210	7,688	2,325	4	116	5,242
수출여부	수출있음	111,169	45,807	3,839	11,157	50,366	28,150	9,646	419	1,654	16,430
	수출없음	21,199	4,813	495	2,611	13,280	1,600	658	24	17	900
종사자수	50명미만	3,127	1,389	116	57	1,566	728	461	24	17	225
	50 ~ 100명미만	2,705	1,418	150	163	974	297	176	0	0	121
	100 ~ 200명미만	10,928	3,416	324	1,528	5,660	3,386	199	27	0	3,160
	200 ~ 300명미만	9,890	3,118	272	1,351	5,149	1,302	379	0	3	920
	300 ~ 500명미만	26,855	10,745	371	2,807	12,933	8,383	3,093	78	1,244	3,969
	500 ~ 1,000명미만	30,253	15,317	1,500	2,405	11,031	4,875	2,520	298	221	1,836
	1,000명이상	48,611	15,219	1,602	5,457	26,333	10,778	3,477	16	185	7,100
업력	0 ~ 7년미만	9,447	5,986	722	1,331	1,408	2,713	1,993	37	103	581
	7 ~ 20년미만	29,610	8,383	524	2,527	18,177	7,709	885	36	1,121	5,668
	20 ~ 30년미만	22,384	10,866	445	2,053	9,019	4,097	1,604	148	34	2,311
	30 ~ 40년미만	19,178	6,682	1,631	1,503	9,362	2,327	919	192	105	1,110
	40 ~ 50년미만	32,777	12,019	624	3,713	16,422	8,078	4,550	6	224	3,298
	50년이상	18,972	6,684	390	2,640	9,258	4,825	355	24	84	4,363
매출유형	B2B	112,623	47,431	3,964	11,055	50,173	20,693	10,080	430	458	9,725
	B2C	17,738	2,695	267	2,699	12,077	9,054	222	14	1,213	7,606
	B2G	2,008	494	103	14	1,397	3	3	0	0	0
상장	상장	93,271	33,706	3,147	9,094	47,325	21,952	7,486	370	1,348	12,748
	비상장	39,097	16,914	1,188	4,674	16,322	7,798	2,819	74	323	4,583

[표 2-31] 지식재산권 등록현황 : 합계(계속)

(단위 : 건, 지식재산권 보유 기업 1,065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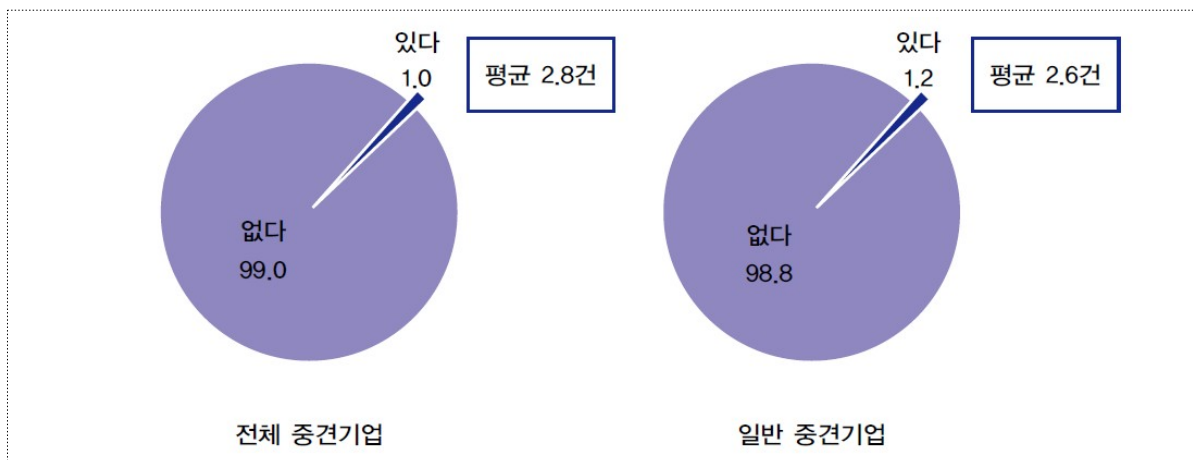
구분		합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전체		162,118	60,925	4,778	15,438	80,977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154,597	58,092	4,440	14,754	77,311
	관계기업	7,521	2,832	339	684	3,667
업종	제조업	129,170	55,300	4,153	12,549	57,167
	비제조업	32,948	5,624	625	2,889	23,811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2,380	1,456	148	59	717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6,888	1,722	101	210	4,855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7,706	3,377	371	1,161	2,798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56,069	16,524	1,588	5,670	32,287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17,162	8,178	477	1,099	7,408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15,043	8,802	360	1,262	4,620
	5천억원 ~ 1조원미만	26,987	8,364	844	2,937	14,841
	1조원이상	29,883	12,503	887	3,040	13,452
수출여부	수출있음	139,319	55,453	4,258	12,811	66,796
	수출없음	22,799	5,471	519	2,628	14,180
종사자수	50명미만	3,855	1,850	140	74	1,791
	50 ~ 100명미만	3,002	1,594	150	163	1,095
	100 ~ 200명미만	14,314	3,615	351	1,528	8,820
	200 ~ 300명미만	11,192	3,497	272	1,354	6,069
	300 ~ 500명미만	35,238	13,838	449	4,051	16,902
	500 ~ 1,000명미만	35,128	17,837	1,798	2,626	12,867
	1,000명이상	59,389	18,696	1,618	5,642	33,433
업력	0 ~ 7년미만	12,160	7,979	759	1,434	1,989
	7 ~ 20년미만	37,319	9,268	560	3,648	23,845
	20 ~ 30년미만	26,481	12,470	593	2,087	11,330
	30 ~ 40년미만	21,505	7,601	1,823	1,608	10,472
	40 ~ 50년미만	40,855	16,569	630	3,937	19,720
	50년이상	23,797	7,039	414	2,724	13,621
매출유형	B2B	133,316	57,511	4,394	11,513	59,898
	B2C	26,792	2,917	281	3,912	19,683
	B2G	2,011	497	103	14	1,397
상장	상장	115,223	41,192	3,517	10,442	60,073
	비상장	46,895	19,733	1,262	4,997	20,905

□ 지식재산권 침해 경험

- 보유한 지식재산권에 대해 중견기업 1.0%, 일반 중견기업 또한 1.2%가 2016년에 침해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평균 침해건수는 중견기업 2.8건, 일반 중견기업 2.6건으로 나타남

[그림 2-22] 지식재산권 침해 경험

(단위: %)



특성별 분석

- 기업 유형별로는 일반 중견기업의 1.2%, 관계기업의 0.4%가 2016년 지식재산권을 침해당한 경험이 있음
 - 일반 중견기업이 2016년에 경험한 지식재산권 침해는 평균 2.6회, 관계기업은 5.0회로 일반 중견기업이 관계기업보다 침해당한 비중이 높지만, 침해 건수는 관계기업이 많음
- 제조업의 1.8%(3.2건), 비제조업의 0.5%(1.9건)가 2016년에 지식재산권을 침해당한 경험이 있음
- 수출기업은 2.2%(3.1건), 내수기업은 0.3%(1.8건)가 2016년에 지식재산권을 침해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제조업 및 수출기업이 비제조업 및 내수기업에 비해 지식재산권 보유건수가 많기 때문에 침해당한 경험과 횟수도 많은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매출유형별로는 B2C기업의 1.2%가 지식재산권 침해 경험이 있으며, 침해건수 또한 4.0건으로 다른 기업군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2-32] 지식재산권 침해경험

(단위 :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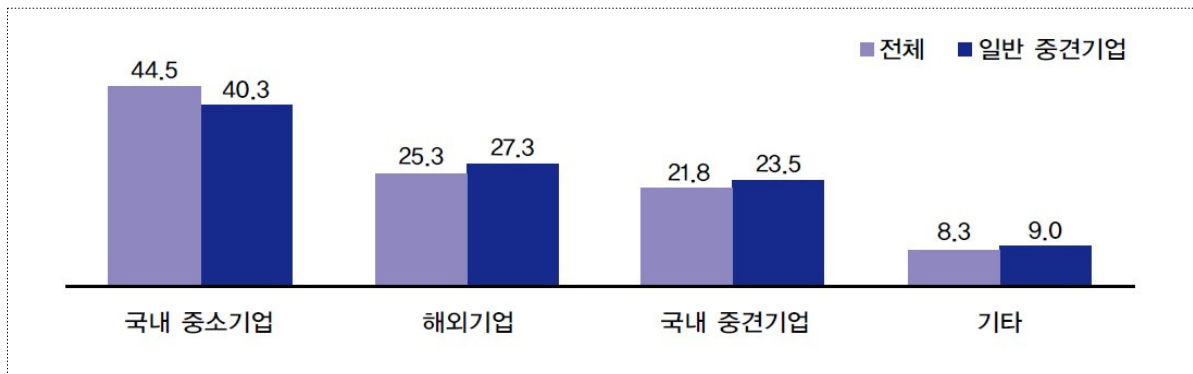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침해경험 있음		침해경험 없음
				평균 침해 건수	
전체		(3,558)	1.0	2.8	99.0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2,885)	1.2	2.6	98.8
	관계기업	(673)	0.4	5.0	99.6
업종	제조업	(1,488)	1.8	3.2	98.2
	비제조업	(2,070)	0.5	1.9	99.5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625)	0.0	-	100.0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934)	0.9	2.3	99.1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474)	0.0	-	100.0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636)	2.4	3.4	97.6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367)	0.0	-	100.0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253)	1.7	2.5	98.3
	5천억원 ~ 1조원미만	(179)	1.1	2.0	98.9
	1조원이상	(90)	7.9	2.0	92.1
수출여부	수출있음	(1,320)	2.2	3.1	97.8
	수출없음	(2,238)	0.3	1.8	99.7
종사자수	50명미만	(1,197)	0.0	-	100.0
	50 ~ 100명미만	(508)	0.5	5.0	99.5
	100 ~ 200명미만	(610)	0.9	1.0	99.1
	200 ~ 300명미만	(363)	0.0	-	100.0
	300 ~ 500명미만	(360)	2.6	3.7	97.4
	500 ~ 1,000명미만	(347)	1.5	2.8	98.5
	1,000명이상	(173)	8.3	2.4	91.7
업력	0 ~ 7년미만	(541)	2.4	2.4	97.6
	7 ~ 20년미만	(1,398)	0.4	3.6	99.6
	20 ~ 30년미만	(633)	1.2	2.1	98.8
	30 ~ 40년미만	(414)	1.4	4.5	98.6
	40 ~ 50년미만	(328)	2.1	1.5	97.9
	50년이상	(244)	0.0	-	100.0
매출유형	B2B	(2,832)	1.1	2.7	98.9
	B2C	(622)	1.2	4.0	98.8
	B2G	(104)	0.0	-	100.0
상장	상장	(760)	2.1	2.5	97.9
	비상장	(2,798)	0.7	3.0	99.3

□ 지식재산권 침해한 주체

-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주체에 대해, 중견기업은 국내 중소기업(44.5%)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해외기업(25.3%), 국내 중견기업(21.8%), 기타(8.3%) 순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은 국내 중소기업(40.3%), 해외기업(27.3%), 국내 중견기업(23.5%), 기타(9.0%) 순임

[그림 2-23] 지식재산권 침해한 주체

(단위: %, 지재권 침해경험 기업)



특성별 분석

- 일반 중견기업은 국내 중소기업(40.3%), 해외기업(27.3%), 국내 중견기업(23.5%), 기타(9.0%) 순으로 지식재산권 침해 주체를 응답하였으며, 관계기업은 지식 재산권 침해 주체로 국내 중소기업을 100.0%로 응답함
-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경우 해외기업(35.4%)의 침해비중이 가장 높은 반면, 비제조업은 국내 중소기업(73.1%)의 침해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업종별로 지식재산권 침해주체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주 거래처가 기업인 B2B기업은 국내 중소기업(55.5%)을 침해주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반면, 소비자가 주 거래처인 B2C기업은 해외기업(58.1%), 정부/공공기관이 주 거래처인 B2G기업은 침해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여 주 거래처별로 침해주체 대상이 다를 수 있음

[표 2-33] 지식재산권 침해한 주체

(단위 : %, 지재권 침해경험 기업 37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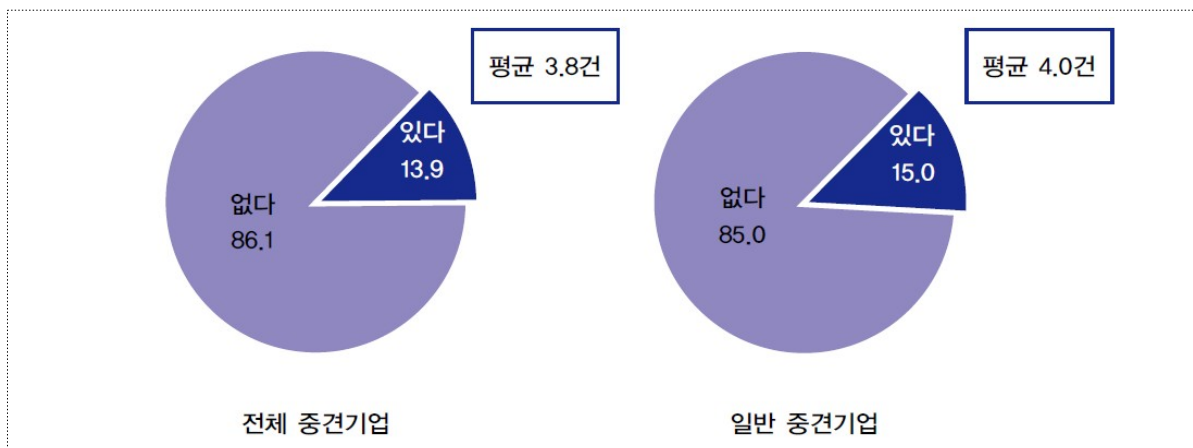
구분		국내중소기업	해외기업	국내중견기업	기타
전체		44.5	25.3	21.8	8.3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40.3	27.3	23.5	9.0
	관계기업	100.0	0.0	0.0	0.0
업종	제조업	33.1	35.4	19.9	11.6
	비제조업	73.1	0.0	26.9	0.0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	-	-	-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100.0	0.0	0.0	0.0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	-	-	-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40.0	20.0	20.0	20.0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	-	-	-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49.2	0.0	50.8	0.0
	5천억원 ~ 1조원미만	0.0	100.0	0.0	0.0
	1조원이상	0.0	60.3	39.7	0.0
수출여부	수출있음	29.9	32.0	27.6	10.5
	수출없음	100.0	0.0	0.0	0.0
종사자수	50명미만	-	-	-	-
	50 ~ 100명미만	100.0	0.0	0.0	0.0
	100 ~ 200명미만	100.0	0.0	0.0	0.0
	200 ~ 300명미만	-	-	-	-
	300 ~ 500명미만	66.7	0.0	33.3	0.0
	500 ~ 1,000명미만	0.0	0.0	41.4	58.6
	1,000명이상	14.8	65.6	19.7	0.0
업력	0 ~ 7년미만	64.3	0.0	35.7	0.0
	7 ~ 20년미만	52.3	0.0	47.7	0.0
	20 ~ 30년미만	62.7	37.3	0.0	0.0
	30 ~ 40년미만	45.8	0.0	0.0	54.2
	40 ~ 50년미만	0.0	74.3	25.7	0.0
	50년이상	-	-	-	-
매출유형	B2B	55.5	17.2	27.3	0.0
	B2C	0.0	58.1	0.0	41.9
	B2G	-	-	-	-
상장	상장	29.4	53.1	0.0	17.5
	비상장	58.2	0.0	41.8	0.0

□ 산학협력 활동 경험

- 중견기업의 13.9%는 2016년에 대학, 연구소 등과 산학협력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활동한 기업들의 평균 건수는 3.8건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은 15.0%가 산학협력 활동을 하였으며, 평균 4.0건으로 나타남

[그림 2-24] 산학협력 활동 경험

(단위: %)



특성별 분석

- 기업 유형별로는 일반 중견기업의 15.0%, 관계기업의 9.3%가 산학협력 활동을 실시하고 있음
 - 일반 중견기업의 산학협력 활동 건수는 평균 4.0건, 관계기업은 평균 2.0건으로 일반 중견기업의 산학협력 활동 건수가 더 높음
-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25.1%, 비제조업의 6.0%가 산학협력 활동을 실시하였음
- 수출기업은 27.4%(4.4건), 내수기업은 6.0%(2.0건)가 2016년에 산학협력 활동을 실시함
 - 제조기업, 수출기업의 경우 비제조업, 내수기업보다 대학, 연구소 등과 산학협력을 많이 실시하였으며, 그 건수도 많은 것을 알 수 있음
- 종사자수별로는 50명 미만(4.7%), 50~100명 미만(8.1%), 100~200명 미만(10.2%), 200~300명 미만(13.2%), 300~500명 미만(27.1%), 500~1,000명 미만(36.2%)으로 종사자수가 클수록 산학협력 실시비율도 높음

[표 2-34] 산학협력 활동 경험

(단위 :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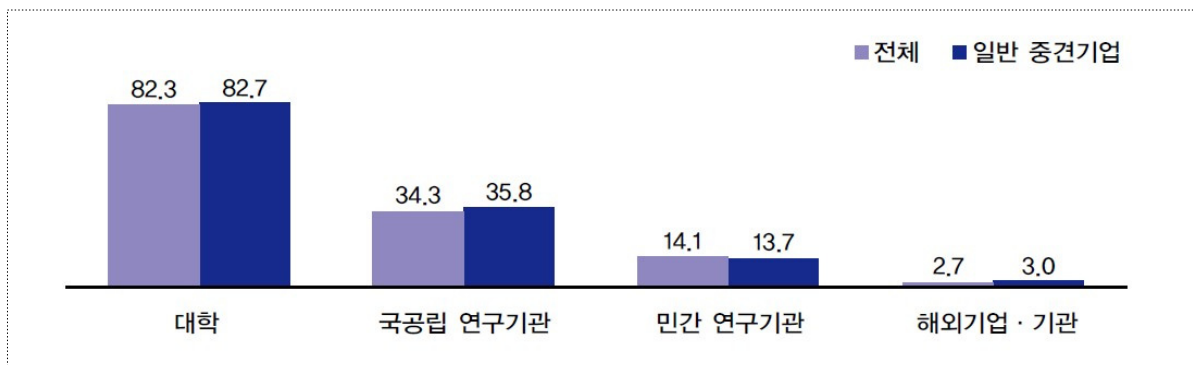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활동 경험 있음		활동 경험 없음
			평균 건수		
전체		(3,558)	13.9	3.8	86.1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2,885)	15.0	4.0	85.0
	관계기업	(673)	9.3	2.0	90.7
업종	제조업	(1,488)	25.1	3.8	74.9
	비제조업	(2,070)	6.0	3.9	94.0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625)	7.1	2.3	92.9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934)	6.2	1.6	93.8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474)	9.5	2.9	90.5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636)	21.3	5.8	78.7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367)	19.1	2.1	80.9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253)	17.2	3.2	82.8
	5천억원 ~ 1조원미만	(179)	29.6	2.8	70.4
	1조원이상	(90)	51.0	7.2	49.0
수출여부	수출있음	(1,320)	27.4	4.4	72.6
	수출없음	(2,238)	6.0	2.0	94.0
종사자수	50명미만	(1,197)	4.7	1.8	95.3
	50 ~ 100명미만	(508)	8.1	1.9	91.9
	100 ~ 200명미만	(610)	10.2	2.5	89.8
	200 ~ 300명미만	(363)	13.2	2.1	86.8
	300 ~ 500명미만	(360)	27.1	4.1	72.9
	500 ~ 1,000명미만	(347)	36.2	3.8	63.8
	1,000명이상	(173)	38.3	8.6	61.7
업력	0 ~ 7년미만	(541)	9.6	2.1	90.4
	7 ~ 20년미만	(1,398)	10.9	2.6	89.1
	20 ~ 30년미만	(633)	8.8	2.0	91.2
	30 ~ 40년미만	(414)	17.7	4.3	82.3
	40 ~ 50년미만	(328)	24.0	2.5	76.0
	50년이상	(244)	28.0	10.0	72.0
매출유형	B2B	(2,832)	15.3	3.9	84.7
	B2C	(622)	7.5	2.8	92.5
	B2G	(104)	16.2	4.0	83.8
상장	상장	(760)	30.4	5.0	69.6
	비상장	(2,798)	8.7	2.5	91.3

□ 산학협력기관

- 중견기업의 산학협력기관으로는 대학(82.3%)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국공립 연구기관(34.3%), 민간 연구기관(14.1%), 해외기업·기관(2.7%) 순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은 대학(82.7%), 국공립 연구기관(35.8%), 민간 연구기관(13.7%), 해외기업·기관(3.0%) 순임

[그림 2-25] 산학협력기관

(단위: %, 산학협력 경험 기업)



특성별 분석

- 대학(대학부설연구소, 교수)이 협력기관인 기업은 제조업 80.9%, 비제조업 86.3%로 제조업보다 비제조업이 대학과의 적극적인 산학협력 활동을 실시한 것으로 보임
- 종사자 규모별로는 100~200명 미만의 기업은 다른 기업군보다 국공립 연구기관(43.0%)과 많은 산학협력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300~500명 미만의 기업은 다른 기업군보다 민간연구기관(20.6%)과 많은 산학협력 활동을 실시하였음
- B2B기업의 80.3%가 대학과 협력하였으며, 이어서 국공립연구기관(정부출연, 투자기관포함)(36.0%), 민간연구기관(15.5%), 해외기업/기관(3.0%) 순임

[표 2-35] 협력기관

(단위 : %, 산학협력 경험 기업 496개사,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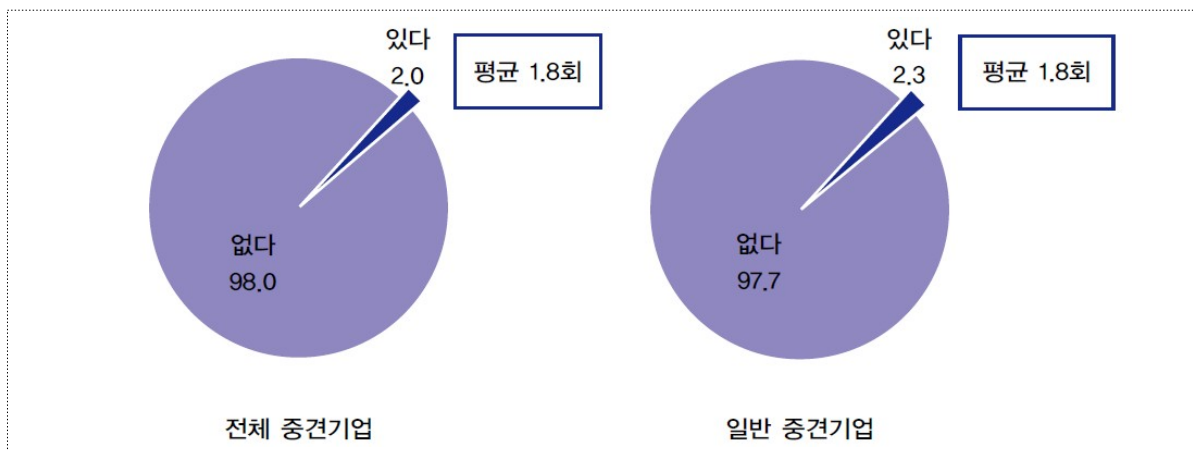
구분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	해외기업·기관
전체		82.3	34.3	14.1	2.7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82.7	35.8	13.7	3.0
	관계기업	79.6	23.5	16.7	0.0
업종	제조업	80.9	40.5	15.5	2.8
	비제조업	86.3	15.4	9.8	2.3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93.4	13.3	14.8	0.0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76.6	18.6	13.8	0.0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72.3	38.2	20.0	0.0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82.2	38.2	20.6	2.3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87.5	37.6	8.0	4.2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80.1	39.9	0.0	0.0
	5천억원 ~ 1조원미만	81.0	30.5	7.6	0.0
	1조원이상	84.4	53.1	18.8	15.6
수출여부	수출있음	82.8	40.7	14.3	3.6
	수출없음	80.8	16.9	13.5	0.0
종사자수	50명미만	84.7	15.3	11.9	0.0
	50 ~ 100명미만	80.5	32.7	6.3	0.0
	100 ~ 200명미만	75.0	43.0	19.0	0.0
	200 ~ 300명미만	77.8	39.7	6.5	0.0
	300 ~ 500명미만	82.3	38.9	20.6	0.0
	500 ~ 1,000명미만	81.6	31.0	13.6	4.8
	1,000명이상	92.7	38.5	13.0	10.8
업력	0 ~ 7년미만	93.7	12.2	19.1	0.0
	7 ~ 20년미만	79.2	33.5	8.7	1.8
	20 ~ 30년미만	86.0	36.6	9.7	0.0
	30 ~ 40년미만	77.0	56.5	6.9	4.3
	40 ~ 50년미만	79.9	37.0	14.6	3.0
	50년이상	88.6	19.3	32.6	5.7
매출유형	B2B	80.3	36.0	15.5	3.0
	B2C	100.0	30.5	0.0	0.0
	B2G	83.5	0.0	16.5	0.0
상장	상장	83.5	34.1	15.3	4.0
	비상장	81.0	34.5	12.8	1.2

□ 기술이전 받은 경험

- 중견기업의 2.0%는 2016년에 대학, 연구소 등으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은 적이 있으며, 평균 횟수는 1.8회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은 2.3%가 기술이전을 받았으며, 평균 1.8건으로 나타남

[그림 2-26] 기술이전 받은 경험

(단위: %)



특성별 분석

- 기업, 대학, 연구소 등으로부터의 기술이전은 일반 중견기업의 2.3%가 평균 1.8건, 관계기업의 0.7%가 평균 1.5건으로 조사됨
-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3.4%, 비제조업의 1.0%가 기술이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기술이전 활동이 제조업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 수출기업의 기술이전 경험 비중은 3.9%로 내수기업에 비해 약 4배 높게 나타났으며, 기술이전 건수는 수출기업 평균 1.7건으로 내수기업(2.2건)보다 낮음
 - 제조업, 수출기업, 상장기업의 산학협력 및 기술이전 비중이 높아 대학, 연구소와 적극적인 협력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B2B기업은 기술이전 경험 기업이 2.1%, 기술이전 건수는 1.6건으로 나타난 반면, B2G기업은 기술이전 경험 기업이 0%로 주 거래처별로 확연한 차이를 보임

[표 2-36] 기술이전 받은 경험

(단위 :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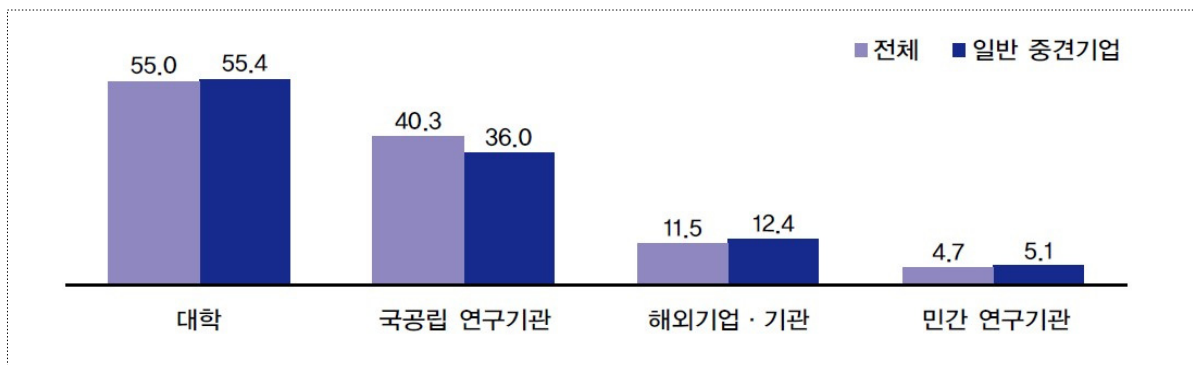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기술이전 경험 있음		기술이전 경험 없음
			평균 건수		
전체		(3,558)	2.0	1.8	98.0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2,885)	2.3	1.8	97.7
	관계기업	(673)	0.7	1.5	99.3
업종	제조업	(1,488)	3.4	1.7	96.6
	비제조업	(2,070)	1.0	2.1	99.0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625)	1.1	1.0	98.9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934)	0.9	1.3	99.1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474)	1.7	1.5	98.3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636)	1.4	1.3	98.6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367)	4.8	1.3	95.2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253)	3.4	3.2	96.6
	5천억원 ~ 1조원미만	(179)	4.5	1.5	95.5
	1조원이상	(90)	4.8	5.0	95.2
수출여부	수출있음	(1,320)	3.9	1.7	96.1
	수출없음	(2,238)	0.9	2.2	99.1
종사자수	50명미만	(1,197)	0.5	1.0	99.5
	50 ~ 100명미만	(508)	2.4	1.4	97.6
	100 ~ 200명미만	(610)	2.4	1.3	97.6
	200 ~ 300명미만	(363)	2.0	1.3	98.0
	300 ~ 500명미만	(360)	3.5	1.0	96.5
	500 ~ 1,000명미만	(347)	2.9	3.4	97.1
	1,000명이상	(173)	5.3	3.2	94.7
업력	0 ~ 7년미만	(541)	1.6	2.0	98.4
	7 ~ 20년미만	(1,398)	2.1	1.9	97.9
	20 ~ 30년미만	(633)	1.0	1.0	99.0
	30 ~ 40년미만	(414)	2.7	2.6	97.3
	40 ~ 50년미만	(328)	1.9	1.3	98.1
	50년이상	(244)	3.4	1.5	96.6
매출유형	B2B	(2,832)	2.1	1.6	97.9
	B2C	(622)	1.8	2.7	98.2
	B2G	(104)	0.0	-	100.0
상장	상장	(760)	3.8	1.4	96.2
	비상장	(2,798)	1.4	2.2	98.6

□ 기술이전처

- 중견기업의 기술이전처로는 대학(55.0%)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국공립 연구기관(40.3%), 해외기업·기관(11.5%), 민간 연구기관(4.7%) 순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은 대학(55.4%), 국공립 연구기관(36.0%), 해외기업·기관(12.4%), 민간 연구기관(5.1%) 순임

[그림 2-27] 기술이전처

(단위: %, 기술이전 경험 기업)



특성별 분석

- 관계기업의 기술이전처는 모두 국공립 연구기관(100.0%)으로 나타남
- 수출여부별로 살펴보면, 수출기업은 대학(59.2%), 국공립 연구기관(45.0%), 해외기업·기관(11.9%) 순으로 나타났으며, 내수기업은 대학(44.4%), 국공립 연구기관(28.2%), 민간연구기관(16.8%), 해외기업·기관(10.7%) 순으로 나타나 수출여부별로 기술이전처에 대해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음
- 상장기업의 경우 대학(56.2%)이 가장 높았으며, 국공립 연구기관(50.4%), 해외기업·기관(18.8%)순이며, 민간연구기관과의 기술이전 경험이 없는 반면, 비상장기업의 경우 민간연구기관(8.6%)으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은 경험이 상장기업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수출기업과 상장기업은 기술이전 경험의 비중이 높으며, 대학 및 국공립 연구기관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많이 받는 반면, 내수기업과 비상장기업은 기술이전 경험의 비중이 낮으며, 민간연구기관과의 기술이전 비율이 수출/상장 기업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됨

[표 2-37] 기술이전처

(단위 : %, 기술이전 경험 기업 71개사, 중복응답)

구분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해외기업·기관	민간연구기관
전체		55.0	40.3	11.5	4.7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55.4	36.0	12.4	5.1
	관계기업	50.0	100.0	0.0	0.0
업종	제조업	52.5	39.5	11.9	6.6
	비제조업	61.5	42.1	10.6	0.0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100.0	0.0	0.0	0.0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34.6	65.4	0.0	0.0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29.3	58.7	0.0	41.3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64.7	32.4	35.3	0.0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50.0	50.0	16.7	0.0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50.4	25.2	24.4	0.0
	5천억원 ~ 1조원미만	100.0	0.0	0.0	0.0
	1조원이상	0.0	100.0	0.0	0.0
수출여부	수출있음	59.2	45.0	11.9	0.0
	수출없음	44.4	28.2	10.7	16.8
종사자수	50명미만	0.0	100.0	0.0	0.0
	50 ~ 100명미만	100.0	19.8	0.0	0.0
	100 ~ 200명미만	60.5	36.8	0.0	23.1
	200 ~ 300명미만	58.9	41.1	0.0	0.0
	300 ~ 500명미만	33.9	41.2	24.9	0.0
	500 ~ 1,000명미만	49.5	0.0	50.5	0.0
	1,000명이상	53.1	78.0	0.0	0.0
업력	0 ~ 7년미만	100.0	50.0	0.0	0.0
	7 ~ 20년미만	53.7	36.6	17.6	0.0
	20 ~ 30년미만	100.0	0.0	0.0	0.0
	30 ~ 40년미만	19.8	80.2	0.0	0.0
	40 ~ 50년미만	62.8	0.0	37.2	0.0
	50년이상	31.3	63.4	0.0	36.6
매출유형	B2B	54.2	43.8	10.1	5.6
	B2C	59.6	21.3	19.1	0.0
	B2G	-	-	-	-
상장	상장	56.2	50.4	18.8	0.0
	비상장	54.1	31.8	5.5	8.6

4절 인재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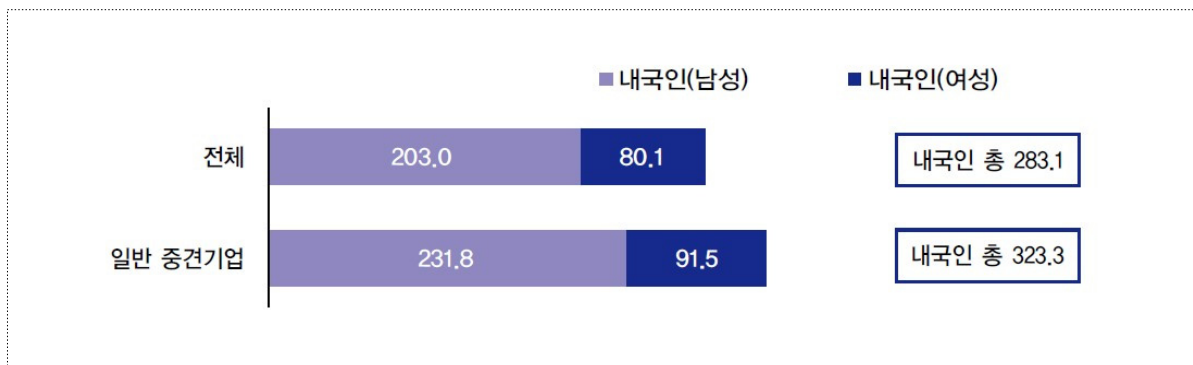
1. 인력현황

□ 전체 인력 현황

- 중견기업의 평균 내국인 근로자 수는 283.1명⁵⁾(남성 203.0명, 여성 80.1명)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약 2.5배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의 평균 내국인 근로자 수는 323.3명(남성 231.8명, 여성 91.5명)임

[그림 2-28] 중견기업 인력 현황 : 평균

(단위: 명)



특성별 분석

- 제조업은 평균 348.6명, 비제조업은 평균 236.0명이 종사함
 - 제조업 종사자 평균 348.6명 중 남성이 275.5명, 여성이 73.0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제조업 종사자 236.0명 중 남성이 150.9명, 여성이 85.2명인 것으로 나타나 제조업의 남녀 성비 차이가 비제조업에 비해 더 큰 것을 알 수 있음
- 매출규모별로는 1백억원미만(29.6명), 1백억원~5백억원미만(97.7명), 5백억원~1천억원미만(242.9명), 1천억원~2천억원미만(333.8명), 2천억원~3천억원미만(385.3명), 3천억원~5천억원미만(582.7명), 5천억원~1조원미만(746.3명), 1조원이상(1641.0명)으로 나타남
- 대체적으로 매출규모가 클수록, 종사자수가 많을수록, 업력이 높을수록 종사자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음

5) 중견기업 통계 상 중견기업 평균 인력 : 324명

해당 통계는 신용평가회사 고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정된 값으로 표본조사를 통한 실태조사 결과값과 다를 수 있음

[표 2-38] 중견기업 인력 현황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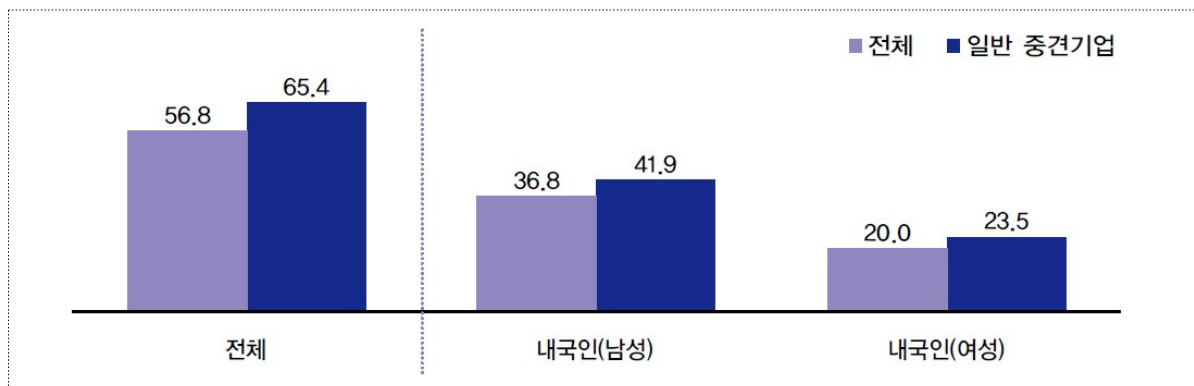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전체 인력			평균 인력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전체		(3,558)	722,276	284,988	1,007,264	203.0	80.1	283.1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2,885)	668,801	263,938	932,739	231.8	91.5	323.3
	관계기업	(673)	53,475	21,050	74,525	79.5	31.3	110.7
업종	제조업	(1,488)	409,951	108,692	518,643	275.5	73.0	348.6
	비제조업	(2,070)	312,325	176,295	488,621	150.9	85.2	236.0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625)	12,799	5,697	18,497	20.5	9.1	29.6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934)	62,838	28,438	91,276	67.3	30.4	97.7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474)	81,147	33,966	115,113	171.2	71.7	242.9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636)	138,564	73,707	212,271	217.9	115.9	333.8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367)	106,707	34,699	141,406	290.8	94.5	385.3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253)	119,995	27,436	147,431	474.3	108.4	582.7
	5천억원 ~ 1조원미만	(179)	100,906	32,679	133,585	563.7	182.6	746.3
	1조원이상	(90)	99,319	48,366	147,686	1,103.5	537.4	1,641.0
수출여부	수출있음	(1,320)	419,701	134,805	554,506	318.0	102.1	420.1
	수출없음	(2,238)	302,575	150,183	452,758	135.2	67.1	202.3
종사자수	50명미만	(1,197)	17,925	5,622	23,547	15.0	4.7	19.7
	50 ~ 100명미만	(508)	28,115	8,228	36,343	55.3	16.2	71.5
	100 ~ 200명미만	(610)	68,451	19,850	88,300	112.3	32.6	144.8
	200 ~ 300명미만	(363)	70,546	17,410	87,957	194.2	47.9	242.2
	300 ~ 500명미만	(360)	101,453	32,046	133,499	281.8	89.0	370.8
	500 ~ 1,000명미만	(347)	186,342	48,455	234,796	537.8	139.8	677.6
	1,000명이상	(173)	249,444	153,377	402,821	1,438.2	884.3	2,322.5
업력	0 ~ 7년미만	(541)	37,980	16,298	54,278	105.8	45.4	151.1
	7 ~ 20년미만	(1,398)	183,413	97,715	281,127	128.0	68.2	196.1
	20 ~ 30년미만	(633)	123,981	56,510	180,491	181.6	82.8	264.4
	30 ~ 40년미만	(414)	104,346	34,669	139,015	255.9	85.0	341.0
	40 ~ 50년미만	(328)	163,184	50,682	213,866	402.3	125.0	527.3
	50년이상	(244)	109,372	29,114	138,486	405.7	108.0	513.6
매출유형	B2B	(2,832)	578,391	210,404	788,795	204.2	74.3	278.5
	B2C	(622)	115,439	70,385	185,824	185.7	113.2	298.9
	B2G	(104)	28,446	4,199	32,645	272.3	40.2	312.5
상장	상장	(760)	327,877	109,167	437,044	383.7	127.8	511.5
	비상장	(2,798)	394,400	175,821	570,220	145.9	65.0	210.9

□ 2016년 채용실적

- 중견기업은 2016년 총 200,102명을 채용하였으며, 평균 56.8명(남성 36.8명, 여성 20.0명)을 채용한 것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은 총 186,924명을 채용하였으며, 평균 65.4명(남성 41.9명, 여성 23.5명)을 채용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2-29] 2016년 채용실적 : 평균

(단위: 명)



특성별 분석

- 일반 중견기업은 평균 65.4명을 채용한 반면, 관계기업은 19.7명을 채용하여 일반 중견기업의 채용실적이 월등히 높음
-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45.0명(남성 31.2명, 여성 13.8명)을 채용한 반면, 비제조업이 65.3명(남성 40.8명, 여성 24.4명)을 채용하여 비제조업이 제조업에 비해 1.5배 가량 높은 인원을 채용한 것으로 나타남
- 제조업의 경우 남성 채용이 여성보다 약 2.2배 높은 반면, 비제조업은 남성 채용이 약 1.6배 높아 제조업이 남성에게 더 많은 채용 기회를 주는 것을 알 수 있음
- 업력별로는 0~7년미만(21.3명), 7~20년미만(55.2명), 20~30년미만(56.1명), 30~40년미만(61.5명), 40~50년미만(87.3명) 으로 대체적으로 업력이 길수록 채용인원도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2-39] 2016년 채용실적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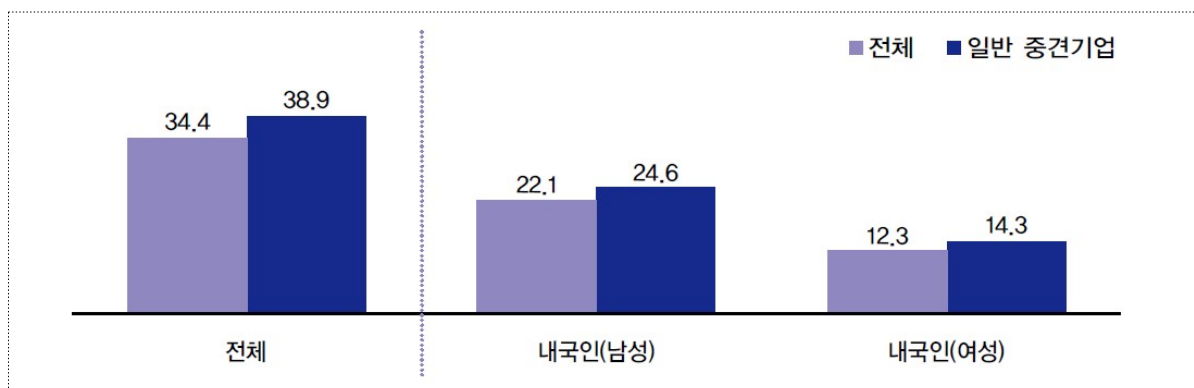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전체 인력			평균 인력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전체		(3,558)	129,619	70,483	200,102	36.8	20.0	56.8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2,885)	119,746	67,177	186,924	41.9	23.5	65.4
	관계기업	(673)	9,873	3,306	13,178	14.8	4.9	19.7
업종	제조업	(1,488)	45,947	20,374	66,322	31.2	13.8	45.0
	비제조업	(2,070)	83,672	50,108	133,780	40.8	24.4	65.3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625)	2,857	1,565	4,422	4.6	2.5	7.1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934)	12,595	5,364	17,959	13.6	5.8	19.4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474)	22,686	12,194	34,880	48.1	25.9	74.0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636)	18,111	13,226	31,337	29.4	21.5	50.8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367)	15,122	5,208	20,330	41.2	14.2	55.4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253)	32,675	9,206	41,881	130.3	36.7	167.0
	5천억원 ~ 1조원미만	(179)	14,147	9,055	23,202	80.5	51.5	132.1
	1조원이상	(90)	11,425	14,666	26,091	126.9	163.0	289.9
수출여부	수출있음	(1,320)	50,678	30,711	81,389	38.7	23.5	62.2
	수출없음	(2,238)	78,941	39,772	118,713	35.6	18.0	53.6
종사자수	50명미만	(1,197)	2,561	1,171	3,732	2.1	1.0	3.1
	50 ~ 100명미만	(508)	3,895	1,699	5,594	7.7	3.3	11.0
	100 ~ 200명미만	(610)	10,600	4,073	14,674	17.5	6.7	24.3
	200 ~ 300명미만	(363)	9,315	2,849	12,165	25.9	7.9	33.8
	300 ~ 500명미만	(360)	13,274	5,103	18,377	38.3	14.7	53.1
	500 ~ 1,000명미만	(347)	23,531	8,102	31,633	68.5	23.6	92.1
	1,000명이상	(173)	66,443	47,485	113,928	396.1	283.1	679.2
업력	0 ~ 7년미만	(541)	5,159	2,384	7,544	14.6	6.7	21.3
	7 ~ 20년미만	(1,398)	51,566	26,654	78,220	36.4	18.8	55.2
	20 ~ 30년미만	(633)	21,429	16,548	37,977	31.7	24.5	56.1
	30 ~ 40년미만	(414)	17,488	7,271	24,759	43.5	18.1	61.5
	40 ~ 50년미만	(328)	24,193	11,219	35,412	59.6	27.7	87.3
	50년이상	(244)	9,783	6,408	16,191	36.3	23.8	60.1
매출유형	B2B	(2,832)	99,316	48,718	148,034	35.3	17.3	52.7
	B2C	(622)	26,321	20,792	47,113	43.1	34.1	77.2
	B2G	(104)	3,983	973	4,955	38.1	9.3	47.4
상장	상장	(760)	39,900	24,851	64,751	47.3	29.4	76.7
	비상장	(2,798)	89,719	45,632	135,351	33.5	17.0	50.5

□ 2017년 채용계획

- 중견기업은 2017년 총 117,290명을 채용할 예정이며, 평균 34.4명(남성 22.1명, 여성 12.3명)을 채용할 것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은 총 107,428명을 채용할 계획이며, 평균 38.9명(남성 24.6명, 여성 14.3명)을 채용할 것으로 나타나 관계기업(총 9,862명, 평균 15.2명)보다 많이 채용할 예정임

[그림 2-30] 2017년 채용계획 : 평균

(단위: 명)



특성별 분석

- 제조업은 2017년 총 43,316명, 평균 30.4명(남성 20.7명, 여성 9.6명)을 채용할 계획이며, 비제조업은 총 73,975명, 평균 37.3명(남성 23.0명, 여성 14.2명)을 채용할 예정임
- 제조업보다 비제조업이 채용할 인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종사자수별로는 50명 미만(2.5명), 50~100명 미만(6.3명), 100~200명 미만(16.7명), 200~300명 미만(22.8명), 300~500명 미만(34.3명), 500~1,000명 미만(74.4명), 1,000명 이상(413.6명)으로 나타나 종사자 수가 많을수록 2017년 신규 채용 인원이 많을 것으로 나타남
- 상장기업은 2017년 채용계획을 52.3명으로 응답하였으며, 비상장기업은 28.9명으로 비상장기업보다 상장기업의 채용계획이 많음

[표 2-40] 2017년 채용계획

(단위 : 명)

구분		사례수	전체 인력			평균 인력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전체		(3,558)	75,301	41,990	117,290	22.1	12.3	34.4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2,885)	68,047	39,381	107,428	24.6	14.3	38.9
	관계기업	(673)	7,254	2,608	9,862	11.2	4.0	15.2
업종	제조업	(1,488)	29,581	13,735	43,316	20.7	9.6	30.4
	비제조업	(2,070)	45,720	28,255	73,975	23.0	14.2	37.3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625)	1,317	878	2,194	2.1	1.4	3.6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934)	9,111	3,887	12,997	10.0	4.3	14.2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474)	11,702	5,995	17,697	26.6	13.6	40.3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636)	12,177	10,311	22,488	20.2	17.1	37.2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367)	11,404	4,602	16,006	31.8	12.8	44.7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253)	15,494	7,369	22,863	64.5	30.7	95.2
	5천억원 ~ 1조원미만	(179)	9,951	7,790	17,741	59.1	46.3	105.4
	1조원이상	(90)	4,144	1,159	5,303	58.0	16.2	74.3
수출여부	수출있음	(1,320)	31,772	14,879	46,650	25.2	11.8	37.1
	수출없음	(2,238)	43,529	27,111	70,640	20.2	12.6	32.8
종사자수	50명미만	(1,197)	2,168	724	2,892	1.8	0.6	2.5
	50 ~ 100명미만	(508)	2,277	881	3,158	4.6	1.8	6.3
	100 ~ 200명미만	(610)	6,346	3,593	9,939	10.7	6.1	16.7
	200 ~ 300명미만	(363)	6,097	1,856	7,953	17.5	5.3	22.8
	300 ~ 500명미만	(360)	8,461	3,037	11,499	25.2	9.1	34.3
	500 ~ 1,000명미만	(347)	16,557	7,388	23,945	51.4	22.9	74.4
	1,000명이상	(173)	33,394	24,510	57,904	238.5	175.1	413.6
업력	0 ~ 7년미만	(541)	3,637	2,097	5,734	10.4	6.0	16.3
	7 ~ 20년미만	(1,398)	29,766	14,114	43,880	21.8	10.3	32.1
	20 ~ 30년미만	(633)	11,663	12,065	23,728	17.8	18.4	36.1
	30 ~ 40년미만	(414)	12,370	5,595	17,966	31.1	14.1	45.2
	40 ~ 50년미만	(328)	11,305	5,550	16,855	30.0	14.7	44.7
	50년이상	(244)	6,559	2,569	9,127	24.9	9.7	34.6
매출유형	B2B	(2,832)	53,638	28,869	82,507	19.7	10.6	30.2
	B2C	(622)	19,603	12,642	32,246	33.7	21.8	55.5
	B2G	(104)	2,059	479	2,538	20.1	4.7	24.8
상장	상장	(760)	25,312	16,358	41,670	31.8	20.5	52.3
	비상장	(2,798)	49,989	25,631	75,620	19.1	9.8	2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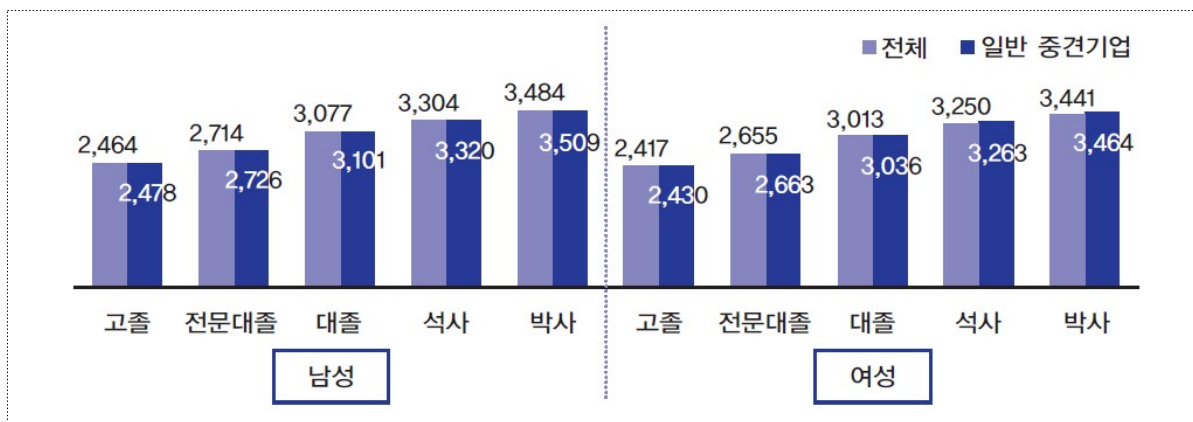
□ 신입사원 초임

○ 중견기업의 신입사원 초임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고, 고학력일수록 높게 나타남

- 남성 : 박사 3,484만원, 석사 3,304만원, 대졸 3,077만원, 전문대졸 2,714만원, 고졸 2,464만원
- 여성 : 박사 3,441만원, 석사 3,250만원, 대졸 3,013만원, 전문대졸 2,655만원, 고졸 2,417만원

[그림 2-31] 신입사원 초임 : 평균

(단위: 만원)



특성별 분석

- 업종별로는 비제조업(대졸신입 남성: 2,984만원, 여성: 2,923만원)에 비해 제조업(대졸신입 남성: 3,206만원, 여성: 3,137만원)의 초임이 더 높음
- 대체적으로 매출규모가 크고 종사자 수가 많을수록 신입사원의 초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출기업이 내수기업에 비해 신입사원 초임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상장여부에 따라 학력별 초임 격차에서 다른 양상을 보임
 - 상장기업의 고졸 남성 초임은 2,581만원, 박사 남성 초임은 3,753만원으로 1,172만원 차이가 나는 반면, 비상장기업의 고졸 남성 초임은 2,425만원, 박사 남성 초임은 3,380만원으로 955만원 차이밖에 나지 않아 상장기업의 학력별 초임 격차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남

[표 2-41] 남성 신입사원 초임 : 평균

(단위 : 만원)

구분		사례수	고졸	전문대졸	대졸	석사	박사
전체		(3,558)	2,464	2,714	3,077	3,304	3,484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2,885)	2,478	2,726	3,101	3,320	3,509
	관계기업	(673)	2,404	2,661	2,971	3,233	3,367
업종	제조업	(1,488)	2,561	2,825	3,206	3,438	3,666
	비제조업	(2,070)	2,388	2,632	2,984	3,191	3,322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625)	2,326	2,552	2,879	3,111	3,218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934)	2,433	2,659	3,008	3,200	3,291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474)	2,440	2,673	2,980	3,198	3,382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636)	2,474	2,732	3,093	3,319	3,568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367)	2,462	2,775	3,157	3,358	3,590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253)	2,593	2,846	3,293	3,579	3,851
	5천억원 ~ 1조원미만	(179)	2,823	3,072	3,560	3,679	3,911
	1조원이상	(90)	2,694	3,161	3,676	3,851	3,967
수출여부	수출있음	(1,320)	2,563	2,840	3,262	3,492	3,739
	수출없음	(2,238)	2,403	2,639	2,967	3,165	3,287
종사자수	50명미만	(1,197)	2,365	2,607	2,932	3,159	3,274
	50 ~ 100명미만	(508)	2,402	2,682	3,006	3,173	3,305
	100 ~ 200명미만	(610)	2,445	2,667	3,042	3,254	3,406
	200 ~ 300명미만	(363)	2,515	2,784	3,170	3,383	3,639
	300 ~ 500명미만	(360)	2,558	2,848	3,235	3,450	3,704
	500 ~ 1,000명미만	(347)	2,710	2,953	3,366	3,579	3,879
	1,000명이상	(173)	2,535	2,787	3,315	3,536	3,720
업력	0 ~ 7년미만	(541)	2,442	2,697	3,105	3,374	3,509
	7 ~ 20년미만	(1,398)	2,404	2,641	2,971	3,200	3,360
	20 ~ 30년미만	(633)	2,408	2,691	3,008	3,245	3,509
	30 ~ 40년미만	(414)	2,457	2,712	3,076	3,260	3,409
	40 ~ 50년미만	(328)	2,688	2,914	3,382	3,615	3,786
	50년이상	(244)	2,606	2,878	3,322	3,465	3,668
매출유형	B2B	(2,832)	2,477	2,730	3,108	3,349	3,542
	B2C	(622)	2,397	2,623	2,911	3,096	3,191
	B2G	(104)	2,520	2,823	3,195	3,275	3,546
상장	상장	(760)	2,581	2,868	3,296	3,509	3,753
	비상장	(2,798)	2,425	2,664	3,007	3,225	3,380

[표 2-42] 여성 신입사원 초임 : 평균

(단위 :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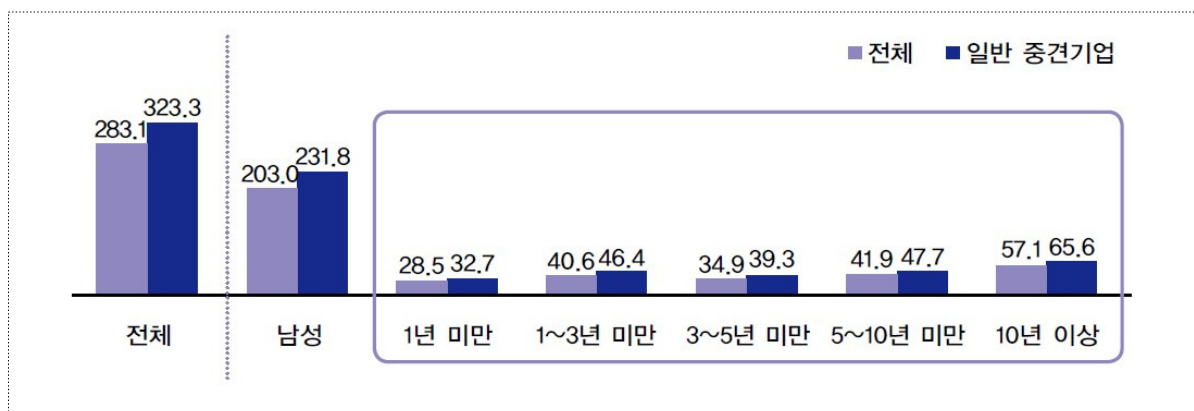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고졸	전문대졸	대졸	석사	박사
전체		(3,558)	2,417	2,655	3,013	3,250	3,441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2,885)	2,430	2,663	3,036	3,263	3,464
	관계기업	(673)	2,359	2,618	2,912	3,191	3,333
업종	제조업	(1,488)	2,501	2,759	3,137	3,373	3,607
	비제조업	(2,070)	2,349	2,578	2,923	3,148	3,296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625)	2,285	2,495	2,827	3,036	3,187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934)	2,384	2,604	2,946	3,173	3,278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474)	2,410	2,632	2,938	3,161	3,354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636)	2,411	2,659	3,013	3,249	3,500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367)	2,411	2,706	3,071	3,283	3,525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253)	2,533	2,778	3,199	3,516	3,777
	5천억원 ~ 1조원미만	(179)	2,769	3,038	3,521	3,639	3,876
	1조원이상	(90)	2,665	3,051	3,628	3,799	3,891
수출여부	수출있음	(1,320)	2,517	2,778	3,204	3,438	3,691
	수출없음	(2,238)	2,354	2,582	2,899	3,113	3,249
종사자수	50명미만	(1,197)	2,319	2,552	2,872	3,104	3,254
	50 ~ 100명미만	(508)	2,358	2,617	2,933	3,111	3,253
	100 ~ 200명미만	(610)	2,399	2,632	2,995	3,199	3,362
	200 ~ 300명미만	(363)	2,491	2,739	3,104	3,333	3,604
	300 ~ 500명미만	(360)	2,471	2,736	3,130	3,398	3,628
	500 ~ 1,000명미만	(347)	2,652	2,872	3,294	3,527	3,819
	1,000명이상	(173)	2,509	2,754	3,284	3,484	3,672
업력	0 ~ 7년미만	(541)	2,411	2,675	3,065	3,361	3,507
	7 ~ 20년미만	(1,398)	2,367	2,588	2,912	3,135	3,315
	20 ~ 30년미만	(633)	2,363	2,635	2,943	3,208	3,484
	30 ~ 40년미만	(414)	2,412	2,642	3,004	3,193	3,357
	40 ~ 50년미만	(328)	2,584	2,791	3,255	3,523	3,697
	50년이상	(244)	2,561	2,844	3,309	3,458	3,636
매출유형	B2B	(2,832)	2,428	2,667	3,041	3,291	3,496
	B2C	(622)	2,354	2,580	2,856	3,061	3,167
	B2G	(104)	2,500	2,777	3,151	3,215	3,491
상장	상장	(760)	2,522	2,802	3,226	3,454	3,689
	비상장	(2,798)	2,381	2,607	2,945	3,169	3,343

□ 재직연수별 현황

- 중견기업 남성직원의 재직연수별 분포는 10년 이상 57.1명, 5~10년 미만 41.9명, 1~3년 미만 40.6명, 3~5년 미만 34.9명, 1년 미만 28.5명 순임
- 일반 중견기업 남성직원의 재직연수별 분포는 10년 이상 65.6명, 5~10년 미만 47.7명, 1~3년 미만 46.4명, 3~5년 미만 39.3명, 1년 미만 32.7명 순임

[그림 2-32] 남성 재직연수별 현황 : 평균

(단위: 명)



특성별 분석

- 일반 중견기업 남성직원 총 231.8명 중 10년 이상 근속 인원이 65.6명(28.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관계기업 남성직원 총 79.5명 중 10년 이상 근속 인원은 20.5명(25.8%)으로 관계기업보다 일반 중견기업에서 10년 이상 근속한 남성 직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제조업은 근속연수 10년 이상이 94.2명, 5~10년 미만 61.8명, 1~3년 미만 48.7명, 3~5년 미만 46.4명, 1년 미만 24.4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비제조업은 1~3년 미만이 34.7명, 1년 미만 31.5명, 10년 이상 30.4명, 5~10년 미만 27.7명, 3~5년 미만 26.6명 순으로 나타남
- 제조업은 근속연수가 긴 직원이 많은 반면, 비제조업은 상대적으로 근속연수가 짧은 직원이 많아 비제조업보다 제조업의 근속연수가 더 긴 것을 알 수 있음
- 매출 규모가 클수록, 종사자수가 많을수록, 업력이 긴 기업일수록 남성근로자의 평균 근속연수가 대체로 긴 것으로 나타남

[표 2-43] 남성 재직연수별 현황 :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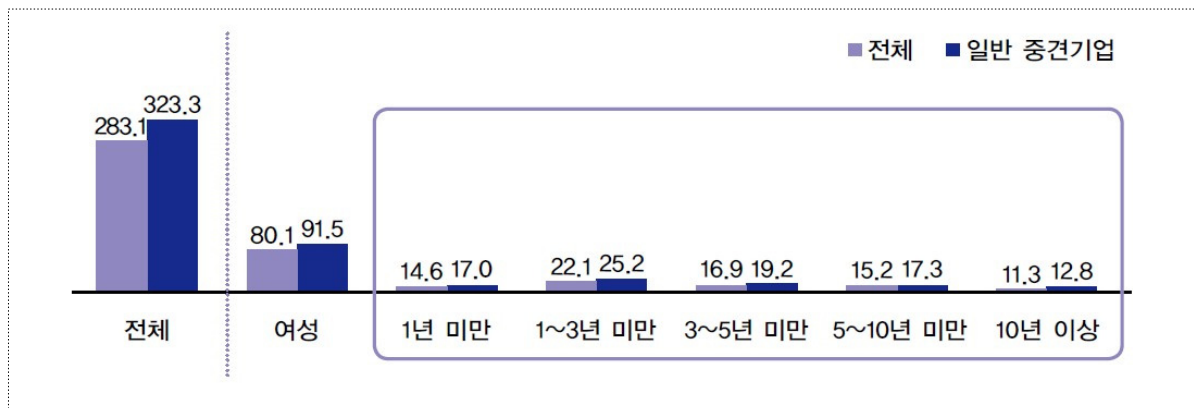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사례수	전체 (남성 +여성)	남성					
				1년미만	1년 ~ 3년미만	3년 ~ 5년미만	5년 ~ 10년미만	10년이상	
전체		(3,558)	283.1	203.0	28.5	40.6	34.9	41.9	57.1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2,885)	323.3	231.8	32.7	46.4	39.3	47.7	65.6
	관계기업	(673)	110.7	79.5	10.6	15.5	15.7	17.2	20.5
업종	제조업	(1,488)	348.6	275.5	24.4	48.7	46.4	61.8	94.2
	비제조업	(2,070)	236.0	150.9	31.5	34.7	26.6	27.7	30.4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625)	29.6	20.5	3.9	6.2	4.1	3.9	2.4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934)	97.7	67.3	9.7	14.2	11.5	14.8	17.0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474)	242.9	171.2	32.8	43.0	30.2	32.2	32.9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636)	333.8	217.9	26.4	43.9	35.7	48.2	63.7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367)	385.3	290.8	32.1	61.3	67.5	58.4	71.4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253)	582.7	474.3	102.6	89.9	66.9	85.9	128.9
	5천억원 ~ 1조원미만	(179)	746.3	563.7	65.6	109.5	101.1	110.7	176.9
	1조원이상	(90)	1,641.0	1,103.5	90.2	156.0	155.3	267.5	434.5
수출여부	수출있음	(1,320)	420.1	318.0	29.7	57.4	52.3	72.7	105.9
	수출없음	(2,238)	202.3	135.2	27.8	30.7	24.6	23.8	28.3
종사자수	50명미만	(1,197)	19.7	15.0	1.7	3.5	2.8	3.8	3.2
	50 ~ 100명미만	(508)	71.5	55.3	6.5	11.5	11.1	12.6	13.7
	100 ~ 200명미만	(610)	144.8	112.3	13.6	22.2	19.2	24.6	32.6
	200 ~ 300명미만	(363)	242.2	194.2	20.6	39.5	31.5	42.4	60.3
	300 ~ 500명미만	(360)	370.8	281.8	28.7	59.4	47.0	67.1	79.5
	500 ~ 1,000명미만	(347)	677.6	537.8	55.5	98.3	86.4	118.2	179.4
	1,000명이상	(173)	2,322.5	1,438.2	293.3	294.0	259.7	246.9	344.3
업력	0 ~ 7년미만	(541)	151.1	105.8	13.7	26.7	17.6	19.0	28.8
	7 ~ 20년미만	(1,398)	196.1	128.0	26.9	27.6	22.4	26.1	25.0
	20 ~ 30년미만	(633)	264.4	181.6	23.9	44.5	35.7	36.6	40.9
	30 ~ 40년미만	(414)	341.0	255.9	35.8	48.3	42.4	54.9	74.6
	40 ~ 50년미만	(328)	527.3	402.3	46.6	76.8	67.1	79.7	132.1
	50년이상	(244)	513.6	405.7	30.6	51.9	62.3	93.7	167.2
매출유형	B2B	(2,832)	278.5	204.2	28.7	39.0	34.5	42.8	59.2
	B2C	(622)	298.9	185.7	27.8	42.4	32.9	35.8	46.9
	B2G	(104)	312.5	272.3	28.3	71.8	58.1	54.4	59.6
상장	상장	(760)	511.5	383.7	36.2	69.7	64.5	87.6	125.7
	비상장	(2,798)	210.9	145.9	26.1	31.4	25.5	27.5	35.4

- 중견기업 여성직원의 재직연수별 분포는 1~3년 미만 22.1명, 3~5년 미만 16.9명, 5~10년 미만 15.2명, 1년 미만 14.6명, 10년 이상 11.3명 순임
- 일반 중견기업 여성직원의 재직연수별 분포는 1~3년 미만 25.2명, 3~5년 미만 19.2명, 5~10년 미만 17.3명, 1년 미만 17.0명, 10년 이상 12.8명 순임

[그림 2-33] 여성 재직연수별 현황 : 평균

(단위: 명)



특성별 분석

- 제조업 여성직원의 근속연수는 1~3년 미만이 18.7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10년 미만이 16.3명, 3~5년 미만이 14.9명, 10년 이상이 13.9명, 1년 미만 9.4명의 순으로 나타남. 비제조업 여성직원의 근속연수는 1~3년 미만이 24.6명, 3~5년 미만 18.4명, 1년 미만 18.3명, 5~10년 미만 14.4명, 10년 이상 9.4명의 순임
- 남성 직원과 동일하게 비제조업보다 제조업의 근속연수가 높으며, 매출규모, 업력이 길수록 평균 근속연수가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상장기업의 여성직원 근속연수는 구간별로 비교적 비슷한 분포를 띄고 있는 반면, 비상장기업은 평균 근속연수가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조사됨
- 대체적으로 여성직원의 근속연수가 남성직원의 근속연수보다 낮게 조사됨
- 이는 여성의 임신 및 육아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임

[표 2-44] 여성 재직연수별 현황 : 평균

(단위 : 명)

구분		사례수	전체 (남성 +여성)	여성					
				1년미만	1년 ~ 3년미만	3년 ~ 5년미만	5년 ~ 10년미만	10년이상	
전체		(3,558)	283.1	80.1	14.6	22.1	16.9	15.2	11.3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2,885)	323.3	91.5	17.0	25.2	19.2	17.3	12.8
	관계기업	(673)	110.7	31.3	4.1	8.8	7.3	6.1	4.9
업종	제조업	(1,488)	348.6	73.0	9.4	18.7	14.9	16.3	13.9
	비제조업	(2,070)	236.0	85.2	18.3	24.6	18.4	14.4	9.4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625)	29.6	9.1	2.2	3.3	1.8	1.3	0.5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934)	97.7	30.4	4.5	8.8	6.3	6.2	4.7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474)	242.9	71.7	17.4	23.5	14.8	10.4	5.6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636)	333.8	115.9	20.8	35.2	24.3	20.8	14.8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367)	385.3	94.5	11.6	26.8	28.8	15.1	12.3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253)	582.7	108.4	21.3	28.0	20.6	22.3	16.2
	5천억원 ~ 1조원미만	(179)	746.3	182.6	34.8	40.1	41.0	34.9	31.8
	1조원이상	(90)	1,641.0	537.4	99.0	120.3	84.6	132.4	101.2
수출여부	수출있음	(1,320)	420.1	102.1	16.1	26.6	19.5	21.8	18.2
	수출없음	(2,238)	202.3	67.1	13.7	19.5	15.4	11.3	7.2
종사자수	50명미만	(1,197)	19.7	4.7	0.9	1.3	1.2	0.9	0.5
	50 ~ 100명미만	(508)	71.5	16.2	2.4	4.6	3.3	3.4	2.6
	100 ~ 200명미만	(610)	144.8	32.6	5.7	9.3	6.4	6.3	4.8
	200 ~ 300명미만	(363)	242.2	47.9	5.8	16.8	10.5	8.3	6.5
	300 ~ 500명미만	(360)	370.8	89.0	11.3	26.7	18.5	18.0	14.5
	500 ~ 1,000명미만	(347)	677.6	139.8	19.1	39.8	29.7	31.0	20.2
	1,000명이상	(173)	2,322.5	884.3	192.7	228.1	187.0	157.0	119.5
업력	0 ~ 7년미만	(541)	151.1	45.4	6.2	14.7	10.1	6.0	8.4
	7 ~ 20년미만	(1,398)	196.1	68.2	15.1	20.2	13.7	12.5	6.7
	20 ~ 30년미만	(633)	264.4	82.8	15.2	23.8	19.7	15.2	8.9
	30 ~ 40년미만	(414)	341.0	85.0	14.5	21.4	14.4	18.2	16.5
	40 ~ 50년미만	(328)	527.3	125.0	19.3	36.6	31.0	19.8	18.3
	50년이상	(244)	513.6	108.0	14.5	17.3	18.9	30.1	27.2
매출유형	B2B	(2,832)	278.5	74.3	13.8	20.9	16.1	13.7	9.7
	B2C	(622)	298.9	113.2	19.5	29.5	21.7	23.2	19.4
	B2G	(104)	312.5	40.2	7.6	11.2	9.5	6.9	4.9
상장	상장	(760)	511.5	127.8	19.7	30.4	25.3	28.4	24.1
	비상장	(2,798)	210.9	65.0	13.0	19.5	14.3	11.0	7.2

□ 이직자 현황

- 중견기업의 이직자는 평균 58.8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 38.3명, 여성 20.5명으로 전체 근로자수 대비 이직자 비율은 20.6%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의 이직자는 평균 68.2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 44.0명, 여성 24.2명으로 전체 근로자수 대비 이직자 비율은 20.8%로 나타남

[그림 2-34] 이직자 현황 : 평균

(단위: 명)



특성별 분석

- 기업 유형별로는 일반 중견기업은 평균 68.2명, 관계기업은 평균 19.0명이 이직한 것으로 나타나 일반 중견기업의 평균 이직자 수가 관계기업에 비해 약 3.5배 많으나 이직률은 유사하게 나타남
- 업종별로는 제조업 이직률 14.3%(남성 12.6%, 여성 20.6%), 비제조업 이직률 27.2%(남성 26.6%, 여성 28.2%)로 비제조업의 이직률이 제조업보다 약 2배 정도 높게 조사됨
- 수출기업 이직률 16.1%(남성 13.3%, 여성 24.9%), 내수기업 이직률 26.0%(남성 26.1%, 여성 25.7%)로 내수기업의 이직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내수기업, 비제조업, 비상장기업이 수출기업, 제조업, 상장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직률이 높은 것으로 보임

[표 2-45] 이직자 현황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전체 인력			평균 인력			이직률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전체		(3,558)	134,865	72,138	207,003	38.3	20.5	58.8	18.7	25.3	20.6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2,885)	125,301	68,986	194,286	44.0	24.2	68.2	18.7	26.1	20.8
	관계기업	(673)	9,564	3,152	12,717	14.3	4.7	19.0	17.9	15.0	17.1
업종	제조업	(1,488)	51,703	22,409	74,112	35.1	15.2	50.4	12.6	20.6	14.3
	비제조업	(2,070)	83,162	49,729	132,891	40.6	24.3	64.8	26.6	28.2	27.2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625)	2,439	1,289	3,728	3.9	2.1	6.0	19.1	22.6	20.2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934)	13,753	5,934	19,688	14.8	6.4	21.2	21.9	20.9	21.6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474)	24,047	10,884	34,931	50.7	23.0	73.7	29.6	32.0	30.3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636)	18,379	14,852	33,231	29.8	24.1	53.9	13.3	20.2	15.7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367)	16,168	6,809	22,977	44.7	18.8	63.6	15.2	19.6	16.2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253)	32,776	9,583	42,360	130.7	38.2	168.9	27.3	34.9	28.7
	5천억원 ~ 1조원미만	(179)	10,335	5,758	16,093	58.8	32.8	91.6	10.2	17.6	12.0
수출여부	1조원이상	(90)	16,968	17,029	33,996	188.5	189.2	377.7	17.1	35.2	23.0
	수출있음	(1,320)	55,744	33,550	89,294	42.6	25.6	68.2	13.3	24.9	16.1
	수출없음	(2,238)	79,122	38,588	117,710	35.8	17.4	53.2	26.1	25.7	26.0
종사자수	50명미만	(1,197)	3,652	1,170	4,822	3.1	1.0	4.0	20.4	20.8	20.5
	50 ~ 100명미만	(508)	4,338	1,995	6,333	8.6	3.9	12.5	15.4	24.2	17.4
	100 ~ 200명미만	(610)	12,260	5,099	17,359	20.4	8.5	28.9	17.9	25.7	19.7
	200 ~ 300명미만	(363)	10,950	3,433	14,382	30.4	9.5	39.9	15.5	19.7	16.4
	300 ~ 500명미만	(360)	14,999	7,479	22,479	43.3	21.6	64.9	14.8	23.3	16.8
	500 ~ 1,000명미만	(347)	21,697	8,710	30,406	63.2	25.4	88.5	11.6	18.0	12.9
	1,000명이상	(173)	66,969	44,252	111,221	399.2	263.8	663.0	26.8	28.9	27.6
업력	0 ~ 7년미만	(541)	3,567	1,960	5,528	10.1	5.5	15.6	9.4	12.0	10.2
	7 ~ 20년미만	(1,398)	52,805	29,772	82,577	37.4	21.1	58.4	28.8	30.5	29.4
	20 ~ 30년미만	(633)	26,347	17,106	43,453	39.1	25.4	64.5	21.3	30.3	24.1
	30 ~ 40년미만	(414)	18,105	6,889	24,994	44.7	17.0	61.7	17.4	19.9	18.0
	40 ~ 50년미만	(328)	21,691	10,808	32,498	53.5	26.6	80.1	13.3	21.3	15.2
	50년이상	(244)	12,351	5,602	17,953	45.8	20.8	66.6	11.3	19.2	13.0
매출유형	B2B	(2,832)	104,514	52,718	157,232	37.2	18.8	56.0	18.1	25.1	19.9
	B2C	(622)	25,155	18,166	43,320	41.2	29.8	71.0	21.8	25.8	23.3
	B2G	(104)	5,196	1,255	6,451	49.7	12.0	61.7	18.3	29.9	19.8
상장	상장	(760)	40,229	24,136	64,365	48.0	28.8	76.8	12.3	22.1	14.7
	비상장	(2,798)	94,637	48,002	142,639	35.3	17.9	53.2	24.0	27.3	25.0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N(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업종은 인력순환이 많음

※ 해당 기업 포함하여 산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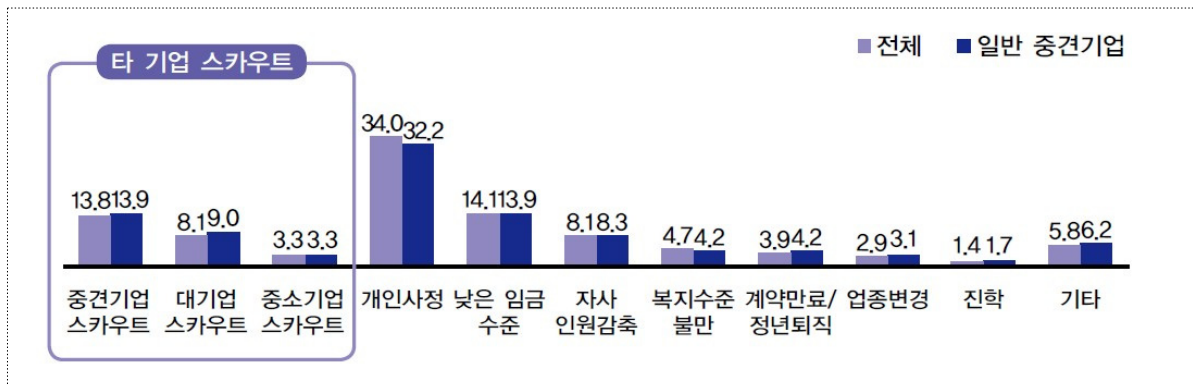
※ 이직률 = 이직자수 / 총인력

□ 주요 이직원인

- 중견기업 이직자의 주요 이직원인은 개인사정(34.0%), 타 기업 스카우트 25.2%(중견기업스카우트(13.8%), 대기업 스카우트(8.1%), 중소기업 스카우트(3.3%)), 낮은 임금수준(14.1%), 자사 인원감축(8.1%) 순임
- 일반 중견기업 이직자의 주요 이직원인은 개인사정(32.2%), 타 기업 스카우트 26.2%(중견기업 스카우트(13.9%), 대기업 스카우트(9.0%), 중소기업 스카우트(3.3%)), 낮은 임금수준 (13.9%), 자사 인원감축(8.3%) 순임

[그림 2-35] 주요 이직원인 : 1순위

(단위: %, 이직자가 있는 기업)



특성별 분석

- 대체적으로 매출규모가 작을수록 개인사정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출규모가 클수록 타 기업 스카우트 및 계약만료/정년퇴직, 진학 등으로 인한 이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매출유형별로는 주 거래처가 기업인 B2B기업과, 소비자가 주 거래처인 B2C기업은 개인사정이 많은 반면, 정부/공공기관이 주 거래처인 B2G기업은 타 기업 스카우트(29.0%), 자사 인원감축(21.0%)이 높게 나타남
- 정부/공공기관의 인원 감축이 B2G기업의 인원감축을 유발하여 이직의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추정됨

[표 2-46] 주요 이직원인 : 1순위

(단위 : %, 이직자가 있는 기업 3,076개사)

구분		계	타 기업 스카우트			개인사정	낮은 임금 수준
			중견기업 스카우트	대기업 스카우트	중소기업 스카우트		
전체		25.2	13.8	8.1	3.3	34.0	14.1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26.2	13.9	9.0	3.3	32.2	13.9
	관계기업	20.3	13.6	3.8	2.9	42.8	15.0
업종	제조업	26.5	12.3	10.3	3.9	36.0	11.0
	비제조업	23.9	15.0	6.2	2.7	32.5	16.6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23.8	14.4	4.5	4.9	41.8	11.9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18.6	9.0	5.8	3.8	40.4	13.4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27.7	18.1	4.3	5.3	31.7	14.0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24.3	13.0	8.9	2.4	32.4	16.1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25.3	13.0	9.8	2.5	31.1	17.2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31.0	20.3	10.7	0.0	24.0	14.9
	5천억원 ~ 1조원미만	38.9	15.5	20.9	2.5	26.6	11.8
	1조원이상	43.1	22.4	20.7	0.0	15.5	6.8
수출여부	수출있음	28.7	15.0	11.1	2.6	32.1	11.2
	수출없음	22.8	13.1	6.0	3.7	35.3	16.1
종사자수	50명미만	20.0	10.8	4.9	4.3	44.2	11.8
	50 ~ 100명미만	24.6	13.7	6.3	4.6	39.3	14.7
	100 ~ 200명미만	24.6	13.5	7.5	3.6	28.3	14.7
	200 ~ 300명미만	26.4	12.9	10.0	3.5	28.6	18.7
	300 ~ 500명미만	31.0	15.5	14.6	0.9	33.4	8.7
	500 ~ 1,000명미만	30.5	18.9	10.7	0.9	27.1	16.9
	1,000명이상	25.9	17.5	6.1	2.3	18.5	17.8
업력	0 ~ 7년미만	28.6	16.1	7.9	4.6	21.3	16.1
	7 ~ 20년미만	22.1	11.7	7.3	3.1	41.8	10.6
	20 ~ 30년미만	27.1	18.5	4.5	4.1	30.5	21.2
	30 ~ 40년미만	18.5	10.3	5.1	3.1	36.8	14.6
	40 ~ 50년미만	30.4	14.9	14.2	1.3	26.5	13.5
	50년이상	32.3	13.3	15.4	3.6	28.5	11.2
매출유형	B2B	25.5	13.4	8.4	3.7	36.5	12.7
	B2C	23.1	15.5	5.8	1.8	24.4	22.0
	B2G	29.0	17.9	11.1	0.0	17.2	9.9
상장	상장	34.5	19.3	13.1	2.1	29.0	10.6
	비상장	21.7	11.8	6.2	3.7	35.9	15.4

[표 2-47] 주요 이직원인 : 1순위(계속)

(단위 : %, 이직자가 있는 기업 3,076개사)

구분		자사 인원감축	복지수준 불만	계약만료/ 정년퇴직	업종변경	진학	기타
전체		8.1	4.7	3.9	2.9	1.4	5.8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8.3	4.2	4.2	3.1	1.7	6.2
	관계기업	7.0	7.1	2.5	1.5	0.0	3.9
업종	제조업	7.6	6.7	4.5	2.9	1.0	3.7
	비제조업	8.5	3.1	3.4	2.8	1.8	7.4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7.7	1.9	1.6	1.6	0.0	9.6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7.8	2.8	5.3	4.6	1.4	5.7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9.0	3.6	4.9	1.6	0.0	7.5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7.2	8.0	3.5	3.4	1.0	4.1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10.7	5.8	2.5	4.2	2.5	0.8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7.9	5.3	2.7	0.9	3.5	9.7
	5천억원 ~ 1조원미만	2.5	7.4	3.3	0.0	4.0	5.7
	1조원이상	15.6	5.2	10.4	0.0	3.4	0.0
수출여부	수출있음	8.3	6.5	4.4	2.9	1.5	4.6
	수출없음	8.0	3.5	3.6	2.8	1.4	6.6
종사자수	50명미만	7.1	1.8	1.4	4.5	0.3	8.9
	50 ~ 100명미만	7.1	2.8	2.6	1.4	2.3	5.3
	100 ~ 200명미만	9.4	5.4	7.9	3.4	1.9	4.2
	200 ~ 300명미만	7.6	7.8	4.1	1.7	0.6	4.3
	300 ~ 500명미만	10.5	4.5	2.3	3.1	0.9	5.7
	500 ~ 1,000명미만	5.0	9.5	3.5	1.7	2.5	3.3
	1,000명이상	12.7	5.3	9.0	1.7	3.1	5.9
업력	0 ~ 7년미만	4.5	2.9	9.6	5.7	0.0	11.4
	7 ~ 20년미만	10.7	3.0	1.5	3.6	1.8	5.0
	20 ~ 30년미만	7.1	3.5	4.2	2.3	0.3	3.6
	30 ~ 40년미만	4.5	8.7	3.9	2.8	1.5	8.7
	40 ~ 50년미만	8.9	7.6	5.8	0.0	2.2	5.1
	50년이상	6.4	6.6	5.0	2.4	2.5	5.2
매출유형	B2B	7.0	4.5	4.4	2.6	1.3	5.5
	B2C	11.3	4.3	1.4	4.6	2.1	6.9
	B2G	21.0	14.1	3.6	0.0	0.0	5.3
상장	상장	6.2	6.7	2.7	2.4	1.1	6.8
	비상장	8.8	4.0	4.3	3.0	1.5	5.4

[표 2-48] 주요 이직원인 : 1+2순위

(단위 : %, 이직자가 있는 기업 3,076개사)

구분		계	타 기업 스카우트			개인사정	낮은 임금 수준
			중견기업 스카우트	대기업 스카우트	중소기업 스카우트		
전체		48.1	27.5	13.5	7.1	42.6	25.6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50.4	28.5	14.8	7.1	40.5	25.3
	관계기업	36.9	22.5	7.2	7.2	52.9	27.2
업종	제조업	54.4	30.2	16.9	7.3	44.0	23.4
	비제조업	43.0	25.3	10.7	7.0	41.6	27.4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37.5	20.2	6.7	10.6	47.8	23.5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34.6	19.3	8.3	7.0	48.2	24.1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48.6	27.8	11.1	9.7	41.8	28.8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51.6	29.8	15.5	6.3	41.6	28.6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63.9	37.6	19.0	7.3	36.7	26.1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55.0	34.5	17.8	2.7	33.7	25.6
	5천억원 ~ 1조원미만	62.5	35.1	24.9	2.5	40.0	21.5
	1조원이상	82.8	43.1	34.5	5.2	32.7	17.2
수출여부	수출있음	58.8	33.5	18.4	6.9	40.5	22.6
	수출없음	41.0	23.5	10.2	7.3	44.1	27.6
종사자수	50명미만	35.0	19.7	7.2	8.1	50.1	19.1
	50 ~ 100명미만	47.0	29.0	9.5	8.5	46.6	25.5
	100 ~ 200명미만	43.5	23.9	11.5	8.1	41.8	31.5
	200 ~ 300명미만	52.8	30.2	16.5	6.1	34.2	34.7
	300 ~ 500명미만	62.6	36.3	22.1	4.2	38.9	16.1
	500 ~ 1,000명미만	65.7	38.6	21.5	5.6	39.8	28.0
	1,000명이상	51.9	25.5	20.0	6.4	31.1	32.3
업력	0 ~ 7년미만	46.1	25.1	12.4	8.6	30.9	25.5
	7 ~ 20년미만	40.5	22.7	10.7	7.1	49.9	22.6
	20 ~ 30년미만	53.1	33.3	11.6	8.2	38.5	35.1
	30 ~ 40년미만	38.0	24.0	7.7	6.3	46.9	24.7
	40 ~ 50년미만	62.6	32.3	24.2	6.1	34.6	23.7
	50년이상	64.9	35.2	24.1	5.6	38.2	20.8
매출유형	B2B	49.0	27.0	14.5	7.5	44.3	23.7
	B2C	43.6	29.7	8.1	5.8	37.9	34.7
	B2G	47.6	28.6	14.6	4.4	19.8	26.6
상장	상장	67.4	39.4	21.8	6.2	37.4	21.7
	비상장	41.2	23.2	10.5	7.5	44.5	27.0

[표 2-49] 주요 이직원인 : 1+2순위(계속)

(단위 : %, 이직자가 있는 기업 3,076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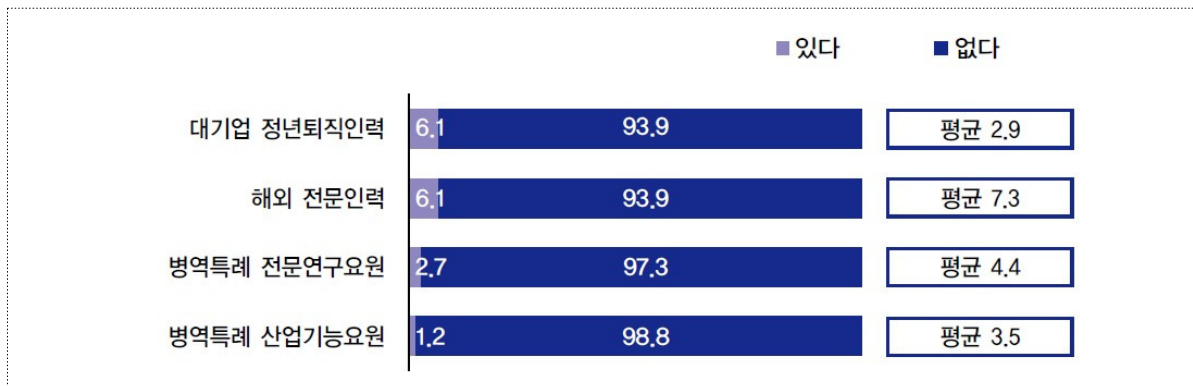
구분		복지수준 불만	자사 인원감축	진학	계약만료/ 정년퇴직	업종변경	기타
전체		17.6	11.6	5.8	5.5	3.7	6.2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16.7	12.1	6.6	6.0	4.1	6.4
	관계기업	21.9	9.4	2.0	3.0	2.0	5.4
업종	제조업	18.3	11.9	5.5	5.3	3.6	4.1
	비제조업	16.9	11.3	6.0	5.7	3.7	8.0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16.5	7.7	7.3	4.9	1.6	9.6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13.3	9.2	4.6	7.8	6.4	6.4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13.6	10.7	2.4	4.9	1.6	8.1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23.5	15.0	5.3	4.9	3.4	4.1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20.7	14.7	6.6	3.4	5.0	1.6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23.8	14.1	7.1	3.6	1.8	11.5
	5천억원 ~ 1조원미만	18.8	8.2	13.5	4.5	2.5	5.7
	1조원이상	5.2	19.0	8.6	10.4	3.4	0.0
수출여부	수출있음	18.4	13.9	5.9	5.2	3.9	5.0
	수출없음	17.0	10.1	5.7	5.7	3.6	7.1
종사자수	50명미만	16.8	9.2	4.3	3.1	4.5	9.3
	50 ~ 100명미만	13.1	9.2	7.1	6.1	2.5	5.8
	100 ~ 200명미만	15.6	13.6	6.6	8.4	4.8	5.6
	200 ~ 300명미만	23.0	10.0	2.1	7.2	3.4	4.3
	300 ~ 500명미만	16.7	19.9	4.4	2.3	3.6	6.2
	500 ~ 1,000명미만	25.0	6.4	8.6	4.9	2.3	3.3
	1,000명이상	16.7	18.3	11.2	9.0	2.9	5.9
업력	0 ~ 7년미만	11.4	5.4	10.5	9.6	6.4	11.4
	7 ~ 20년미만	14.2	12.9	4.3	3.3	4.5	5.9
	20 ~ 30년미만	20.3	12.6	3.2	5.7	3.7	3.9
	30 ~ 40년미만	25.4	7.1	7.9	4.8	2.8	8.7
	40 ~ 50년미만	17.5	15.9	9.1	7.8	1.1	5.7
	50년이상	21.0	10.1	5.7	8.1	2.4	5.2
매출유형	B2B	17.5	10.6	6.0	5.9	3.4	6.1
	B2C	15.9	14.5	5.0	2.7	5.7	6.9
	B2G	30.9	25.1	3.6	10.5	0.0	5.3
상장	상장	19.1	10.8	5.1	4.3	3.0	7.1
	비상장	17.0	11.9	6.1	5.9	3.9	5.9

□ 유형별 보유인력

- 중견기업의 6.1%는 대기업 정년퇴직인력을, 6.1%는 해외 전문인력을, 2.7%는 전문연구요원(병역특례), 1.2%는 산업기능요원(병역특례)을 보유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정년퇴직인력 평균 2.9명, 해외 전문인력 평균 7.3명, 전문연구요원(병역특례) 평균 4.4명, 산업기능요원(병역특례) 평균 3.5명을 보유함

[그림 2-36] 유형별 보유인력

(단위: %, 명)



특성별 분석

- 일반 중견기업의 6.6%는 대기업 정년퇴직인력을, 6.7%는 해외 전문인력을, 3.4%는 전문연구요원(병역특례)을 보유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계기업의 4.0%는 대기업 정년 퇴직인력, 3.3%는 해외 전문인력, 1.6%는 산업기능요원을 보유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5.6%, 비제조업의 0.7%가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을 보유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각 평균 4.0명, 7.0명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제조업의 경우 비제조업보다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을 보유한 기업이 많지만 그 숫자는 비제조업보다 적음을 알 수 있음
- 대체적으로 매출규모가 크고, 종사자 수가 많고, 업력이 길수록 특수유형인력 보유 경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2-50] 유형별 보유인력

(단위 : %, 명)

구분		사례수	대기업 정년퇴직인력			해외 전문인력		
			보유	평균	미보유	보유	평균	미보유
전체		(3,558)	6.1	2.9	93.9	6.1	7.3	93.9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2,885)	6.6	3.0	93.4	6.7	8.0	93.3
	관계기업	(673)	4.0	2.2	96.0	3.3	1.4	96.7
업종	제조업	(1,488)	8.5	3.6	91.5	9.8	8.4	90.2
	비제조업	(2,070)	4.4	1.8	95.6	3.4	5.1	96.6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625)	6.3	1.3	93.7	3.2	1.4	96.8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934)	3.0	3.2	97.0	3.3	5.9	96.7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474)	4.9	2.2	95.1	3.9	2.4	96.1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636)	8.9	3.6	91.1	8.0	9.5	92.0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367)	7.9	2.4	92.1	9.4	9.6	90.6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253)	7.7	3.6	92.3	9.4	10.3	90.6
	5천억원 ~ 1조원미만	(179)	7.5	2.8	92.5	13.1	5.0	86.9
	1조원이상	(90)	9.6	6.0	90.4	14.4	11.0	85.6
수출여부	수출있음	(1,320)	8.6	4.0	91.4	13.7	8.1	86.3
	수출없음	(2,238)	4.7	1.7	95.3	1.6	3.2	98.4
종사자수	50명미만	(1,197)	5.9	1.4	94.1	1.9	1.6	98.1
	50 ~ 100명미만	(508)	5.4	1.6	94.6	4.0	3.0	96.0
	100 ~ 200명미만	(610)	4.3	3.9	95.7	5.4	4.0	94.6
	200 ~ 300명미만	(363)	5.6	3.4	94.4	5.8	13.5	94.2
	300 ~ 500명미만	(360)	5.0	3.0	95.0	10.2	7.0	89.8
	500 ~ 1,000명미만	(347)	13.4	4.1	86.6	16.4	9.6	83.6
	1,000명이상	(173)	4.8	7.3	95.2	14.6	10.5	85.4
업력	0 ~ 7년미만	(541)	4.2	1.4	95.8	3.8	4.6	96.2
	7 ~ 20년미만	(1,398)	6.6	2.4	93.4	4.7	8.2	95.3
	20 ~ 30년미만	(633)	7.2	2.2	92.8	5.8	10.1	94.2
	30 ~ 40년미만	(414)	7.2	1.7	92.8	9.5	3.0	90.5
	40 ~ 50년미만	(328)	5.0	9.4	95.0	9.3	8.4	90.7
	50년이상	(244)	3.6	3.0	96.4	7.0	6.9	93.0
매출유형	B2B	(2,832)	6.3	2.9	93.7	6.3	7.6	93.7
	B2C	(622)	4.9	3.4	95.1	5.8	6.1	94.2
	B2G	(104)	8.4	1.2	91.6	0.0	-	100.0
상장	상장	(760)	7.7	4.4	92.3	11.1	7.3	88.9
	비상장	(2,798)	5.6	2.2	94.4	4.5	7.3	95.5

[표 2-51] 유형별 보유인력

(단위 : %, 명)

구분		사례수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		
			보유	평균	미보유	보유	평균	미보유
전체		(3,558)	2.7	4.4	97.3	1.2	3.5	98.8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2,885)	3.4	4.4	96.6	1.1	3.9	98.9
	관계기업	(673)	0.0	-	100.0	1.6	2.2	98.4
업종	제조업	(1,488)	5.6	4.0	94.4	2.5	3.6	97.5
	비제조업	(2,070)	0.7	7.0	99.3	0.3	2.5	99.7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625)	0.0	-	100.0	0.5	1.0	99.5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934)	1.5	8.4	98.5	1.2	2.0	98.8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474)	0.7	2.0	99.3	0.5	3.0	99.5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636)	4.4	4.1	95.6	0.5	5.0	99.5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367)	5.6	3.6	94.4	2.4	1.0	97.6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253)	2.6	3.0	97.4	2.6	7.7	97.4
	5천억원 ~ 1조원미만	(179)	9.0	4.1	91.0	2.3	7.5	97.7
	1조원이상	(90)	9.6	3.5	90.4	4.8	3.0	95.2
수출여부	수출있음	(1,320)	5.8	4.3	94.2	2.8	3.8	97.2
	수출없음	(2,238)	0.9	5.0	99.1	0.3	1.5	99.7
종사자수	50명미만	(1,197)	0.0	-	100.0	0.5	2.5	99.5
	50 ~ 100명미만	(508)	2.2	8.0	97.8	0.5	1.0	99.5
	100 ~ 200명미만	(610)	1.0	5.5	99.0	0.9	1.5	99.1
	200 ~ 300명미만	(363)	0.6	1.0	99.4	1.4	1.4	98.6
	300 ~ 500명미만	(360)	5.2	2.2	94.8	1.5	4.1	98.5
	500 ~ 1,000명미만	(347)	12.3	4.8	87.7	3.6	2.8	96.4
	1,000명이상	(173)	9.5	3.6	90.5	3.6	9.8	96.4
업력	0 ~ 7년미만	(541)	1.4	2.6	98.6	0.6	14.0	99.4
	7 ~ 20년미만	(1,398)	1.5	5.8	98.5	1.2	2.9	98.8
	20 ~ 30년미만	(633)	3.1	2.2	96.9	0.4	1.0	99.6
	30 ~ 40년미만	(414)	3.3	8.4	96.7	2.5	3.2	97.5
	40 ~ 50년미만	(328)	5.0	3.9	95.0	1.2	2.6	98.8
	50년이상	(244)	5.7	3.2	94.3	2.0	3.8	98.0
매출유형	B2B	(2,832)	3.2	3.8	96.8	1.4	3.6	98.6
	B2C	(622)	1.0	13.6	99.0	0.4	1.0	99.6
	B2G	(104)	0.0	-	100.0	0.0	-	100.0
상장	상장	(760)	8.9	3.9	91.1	3.1	4.7	96.9
	비상장	(2,798)	0.8	6.4	99.2	0.6	1.7	9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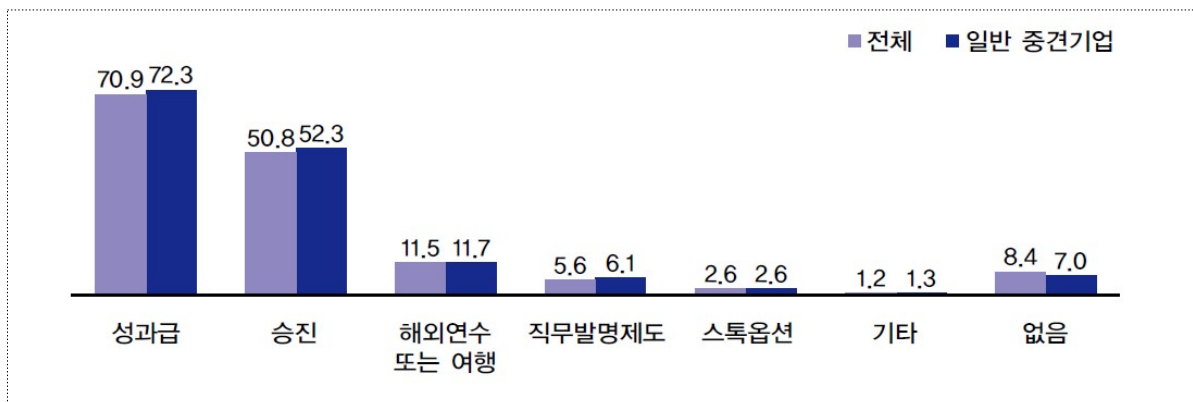
2. 직원 복지

□ 성과보상 제도

- 중견기업의 성과보상 제도는 성과급(70.9%)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승진(50.8%), 해외연수 또는 여행(11.5%), 직무 발명제도(5.6%) 순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은 성과급(72.3%), 승진(52.3%), 해외연수 또는 여행(11.7%), 직무 발명제도(6.1%) 순임

[그림 2-37] 성과보상 제도

(단위: %, 중복응답)



특성별 분석

- 제조업의 경우 성과보상제도가 없는 기업이 5.9%인 반면, 비제조업은 10.3%로 성과보상제도가 없는 비율이 높게 조사됨
- 종사자수별로는 종사자수가 많을수록 인력의 성과를 보상하기 위해 성과급을 활용하고 있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1,000명이상 제외)
- 대체적으로 성과보상 제도는 성과급과 승진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여지며, 제조업, 수출기업, 상장기업이 성과보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 반면, 비제조업, 내수기업, 비상장기업은 성과보상제도가 상대적으로 미비한 것으로 조사됨

[표 2-52] 성과보상 제도

(단위 : %, 중복응답)

구분		사례수	성과급	승진	해외연수 /여행	직무발명 제도	스톡옵션	기타	없음
전체		(3,558)	70.9	50.8	11.5	5.6	2.6	1.2	8.4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2,885)	72.3	52.3	11.7	6.1	2.6	1.3	7.0
	관계기업	(673)	64.9	44.4	10.6	3.3	2.6	0.4	14.6
업종	제조업	(1,488)	76.6	56.1	14.0	10.6	3.7	0.8	5.9
	비제조업	(2,070)	66.7	46.9	9.7	2.0	1.8	1.4	10.3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625)	56.3	41.1	4.2	0.9	1.6	1.4	17.5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934)	72.7	44.9	7.5	1.5	1.8	2.1	10.5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474)	69.3	50.5	13.0	4.6	2.6	0.0	9.8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636)	75.7	56.4	14.7	6.9	2.8	0.0	4.5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367)	76.0	56.1	17.2	14.3	3.2	0.8	0.7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253)	80.4	56.3	17.0	10.4	8.6	1.7	2.6
	5천억원 ~ 1조원미만	(179)	72.8	69.4	20.2	9.7	1.1	1.1	3.0
	1조원이상	(90)	74.7	65.1	15.9	19.1	0.0	3.1	3.1
수출여부	수출있음	(1,320)	79.3	57.3	14.4	12.7	5.1	0.9	4.0
	수출없음	(2,238)	65.9	46.9	9.7	1.4	1.1	1.3	11.0
종사자수	50명미만	(1,197)	62.0	38.4	5.9	0.9	1.1	1.7	15.9
	50 ~ 100명미만	(508)	71.9	55.7	9.6	2.2	3.4	1.1	5.1
	100 ~ 200명미만	(610)	74.3	51.1	9.3	4.0	2.2	0.0	7.5
	200 ~ 300명미만	(363)	75.2	66.0	20.5	9.0	3.6	0.0	2.3
	300 ~ 500명미만	(360)	77.4	55.2	11.0	10.5	6.0	0.6	3.3
	500 ~ 1,000명미만	(347)	80.7	55.1	20.4	15.1	3.1	2.1	4.1
	1,000명이상	(173)	74.2	70.1	27.1	17.0	1.8	3.3	2.0
업력	0 ~ 7년미만	(541)	71.2	45.3	6.9	5.7	0.7	1.5	10.4
	7 ~ 20년미만	(1,398)	70.1	45.7	9.4	2.8	2.3	1.0	11.3
	20 ~ 30년미만	(633)	65.1	55.9	14.2	7.8	3.6	2.0	6.2
	30 ~ 40년미만	(414)	71.9	57.6	11.5	6.8	1.8	0.7	6.5
	40 ~ 50년미만	(328)	80.3	57.7	17.4	9.0	1.4	0.5	4.5
	50년이상	(244)	73.3	51.0	12.4	7.6	7.3	1.1	5.0
매출유형	B2B	(2,832)	74.3	49.4	11.1	6.5	2.8	0.8	7.3
	B2C	(622)	59.2	56.8	14.3	1.7	2.1	2.7	11.4
	B2G	(104)	48.2	50.9	4.8	2.7	0.0	0.0	21.0
상장	상장	(760)	80.8	58.6	17.1	15.0	6.6	0.9	3.4
	비상장	(2,798)	67.7	48.3	9.7	2.6	1.4	1.2	10.0

5절 국제화 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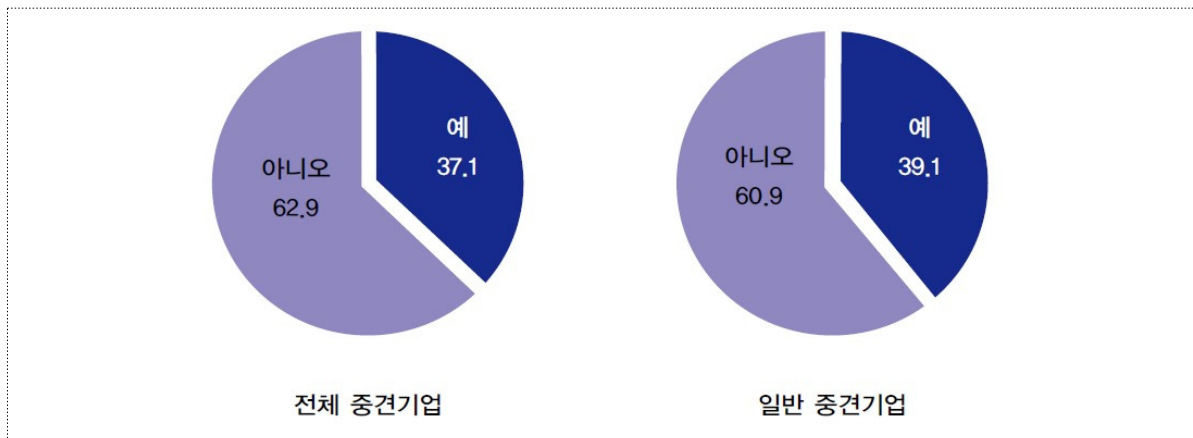
1. 수출

□ 해외수출

- 중견기업 전체 중 해외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은 37.1%⁶⁾이며, 일반 중견기업은 39.1%가 해외 수출 실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2-38] 해외 수출

(단위: %)



특성별 분석

-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67.5%, 비제조업의 15.2%가 수출실적이 있다고 응답하여 제조업의 수출 실적이 월등히 높음
- 매출유형별로는 B2B기업이 43.3%로 수출기업 비중이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B2G기업이 14.1%, B2C기업이 12.8%로 나타나 거래처별로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음
- 상장기업의 70.0%가 수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상장기업은 26.7%가 2016년에 수출 실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대체적으로 매출규모가 클수록, 종사자수가 많을수록, 업력이 길수록 수출기업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6) 중견기업 통계 상 중견기업 수출비중 : 44%

해당 수출비중은 관세청 통관기록을 토대로 한 전수통계로 표본조사를 진행한 실태조사 데이터와 다를 수 있음

[표 2-53] 해외 수출 여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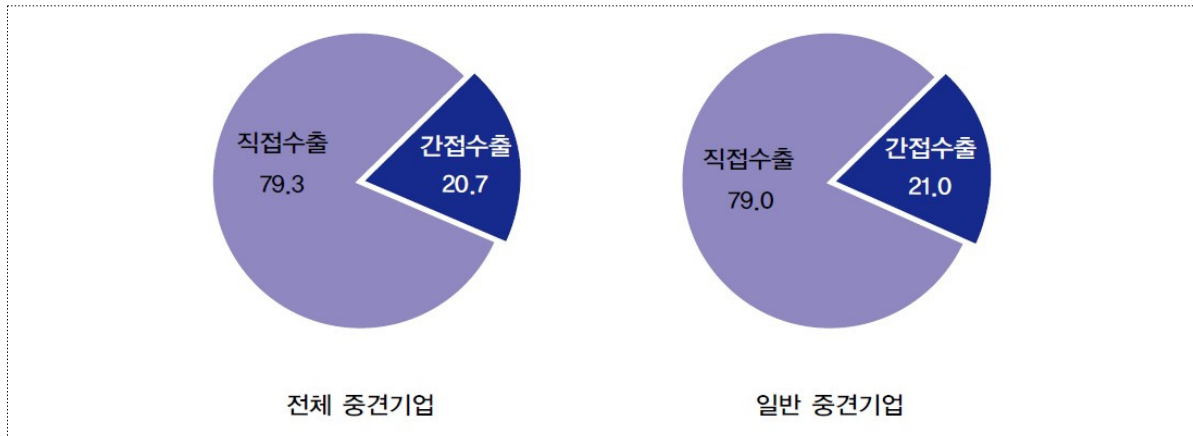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전체		(3,558)	37.1	62.9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2,885)	39.1	60.9
	관계기업	(673)	28.4	71.6
업종	제조업	(1,488)	67.5	32.5
	비제조업	(2,070)	15.2	84.8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625)	10.8	89.2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934)	16.4	83.6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474)	37.9	62.1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636)	58.7	41.3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367)	61.4	38.6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253)	57.7	42.3
	5천억원 ~ 1조원미만	(179)	58.9	41.1
	1조원이상	(90)	78.0	22.0
수출여부	수출있음	(1,320)	100.0	0.0
	수출없음	(2,238)	0.0	100.0
종사자수	50명미만	(1,197)	12.9	87.1
	50 ~ 100명미만	(508)	25.2	74.8
	100 ~ 200명미만	(610)	48.0	52.0
	200 ~ 300명미만	(363)	50.7	49.3
	300 ~ 500명미만	(360)	59.1	40.9
	500 ~ 1,000명미만	(347)	70.5	29.5
	1,000명이상	(173)	59.4	40.6
업력	0 ~ 7년미만	(541)	19.9	80.1
	7 ~ 20년미만	(1,398)	28.8	71.2
	20 ~ 30년미만	(633)	38.5	61.5
	30 ~ 40년미만	(414)	47.9	52.1
	40 ~ 50년미만	(328)	49.6	50.4
	50년이상	(244)	65.6	34.4
매출유형	B2B	(2,832)	43.3	56.7
	B2C	(622)	12.8	87.2
	B2G	(104)	14.1	85.9
상장	상장	(760)	70.0	30.0
	비상장	(2,798)	26.7	73.3

□ 직/간접수출 비중

- 전체 수출 중견기업 중 직접수출을 하는 기업은 79.3%, 간접수출을 하는 기업은 20.7%로 직접수출 비중이 간접수출 비중의 3배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2-39] 직/간접수출 비중

(단위: %, 수출기업)



특성별 분석

- 제조업 수출기업은 78.6%가 직접수출을 하고, 21.4%가 간접수출을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비제조업 수출기업은 85.8%가 직접수출을 하고, 14.2%가 간접수출을 한다고 응답함
- 매출규모별로는 1백억원 미만 기업의 직접수출이 98.0%로 타 매출규모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났으며, 1천억원~2천억원 미만 기업의 직접수출은 72.7%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주 거래처별로는 정부/공공기관이 주 거래처인 B2G기업의 100.0%가 직접수출을 하여 다른 기업군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났으며, B2B기업은 간접수출이 21.1%로 다른 기업군에 비해 높게 나타남

[표 2-54] 직/간접수출 비중

(단위 : %, 수출기업 1,320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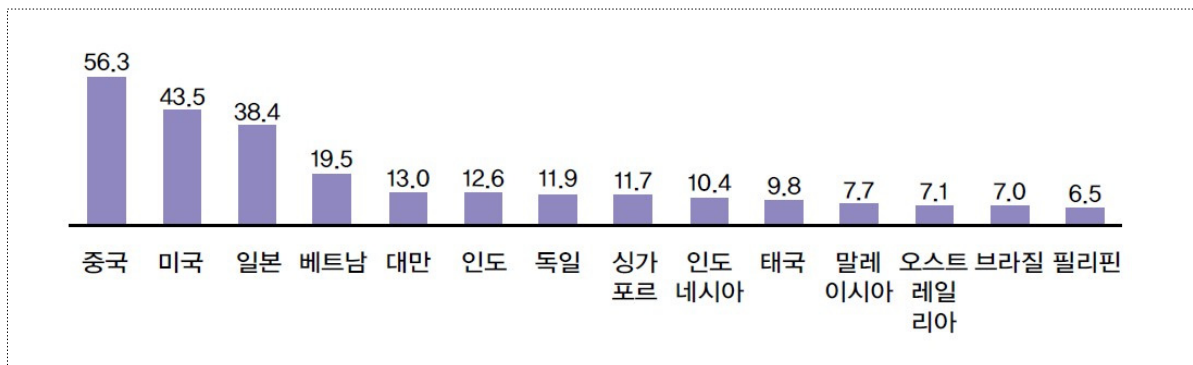
구분		직접수출	간접수출
전체		79.3	20.7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79.0	21.0
	관계기업	88.3	11.7
업종	제조업	78.6	21.4
	비제조업	85.8	14.2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98.0	2.0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77.1	22.9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92.2	7.8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72.7	27.3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74.4	25.6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78.1	21.9
	5천억원 ~ 1조원미만	80.8	19.2
	1조원이상	82.8	17.2
수출여부	수출있음	79.3	20.7
	수출없음	-	-
종사자수	50명미만	80.1	19.9
	50 ~ 100명미만	67.5	32.5
	100 ~ 200명미만	63.3	36.7
	200 ~ 300명미만	77.7	22.3
	300 ~ 500명미만	79.0	21.0
	500 ~ 1,000명미만	73.9	26.1
	1,000명이상	89.4	10.6
업력	0 ~ 7년미만	81.9	18.1
	7 ~ 20년미만	84.0	16.0
	20 ~ 30년미만	75.1	24.9
	30 ~ 40년미만	76.2	23.8
	40 ~ 50년미만	69.7	30.3
	50년이상	87.6	12.4
매출유형	B2B	78.9	21.1
	B2C	96.0	4.0
	B2G	100.0	0.0
상장	상장	77.8	22.2
	비상장	81.3	18.7

□ 주요 수출지역 및 금액

- 중견기업 중 해외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의 수출 지역으로는 중국이 56.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미국(43.5%), 일본(38.4%), 베트남(19.5%), 대만(13.0%)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2-40] 주요수출 국가 1+2+3+4+5순위(상위 14개)

(단위: %, 수출기업, 중복응답)



특성별 분석

- 매출규모별로는 대체적으로 매출규모가 클수록 중국과 미국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임
- 주 거래처가 기업인 B2B기업은 중국(57.5%)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소비자가 주 거래처인 B2C기업은 미국(48.2%)이 가장 높았으며, 주 거래처가 정부/공공기관인 B2G기업은 베트남(61.2%)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주 거래처별로 주요 수출국가 순위가 확연히 다른 것으로 보임

[표 2-55] 주요수출 국가 1+2+3+4+5순위(상위 14개)

(단위 : %, 수출기업 1,320개사, 중복응답)

구분		중국	미국	일본	베트남	대만	인도	독일
전체		56.3	43.5	38.4	19.5	13.0	12.6	11.9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58.1	44.2	38.4	20.6	14.3	12.3	11.9
	관계기업	45.4	39.4	38.0	13.0	5.2	14.3	11.7
업종	제조업	60.2	48.2	40.6	17.2	13.6	14.2	13.6
	비제조업	43.9	28.4	31.4	26.5	10.9	7.3	6.6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34.4	25.5	24.5	3.6	0.0	4.4	13.1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38.3	38.2	37.7	14.5	14.4	12.5	8.6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57.3	32.9	38.9	18.4	12.0	13.7	4.5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60.6	43.6	47.5	20.0	13.2	12.1	10.4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62.8	41.5	36.0	25.4	15.6	14.2	18.1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53.8	49.4	38.8	29.8	16.3	13.5	10.5
	5천억원 ~ 1조원미만	72.1	71.4	28.7	17.1	11.5	17.2	15.3
	1조원이상	51.1	51.1	24.6	8.1	10.2	6.1	22.5
수출여부	수출있음	56.3	43.5	38.4	19.5	13.0	12.6	11.9
	수출없음	-	-	-	-	-	-	-
종사자수	50명미만	36.4	20.3	24.4	17.3	12.4	10.2	7.4
	50 ~ 100명미만	54.0	37.1	32.0	12.9	2.0	10.6	8.3
	100 ~ 200명미만	57.6	36.6	38.8	17.2	10.8	14.2	10.5
	200 ~ 300명미만	48.6	51.9	49.0	25.4	22.2	11.7	6.1
	300 ~ 500명미만	62.9	40.9	46.9	27.2	17.4	16.4	18.0
	500 ~ 1,000명미만	68.8	56.9	41.5	16.8	11.5	11.2	15.3
	1,000명이상	55.3	64.5	22.1	17.2	11.5	10.9	16.8
업력	0 ~ 7년미만	50.8	31.6	23.9	7.7	4.1	12.4	9.3
	7 ~ 20년미만	52.1	38.8	40.5	16.1	17.2	12.0	10.7
	20 ~ 30년미만	67.3	42.0	33.9	18.0	14.1	12.5	5.4
	30 ~ 40년미만	64.2	49.4	41.1	27.4	10.8	19.1	15.5
	40 ~ 50년미만	59.8	53.3	44.3	15.6	9.1	10.7	21.1
	50년이상	38.9	43.8	36.2	29.8	11.9	8.9	11.0
매출유형	B2B	57.5	43.5	39.3	18.8	12.8	13.0	12.5
	B2C	46.8	48.2	26.8	21.9	18.8	3.9	3.9
	B2G	0.0	19.4	19.4	61.2	0.0	19.4	0.0
상장	상장	61.2	51.3	43.9	23.6	17.2	12.7	15.3
	비상장	52.2	37.0	33.8	16.1	9.5	12.5	9.0

[표 2-56] 주요수출 국가 1+2+3+4+5순위(상위 14개)(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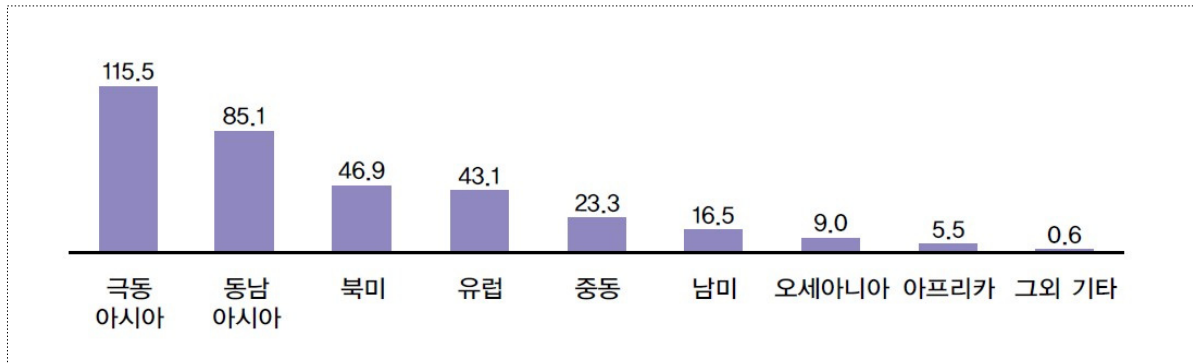
(단위 : %, 수출기업 1,320개사, 중복응답)

구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	필리핀
전체		11.7	10.4	9.8	7.7	7.1	7.0	6.5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11.5	9.9	10.3	7.9	7.0	7.7	7.6
	관계기업	13.1	13.1	6.6	6.6	7.8	2.8	0.0
업종	제조업	10.4	9.1	9.7	8.8	7.1	7.2	6.0
	비제조업	15.8	14.6	10.1	4.3	7.3	6.3	8.1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8.0	3.6	0.0	4.4	9.8	0.0	0.0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14.6	12.4	12.5	5.4	5.4	9.1	1.9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12.8	5.0	8.4	4.6	11.1	1.9	5.7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10.3	12.5	11.6	8.9	5.5	8.9	7.3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15.2	14.9	12.6	9.0	3.9	5.2	7.6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7.4	5.9	7.5	9.0	6.0	9.0	8.9
	5천억원 ~ 1조원미만	7.0	12.7	11.5	10.8	17.2	7.7	13.9
	1조원이상	18.4	6.1	0.0	6.1	4.0	12.3	0.0
수출여부	수출있음	11.7	10.4	9.8	7.7	7.1	7.0	6.5
	수출없음	-	-	-	-	-	-	-
종사자수	50명미만	24.2	7.0	3.8	5.3	4.3	1.8	2.3
	50 ~ 100명미만	3.9	10.2	8.1	9.4	15.7	2.3	4.9
	100 ~ 200명미만	12.9	10.9	13.0	6.7	6.5	8.1	5.1
	200 ~ 300명미만	14.6	13.1	14.8	6.6	2.9	4.4	3.9
	300 ~ 500명미만	8.5	12.0	8.8	10.3	6.8	11.1	5.2
	500 ~ 1,000명미만	6.5	6.6	9.7	6.6	9.7	8.5	14.8
	1,000명이상	13.1	14.9	5.0	11.3	4.7	9.8	6.0
업력	0 ~ 7년미만	8.1	3.4	2.8	4.1	12.1	0.0	3.8
	7 ~ 20년미만	11.7	10.6	11.9	5.2	5.4	8.8	4.1
	20 ~ 30년미만	14.6	7.4	6.4	9.5	4.1	6.7	5.2
	30 ~ 40년미만	9.9	8.8	16.7	13.3	11.0	12.3	9.4
	40 ~ 50년미만	11.0	11.3	5.6	8.4	6.1	6.0	6.6
	50년이상	11.6	17.8	9.8	5.4	10.6	1.2	11.7
매출유형	B2B	12.2	10.5	9.8	8.0	7.0	6.8	6.0
	B2C	6.5	10.8	10.9	4.1	9.9	7.0	14.7
	B2G	0.0	0.0	0.0	0.0	0.0	19.4	0.0
상장	상장	11.7	10.0	9.2	11.4	7.9	6.6	8.0
	비상장	11.7	10.7	10.2	4.7	6.5	7.3	5.2

- 중견기업 중 해외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의 수출 대륙으로는 극동아시아가 115.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동남아시아(85.1%), 북미(46.9%), 유럽(43.1%), 중동(23.3%)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2-41] 주요수출 대륙 1+2+3+4+5순위

(단위: %, 수출기업, 중복응답)



특성별 분석

- 매출규모별로는 1조원 미만 기업은 극동아시아가 가장 높은 반면, 1조원 이상 기업은 상대적으로 유럽(100.2%) 수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업력으로 살펴보면, 50년 미만 기업은 극동아시아가 가장 높은 반면, 50년 이상 기업은 동남아시아(105.8%) 대륙의 수출이 많음
- B2B기업과 B2C기업은 극동아시아가 주요 수출 대륙인 반면, B2G기업은 동남아시아(161.2%)가 상대적으로 높음

[표 2-57] 주요수출 대륙 1+2+3+4+5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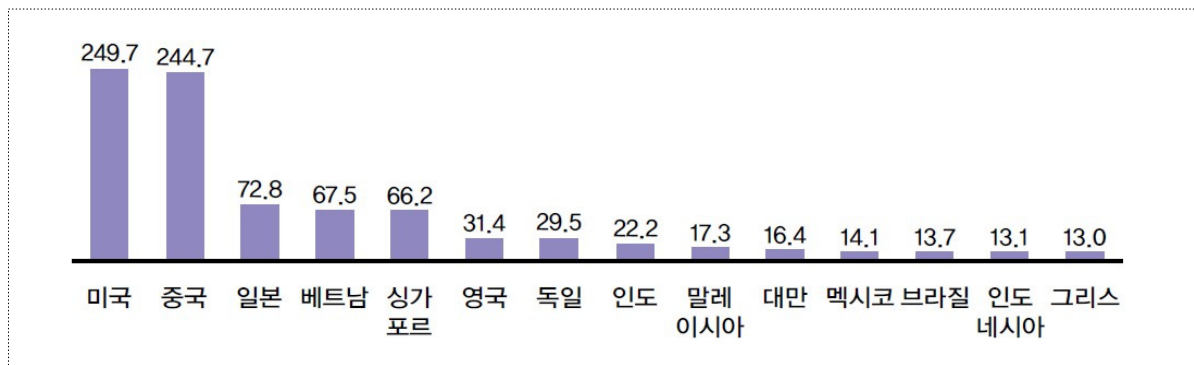
(단위 : %, 수출기업 1,320개사, 중복응답)

구분		극동 아시아	동남 아시아	북미	유럽	중동	남미	오세 아니아	아프 리카	그 외 기타
전체		115.5	85.1	46.9	43.1	23.3	16.5	9.0	5.5	0.6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119.4	87.4	47.4	43.3	23.7	17.5	9.0	6.0	0.5
	관계기업	92.6	71.8	43.5	42.3	20.7	10.7	9.1	2.5	1.2
업종	제조업	120.4	80.6	51.9	49.8	22.3	18.3	8.1	4.8	0.7
	비제조업	99.8	99.5	30.9	22.1	26.6	10.9	11.6	7.6	0.0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63.3	24.1	29.1	37.5	3.6	0.0	9.8	0.0	0.0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99.8	73.8	45.8	24.9	22.2	12.6	5.4	0.0	0.0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115.3	81.6	34.4	23.8	25.2	9.2	12.5	6.5	1.3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126.7	92.2	47.7	40.2	26.5	17.9	7.1	7.2	0.8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124.5	104.2	44.1	51.8	20.8	15.5	6.3	3.9	0.0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116.3	89.5	50.9	52.4	23.6	15.0	10.5	10.5	0.0
	5천억원 ~ 1조원미만	124.4	93.4	71.4	47.2	13.4	23.0	17.2	5.1	1.9
	1조원이상	96.0	57.0	57.2	100.2	44.9	49.1	10.2	6.1	0.0
수출여부	수출있음	115.5	85.1	46.9	43.1	23.3	16.5	9.0	5.5	0.6
	수출없음	-	-	-	-	-	-	-	-	-
종사자수	50명미만	88.5	73.9	20.3	25.0	16.7	8.7	4.3	5.6	0.0
	50 ~ 100명미만	94.6	59.9	41.5	37.1	15.8	2.3	17.7	2.2	0.0
	100 ~ 200명미만	111.5	88.1	40.5	33.1	21.9	11.9	6.5	3.9	1.1
	200 ~ 300명미만	126.7	96.8	56.8	45.4	25.6	17.1	5.6	4.6	1.3
	300 ~ 500명미만	135.9	95.1	46.5	48.5	18.7	26.1	10.4	7.5	0.0
	500 ~ 1,000명미만	128.0	81.5	57.8	49.3	33.8	18.9	11.7	7.4	0.0
	1,000명이상	101.0	92.1	68.7	76.5	27.0	32.7	8.9	6.9	2.0
업력	0 ~ 7년미만	83.1	46.4	39.4	40.9	23.7	10.4	12.1	3.3	0.0
	7 ~ 20년미만	119.2	76.3	43.3	43.8	15.5	15.4	5.9	1.8	0.8
	20 ~ 30년미만	119.7	76.7	43.1	31.7	24.5	17.2	4.1	6.0	0.0
	30 ~ 40년미만	123.7	116.2	52.2	41.1	15.4	25.2	12.3	4.3	1.0
	40 ~ 50년미만	122.3	79.7	56.2	59.7	37.4	16.9	7.5	3.2	1.2
	50년이상	96.8	105.8	47.4	42.7	32.3	10.5	20.2	18.2	0.0
매출유형	B2B	117.5	84.3	46.5	45.1	23.4	17.1	8.4	4.9	0.6
	B2C	102.0	84.2	57.5	17.5	18.5	7.0	15.3	8.2	0.0
	B2G	19.4	161.2	19.4	19.4	38.7	19.4	19.4	41.9	0.0
상장	상장	131.4	94.9	54.4	49.0	24.8	16.8	11.1	6.6	0.3
	비상장	102.3	77.0	40.6	38.3	22.0	16.3	7.2	4.5	0.8

- 해외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들의 전체 수출금액은 1,063억불이며, 수출한 국가는 미국(249.7억불), 중국(244.7억불), 일본(72.8억불), 베트남(67.5억불) 순으로 나타남
- 평균 수출금액은 미국 19,254.7천불, 중국 18,871.2천불, 일본 5,616.7천불, 베트남 5,202.1천불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2-42] 주요수출 국가별 총수출금액(상위 14개)

(단위: 억불, 수출기업)



[표 2-58] 주요수출 국가별 수출금액(상위 14개)

(단위 : 천불, %, 수출기업 1,320개사)

구 분	지역별 수출금액		지역별 평균수출금액
	전체 수출금액	비율	
전체	106,304,100	100.0	81,971
미국	24,970,561	23.5	19,254.7
중국	24,473,181	23.0	18,871.2
일본	7,284,000	6.9	5,616.7
베트남	6,746,376	6.3	5,202.1
싱가포르	6,624,249	6.2	5,107.9
영국	3,143,210	3.0	2,423.7
독일	2,946,295	2.8	2,271.9
인도	2,219,718	2.1	1,711.6
말레이시아	1,725,299	1.6	1,330.4
대만	1,640,571	1.5	1,265.0
멕시코	1,405,508	1.3	1,083.8
브라질	1,365,028	1.3	1,052.6
인도네시아	1,313,978	1.2	1,013.2
그리스	1,303,206	1.2	1,004.9
그 외 국가	19,142,920	18.1	14,76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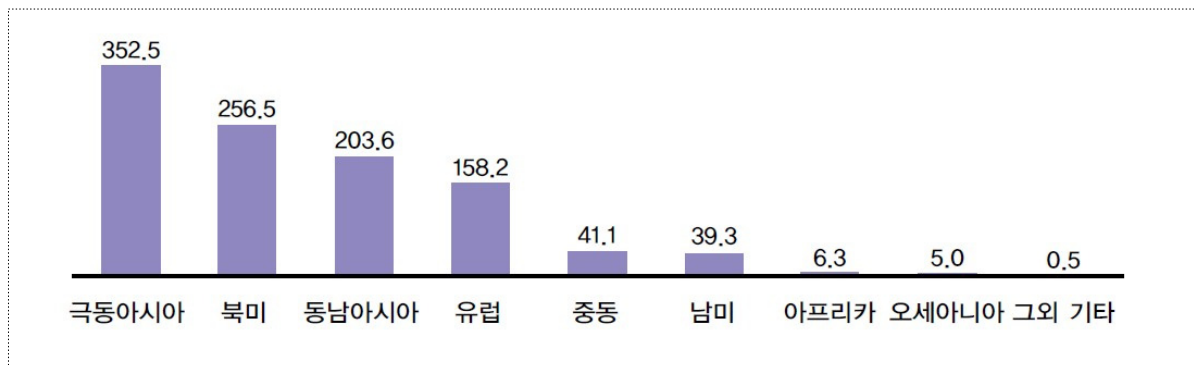
※ 그 외 국가 : 86개 국가

○ 해외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들의 대륙별 수출금액은 극동아시아(352.5억불), 북미(256.5억불), 동남아시아(203.6억불), 유럽(158.2억불) 순으로 나타남

- 평균 수출금액은 극동아시아 27,183.5천불, 북미 19,778.5천불, 동남아시아 15,701.2천불, 유럽 12,196.4천불, 중동 3,172천불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2-43] 주요수출 대륙별 총수출금액

(단위: 억불, 수출기업)



[표 2-59] 주요수출 대륙별 수출금액

(단위 : 천불, %, 수출기업 1,320개사)

구 분	지역별 수출금액		지역별 평균수출금액
	전체 수출금액	비율	
전체	106,304,100	100.0	81,970.8
극동아시아	35,253,036	33.2	27,183.5
북미	25,649,740	24.1	19,778.5
동남아시아	20,362,094	19.2	15,701.2
유럽	15,816,883	14.9	12,196.4
중동	4,113,552	3.9	3,172.0
남미	3,933,944	3.7	3,033.5
아프리카	629,007	0.6	485.0
오세아니아	500,384	0.5	385.8
그외 기타	45,458	0.0	3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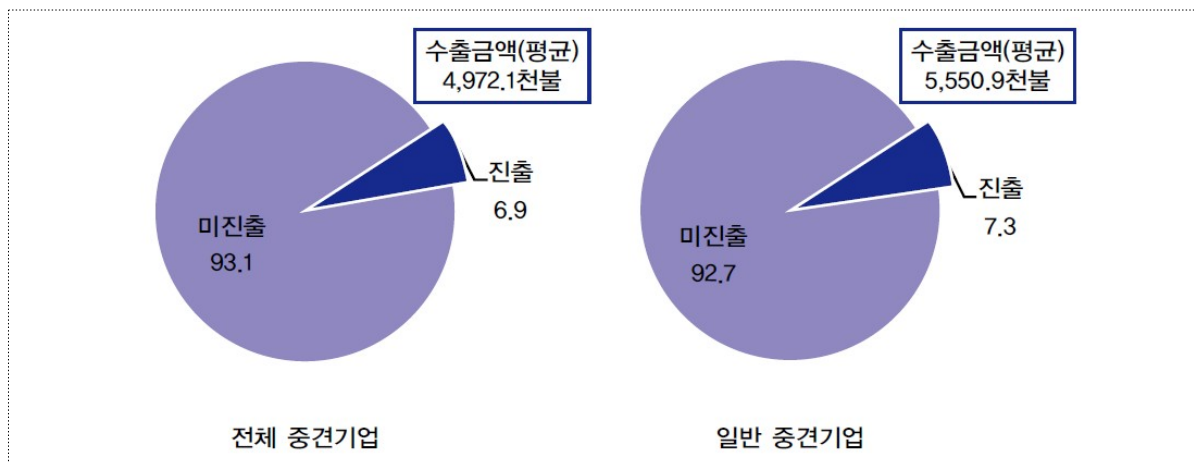
※ 그 외 기타 : 응답자가 기타로 응답

□ 해외 신규 진출

- 수출 중견기업 중 2016년 해외로 신규 진출한 기업은 6.9%이며, 이들의 평균 수출금액은 4,972.1천불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 중 2016년 해외로 신규 진출한 기업은 7.3%이며, 이들의 평균 수출금액은 5,550.9천불로 나타남

[그림 2-44] 신규 진출 여부

(단위: %, 수출기업)



특성별 분석

- 관계기업은 5.0%가 새로운 국가에 신규 진출 하였으며, 평균수출금액은 204.8천불로 일반 중견기업보다 신규 진출 기업이 적으며, 수출금액 또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제조업 중 2016년 해외로 신규 진출한 기업은 7.3%, 이들의 평균 수출금액은 6,159.7천불로 나타난 반면, 비제조업은 5.8%(457.3천불)로 조사되어 제조업이 비제조업보다 약 13.5배 높은 수출금액을 보임
- B2G기업의 신규 진출이 없고, B2C기업의 신규 진출 평균 수출금액이 246.7천불에 불과한 반면, B2B기업의 신규 진출 평균 수출금액은 5359.1천불로 매출유형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임

[표 2-60] 신규 진출 여부

(단위: %, 천불, 개, 수출기업 1,320개사)

구분		미진출	진출	평균 수출금액
전체		93.1	6.9	4,972.1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92.7	7.3	5,550.9
	관계기업	95.0	5.0	204.8
업종	제조업	92.7	7.3	6,159.7
	비제조업	94.2	5.8	457.3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96.7	3.3	710.0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96.3	3.7	227.3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93.7	6.3	21.4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92.0	8.0	363.3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93.6	6.4	938.2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89.6	10.4	8,252.9
	5천억원 ~ 1조원미만	96.2	3.8	1,271.0
	1조원이상	87.7	12.3	32,535.0
수출여부	수출있음	93.1	6.9	4,972.1
	수출없음	-	-	-
종사자수	50명미만	95.3	4.7	804.9
	50 ~ 100명미만	90.3	9.7	315.8
	100 ~ 200명미만	95.5	4.5	721.9
	200 ~ 300명미만	93.9	6.1	5,120.5
	300 ~ 500명미만	87.8	12.2	3,326.5
	500 ~ 1,000명미만	95.9	4.1	502.6
	1,000명이상	88.9	11.1	24,524.1
업력	0 ~ 7년미만	91.8	8.2	1,469.5
	7 ~ 20년미만	91.6	8.4	10,253.6
	20 ~ 30년미만	94.4	5.6	4,262.0
	30 ~ 40년미만	92.7	7.3	12.2
	40 ~ 50년미만	93.5	6.5	549.0
	50년이상	95.1	4.9	238.8
매출유형	B2B	93.4	6.6	5,359.1
	B2C	87.4	12.6	246.7
	B2G	100.0	0.0	-
상장	상장	91.8	8.2	3,204.2
	비상장	94.1	5.9	6,89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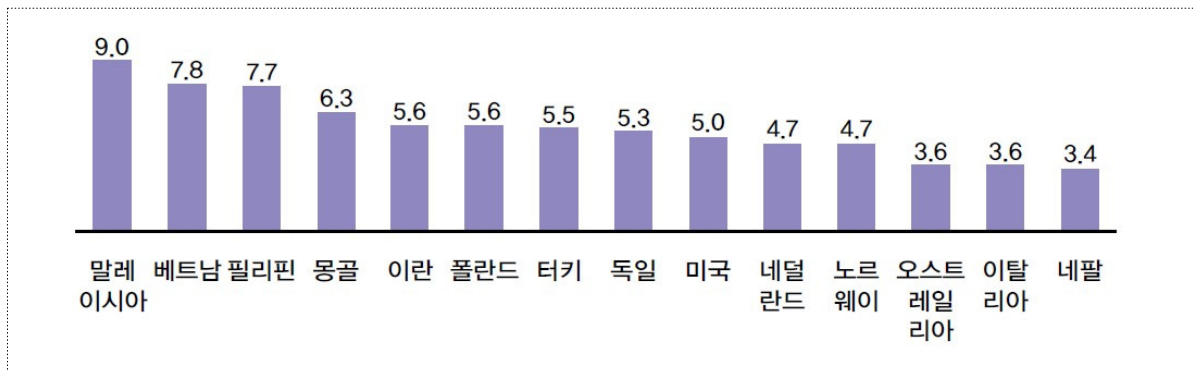
□ 신규 진출 지역

○ 해외 수출기업의 신규 진출지역으로는 말레이시아가 9.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베트남(7.8%), 필리핀(7.7%), 몽골(6.3%), 이란(5.6%), 폴란드(5.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평균 수출금액은 노르웨이 3,160.9천불, 미국 735.1천불, 베트남 630.3천불, 말레이시아 84.4천불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2-45] 신규 진출 국가(상위 14개)

(단위: %, 수출기업 중 신규진출 기업)



[표 2-61] 신규 진출 국가별 수출금액(상위 14개)

(단위: 천불, %, 수출기업 중 신규진출 기업 88개사)

구 분	신규 진출 국가		지역별 평균수출금액
	전체 수출금액	비율	
전체	438,348	100.0	4,972.1
노르웨이	278,665	63.6	3,160.9
미국	64,810	14.8	735.1
베트남	55,567	12.7	630.3
말레이시아	7,439	1.7	84.4
필리핀	6,243	1.4	70.8
이란	5,552	1.3	63.0
슬로바키아	3,747	0.9	42.5
독일	1,862	0.4	21.1
우즈베키스탄	1,735	0.4	19.7
네덜란드	1,637	0.4	18.6
대만	1,325	0.3	15.0
네팔	1,241	0.3	14.1
키리바시	1,157	0.3	13.1
폴란드	1,119	0.3	12.7
그 외 국가	6,249	1.2	7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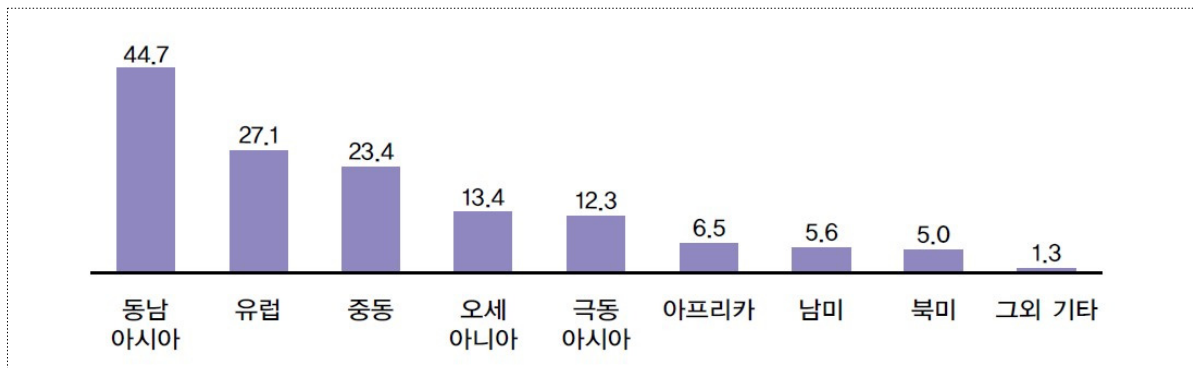
※ 그 외 국가 : 18개 국가

○ 해외 수출기업의 신규 진출 대륙으로는 동남아시아가 44.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유럽(27.1%), 중동(23.4%), 오세아니아(13.4%), 극동아시아(12.3%), 아프리카(6.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평균 수출금액은 유럽 3,255.8천불, 동남아시아 824.0천불, 북미 735.1천불, 중동 86.7천불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2-46] 신규 진출 대륙

(단위: %, 수출기업 중 신규진출 기업)



[표 2-62] 신규 진출 대륙별 수출금액

(단위: 천불, %, 수출기업 중 신규진출 기업 88개사)

구 분	신규 진출 국가		지역별 평균수출금액
	전체 수출금액	비율	
전체	438,348	100.0	4,972.1
유럽	287,030	65.5	3,255.8
동남아시아	72,646	16.6	824.0
북미	64,810	14.8	735.1
중동	7,648	1.7	86.7
극동아시아	2,098	0.5	23.8
오세아니아	1,532	0.3	17.4
아프리카	1,484	0.3	16.8
남미	1,100	0.3	12.5

※ 그 외 기타 : 응답자가 기타로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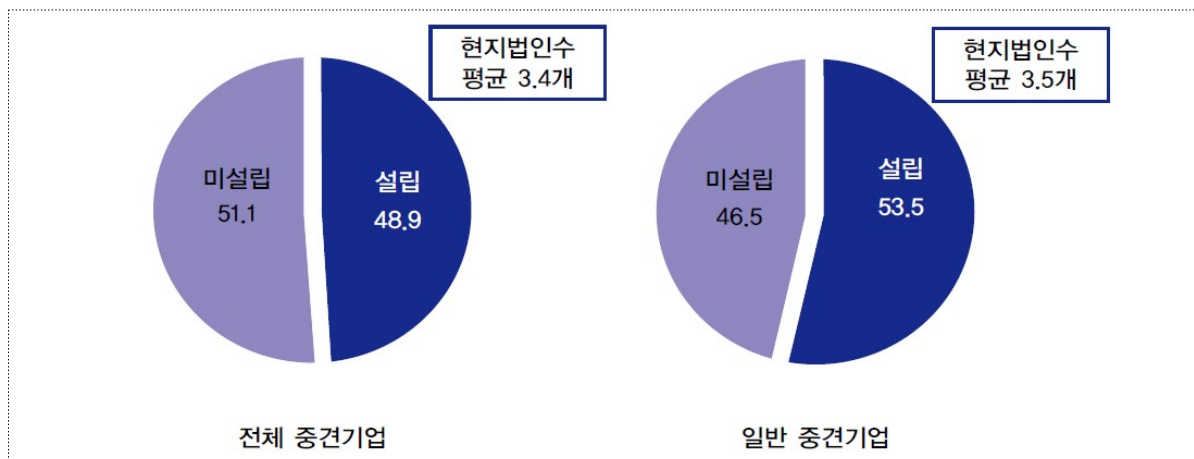
2. 현지법인

□ 현지법인 설립

- 수출기업 중 해외에 현지법인이 있는 기업은 48.9%이며, 기업당 평균 3.4개의 현지법인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 중 현지법인이 있는 기업은 53.5%이며, 기업당 평균 3.5개의 현지법인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2-47] 현지법인 설립

(단위: %, 수출기업)



특성별 분석

- 수출기업 중 일반 중견기업의 해외 현지법인 보유비율은 53.5%로 관계기업 21.6%에 비해 약 2.5배가량 높게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의 평균 해외 현지법인 수는 3.5개이며, 관계기업은 1.8개임
- 상장기업은 해외 현지법인 설립 비율이 63.4%(평균 현지법인 수 3.7개)이며, 비상장기업은 해외 현지법인 설립 비율 36.8%(평균 현지법인수 2.9개)로 나타남
- 대체적으로 매출규모가 클수록, 종사자수가 많을수록, 업력이 길수록 해외 현지법인 설립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나 평균 현지법인 수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음을 알 수 있음

[표 2-63] 현지법인 설립

(단위: %, 천불, 개, 수출기업 1,320개사)

구분		미설립	설립	평균 법인수
전체		51.1	48.9	3.4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46.5	53.5	3.5
	관계기업	78.4	21.6	1.8
업종	제조업	49.9	50.1	3.5
	비제조업	55.1	44.9	2.9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84.7	15.3	1.9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81.7	18.3	1.6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74.1	25.9	1.5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42.7	57.3	3.4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47.3	52.7	3.7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35.8	64.2	3.1
	5천억원 ~ 1조원미만	31.2	68.8	4.2
	1조원이상	12.3	87.7	4.3
수출여부	수출있음	51.1	48.9	3.4
	수출없음	-	-	-
종사자수	50명미만	83.4	16.6	1.5
	50 ~ 100명미만	60.8	39.2	2.1
	100 ~ 200명미만	75.1	24.9	3.9
	200 ~ 300명미만	43.3	56.7	2.3
	300 ~ 500명미만	33.1	66.9	3.4
	500 ~ 1,000명미만	32.6	67.4	3.4
	1,000명이상	17.9	82.1	5.4
업력	0 ~ 7년미만	53.1	46.9	4.3
	7 ~ 20년미만	62.8	37.2	2.8
	20 ~ 30년미만	51.3	48.7	2.6
	30 ~ 40년미만	48.6	51.4	4.4
	40 ~ 50년미만	29.0	71.0	3.4
	50년이상	50.8	49.2	4.0
매출유형	B2B	51.8	48.2	3.3
	B2C	43.4	56.6	4.8
	B2G	38.8	61.2	3.2
상장	상장	36.6	63.4	3.7
	비상장	63.2	36.8	2.9

□ 현지법인 설립 국가

- 수출 중견기업의 현지법인은 총 2,169개이며, 기업당 평균 3.36개의 현지법인을 보유하고 있음
-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 705개(평균1.09개), 미국 287개(평균 0.44개), 베트남 244개(평균 0.38개) 순으로 나타남
- 대륙별로 살펴보면, 극동아시아 839개(평균 1.30개), 동남아시아 612개(평균 0.95개), 북미 311개(평균 0.48개) 순으로 나타남

[표 2-64] 진출 국가별 현지법인 설립 현황(상위 14개)

(단위 : 개사, %, 현지법인 설립기업 645개사, 중복응답)

구 분	전체		평균 현지법인 수
	현지법인 수	비중	
전체	2,169	100	3.36
중국	705	32.5	1.09
미국	287	13.2	0.44
베트남	244	11.3	0.38
인도	95	4.4	0.15
인도네시아	87	4	0.13
일본	63	2.9	0.1
홍콩	51	2.4	0.08
멕시코	47	2.2	0.07
독일	42	1.9	0.07
싱가포르	38	1.7	0.06
말레이시아	35	1.6	0.05
필리핀	34	1.5	0.05
태국	32	1.5	0.05
폴란드	30	1.4	0.05
그 외 국가	379	17.5	0.59

※ 그 외 국가 : 45개 국가

[표 2-65] 진출 대륙별 현지법인 설립 현황

(단위 : 개사, %, 현지법인 설립기업 645개사,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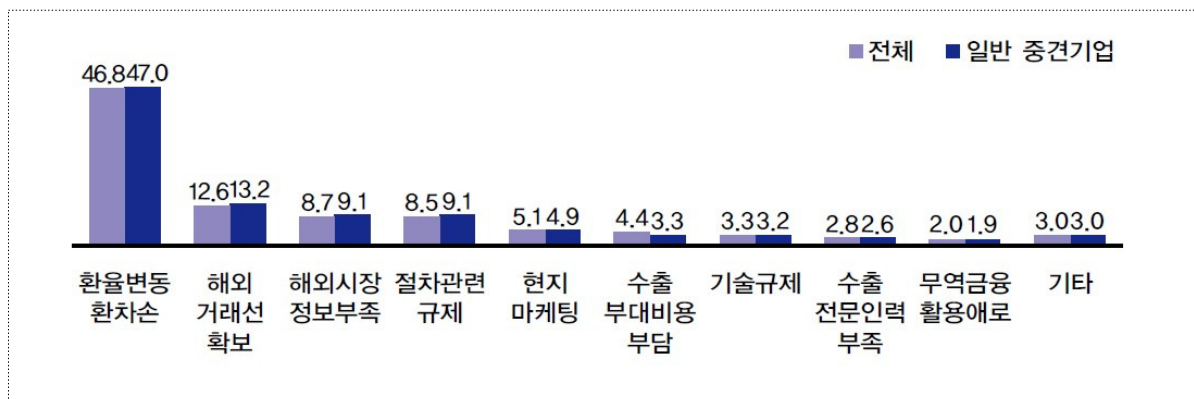
구 분	전체		평균 현지법인 수
	현지법인 수	비중	
전체	2,169	100.0	3.36
극동아시아	839	38.7	1.30
동남아시아	612	28.2	0.95
북미	311	14.3	0.48
유럽	235	10.8	0.36
남미	98	4.5	0.15
중동	45	2.1	0.07
아프리카	15	0.7	0.02
오세아니아	14	0.6	0.02

□ 수출시 애로사항

- 수출 중견기업의 수출시 애로사항으로는 환율변동 환차손(46.8%)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해외 거래선 확보(12.6%), 해외시장 정보부족(8.7%), 절차관련 규제(8.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은 환율변동 환차손(47.0%), 해외 거래선 확보(13.2%), 해외시장 정보부족(9.1%), 절차관련 규제(9.1%) 등의 순임

[그림 2-48] 수출시 애로사항

(단위: %, 수출기업)



특성별 분석

- 기업 유형별로는 일반 중견기업과 관계기업 모두 환율변동 환차손을 가장 큰 수출 애로요인이라고 응답함
- 매출규모로 살펴보면, 매출액 1천억원~2천억원 미만 기업의 13.0%가 절차관련 규제를 선택하여, 타 기업군에 비해 높게 나타남
- B2B기업과 B2C기업은 환율변동 환차손을 가장 큰 요인이라고 응답하였지만, 주 거래처가 정부/공공기관인 B2G기업은 해외 거래선 확보(41.9%)를 가장 큰 요인이라고 응답함
- B2G기업은 주 거래처가 정부/공공기관이기에 주로 국내에 국한되어있어 해외 거래선 확보에도 어려움이 많으며,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가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표 2-66] 수출시 애로사항 : 1순위

(단위 : %, 수출기업 1,320개사)

구분		환율변동 환차손	해외 거래선 확보	해외시장 정보부족	절차관련 규제	현지마케팅
전체		46.8	12.6	8.7	8.5	5.1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47.0	13.2	9.1	9.1	4.9
	관계기업	45.1	8.9	6.4	4.9	6.7
업종	제조업	50.8	11.5	6.1	8.4	5.0
	비제조업	34.0	16.0	17.0	8.8	5.5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32.9	24.8	11.3	6.9	12.1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32.6	12.9	11.2	1.9	7.3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50.6	5.9	12.2	4.6	3.8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51.1	8.8	6.4	13.0	5.5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46.6	15.5	8.7	8.8	6.3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47.7	16.5	10.4	9.0	4.5
	5천억원 ~ 1조원미만	49.1	14.6	6.3	5.7	0.0
	1조원이상	53.2	16.3	4.0	12.3	0.0
수출여부	수출있음	46.8	12.6	8.7	8.5	5.1
	수출없음	-	-	-	-	-
종사자수	50명미만	45.7	16.3	10.9	3.7	5.2
	50 ~ 100명미만	43.1	8.8	11.0	8.7	2.1
	100 ~ 200명미만	50.7	8.7	9.5	4.4	7.8
	200 ~ 300명미만	39.6	13.6	8.5	10.9	4.0
	300 ~ 500명미만	48.2	15.8	6.9	11.1	6.6
	500 ~ 1,000명미만	48.6	13.2	6.8	10.4	3.9
	1,000명이상	47.3	12.3	8.7	13.1	2.8
업력	0 ~ 7년미만	50.4	7.9	3.4	22.8	7.2
	7 ~ 20년미만	43.3	14.9	11.6	6.6	4.1
	20 ~ 30년미만	54.3	3.9	5.6	11.4	5.5
	30 ~ 40년미만	50.2	7.6	13.5	6.7	4.0
	40 ~ 50년미만	50.3	14.1	2.6	7.0	5.7
	50년이상	34.2	25.7	10.5	6.4	6.5
매출유형	B2B	48.1	12.4	8.2	8.2	5.5
	B2C	31.4	9.8	14.3	14.5	0.0
	B2G	19.4	41.9	19.4	0.0	0.0
상장	상장	52.1	10.3	6.6	10.9	5.0
	비상장	42.4	14.5	10.5	6.5	5.2

[표 2-67] 수출시 애로사항 : 1순위(계속)

(단위 : %, 수출기업 1,320개사)

구분		수출 부대비용 부담	기술규제	수출 전문인력 부족	무역금융 활용애로	기타	없음
전체		4.4	3.3	2.8	2.0	3.0	2.9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3.3	3.2	2.6	1.9	3.0	2.7
	관계기업	10.7	4.0	3.9	2.8	2.8	3.9
업종	제조업	5.2	4.1	1.9	1.5	2.8	2.7
	비제조업	1.8	0.9	5.5	3.5	3.6	3.5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3.3	4.4	4.4	0.0	0.0	0.0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12.7	5.4	5.4	1.7	3.5	5.4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6.9	1.3	4.6	0.0	3.7	6.3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3.1	0.8	2.4	2.3	4.8	1.7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0.0	5.2	1.3	2.5	1.3	3.7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1.5	3.0	1.5	4.5	1.5	0.0
	5천억원 ~ 1조원미만	9.6	7.7	3.1	0.0	0.0	3.8
	1조원이상	0.0	4.0	0.0	4.0	6.1	0.0
수출여부	수출있음	4.4	3.3	2.8	2.0	3.0	2.9
	수출없음	-	-	-	-	-	-
종사자수	50명미만	3.5	1.9	1.9	1.8	5.3	3.6
	50 ~ 100명미만	5.9	2.0	4.8	5.9	2.6	5.0
	100 ~ 200명미만	5.9	1.9	3.7	0.0	2.0	5.3
	200 ~ 300명미만	9.1	5.2	1.3	3.2	1.6	3.2
	300 ~ 500명미만	1.3	0.0	2.3	3.4	4.4	0.0
	500 ~ 1,000명미만	2.5	6.6	3.9	0.0	2.2	1.9
	1,000명이상	2.1	6.7	0.0	2.7	4.2	0.0
업력	0 ~ 7년미만	4.1	0.0	4.1	0.0	0.0	0.0
	7 ~ 20년미만	6.4	2.9	2.0	2.4	2.1	3.7
	20 ~ 30년미만	3.4	2.9	3.3	2.0	4.6	3.1
	30 ~ 40년미만	0.0	3.1	1.5	1.4	4.4	7.6
	40 ~ 50년미만	6.0	7.9	1.2	1.5	3.7	0.0
	50년이상	4.2	1.1	6.6	3.1	1.6	0.0
매출유형	B2B	4.7	3.1	2.3	1.9	2.7	2.8
	B2C	0.0	3.9	10.6	3.6	7.8	4.2
	B2G	0.0	19.3	0.0	0.0	0.0	0.0
상장	상장	3.7	4.0	1.8	2.2	2.7	0.8
	비상장	5.0	2.7	3.6	1.9	3.2	4.6

[표 2-68] 수출시 애로사항 : 1+2순위

(단위 : %, 중복응답, 수출기업 1,320개사)

구분		환율변동 환차손	해외 거래선 확보	절차관련 규제	해외시장 정보부족	수출 부담비용 부담
전체		55.0	29.8	19.1	18.9	18.4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56.3	30.5	20.6	19.3	17.1
	관계기업	47.7	25.7	10.2	16.9	25.9
업종	제조업	57.5	29.0	20.2	17.0	19.4
	비제조업	47.0	32.4	15.5	25.1	15.1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46.0	35.7	20.1	15.7	26.6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39.9	18.4	7.4	25.7	18.1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58.1	23.6	15.4	18.6	19.4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59.7	29.8	25.1	17.5	16.8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58.2	34.6	19.2	17.7	15.3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55.2	34.3	22.5	17.9	19.4
	5천억원 ~ 1조원미만	51.0	24.2	17.2	24.0	30.7
	1조원이상	59.3	48.9	16.3	14.2	6.1
수출여부	수출있음	55.0	29.8	19.1	18.9	18.4
	수출없음	-	-	-	-	-
종사자수	50명미만	60.5	30.5	9.3	17.6	18.2
	50 ~ 100명미만	50.4	24.3	17.3	19.8	18.9
	100 ~ 200명미만	55.9	19.7	14.3	22.5	20.9
	200 ~ 300명미만	51.7	36.9	21.3	15.8	23.9
	300 ~ 500명미만	50.9	36.6	24.3	21.4	14.3
	500 ~ 1,000명미만	58.4	28.8	26.5	15.7	16.3
	1,000명이상	56.5	40.4	17.0	18.2	14.3
업력	0 ~ 7년미만	50.4	11.0	35.3	14.4	33.3
	7 ~ 20년미만	53.5	30.4	15.5	21.7	16.0
	20 ~ 30년미만	63.2	18.8	31.7	13.5	20.4
	30 ~ 40년미만	57.4	29.9	18.9	20.3	14.2
	40 ~ 50년미만	58.8	38.8	11.0	10.7	22.0
	50년이상	41.5	42.3	11.6	30.3	15.3
매출유형	B2B	56.1	29.5	18.8	18.3	18.9
	B2C	41.2	28.7	26.3	24.9	10.4
	B2G	38.8	61.2	0.0	41.9	19.4
상장	상장	59.0	33.3	22.9	16.1	16.8
	비상장	51.7	26.9	15.9	21.3	19.7

[표 2-69] 수출시 애로사항 : 1+2순위(계속)

(단위 : %, 중복응답, 수출기업 1,320개사)

구분		현지마케팅	수출 전문인력 부족	기술규제	무역금융 활용애로	기타	없음
전체		13.8	7.6	7.5	6.6	3.6	2.9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14.1	6.9	7.2	6.8	3.3	2.7
	관계기업	11.8	11.8	9.2	5.4	5.4	3.9
업종	제조업	13.0	6.7	8.5	7.1	3.3	2.7
	비제조업	16.4	10.5	4.2	5.3	4.6	3.5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15.7	8.0	4.4	4.4	0.0	0.0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16.8	12.6	16.3	5.4	5.3	5.4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14.2	9.2	5.8	1.9	5.0	6.3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13.5	4.0	4.1	8.7	4.8	1.7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14.0	7.8	7.8	6.3	1.3	3.7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15.0	10.4	6.0	9.0	1.5	0.0
	5천억원 ~ 1조원미만	8.9	3.1	15.3	5.7	3.1	3.8
	1조원이상	10.2	12.3	4.0	10.2	6.1	0.0
수출여부	수출있음	13.8	7.6	7.5	6.6	3.6	2.9
	수출없음	-	-	-	-	-	-
종사자수	50명미만	10.8	1.9	3.3	11.4	7.0	3.6
	50 ~ 100명미만	8.6	11.0	12.6	7.9	2.6	5.0
	100 ~ 200명미만	19.6	11.0	5.7	5.0	2.8	5.3
	200 ~ 300명미만	13.1	4.1	10.1	8.0	1.6	3.2
	300 ~ 500명미만	19.1	6.2	3.7	4.4	4.4	0.0
	500 ~ 1,000명미만	9.0	9.2	10.4	4.3	3.5	1.9
	1,000명이상	10.0	8.4	8.6	9.9	4.2	0.0
업력	0 ~ 7년미만	14.7	18.4	2.8	0.0	0.0	0.0
	7 ~ 20년미만	14.1	5.0	7.9	6.7	4.1	3.7
	20 ~ 30년미만	10.1	5.8	7.3	8.4	4.6	3.1
	30 ~ 40년미만	12.8	7.3	10.0	2.9	4.4	7.6
	40 ~ 50년미만	18.2	8.5	10.4	8.1	3.7	0.0
	50년이상	14.4	11.5	2.8	9.1	1.6	0.0
매출유형	B2B	14.1	6.8	7.6	6.9	3.4	2.8
	B2C	11.4	22.5	3.9	3.6	7.8	4.2
	B2G	0.0	0.0	19.3	0.0	0.0	0.0
상장	상장	13.9	8.4	8.2	6.7	3.1	0.8
	비상장	13.8	7.0	6.9	6.6	4.0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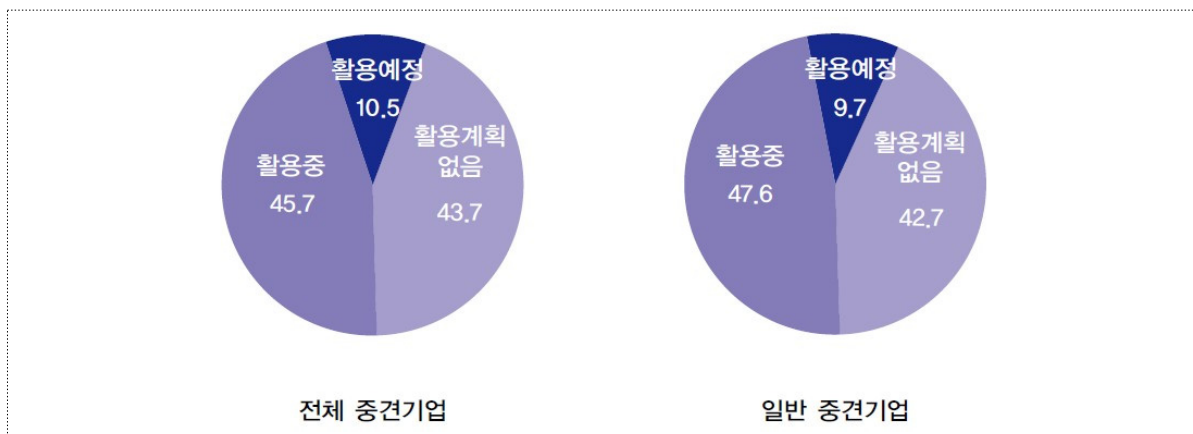
3. FTA 활용

□ FTA 활용 여부

- 수출 중견기업 중 FTA를 이미 활용하고 있는 기업은 45.7%, 활용예정 기업은 10.5%, 활용예정인 없는 기업은 43.7%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은 활용 중(47.6%), 활용예정(9.7%), 활용계획 없음(42.7%)임

[그림 2-49] FTA 활용 여부

(단위: %, 수출기업)



특성별 분석

- 제조업은 50.6%가 이미 FTA를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비제조업은 30.4%만이 FTA를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함
- 비제조업의 63.0%는 FTA 활용계획이 없어 제조업에 비해 활용계획 없는 비율 또한 높아 추후 업종에 따라 FTA 활용비율의 차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됨
- B2B기업의 경우 46.6%가 이미 FTA를 활용하고 있는 반면, B2C기업은 36.8%, B2G기업은 19.4%만이 활용하고 있어 거래처별로 많이 차이남
- 주 거래처가 정부/공공기관인 B2G기업은 현재 FTA 활용 비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추후 활용계획 없음의 비율 또한 높게 나타남

[표 2-70] FTA 활용 여부

(단위 : %, 수출기업 1,320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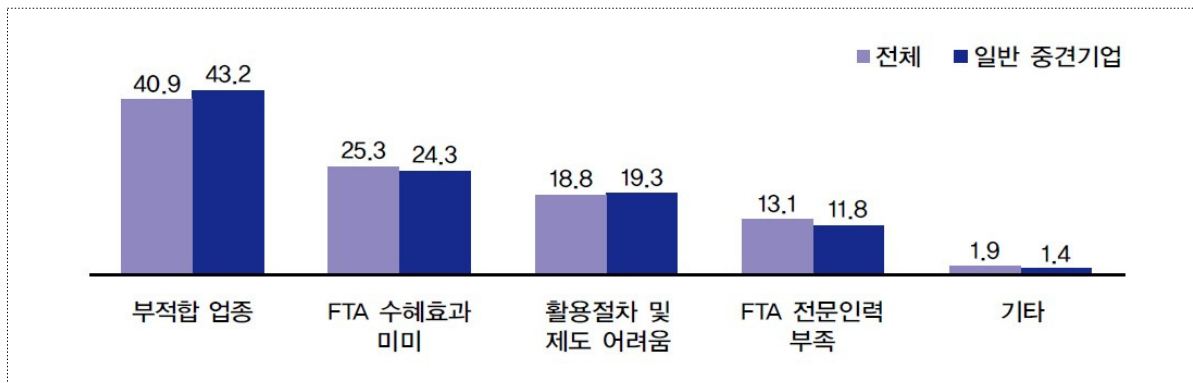
구분		활용중	활용예정	활용계획없음
전체		45.7	10.5	43.7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47.6	9.7	42.7
	관계기업	34.7	15.3	50.0
업종	제조업	50.6	11.7	37.7
	비제조업	30.4	6.7	63.0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28.8	10.2	61.0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45.9	6.9	47.2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34.9	11.5	53.6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45.7	8.7	45.7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52.9	12.8	34.3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47.9	15.0	37.1
	5천억원 ~ 1조원미만	50.3	11.5	38.2
	1조원이상	55.3	8.1	36.7
수출여부	수출있음	45.7	10.5	43.7
	수출없음	-	-	-
종사자수	50명미만	35.5	8.4	56.1
	50 ~ 100명미만	38.9	10.7	50.4
	100 ~ 200명미만	30.0	14.0	56.1
	200 ~ 300명미만	55.2	9.2	35.6
	300 ~ 500명미만	51.7	11.5	36.9
	500 ~ 1,000명미만	60.8	7.5	31.7
	1,000명이상	49.5	11.4	39.1
업력	0 ~ 7년미만	57.7	7.2	35.1
	7 ~ 20년미만	39.7	11.8	48.6
	20 ~ 30년미만	35.0	11.2	53.7
	30 ~ 40년미만	54.4	4.6	41.0
	40 ~ 50년미만	61.0	7.7	31.4
	50년이상	44.2	17.7	38.1
매출유형	B2B	46.6	10.6	42.7
	B2C	36.8	10.5	52.7
	B2G	19.4	0.0	80.6
상장	상장	49.8	12.2	37.9
	비상장	42.3	9.1	48.6

□ FTA 미활용 사유

- 수출 중견기업이 FTA를 활용하지 않는 사유는 부적합 업종(40.9%)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FTA 수혜효과 미미(25.3%), 활용절차 및 제도 어려움(18.8%) 순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은 부적합 업종(43.2%), FTA 수혜효과 미미(24.3%), 활용절차 및 제도 어려움(19.3%) 순임

[그림 2-50] FTA 미활용 사유

(단위: %, FTA 미활용기업)



특성별 분석

- 일반 중견기업은 부적합 업종(43.2%)이 가장 큰 FTA 미활용 사유로 조사되었으며, FTA 수혜효과 미미(24.3%), 활용절차 및 제도 어려움(19.3%), FTA 전문인력 부족(11.8%) 순으로 나타난 반면, 관계기업은 FTA 수혜효과 미미(30.5%), 부적합 업종(30.0%)의 순으로 FTA 미활용사유가 조사되어 업종별로 차이가 나타남
- FTA 미활용 사유는 대체적으로 매출규모가 클수록, 종사자수가 많을수록, 업력이 길수록 부적합업종의 비율이 높아짐

[표 2-71] FTA 미활용 사유

(단위 : %, FTA 미활용기업 716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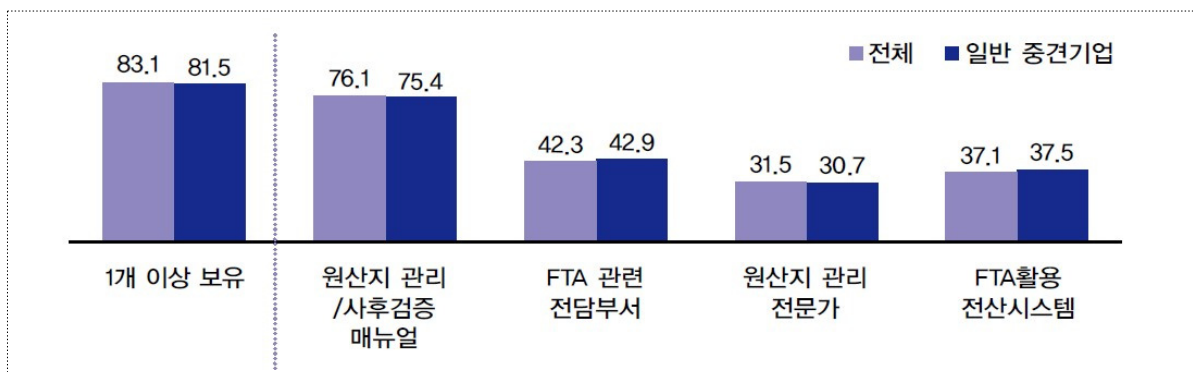
구분		부적합 업종	FTA 수혜효과 미미	활용절차 및 제도 어려움	FTA 전문인력 부족	기타
전체		40.9	25.3	18.8	13.1	1.9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43.2	24.3	19.3	11.8	1.4
	관계기업	30.0	30.5	16.0	19.3	4.2
업종	제조업	37.3	26.2	21.0	13.3	2.2
	비제조업	49.0	23.3	13.7	12.8	1.2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31.3	29.8	9.2	29.7	0.0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41.2	26.0	20.1	6.4	6.4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39.4	19.2	21.8	16.8	2.8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47.6	20.4	24.0	8.0	0.0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35.1	35.1	10.8	16.4	2.6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31.3	22.8	25.9	17.1	2.9
	5천억원 ~ 1조원미만	35.8	33.3	15.4	15.4	0.0
	1조원이상	68.2	31.8	0.0	0.0	0.0
수출여부	수출있음	40.9	25.3	18.8	13.1	1.9
	수출없음	-	-	-	-	-
종사자수	50명미만	40.5	15.8	21.0	22.7	0.0
	50 ~ 100명미만	34.4	24.8	20.9	17.1	2.8
	100 ~ 200명미만	42.8	25.8	17.1	10.1	4.2
	200 ~ 300명미만	28.7	31.8	20.8	18.7	0.0
	300 ~ 500명미만	41.4	30.2	19.0	9.4	0.0
	500 ~ 1,000명미만	41.7	23.0	24.2	8.3	2.8
	1,000명이상	61.0	27.1	4.2	7.8	0.0
업력	0 ~ 7년미만	37.4	19.5	21.2	21.9	0.0
	7 ~ 20년미만	39.9	23.3	22.2	11.4	3.3
	20 ~ 30년미만	39.4	29.0	19.6	10.4	1.5
	30 ~ 40년미만	38.9	22.7	19.3	16.1	3.1
	40 ~ 50년미만	46.4	33.4	6.7	13.4	0.0
	50년이상	44.4	22.0	17.0	16.6	0.0
매출유형	B2B	39.5	25.4	19.6	13.9	1.6
	B2C	56.4	25.2	6.2	5.7	6.6
	B2G	52.0	23.9	24.1	0.0	0.0
상장	상장	36.0	25.0	20.2	17.9	0.9
	비상장	44.4	25.6	17.7	9.7	2.6

□ FTA 활용 내부시스템 구축

- FTA를 활용하는 중견기업의 83.1%는 1개 이상의 FTA 관련 내부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원산지 관리/사후검증 매뉴얼(76.1%), FTA관련 전산부서(42.3%) 등의 순으로 구축비율이 높게 나타남
- FTA를 활용하는 일반 중견기업의 81.5%가 1개 이상의 FTA 내부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원산지 관리/사후검증 매뉴얼(75.4%), FTA관련 전담부서(42.9%) 등의 순으로 구축비율이 높게 나타남

[그림 2-51] FTA활용 내부시스템 구축 비율

(단위: %, FTA 활용기업)



특성별 분석

- FTA를 활용하는 관계기업의 96.0%가 FTA 활용을 위해 1개 이상의 내부시스템을 구축함
- 가장 많이 구축한 시스템은 원산지 관리 및 사후검증 매뉴얼로 관계기업의 81.7%가 해당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원산지관리 전문가(38.2%), FTA 관련 전담부서(37.5%), FTA활용 전산시스템(33.8%) 순으로 나타남
- 업종별로는 제조업은 85.7%가 FTA 활용을 위한 내부시스템을 1가지 이상 보유하고 있는 반면 비제조업은 69.1%만이 관련 시스템을 보유한 것을 알 수 있음
- 종사자수별로는 50명 미만의 기업은 67.5%가 FTA 활용을 위한 내부시스템을 구축한 반면, 1,000명 이상의 기업의 구축율은 96.0%임
- 대체적으로 종사자수가 많을수록, 매출규모가 클수록 시스템 구축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표 2-72] FTA활용 내부시스템 구축 비율

(단위 : %, FTA 활용기업 604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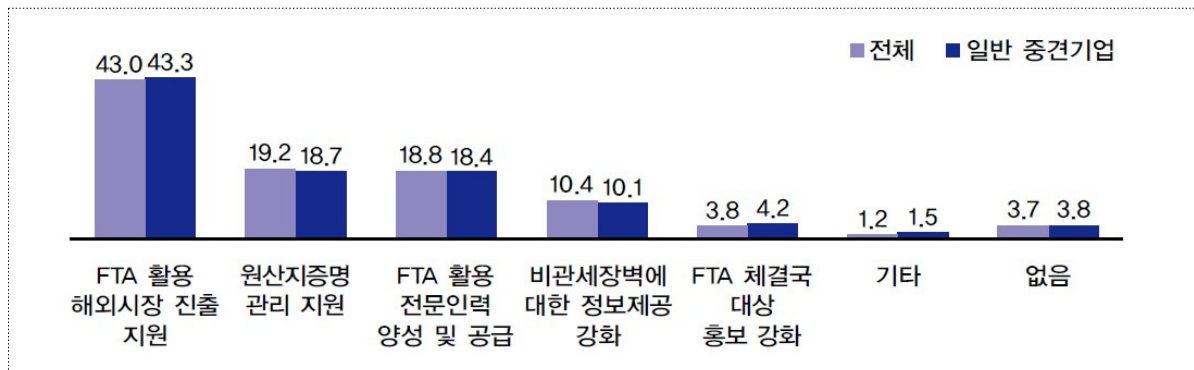
구분		1개 이상 시스템 구축	FTA활용 내부시스템			
			원산지관리 /사후검증 매뉴얼	FTA관련 전담부서	원산지관리 전문가	FTA활용 전산시스템
전체		83.1	76.1	42.3	31.5	37.1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81.5	75.4	42.9	30.7	37.5
	관계기업	96.0	81.7	37.5	38.2	33.8
업종	제조업	85.7	78.9	44.9	32.1	41.4
	비제조업	69.1	61.0	28.8	28.2	14.1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65.8	54.5	26.6	0.0	0.0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75.6	67.7	28.3	23.2	7.7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83.8	69.4	28.6	36.7	27.1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83.9	77.4	46.6	24.4	39.9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83.3	78.4	48.9	31.8	51.5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87.5	78.2	47.0	40.5	40.7
	5천억원 ~ 1조원미만	77.2	73.4	30.5	40.5	49.5
	1조원이상	100.0	100.0	66.7	55.6	44.4
수출여부	수출있음	83.1	76.1	42.3	31.5	37.1
	수출없음	-	-	-	-	-
종사자수	50명미만	67.5	49.1	23.6	23.0	4.8
	50 ~ 100명미만	87.8	82.6	33.2	27.4	22.3
	100 ~ 200명미만	69.0	59.6	24.6	16.9	23.7
	200 ~ 300명미만	75.1	64.8	35.2	20.8	39.0
	300 ~ 500명미만	91.1	86.0	52.2	38.6	40.3
	500 ~ 1,000명미만	90.7	87.1	51.0	38.6	51.8
	1,000명이상	96.0	96.0	69.4	55.2	55.4
업력	0 ~ 7년미만	72.5	72.5	31.6	24.4	25.0
	7 ~ 20년미만	79.7	67.5	45.0	35.7	22.2
	20 ~ 30년미만	82.5	76.5	43.4	25.3	48.8
	30 ~ 40년미만	87.2	84.3	37.8	29.9	49.0
	40 ~ 50년미만	87.9	83.6	40.3	27.1	43.1
	50년이상	83.2	72.5	50.4	43.0	35.1
매출유형	B2B	83.2	75.8	43.9	31.4	38.4
	B2C	88.6	88.6	14.7	36.8	14.7
	B2G	0.0	0.0	0.0	0.0	0.0
상장	상장	85.0	82.4	45.0	31.9	43.8
	비상장	81.3	69.9	39.7	31.1	30.5

□ FTA 활용을 위한 정부지원

- FTA 활용을 위한 정부지원으로는 FTA 활용 해외시장 진출 지원(43.0%)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원산지증명 관리 지원(19.2%), FTA 활용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18.8%), 비관세장벽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10.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은 FTA 활용을 위한 정부지원으로 FTA 활용 해외시장 진출지원(43.3%), 원산지증명 관리 지원(18.7%), FTA 활용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18.4%) 등의 순으로 응답함

[그림 2-52] FTA활용을 위한 정부지원 : 1순위

(단위: %, 수출기업)



특성별 분석

-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42.1%, 비제조업의 45.9%가 FTA를 활용한 해외시장 진출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함
- 비제조업은 특성상 FTA 활용이 어려운 업종이 많아 정부지원 필요없음(6.6%)의 응답률이 제조업보다 높게 나타남
- 대체적으로 매출규모가 크고 종사자 수가 많은 기업일수록 FTA를 활용한 해외시장 진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중이 높음
- 주 거래처별로 살펴보면, B2C기업의 11.8%가 FTA를 활용하기 위한 정부지원이 필요없다고 응답하여 타 기업군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비제조업과 비슷한 양상을 보임

[표 2-73] FTA활용을 위한 정부지원 : 1순위

(단위 : %, 수출기업 1,320개사)

구분		FTA 활용 해외시장 진출 지원	원산지증명 관리 지원	FTA 활용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
전체		43.0	19.2	18.8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43.3	18.7	18.4
	관계기업	41.3	21.9	21.0
업종	제조업	42.1	21.1	19.0
	비제조업	45.9	13.0	17.9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35.7	21.9	22.3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40.2	29.2	12.1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52.3	17.4	18.0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42.7	20.6	18.9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42.5	15.5	23.0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40.3	15.0	20.9
	5천억원 ~ 1조원미만	45.8	19.2	19.2
	1조원이상	36.7	12.3	12.3
수출여부	수출있음	43.0	19.2	18.8
	수출없음	-	-	-
종사자수	50명미만	35.0	23.9	26.9
	50 ~ 100명미만	35.1	32.3	18.3
	100 ~ 200명미만	51.0	14.7	15.8
	200 ~ 300명미만	44.9	21.0	15.8
	300 ~ 500명미만	42.0	17.0	18.8
	500 ~ 1,000명미만	40.8	18.3	22.1
	1,000명이상	45.8	11.8	12.9
업력	0 ~ 7년미만	21.6	39.2	19.4
	7 ~ 20년미만	43.3	18.3	18.9
	20 ~ 30년미만	47.0	17.8	18.2
	30 ~ 40년미만	43.1	21.7	19.6
	40 ~ 50년미만	35.0	20.4	18.1
	50년이상	54.0	11.0	18.8
매출유형	B2B	43.1	19.8	19.2
	B2C	49.0	13.0	11.7
	B2G	0.0	0.0	19.4
상장	상장	43.4	17.4	23.1
	비상장	42.6	20.7	15.2

[표 2-74] FTA활용을 위한 정부지원 : 1순위(계속)

(단위 : %, 수출기업 1,320개사)

구분		비관세장벽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FTA 체결국 대상 홍보 강화	기타	없음
전체		10.4	3.8	1.2	3.7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10.1	4.2	1.5	3.8
	관계기업	11.7	1.5	0.0	2.7
업종	제조업	10.2	3.3	1.6	2.7
	비제조업	11.1	5.5	0.0	6.6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15.7	4.4	0.0	0.0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5.3	3.8	1.9	7.4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7.2	1.9	0.0	3.2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8.9	3.2	1.7	4.1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10.1	5.1	1.3	2.4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16.4	3.0	0.0	4.4
	5천억원 ~ 1조원미만	8.9	7.0	0.0	0.0
	1조원이상	22.5	4.0	6.1	6.1
수출여부	수출있음	10.4	3.8	1.2	3.7
	수출없음	-	-	-	-
종사자수	50명미만	5.1	1.9	0.0	7.2
	50 ~ 100명미만	11.9	0.0	0.0	2.4
	100 ~ 200명미만	8.3	5.1	1.1	4.0
	200 ~ 300명미만	10.4	1.6	3.3	3.0
	300 ~ 500명미만	11.8	5.4	0.0	4.9
	500 ~ 1,000명미만	12.4	4.4	1.2	0.9
	1,000명이상	14.5	6.7	4.2	4.2
업력	0 ~ 7년미만	15.5	0.0	0.0	4.3
	7 ~ 20년미만	12.0	2.9	0.0	4.6
	20 ~ 30년미만	7.9	5.6	2.4	1.2
	30 ~ 40년미만	8.1	1.5	0.0	6.0
	40 ~ 50년미만	11.9	6.0	5.1	3.6
	50년이상	9.0	4.8	0.0	2.4
매출유형	B2B	10.2	3.1	1.3	3.2
	B2C	10.8	3.7	0.0	11.8
	B2G	19.4	61.2	0.0	0.0
상장	상장	11.1	2.5	1.2	1.4
	비상장	9.8	4.9	1.3	5.6

[표 2-75] FTA활용을 위한 정부지원 : 1+2순위

(단위 : %, 수출기업 1,320개사, 중복응답)

구분		FTA 활용 해외시장 진출 지원	FTA 활용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	원산지증명 관리 지원
전체		57.3	41.4	35.3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57.7	40.8	36.0
	관계기업	54.5	45.4	31.3
업종	제조업	55.6	42.6	39.2
	비제조업	62.5	37.8	22.9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47.0	41.2	30.7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54.2	32.2	39.8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62.6	41.5	30.1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56.4	45.5	34.4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60.3	42.4	40.1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50.8	41.8	28.4
	5천억원 ~ 1조원미만	67.4	42.2	39.5
	1조원이상	53.0	34.7	40.9
수출여부	수출있음	57.3	41.4	35.3
	수출없음	-	-	-
종사자수	50명미만	42.0	37.6	38.2
	50 ~ 100명미만	47.5	45.7	47.9
	100 ~ 200명미만	63.3	44.7	23.6
	200 ~ 300명미만	64.8	36.4	38.0
	300 ~ 500명미만	60.1	36.2	36.7
	500 ~ 1,000명미만	56.8	48.7	36.0
	1,000명이상	56.8	35.1	39.2
업력	0 ~ 7년미만	28.8	27.6	45.2
	7 ~ 20년미만	54.6	39.6	32.1
	20 ~ 30년미만	62.1	42.9	35.4
	30 ~ 40년미만	60.2	45.7	37.5
	40 ~ 50년미만	56.4	37.9	43.9
	50년이상	65.6	48.4	26.6
매출유형	B2B	57.3	42.4	35.9
	B2C	63.8	24.0	31.9
	B2G	22.5	58.1	0.0
상장	상장	57.0	47.0	38.5
	비상장	57.5	36.8	32.7

[표 2-76] FTA활용을 위한 정부지원 : 1+2순위(계속)

(단위 : %, 수출기업 1,320개사,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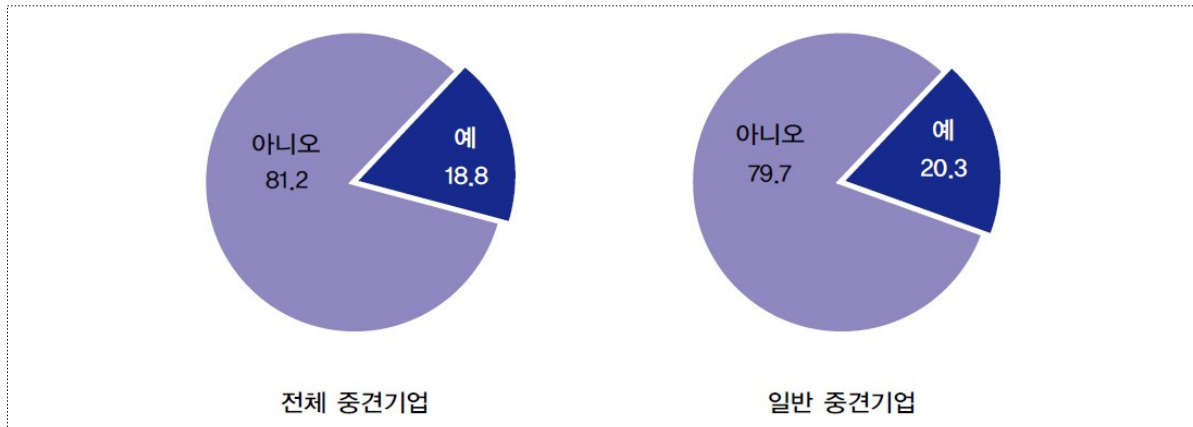
구분		비관세장벽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FTA 체결국 대상 홍보 강화	기타	없음
전체		28.0	13.1	1.6	3.7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27.9	13.1	1.9	3.8
	관계기업	28.6	13.0	0.0	2.7
업종	제조업	27.2	12.1	2.1	2.7
	비제조업	30.5	16.1	0.0	6.6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29.9	15.7	0.0	0.0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29.4	9.4	1.9	7.4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20.8	19.6	0.0	3.2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24.6	13.8	1.7	4.1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28.2	14.0	2.6	2.4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41.8	7.5	1.5	4.4
	5천억원 ~ 1조원미만	26.7	14.6	0.0	0.0
	1조원이상	32.6	4.0	6.1	6.1
수출여부	수출있음	28.0	13.1	1.6	3.7
	수출없음	-	-	-	-
종사자수	50명미만	26.8	16.5	1.9	7.2
	50 ~ 100명미만	29.8	8.9	0.0	2.4
	100 ~ 200명미만	25.9	11.5	1.1	4.0
	200 ~ 300명미만	24.6	7.8	3.3	3.0
	300 ~ 500명미만	25.7	20.0	1.0	4.9
	500 ~ 1,000명미만	33.1	12.8	1.2	0.9
	1,000명이상	32.2	13.4	4.2	4.2
업력	0 ~ 7년미만	49.8	11.1	0.0	4.3
	7 ~ 20년미만	32.6	9.9	0.7	4.6
	20 ~ 30년미만	23.7	16.9	3.2	1.2
	30 ~ 40년미만	29.8	9.1	0.0	6.0
	40 ~ 50년미만	22.3	20.1	5.1	3.6
	50년이상	19.4	11.8	0.0	2.4
매출유형	B2B	26.7	13.1	1.8	3.2
	B2C	45.7	3.7	0.0	11.8
	B2G	38.8	61.2	0.0	0.0
상장	상장	29.0	11.5	1.6	1.4
	비상장	27.2	14.4	1.7	5.6

□ 해외진출 고려 여부

- 중견기업의 18.8%는 향후 신규 해외 진출을 고려하고 있으며, 일반 중견기업은 20.3%가 향후 신규 해외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2-53] 해외진출 고려 여부

(단위: %)



특성별 분석

-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30.0%, 비제조업의 10.8%가 신규 해외진출을 고려하고 있음
- 수출기업의 경우 40.8%가 추가 해외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반면, 내수기업은 5.9%만이 신규 해외 진출을 고려하고 있어 수출기업이 내수기업에 비해 약 8배 정도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종사자수별로는 대체적으로 종사자수가 많은 기업일수록 해외진출을 고려하는 기업의 비중이 높으며, 업력별로는 업력이 길수록 해외진출을 고려하는 비중이 높음
- 이는 중견기업들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 내수시장에서 자리를 잡은 후 해외로 신규진출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임

[표 2-77] 해외진출 고려 여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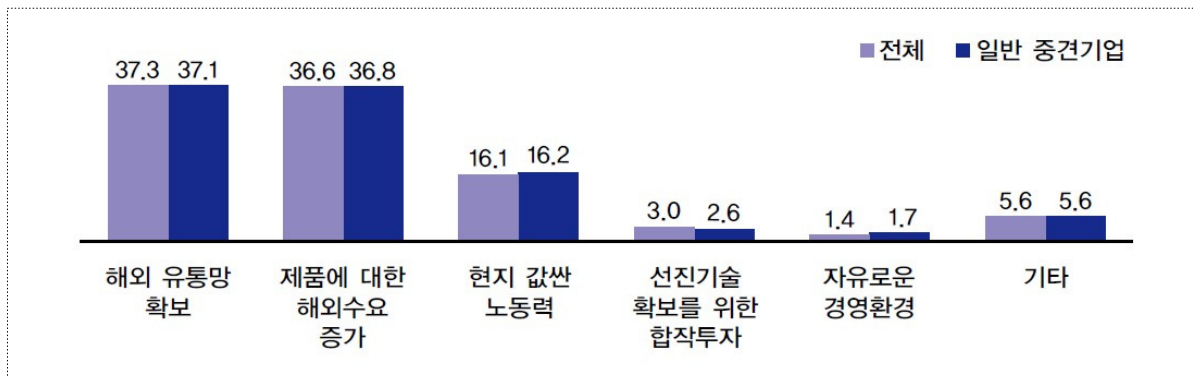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해외진출 고려	해외진출 미고려
전체		(3,558)	18.8	81.2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2,885)	20.3	79.7
	관계기업	(673)	12.6	87.4
업종	제조업	(1,488)	30.0	70.0
	비제조업	(2,070)	10.8	89.2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625)	9.3	90.7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934)	8.0	92.0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474)	16.8	83.2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636)	30.7	69.3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367)	26.8	73.2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253)	28.4	71.6
	5천억원 ~ 1조원미만	(179)	32.2	67.8
	1조원이상	(90)	38.2	61.8
수출여부	수출있음	(1,320)	40.8	59.2
	수출없음	(2,238)	5.9	94.1
종사자수	50명미만	(1,197)	7.4	92.6
	50 ~ 100명미만	(508)	10.0	90.0
	100 ~ 200명미만	(610)	20.1	79.9
	200 ~ 300명미만	(363)	26.7	73.3
	300 ~ 500명미만	(360)	33.7	66.3
	500 ~ 1,000명미만	(347)	36.7	63.3
	1,000명이상	(173)	36.3	63.7
업력	0 ~ 7년미만	(541)	15.3	84.7
	7 ~ 20년미만	(1,398)	14.8	85.2
	20 ~ 30년미만	(633)	13.7	86.3
	30 ~ 40년미만	(414)	24.3	75.7
	40 ~ 50년미만	(328)	30.6	69.4
	50년이상	(244)	31.9	68.1
매출유형	B2B	(2,832)	21.0	79.0
	B2C	(622)	10.2	89.8
	B2G	(104)	12.9	87.1
상장	상장	(760)	37.2	62.8
	비상장	(2,798)	13.0	87.0

□ 해외진출 고려 이유

- 해외진출을 고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해외 유통망 확보(37.3%)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제품에 대한 해외수요 증가(36.6%), 현지 값싼 노동력(16.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의 해외진출을 고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해외 유통망 확보(37.1%), 제품에 대한 해외수요 증가(36.8%), 현지 값싼 노동력(16.2%) 등의 순임

[그림 2-54] 해외진출 고려 이유

(단위: %, 해외진출 고려 기업)



특성별 분석

- 업종별로는 제조업은 해외 유통망 확보(38.3%)를 가장 큰 이유로 응답한 반면, 비제조업은 제품에 대한 해외수요 증가(41.8%)가 가장 높아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해외진출 고려 이유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매출규모 1천억원 미만 구간 및 업력 20년 미만 구간에서는 제품에 대한 해외 수요 증가 응답율이 높게 나타남
 - 이는 중견기업 중 매출액이 낮고, 업력이 짧은 기업군은 제품의 해외수요 증가를 계기로 해외진출 및 기업성장을 도모하는 것으로 보임
- B2B기업은 신규 해외진출 고려 이유로 해외 유통망 확보(37.8%)를 가장 많이 응답한 반면, B2C기업과 B2G기업의 경우는 제품에 대한 해외수요 증가의 비율이 높아 주 거래처별로 차이가 나타남

[표 2-78] 해외진출 고려 이유 : 1순위(단위 : %, 해외진출 고려 기업 670개사)

구분		해외 유통망 확보	제품에 대한 해외수요 증가	현지 값싼 노동력	선진기술 확보를 위한 합작투자	자유로운 경영환경	기타
전체		37.3	36.6	16.1	3.0	1.4	5.6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37.1	36.8	16.2	2.6	1.7	5.6
	관계기업	38.4	35.1	14.9	6.0	0.0	5.6
업종	제조업	38.3	34.0	22.1	1.7	0.7	3.1
	비제조업	35.2	41.8	3.9	5.6	2.8	10.6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27.8	41.0	4.2	15.6	0.0	11.4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36.8	41.3	10.5	7.5	0.0	4.0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29.3	44.4	7.4	4.4	8.6	5.9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39.9	28.7	26.9	0.0	1.5	3.0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32.3	50.0	11.9	0.0	0.0	5.7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51.6	27.1	18.3	0.0	0.0	3.0
	5천억원 ~ 1조원미만	37.3	23.2	24.5	3.5	0.0	11.5
	1조원이상	41.6	50.2	0.0	0.0	0.0	8.2
수출여부	수출있음	38.8	35.6	17.9	2.0	1.8	4.0
	수출없음	31.0	40.7	8.7	7.3	0.0	12.2
종사자수	50명미만	54.8	30.8	0.0	10.4	4.0	0.0
	50 ~ 100명미만	32.2	40.5	10.3	5.8	0.0	11.2
	100 ~ 200명미만	26.5	50.3	8.4	0.0	2.7	12.2
	200 ~ 300명미만	37.5	37.1	19.4	0.0	2.9	3.0
	300 ~ 500명미만	37.8	23.1	35.1	2.0	0.0	2.0
	500 ~ 1,000명미만	41.8	38.4	15.4	2.8	0.0	1.7
	1,000명이상	27.0	37.0	17.8	3.2	0.0	15.0
업력	0 ~ 7년미만	35.2	37.2	10.1	0.0	0.0	17.5
	7 ~ 20년미만	38.2	43.8	13.6	1.2	1.7	1.6
	20 ~ 30년미만	42.4	33.7	12.3	5.0	3.6	3.1
	30 ~ 40년미만	41.1	20.5	24.0	9.7	0.0	4.8
	40 ~ 50년미만	23.7	41.7	20.3	2.8	2.3	9.2
	50년이상	45.7	33.0	14.8	0.0	0.0	6.4
매출유형	B2B	37.8	34.8	17.6	3.4	1.6	4.8
	B2C	35.3	49.4	5.6	0.0	0.0	9.7
	B2G	21.1	57.8	0.0	0.0	0.0	21.1
상장	상장	37.6	37.9	17.6	2.1	0.9	4.0
	비상장	37.0	35.5	14.7	3.9	1.9	7.0

[표 2-79] 해외진출 고려 이유 : 1+2순위

(단위 : %, 해외진출 고려 기업 670개사,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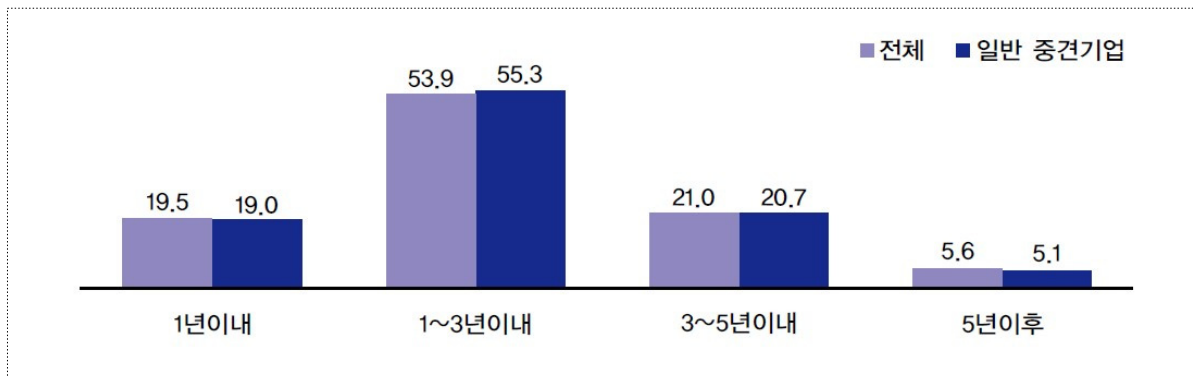
구분		해외 유통망 확보	제품에 대한 해외수요 증가	현지 값싼 노동력	선진기술 확보를 위한 합작투자	자유로운 경영환경	현지 연구인력 채용	기타
전체		68.1	58.8	23.0	7.9	6.1	0.9	7.5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67.7	59.6	23.8	7.7	6.1	1.1	7.3
	관계기업	70.6	52.9	18.0	9.0	5.9	0.0	8.7
업종	제조업	72.6	58.5	28.7	7.8	4.3	1.4	4.8
	비제조업	59.1	59.2	11.8	8.1	9.6	0.0	12.9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38.0	54.0	4.2	15.6	15.2	0.0	11.4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58.8	59.9	21.5	7.5	15.1	0.0	7.5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81.0	55.7	11.6	11.8	8.6	0.0	5.9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75.5	56.5	34.7	4.6	1.5	3.2	4.5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73.8	70.6	14.7	3.0	0.0	0.0	8.7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60.7	48.4	39.4	6.1	12.2	0.0	5.9
	5천억원 ~ 1조원미만	60.5	57.0	28.0	14.0	3.5	0.0	15.0
	1조원이상	79.2	74.9	0.0	12.5	0.0	0.0	8.2
수출여부	수출있음	72.9	61.1	24.1	7.5	5.0	1.2	5.9
	수출없음	48.3	49.2	18.8	9.6	10.6	0.0	13.8
종사자수	50명미만	69.5	45.1	6.3	10.4	20.2	0.0	5.4
	50 ~ 100명미만	42.5	67.7	21.6	5.8	0.0	0.0	11.2
	100 ~ 200명미만	73.5	65.3	10.9	2.1	5.1	5.1	14.5
	200 ~ 300명미만	72.6	63.3	29.0	2.9	7.5	0.0	3.0
	300 ~ 500명미만	68.7	54.2	40.4	11.7	4.1	0.0	3.6
	500 ~ 1,000명미만	71.2	58.0	26.9	10.0	1.7	0.0	4.0
	1,000명이상	62.1	61.7	21.0	13.3	3.2	0.0	15.0
업력	0 ~ 7년미만	53.8	57.4	26.0	0.0	12.1	0.0	17.5
	7 ~ 20년미만	70.7	65.5	17.5	4.3	7.7	1.5	2.5
	20 ~ 30년미만	74.9	61.6	19.7	7.1	5.9	0.0	11.2
	30 ~ 40년미만	76.5	42.0	32.7	12.6	2.2	0.0	4.8
	40 ~ 50년미만	61.2	58.7	27.9	12.7	8.1	0.0	11.5
	50년이상	63.8	59.4	20.5	10.0	0.0	3.6	6.4
매출유형	B2B	69.5	58.0	23.5	8.9	5.9	1.0	6.9
	B2C	65.4	66.3	20.3	0.0	8.9	0.0	9.7
	B2G	21.1	57.8	15.7	0.0	0.0	0.0	21.1
상장	상장	69.7	58.8	25.8	10.7	2.9	0.0	5.6
	비상장	66.7	58.8	20.5	5.4	8.9	1.8	9.2

□ 신규 해외진출 계획시점

- 신규 진출 계획이 있는 중견기업의 신규 해외진출 계획시점은 1~3년 이내가 53.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3~5년 이내(21.0%), 1년 이내(19.5%), 5년 이후(5.6%) 순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의 경우 1~3년 이내(55.3%), 3~5년 이내(20.7%), 1년 이내(19.0%), 5년 이후(5.1%) 순임

[그림 2-55] 신규 해외진출 계획시점

(단위: %, 해외진출 고려 기업)



특성별 분석

- 관계기업이 계획하는 신규 해외진출 시점은 1~3년 이내(44.3%), 1년 이내(23.6%), 3~5년 이내(22.8%), 5년 이후(9.2%) 순임
- 매출유형별로 살펴보면, 주 거래처가 기업인 B2C기업은 1~3년 이내(71.4%), 3~5년 이내(20.3%), 5년 이후(4.9%) 순이었으며, B2G기업은 1~3년 이내(42.2%), 1년 이내(36.8%) 순으로 나타남
- B2C기업은 상대적으로 1년 이내 비율이 낮고, 1~3년 이내 비율이 높아 타 기업군에 비해 해외진출에 대해 신중하거나 소극적인 것으로 보임

[표 2-80] 신규 해외진출 계획시점

(단위 : %, 해외진출 고려 기업 670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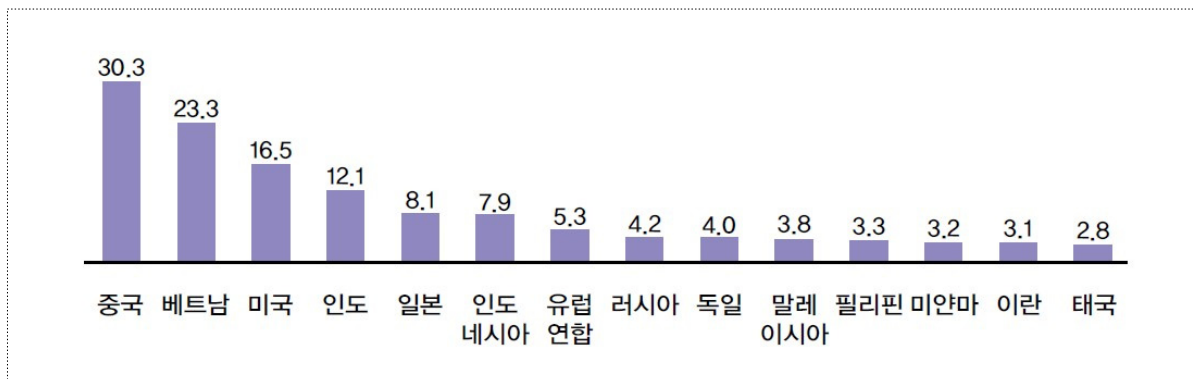
구분		1년이내	1~3년이내	3~5년이내	5년이후
전체		19.5	53.9	21.0	5.6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19.0	55.3	20.7	5.1
	관계기업	23.6	44.3	22.8	9.2
업종	제조업	18.7	53.1	20.4	7.8
	비제조업	21.3	55.4	22.1	1.2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19.4	35.9	44.7	0.0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14.2	56.4	22.4	7.0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14.8	58.9	23.1	3.2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15.2	57.5	20.9	6.4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17.7	55.5	17.9	8.9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33.2	54.7	6.0	6.1
	5천억원 ~ 1조원미만	23.2	55.7	14.0	7.0
	1조원이상	37.6	37.3	25.1	0.0
수출여부	수출있음	20.1	53.4	19.9	6.5
	수출없음	17.1	55.7	25.6	1.7
종사자수	50명미만	19.5	38.7	38.8	3.0
	50 ~ 100명미만	21.6	50.1	23.3	5.1
	100 ~ 200명미만	15.9	66.0	16.0	2.1
	200 ~ 300명미만	17.0	53.9	20.6	8.5
	300 ~ 500명미만	22.8	54.1	16.2	6.9
	500 ~ 1,000명미만	20.2	57.2	14.0	8.7
	1,000명이상	21.6	47.4	27.9	3.2
업력	0 ~ 7년미만	21.7	27.4	50.9	0.0
	7 ~ 20년미만	19.4	60.8	17.3	2.5
	20 ~ 30년미만	16.0	48.1	24.5	11.4
	30 ~ 40년미만	18.1	57.1	16.5	8.4
	40 ~ 50년미만	22.1	57.5	14.6	5.8
	50년이상	20.5	51.0	21.5	7.0
매출유형	B2B	20.9	52.3	21.1	5.8
	B2C	3.5	71.4	20.3	4.9
	B2G	36.8	42.2	21.1	0.0
상장	상장	22.4	49.4	21.5	6.7
	비상장	17.0	57.9	20.6	4.6

□ 희망하는 신규 진출 국가

- 향후 신규 해외진출 계획이 있는 중견기업이 진출하고자 하는 국가로는 중국이 30.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베트남(23.3%), 미국(16.5%), 인도(12.1%), 일본(8.1%)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2-56] 희망하는 신규 진출 국가 1+2+3순위(상위 14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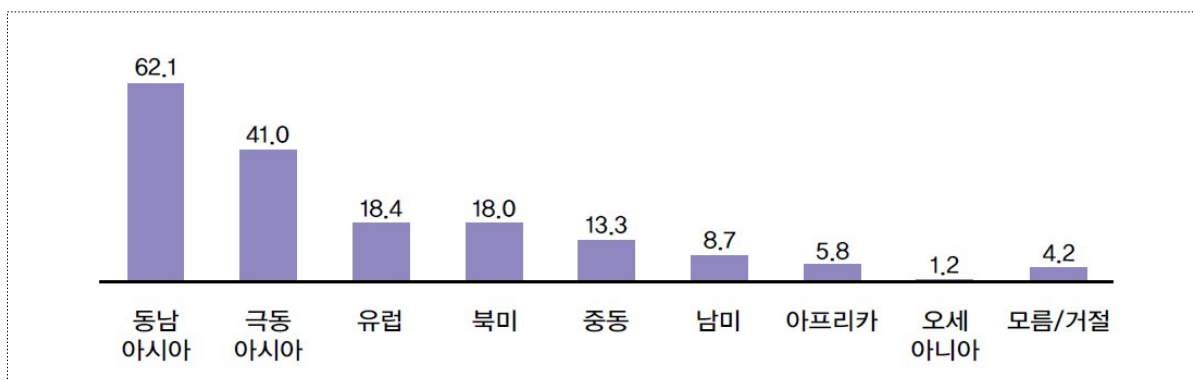
(단위: %, 신규 진출 희망 기업)



- 향후 신규 해외진출 계획이 있는 중견기업이 진출하고자 하는 대륙으로는 동남아시아가 62.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극동아시아(41.0%), 유럽(18.4%), 북미(18.0%), 중동(13.3%)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2-57] 희망하는 신규 진출 대륙 1+2+3순위

(단위: %, 신규 진출 희망 기업)



[표 2-81] 희망하는 신규 진출 국가 1+2+3순위(상위 14개)

(단위 : %, 신규 진출 희망 기업 670개사)

구분		중국	베트남	미국	인도	일본	인도네시아	유럽연합
전체		30.3	23.3	16.5	12.1	8.1	7.9	5.3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27.3	25.3	16.8	11.6	7.6	7.7	5.2
	관계기업	50.4	9.4	14.3	14.9	11.6	8.9	5.8
업종	제조업	27.5	20.0	18.1	15.6	5.9	6.7	6.9
	비제조업	35.8	29.8	13.2	5.0	12.4	10.3	2.2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56.6	16.5	18.9	4.2	30.8	11.4	0.0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40.6	25.9	7.2	7.0	7.0	3.7	3.5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49.4	17.4	7.1	10.4	12.8	10.1	4.2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27.8	24.6	18.7	11.0	6.0	12.2	7.4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14.9	26.4	14.9	8.9	3.0	3.0	8.9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18.1	24.1	27.4	12.2	6.1	9.1	6.0
	5천억원 ~ 1조원미만	31.5	25.5	25.5	37.3	3.5	3.5	3.5
	1조원이상	0.0	20.8	8.2	12.5	0.0	0.0	0.0
수출여부	수출있음	27.8	20.9	15.8	15.0	6.2	7.5	6.2
	수출없음	40.2	32.9	19.2	0.0	16.1	9.3	1.6
종사자수	50명미만	35.4	29.7	13.1	0.0	13.9	9.9	2.4
	50 ~ 100명미만	56.3	10.8	0.0	10.2	10.3	11.1	0.0
	100 ~ 200명미만	33.0	24.1	13.0	6.4	12.4	11.9	7.0
	200 ~ 300명미만	26.3	20.6	7.4	9.6	6.1	10.9	5.3
	300 ~ 500명미만	26.7	18.6	23.0	24.4	4.6	4.4	12.2
	500 ~ 1,000명미만	25.6	29.0	29.4	14.6	7.9	4.7	3.9
	1,000명이상	19.1	24.3	16.6	16.5	0.0	3.2	0.0
업력	0 ~ 7년미만	36.5	20.7	20.1	18.9	20.5	11.0	0.0
	7 ~ 20년미만	38.9	28.1	11.9	8.7	3.0	10.7	4.9
	20 ~ 30년미만	31.5	9.6	21.4	11.3	14.3	6.3	2.3
	30 ~ 40년미만	30.3	19.4	11.1	18.4	14.9	7.8	5.6
	40 ~ 50년미만	15.3	29.2	16.2	12.5	0.0	3.5	6.3
	50년이상	25.1	23.7	26.6	8.9	9.8	6.9	11.1
매출유형	B2B	27.2	23.6	18.1	13.1	8.2	7.9	6.0
	B2C	61.4	25.4	5.2	5.3	9.2	8.9	0.0
	B2G	21.1	0.0	0.0	0.0	0.0	0.0	0.0
상장	상장	26.5	20.7	20.2	15.3	5.6	3.1	4.9
	비상장	33.6	25.6	13.1	9.1	10.4	12.1	5.7

[표 2-82] 희망하는 신규 진출 국가 1+2+3순위(상위 14개)(계속)

(단위 : %, 신규 진출 희망 기업 670개사)

구분		러시아	독일	말레이시아	필리핀	미얀마	이란	태국
전체		4.2	4.0	3.8	3.3	3.2	3.1	2.8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4.4	3.0	3.9	3.3	3.7	3.6	2.8
	관계기업	2.8	10.7	3.1	2.8	0.0	0.0	3.1
업종	제조업	3.2	5.9	3.9	2.4	1.6	3.2	3.6
	비제조업	6.3	0.0	3.7	5.0	6.3	3.0	1.3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0.0	12.6	5.1	0.0	0.0	16.5	0.0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14.9	4.0	11.0	11.4	7.5	7.9	3.5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7.1	5.9	0.0	7.4	4.4	0.0	0.0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4.6	4.8	1.6	1.6	1.5	1.6	4.6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0.0	0.0	2.8	0.0	3.0	0.0	3.0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3.1	3.1	3.1	6.0	9.1	3.1	0.0
	5천억원 ~ 1조원미만	0.0	0.0	3.5	0.0	0.0	0.0	0.0
	1조원이상	0.0	0.0	12.5	0.0	0.0	0.0	12.5
수출여부	수출있음	4.2	4.0	2.8	3.4	2.0	2.6	3.0
	수출없음	4.3	3.9	7.9	2.7	8.0	5.0	2.2
종사자수	50명미만	9.0	4.9	3.0	3.3	10.3	14.2	3.2
	50 ~ 100명미만	0.0	5.8	5.3	0.0	0.0	0.0	0.0
	100 ~ 200명미만	6.9	4.3	9.5	4.6	1.8	0.0	2.1
	200 ~ 300명미만	6.6	3.2	2.1	2.4	2.2	3.1	0.0
	300 ~ 500명미만	2.6	4.5	1.8	5.5	2.3	1.8	5.1
	500 ~ 1,000명미만	1.7	4.2	0.0	3.4	4.0	2.4	2.3
	1,000명이상	0.0	0.0	6.8	0.0	0.0	0.0	6.8
업력	0 ~ 7년미만	14.5	8.0	0.0	0.0	10.2	12.1	0.0
	7 ~ 20년미만	2.6	2.5	6.2	7.8	1.3	3.8	2.8
	20 ~ 30년미만	13.2	3.3	0.0	2.3	3.8	0.0	2.8
	30 ~ 40년미만	0.0	11.6	0.0	0.0	0.0	3.1	0.0
	40 ~ 50년미만	1.8	1.8	7.7	0.0	4.1	2.4	5.8
	50년이상	0.0	0.0	3.2	3.6	5.1	0.0	3.6
매출유형	B2B	3.8	4.5	3.4	2.1	2.9	3.0	3.2
	B2C	8.9	0.0	8.9	14.4	3.5	4.9	0.0
	B2G	0.0	0.0	0.0	0.0	15.7	0.0	0.0
상장	상장	2.0	3.7	3.7	0.7	1.6	1.7	2.3
	비상장	6.2	4.2	3.9	5.6	4.6	4.4	3.3

[표 2-83] 희망하는 신규 진출 대륙 1+2+3순위

(단위 : %, 신규 진출 희망 기업 670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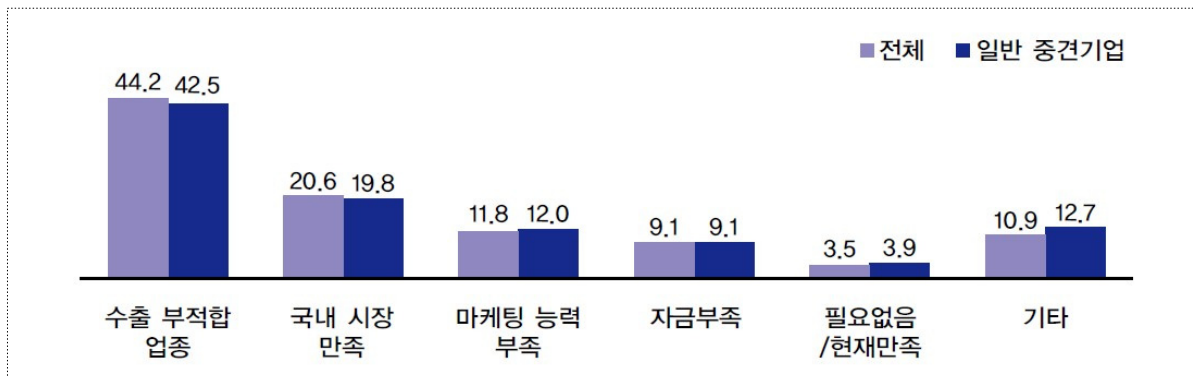
구분		동남아 시아	극동아 시아	유럽	북미	중동	남미	아프리카	오세아 니아	모름/거 절
전체		62.1	41.0	18.4	18.0	13.3	8.7	5.8	1.2	4.2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64.5	38.0	16.7	18.1	13.9	8.7	6.6	1.4	4.8
	관계기업	45.3	62.0	30.6	17.4	8.9	9.3	0.0	0.0	0.0
업종	제조업	58.8	35.5	22.8	19.9	13.7	7.4	7.4	0.7	3.6
	비제조업	68.7	52.2	9.8	14.2	12.4	11.5	2.6	2.2	5.3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42.3	87.4	16.4	18.9	21.6	0.0	0.0	0.0	0.0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73.5	51.5	25.9	10.7	15.4	3.7	4.0	0.0	4.0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49.7	62.1	23.2	7.1	10.6	11.6	0.0	0.0	0.0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63.0	35.4	19.9	20.3	15.5	10.7	10.9	3.0	4.4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50.0	23.6	11.9	14.9	8.9	20.0	6.0	0.0	8.9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75.7	24.2	15.2	33.4	18.0	0.0	9.2	3.0	0.0
	5천억원 ~ 1조원미만	69.7	40.8	10.5	25.5	0.0	10.5	3.5	0.0	5.7
	1조원이상	87.5	8.2	25.1	8.2	12.5	0.0	0.0	0.0	12.5
수출여부	수출있음	60.0	37.3	20.0	17.7	12.9	9.9	7.2	1.5	3.5
	수출없음	70.6	56.3	12.1	19.2	14.9	4.2	0.0	0.0	6.8
종사자수	50명미만	65.1	49.3	21.5	13.1	33.0	3.1	0.0	0.0	6.6
	50 ~ 100명미만	42.6	72.0	11.0	0.0	22.4	11.1	6.1	0.0	0.0
	100 ~ 200명미만	67.3	47.8	18.2	15.2	13.8	16.4	4.2	2.3	2.3
	200 ~ 300명미만	54.6	35.5	17.6	7.4	5.3	15.5	15.4	0.0	3.0
	300 ~ 500명미만	62.1	31.2	23.6	23.0	8.7	0.0	6.9	2.6	2.4
	500 ~ 1,000명미만	60.4	38.5	12.0	35.2	8.9	10.4	1.7	1.7	7.9
	1,000명이상	78.3	23.6	24.8	16.6	6.8	3.2	7.9	0.0	5.3
업력	0 ~ 7년미만	60.8	57.0	26.8	20.1	16.4	0.0	5.7	0.0	0.0
	7 ~ 20년미만	68.3	44.8	13.1	13.2	10.8	7.2	2.9	2.8	4.7
	20 ~ 30년미만	43.7	45.9	20.9	23.6	5.6	11.2	3.3	0.0	6.2
	30 ~ 40년미만	50.8	45.2	25.7	11.1	11.9	14.1	5.2	0.0	3.0
	40 ~ 50년미만	72.8	17.7	14.3	17.9	22.0	12.8	8.6	1.7	7.4
	50년이상	65.1	45.0	21.1	30.2	14.5	3.4	12.1	0.0	0.0
매출유형	B2B	60.8	37.9	19.4	19.7	14.0	8.9	6.1	1.4	3.7
	B2C	75.3	75.0	8.9	5.2	4.9	9.3	3.5	0.0	4.5
	B2G	57.8	21.1	21.1	0.0	21.1	0.0	0.0	0.0	21.1
상장	상장	52.8	35.7	17.4	21.2	13.2	10.9	7.6	0.7	5.0
	비상장	70.5	45.8	19.4	15.1	13.3	6.8	4.1	1.7	3.4

□ 신규 해외진출 미고려 이유

- 신규 해외진출을 고려하지 않는 중견기업은 주요 사유로 수출 부적합 업종(44.2%)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국내 시장 만족(20.6%), 마케팅 능력 부족(11.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은 수출 부적합 업종(42.5%)이 가장 높았으며, 국내 시장 만족(19.8%), 마케팅 능력 부족(12.0%) 등의 순임

[그림 2-58] 신규 해외진출 미고려 이유

(단위: %, 해외진출 미고려 기업)



특성별 분석

-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의 경우 국내 시장 만족(24.9%)을 가장 큰 신규 진출 미고려 사유로 응답하였으며, 비제조업의 경우는 수출 부적합 업종(59.6%)을 가장 큰 사유로 응답함
- 제조업은 비제조업에 비해 마케팅 능력 부족(17.7%), 자금부족(17.1%) 등 다른 요인들을 택한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수출기업은 마케팅 능력부족(21.7%)을 가장 큰 이유로 응답하였으며, 내수기업은 수출 부적합 업종(58.2%)을 가장 높게 응답함(기타 제외)
- 내수기업은 향후에도 수출 부적합 업종으로 인해 해외진출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대체적으로 비제조업, 내수기업, 비상장 기업의 경우 다른 기업군에 비해 수출 부적합 업종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표 2-84] 신규 해외진출 미고려 이유

(단위 : %, 해외진출 미고려 기업 2,888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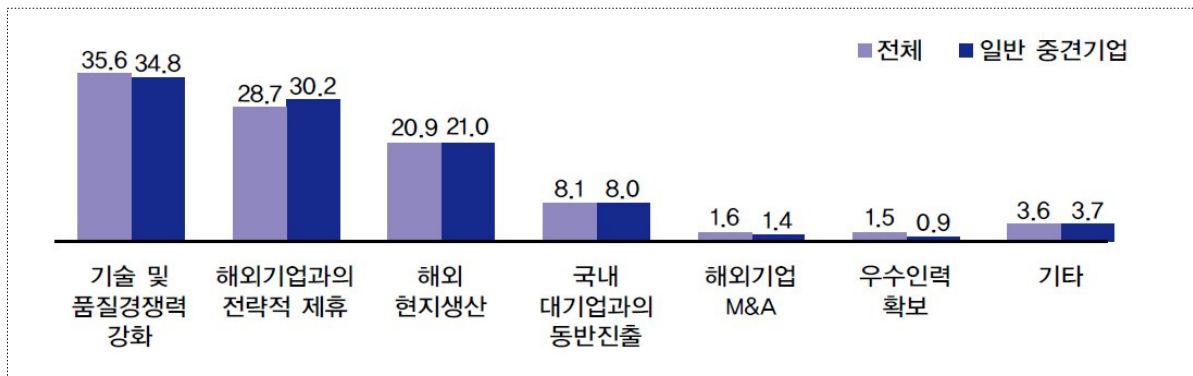
구분		수출 부적합 업종	국내 시장 만족	마케팅 능력부족	자금부족	필요없음 /현재만족	기타
전체		44.2	20.6	11.8	9.1	3.5	10.9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42.5	19.8	12.0	9.1	3.9	12.7
	관계기업	50.6	24.0	11.1	8.7	2.1	3.5
업종	제조업	16.9	24.9	17.7	17.1	6.9	16.5
	비제조업	59.6	18.2	8.5	4.5	1.6	7.6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59.2	19.2	9.0	7.6	1.7	3.3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54.5	18.8	10.1	4.9	1.3	10.5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34.6	29.2	15.1	11.4	2.0	7.7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31.9	20.6	14.7	12.0	7.5	13.3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26.7	21.1	14.7	13.0	7.4	17.1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31.8	17.8	14.5	16.7	4.8	14.3
	5천억원 ~ 1조원미만	39.3	17.1	6.7	7.7	9.4	19.8
	1조원이상	30.5	17.9	7.7	7.7	0.0	36.1
수출여부	수출있음	6.2	17.5	21.7	19.5	10.3	24.7
	수출없음	58.2	21.8	8.1	5.2	1.0	5.7
종사자수	50명미만	57.9	19.5	8.7	7.3	1.6	5.0
	50 ~ 100명미만	43.9	24.6	11.9	4.9	2.0	12.7
	100 ~ 200명미만	34.5	23.6	15.8	10.4	3.2	12.4
	200 ~ 300명미만	30.4	23.0	16.1	15.8	5.6	9.1
	300 ~ 500명미만	34.0	13.2	14.9	14.8	6.9	16.2
	500 ~ 1,000명미만	28.0	19.3	14.0	11.8	8.6	18.3
	1,000명이상	36.8	15.4	2.6	3.9	8.2	33.1
업력	0 ~ 7년미만	49.6	21.4	10.3	6.4	1.0	11.3
	7 ~ 20년미만	51.9	21.5	8.8	8.4	2.5	6.9
	20 ~ 30년미만	40.3	23.2	11.5	7.6	2.8	14.6
	30 ~ 40년미만	34.1	21.8	17.3	9.2	7.4	10.2
	40 ~ 50년미만	32.1	16.9	15.8	15.9	5.4	13.9
	50년이상	31.8	9.1	19.2	12.0	7.3	20.6
매출유형	B2B	41.1	19.5	12.7	10.2	3.9	12.7
	B2C	55.7	24.5	7.8	5.6	2.6	3.8
	B2G	48.7	25.6	14.3	2.3	0.0	9.1
상장	상장	27.5	13.2	18.1	13.6	9.3	18.4
	비상장	48.0	22.3	10.3	8.0	2.2	9.1

□ 해외 수출(진출)시 전략

- 신규 진출 계획이 있는 중견기업은 해외수출(진출)시 전략으로 기술 및 품질경쟁력 강화(35.6%)를 가장 우선으로 하며, 그 다음 해외기업과의 전략적 제휴(28.7%), 해외 현지생산(20.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의 해외수출(진출)시 전략은 기술 및 품질경쟁력 강화(34.8%), 해외기업과의 전략적 제휴(30.2%), 해외 현지생산(21.0%), 국내 대기업과의 동반 진출(8.0%) 등의 순임

[그림 2-59] 해외 수출(진출)시 전략 : 1순위

(단위: %, 신규 진출 희망 기업)



특성별 분석

- 업종별로는 제조업은 기술 및 품질 경쟁력 강화(35.3%), 해외 현지생산(27.3%) 등을 우선전략으로 고려하는 반면, 비제조업은 해외기업과의 전략적 제휴(40.6%), 기술 및 품질 경쟁력 강화(36.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대체적으로 매출규모가 클수록 타 기업과의 협력 진출(해외기업과 전략적 제휴, 국내 대기업과 동반진출)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음
- 주 거래처가 기업인 B2B기업은 기술 및 품질 경쟁력 강화(33.4%), 해외기업과의 전략적 제휴(27.7%), 해외 현지생산(22.3%) 응답율이 비교적 고르게 나타난 반면, B2C기업과 B2G기업은 절반이상이 기술 및 품질경쟁력 강화를 선택하여 다른 양상을 보임

[표 2-85] 해외 수출(진출)시 전략 : 1순위

(단위 : %, 신규 진출 희망 기업 670개사)

구분		기술 및 품질경쟁력 강화	해외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해외 현지생산
전체		35.6	28.7	20.9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34.8	30.2	21.0
	관계기업	40.8	18.7	20.4
업종	제조업	35.3	22.8	27.3
	비제조업	36.2	40.6	8.3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71.3	11.4	9.3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40.3	48.5	11.2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43.3	23.9	11.9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33.7	24.5	26.6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35.3	26.2	29.6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15.2	33.2	21.3
	5천억원 ~ 1조원미만	29.0	32.5	21.0
	1조원이상	12.5	41.6	25.1
수출여부	수출있음	34.1	26.6	23.0
	수출없음	41.8	37.4	12.4
종사자수	50명미만	43.2	31.0	9.0
	50 ~ 100명미만	44.6	43.4	11.9
	100 ~ 200명미만	43.0	30.9	8.6
	200 ~ 300명미만	29.3	14.0	40.9
	300 ~ 500명미만	34.6	20.1	33.7
	500 ~ 1,000명미만	32.2	36.9	15.4
	1,000명이상	21.7	32.1	25.1
업력	0 ~ 7년미만	37.5	15.4	30.8
	7 ~ 20년미만	44.1	27.0	14.9
	20 ~ 30년미만	34.6	21.6	27.4
	30 ~ 40년미만	17.8	40.8	15.9
	40 ~ 50년미만	27.2	30.7	30.6
	50년이상	47.2	32.4	14.3
매출유형	B2B	33.4	27.7	22.3
	B2C	50.7	39.9	9.4
	B2G	63.2	21.1	15.7
상장	상장	27.9	31.2	20.8
	비상장	42.5	26.5	21.1

[표 2-86] 해외 수출(진출)시 전략 : 1순위(계속)

(단위 : %, 신규 진출 희망 기업 717개사)

구분		국내 대기업과의 동반 진출	해외기업 M&A	우수인력 확보	기타
전체		8.1	1.6	1.5	3.6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8.0	1.4	0.9	3.7
	관계기업	8.6	3.0	5.6	2.9
업종	제조업	8.3	1.8	1.5	3.0
	비제조업	7.6	1.2	1.3	4.9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3.8	0.0	0.0	4.2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0.0	0.0	0.0	0.0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7.4	3.2	5.9	4.4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9.0	3.2	1.5	1.6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3.0	0.0	0.0	6.0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21.3	0.0	3.1	6.0
	5천억원 ~ 1조원미만	10.5	3.5	0.0	3.5
	1조원이상	12.5	0.0	0.0	8.2
수출여부	수출있음	9.6	2.0	1.3	3.4
	수출없음	1.7	0.0	2.2	4.5
종사자수	50명미만	6.4	0.0	3.2	7.2
	50 ~ 100명미만	0.0	0.0	0.0	0.0
	100 ~ 200명미만	4.6	4.6	3.9	4.4
	200 ~ 300명미만	15.8	0.0	0.0	0.0
	300 ~ 500명미만	8.0	0.0	1.8	1.8
	500 ~ 1,000명미만	9.0	2.4	0.0	4.1
	1,000명이상	10.1	3.2	0.0	7.9
업력	0 ~ 7년미만	11.8	0.0	0.0	4.5
	7 ~ 20년미만	6.6	1.2	3.5	2.7
	20 ~ 30년미만	16.3	0.0	0.0	0.0
	30 ~ 40년미만	9.2	0.0	2.4	13.9
	40 ~ 50년미만	5.6	4.1	0.0	1.7
	50년이상	2.5	3.6	0.0	0.0
매출유형	B2B	9.1	1.8	1.6	4.1
	B2C	0.0	0.0	0.0	0.0
	B2G	0.0	0.0	0.0	0.0
상장	상장	10.4	3.4	1.4	4.9
	비상장	6.0	0.0	1.5	2.4

[표 2-87] 해외 수출(진출)시 전략 : 1+2순위

(단위 : %, 신규 진출 희망 기업 670개사, 중복응답)

구분		해외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기술 및 품질경쟁력 강화	해외 현지생산
전체		54.5	52.5	29.8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55.5	52.2	31.1
	관계기업	47.5	55.0	20.4
업종	제조업	50.4	52.2	39.7
	비제조업	62.6	53.3	9.8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61.2	71.3	9.3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66.9	55.3	11.2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65.5	62.8	11.9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52.3	49.3	33.0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43.8	58.7	41.5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48.4	36.4	45.7
	5천억원 ~ 1조원미만	50.0	43.0	51.3
	1조원이상	54.1	41.6	25.1
수출여부	수출있음	53.2	52.2	33.1
	수출없음	59.9	54.1	16.1
종사자수	50명미만	70.2	52.2	9.0
	50 ~ 100명미만	48.6	55.3	11.9
	100 ~ 200명미만	52.5	61.4	13.7
	200 ~ 300명미만	66.3	51.9	46.2
	300 ~ 500명미만	45.4	51.1	48.3
	500 ~ 1,000명미만	50.5	50.0	32.0
	1,000명이상	48.5	42.5	39.4
업력	0 ~ 7년미만	37.1	52.0	36.2
	7 ~ 20년미만	61.0	55.3	22.5
	20 ~ 30년미만	58.3	57.0	33.0
	30 ~ 40년미만	58.1	33.1	27.5
	40 ~ 50년미만	52.8	47.5	47.6
	50년이상	43.7	70.9	16.8
매출유형	B2B	53.9	50.7	31.8
	B2C	63.7	67.5	14.1
	B2G	36.8	63.2	15.7
상장	상장	48.2	45.0	35.3
	비상장	60.2	59.3	24.8

[표 2-88] 해외 수출(진출)시 전략 : 1+2순위

(단위 : %, 신규 진출 희망 기업 670개사, 중복응답)

구분		국내 대기업과의 동반 진출	우수인력 확보	해외기업 M&A	기타
전체		13.8	12.5	6.4	4.8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12.8	12.2	6.5	4.2
	관계기업	20.8	14.7	6.1	9.0
업종	제조업	14.5	11.3	5.6	3.5
	비제조업	12.5	14.9	8.1	7.3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3.8	11.4	11.4	4.2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7.2	7.7	11.0	3.5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22.2	9.2	3.2	7.6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13.7	18.0	6.4	3.0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8.9	11.7	6.0	6.0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24.2	18.1	3.1	6.0
	5천억원 ~ 1조원미만	17.5	0.0	9.2	3.5
	1조원이상	12.5	12.5	0.0	8.2
수출여부	수출있음	16.2	9.8	6.2	4.9
	수출없음	4.0	23.3	7.4	4.5
종사자수	50명미만	11.8	8.8	7.5	10.1
	50 ~ 100명미만	0.0	29.6	11.3	5.1
	100 ~ 200명미만	13.6	15.3	11.6	6.7
	200 ~ 300명미만	15.8	4.9	3.2	0.0
	300 ~ 500명미만	19.8	11.3	4.2	1.8
	500 ~ 1,000명미만	14.1	15.2	5.0	4.1
	1,000명이상	13.3	6.8	3.2	7.9
업력	0 ~ 7년미만	11.8	0.0	5.4	4.5
	7 ~ 20년미만	12.2	16.8	6.3	2.7
	20 ~ 30년미만	19.1	8.4	0.0	5.8
	30 ~ 40년미만	15.6	5.5	12.3	16.5
	40 ~ 50년미만	12.6	12.4	6.6	1.7
	50년이상	13.2	22.4	7.4	0.0
매출유형	B2B	15.1	10.4	6.3	5.4
	B2C	5.3	30.7	8.9	0.0
	B2G	0.0	21.1	0.0	0.0
상장	상장	16.5	14.1	11.0	4.9
	비상장	11.4	11.1	2.3	4.7

6절 수.위탁 거래 및 동반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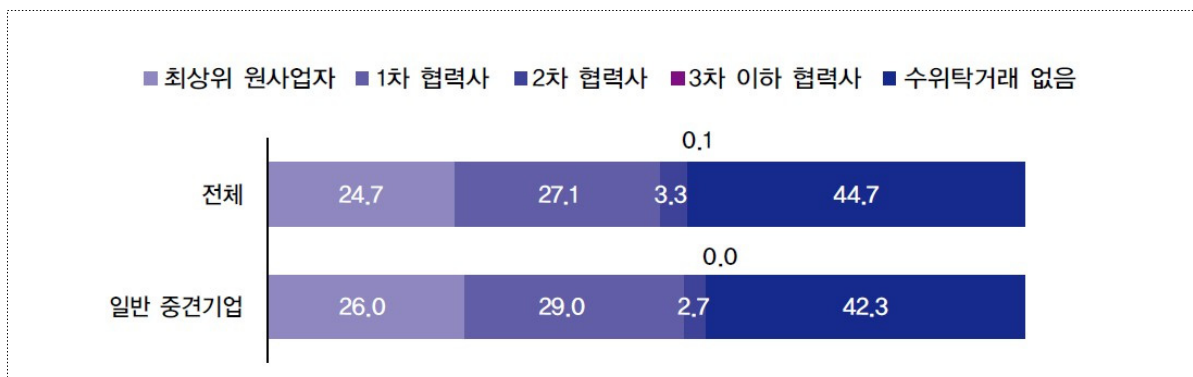
1. 수.위탁 거래 현황

□ 수.위탁 거래 단계

- 중견기업의 55.3%가 수.위탁거래를 하고 있으며, 일반 중견기업 역시 57.7%가 수.위탁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단계별로는 1차 협력사인 경우가 27.1%로 가장 많았고 최상위 원사업자인 경우가 24.7%, 2차 협력사인 경우가 3.3%, 3차 이하 협력사인 경우가 0.1% 순임

[그림 2-60] 수.위탁거래 단계

(단위: %)



특성별 분석

- 기업 유형별로는 수.위탁거래를 하고 있는 일반 중견기업이 57.7%, 관계기업이 45.0%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은 29.0%가 1차 협력사, 26.0%가 최상위 원사업자, 2.7%가 2차 협력사 이며 관계기업은 일반 중견기업에 비해 2차 협력사 비중은 높고 1차 협력사, 최상위 원사업자 비중은 낮음
- 수출기업의 72.4%가 수.위탁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내수기업은 45.2%만이 수.위탁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대체적으로 매출규모가 크고 종사자 수가 많은 기업일수록 수위탁거래 비중이 높음

[표 2-89] 수.위탁거래 단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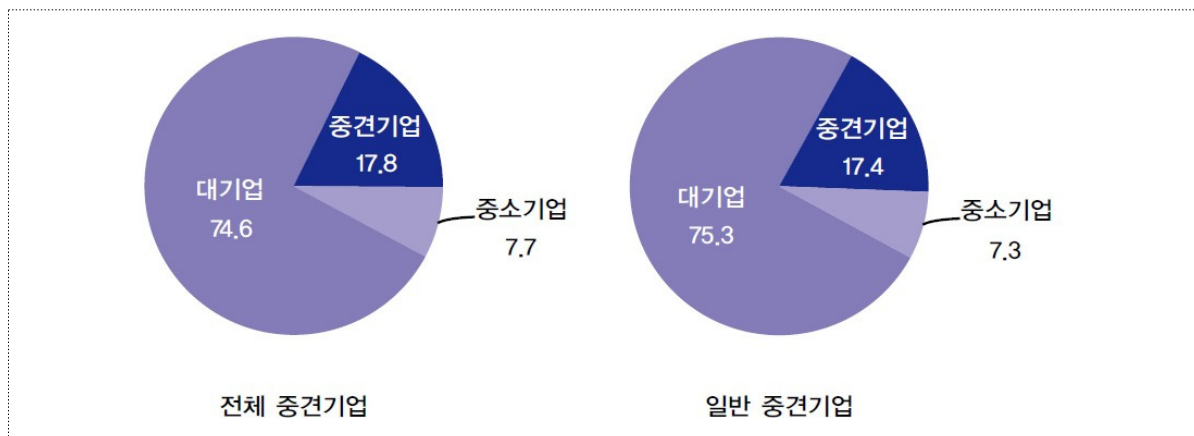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하도급 관계없음	최상위 원사업자	1차 협력사	2차 협력사	3차 이하 협력사
전체		(3,558)	44.7	24.7	27.1	3.3	0.1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2,885)	42.3	26.0	29.0	2.7	0.0
	관계기업	(673)	55.0	19.4	19.0	6.0	0.7
업종	제조업	(1,488)	28.4	25.7	40.6	5.0	0.3
	비제조업	(2,070)	56.4	24.0	17.4	2.1	0.0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625)	65.5	17.8	14.6	2.1	0.0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934)	53.0	15.3	27.3	4.1	0.3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474)	41.1	26.7	27.0	4.7	0.5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636)	35.2	31.3	30.3	3.3	0.0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367)	27.6	28.6	39.8	4.0	0.0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253)	27.2	33.2	37.0	2.6	0.0
	5천억원 ~ 1조원미만	(179)	38.3	34.4	26.3	1.1	0.0
	1조원이상	(90)	31.7	55.5	12.7	0.0	0.0
수출여부	수출있음	(1,320)	27.6	28.5	39.1	4.5	0.4
	수출없음	(2,238)	54.8	22.5	20.1	2.7	0.0
종사자수	50명미만	(1,197)	65.3	17.8	14.0	2.5	0.4
	50 ~ 100명미만	(508)	50.1	16.9	29.7	3.3	0.0
	100 ~ 200명미만	(610)	37.6	26.3	31.1	5.0	0.0
	200 ~ 300명미만	(363)	33.5	27.3	35.2	4.0	0.0
	300 ~ 500명미만	(360)	25.9	39.8	33.7	0.6	0.0
	500 ~ 1,000명미만	(347)	21.9	32.4	40.7	4.9	0.0
	1,000명이상	(173)	19.1	38.2	38.3	4.5	0.0
업력	0 ~ 7년미만	(541)	47.8	22.1	27.5	2.7	0.0
	7 ~ 20년미만	(1,398)	51.0	20.5	25.6	2.7	0.2
	20 ~ 30년미만	(633)	42.4	21.5	31.2	4.5	0.4
	30 ~ 40년미만	(414)	35.5	26.3	35.4	2.7	0.0
	40 ~ 50년미만	(328)	37.2	35.0	23.5	4.3	0.0
	50년이상	(244)	37.8	41.0	17.2	4.0	0.0
매출유형	B2B	(2,832)	42.8	20.5	32.3	4.2	0.2
	B2C	(622)	54.4	40.3	5.2	0.0	0.0
	B2G	(104)	36.9	47.5	15.6	0.0	0.0
상장	상장	(760)	30.7	33.4	32.5	3.5	0.0
	비상장	(2,798)	49.1	22.0	25.4	3.3	0.2

□ 위탁기업⁷⁾과의 거래 현황

- 수탁⁸⁾ 중견기업의 거래대상별 매출 비중을 보면 74.6%가 대기업과 거래를 하고 있으며, 17.8%는 중견기업, 7.7%는 중소기업과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은 전체 1,442억 17백만원 중 75.3%(평균:1,086억 67백만원)가 대기업과 거래를 하고 있으며, 17.4%(평균: 250억 72백만원)는 중견기업, 7.3%(평균: 104억 76백만원)는 중소기업과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2-61] 위탁기업과의 거래 비중

(단위: %, 하도급 관계 기업)



특성별 분석

- 제조업의 경우는 전체 위탁기업과의 매출액이 1,577억 15백만원으로 그 중 대기업이 78.2%(평균:1,232억 71백만원), 중견기업이 15.5%(평균:244억 97백만원), 중소기업이 6.3%(평균:99억 47백만원)으로 나타남
- 비제조업의 경우, 대기업(평균:447억 40백만원) 60.9%, 중견기업(평균:192억 33백만원) 26.2%, 중소기업(평균:95억 21백만원) 13.0%임
- 대체적으로 매출규모가 클수록, 종사자수가 많을수록 위탁기업과의 거래금액이 큰 것으로 조사됨

7) 위탁기업(모기업) : 용역 등을 의뢰하는 기업

8) 수탁기업(협력사) : 위탁기업의 주문에 따라 부품 생산, 완제품 조립 또는 제조, 원재료 공급 등을 이행하는 기업

[표 2-90] 위탁기업과의 거래 현황

(단위 : %, 백만원, 하도급 관계 기업 1,088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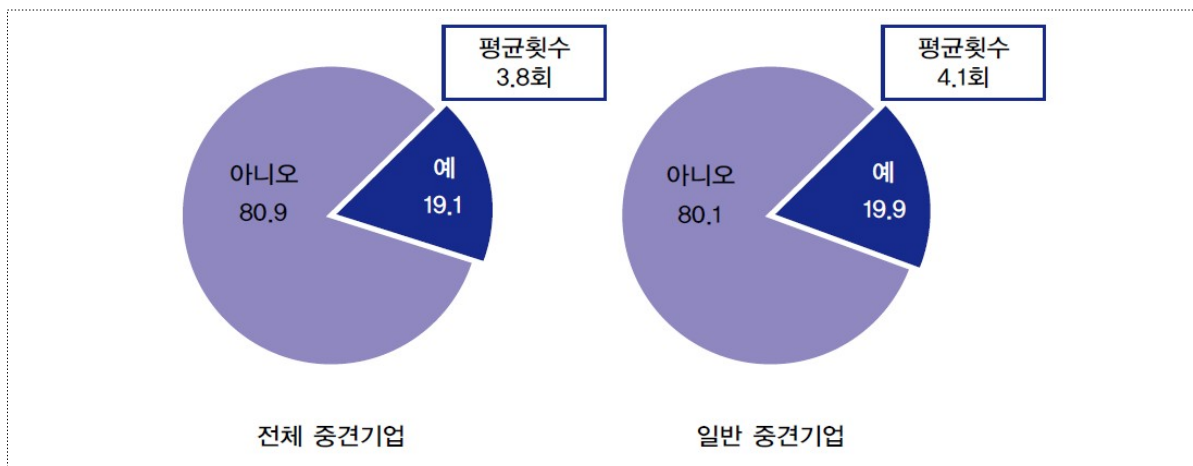
구분		전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평균 금액	비율	평균 금액	비율	평균 금액	비율	평균 금액	비율
전체		127,281.0	100	94,892.8	74.6	22,595.2	17.8	9,793.0	7.7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144,217.4	100	108,667.0	75.3	25,071.9	17.4	10,478.5	7.3
	관계기업	38,777.2	100	22,914.0	59.1	9,652.9	24.9	6,210.3	16.0
업종	제조업	157,715.4	100	123,271.1	78.2	24,497.4	15.5	9,947.0	6.3
	비제조업	73,493.7	100	44,739.5	60.9	19,233.4	26.2	9,520.8	13.0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10,474.4	100	3,616.2	34.5	5,618.0	53.6	1,240.3	11.8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19,102.3	100	11,141.4	58.3	5,788.1	30.3	2,172.8	11.4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66,072.3	100	44,123.0	66.8	13,230.8	20.0	8,718.5	13.2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113,197.8	100	90,059.6	79.6	15,137.7	13.4	8,000.5	7.1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193,161.3	100	137,413.6	71.1	29,662.5	15.4	26,085.3	13.5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290,324.8	100	246,435.5	84.9	39,646.4	13.7	4,242.8	1.5
	5천억원 ~ 1조원미만	566,993.0	100	370,999.5	65.4	158,124.3	27.9	37,869.2	6.7
	1조원이상	1,045,345.6	100	896,857.3	85.8	103,941.8	9.9	44,546.5	4.3
수출여부	수출있음	182,971.4	100	141,996.1	77.6	29,121.1	15.9	11,854.2	6.5
	수출없음	64,597.1	100	41,874.4	64.8	15,249.8	23.6	7,472.8	11.6
종사자수	50명미만	24,226.3	100	13,644.5	56.3	6,037.9	24.9	4,543.8	18.8
	50 ~ 100명미만	49,644.5	100	37,663.4	75.9	6,717.7	13.5	5,263.4	10.6
	100 ~ 200명미만	76,743.1	100	52,401.8	68.3	15,131.8	19.7	9,209.5	12.0
	200 ~ 300명미만	127,437.8	100	94,050.3	73.8	21,972.8	17.2	11,414.7	9.0
	300 ~ 500명미만	198,989.6	100	150,057.5	75.4	33,702.1	16.9	15,230.0	7.7
	500 ~ 1,000명미만	248,217.9	100	188,848.3	76.1	46,829.6	18.9	12,540.0	5.1
	1,000명이상	380,622.7	100	300,700.9	79.0	61,155.5	16.1	18,766.4	4.9
업력	0 ~ 7년미만	133,149.2	100	81,005.0	60.8	40,578.3	30.5	11,566.0	8.7
	7 ~ 20년미만	86,967.3	100	64,958.1	74.7	15,728.4	18.1	6,280.7	7.2
	20 ~ 30년미만	124,676.5	100	95,465.6	76.6	20,386.7	16.4	8,824.2	7.1
	30 ~ 40년미만	168,561.3	100	141,915.9	84.2	17,227.0	10.2	9,418.4	5.6
	40 ~ 50년미만	213,826.1	100	155,920.8	72.9	37,831.9	17.7	20,073.3	9.4
	50년이상	147,252.6	100	91,228.5	62.0	36,112.5	24.5	19,911.6	13.5
매출유형	B2B	132,180.4	100	98,585.9	74.6	23,484.6	17.8	10,109.9	7.6
	B2C	25,059.1	100	16,115.3	64.3	4,637.9	18.5	4,305.9	17.2
	B2G	9,303.3	100	9,123.2	98.1	79.4	0.9	100.7	1.1
상장	상장	214,343.5	100	167,544.3	78.2	32,972.9	15.4	13,826.3	6.5
	비상장	93,383.5	100	66,606.2	71.3	18,554.6	19.9	8,222.6	8.8

□ 납품단가 인하

- 수탁 중견기업의 19.1%는 납품단가 인하요구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험 횟수는 평균 3.8회, 평균 단가인하율은 3~5%미만(42.4%)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수탁거래를 하는 일반 중견기업의 19.9%가 납품단가 인하요구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험횟수는 평균 4.1회로 나타남

[그림 2-62] 납품단가 인하 요구 경험

(단위: %, 하도급 관계 기업)



특성별 분석

-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22.6%가 평균 3.5회의 납품단가 인하 요구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제조업의 13.0%가 평균 4.6회의 납품단가 인하 요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경험율은 제조업이 높으나 경험횟수는 비제조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제조업의 평균 단가인하율은 3~5% 미만(47.2%)이 가장 높고, 이어서 3% 미만(31.8%), 5~10% 미만(16.8%), 20~30% 미만(2.2%) 순인 반면, 비제조업의 평균 단가인하율이 모든 구간에서 비슷하여 비제조업이 제조업보다 평균 단가인하율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매출규모 1조원 이상 기업은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받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B2B기업은 19.6%가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받은 반면, B2G기업은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받은 경험이 없어 주 거래처별로도 상이한 차이가 있음

[표 2-91] 납품단가 인하 요구 경험 및 평균단가인하율

(단위 : %, 하도급 관계 기업 1,088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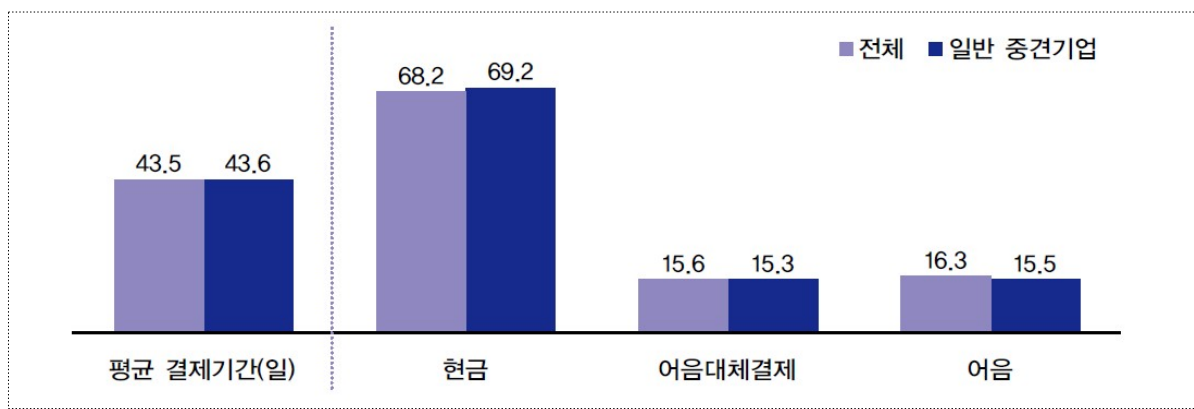
구분		경험 있음	횟수	경험 없음	평균 단가인하율				
					3% 미만	3 ~ 5% 미만	5 ~ 10% 미만	10 ~ 20% 미만	20~30% 미만
전체		19.1	3.8	80.9	30.2	42.4	18.4	7.4	1.6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19.9	4.1	80.1	24.3	44.4	21.0	8.4	1.8
	관계기업	14.7	1.7	85.3	71.8	28.2	0.0	0.0	0.0
업종	제조업	22.6	3.5	77.4	31.8	47.2	16.8	2.0	2.2
	비제조업	13.0	4.6	87.0	25.5	28.3	23.1	23.1	0.0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26.2	3.2	73.8	8.9	42.9	24.1	24.1	0.0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13.1	4.4	86.9	42.1	28.9	14.5	14.5	0.0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14.3	3.3	85.7	28.0	26.1	30.6	0.0	15.3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17.4	4.5	82.6	33.3	33.3	25.0	8.3	0.0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29.1	2.9	70.9	31.4	56.0	12.6	0.0	0.0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17.4	3.7	82.6	49.8	37.6	12.5	0.0	0.0
	5천억원 ~ 1조원미만	37.1	4.8	62.9	11.1	77.8	11.1	0.0	0.0
	1조원이상	0.0	-	100.0	-	-	-	-	-
수출여부	수출있음	25.7	3.3	74.3	32.7	45.5	17.5	2.1	2.2
	수출없음	11.5	5.0	88.5	23.6	34.5	21.0	21.0	0.0
종사자수	50명미만	18.1	3.8	81.9	22.4	32.2	18.1	18.1	9.1
	50 ~ 100명미만	11.8	2.7	88.2	28.0	72.0	0.0	0.0	0.0
	100 ~ 200명미만	21.9	4.0	78.1	28.0	35.4	25.0	11.6	0.0
	200 ~ 300명미만	24.6	3.5	75.4	35.6	46.0	9.5	8.8	0.0
	300 ~ 500명미만	24.5	3.1	75.5	44.5	28.4	27.2	0.0	0.0
	500 ~ 1,000명미만	20.0	4.8	80.0	29.9	44.7	25.5	0.0	0.0
	1,000명이상	8.2	5.3	91.8	0.0	100.0	0.0	0.0	0.0
업력	0 ~ 7년미만	26.9	3.1	73.1	20.8	30.3	29.7	19.2	0.0
	7 ~ 20년미만	14.1	3.3	85.9	29.6	38.4	20.5	11.5	0.0
	20 ~ 30년미만	23.1	4.5	76.9	40.1	33.6	20.9	5.5	0.0
	30 ~ 40년미만	21.0	3.4	79.0	35.5	55.5	9.0	0.0	0.0
	40 ~ 50년미만	18.2	5.3	81.8	14.3	54.4	15.1	0.0	16.2
	50년이상	19.2	2.6	80.8	20.0	80.0	0.0	0.0	0.0
매출유형	B2B	19.6	3.8	80.4	29.0	43.1	18.8	7.5	1.6
	B2C	10.8	4.0	89.2	100.0	0.0	0.0	0.0	0.0
	B2G	0.0	-	100.0	-	-	-	-	-
상장	상장	27.3	3.7	72.7	24.8	48.1	27.1	0.0	0.0
	비상장	15.8	3.8	84.2	33.8	38.5	12.6	12.4	2.7

□ 수탁거래 결제기간/수단

- 중견기업이 위탁기업(모기업)으로부터 대금을 결제 받는 기간은 평균 43.5일이며, 결제수단비중은 현금(68.2%), 어음(16.3%), 어음대체결제(15.6%) 순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이 위탁기업(모기업)으로부터 대금을 결제 받는 기간은 평균 43.6일이며, 결제 수단 비중은 현금(69.2%), 어음(15.5%), 어음대체결제(15.3%) 순으로 나타남

[그림 2-63] 수탁거래 결제기간/수단

(단위: %, 하도급 관계기업)



특성별 분석

- 제조업의 경우 대금결제에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 44.5일, 결제수단은 현금(58.8%), 어음(21.5%), 어음대체결제(19.7%) 순으로 나타났으며, 비제조업은 대금결제에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 41.9일, 결제수단은 현금(84.1%), 어음대체결제(8.5%), 어음(7.4%) 순으로 나타남
- 비제조업은 제조업에 비해 현금으로 대금을 받는 비율이 월등히 높고 결제기간도 빠른 것으로 조사됨
- 매출규모별로는 5천억원~1조원 미만 기업에서는 어음이 34.5%로 타 기업군에 비해 높으며, 1조원 이상 기업에서는 어음대체결제가 42.6%로 타 기업군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매출규모가 커질수록 수탁거래금액 또한 증가하여 현금보다는 어음 및 어음대체결제 비중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임

[표 2-92] 수탁거래 결제기간/수단

(단위 : %, 하도급 관계기업 1,088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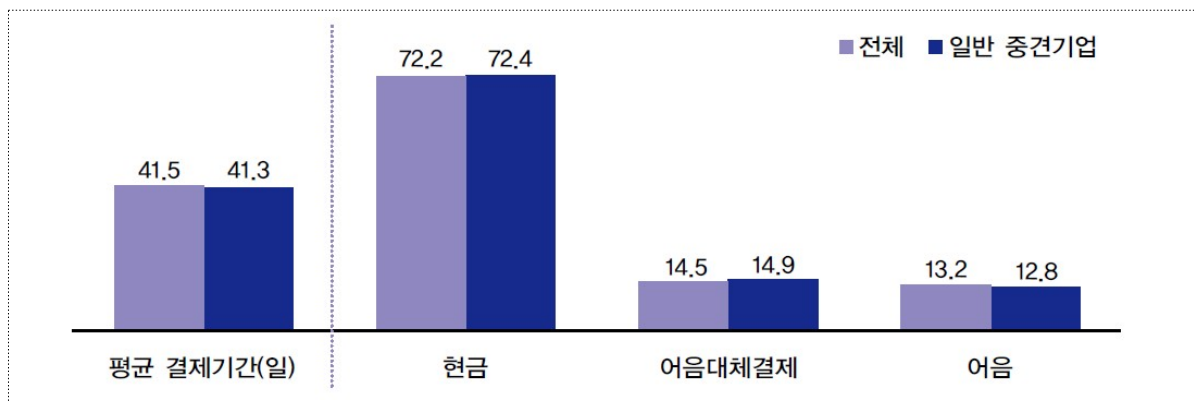
구분		평균 결제기간	결제수단별 비중		
			현금	어음대체결제	어음
전체		43.5	68.2	15.6	16.3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43.6	69.2	15.3	15.5
	관계기업	43.1	62.6	17.0	20.4
업종	제조업	44.5	58.8	19.7	21.5
	비제조업	41.9	84.1	8.5	7.4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38.2	86.2	3.6	10.2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44.5	76.9	11.1	11.9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45.3	70.2	13.7	16.1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45.0	57.6	21.8	20.6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41.0	66.7	18.3	15.0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40.9	61.2	19.6	19.3
	5천억원 ~ 1조원미만	44.7	42.0	23.5	34.5
	1조원이상	71.2	36.0	42.6	21.4
수출여부	수출있음	45.4	59.6	18.3	22.0
	수출없음	41.4	77.9	12.4	9.7
종사자수	50명미만	45.4	79.4	8.7	11.9
	50 ~ 100명미만	42.6	73.1	17.2	9.7
	100 ~ 200명미만	44.2	66.9	14.8	18.3
	200 ~ 300명미만	44.4	61.0	18.6	20.5
	300 ~ 500명미만	38.6	61.3	23.0	15.7
	500 ~ 1,000명미만	45.3	61.4	14.7	23.8
	1,000명이상	41.4	69.7	16.5	13.8
업력	0 ~ 7년미만	46.7	74.8	7.1	18.1
	7 ~ 20년미만	42.3	78.9	11.0	10.1
	20 ~ 30년미만	38.7	64.9	19.8	15.3
	30 ~ 40년미만	44.3	61.2	19.8	19.1
	40 ~ 50년미만	49.7	50.0	22.5	27.5
	50년이상	53.3	48.0	20.6	31.3
매출유형	B2B	43.5	67.2	16.2	16.7
	B2C	48.8	84.3	5.0	10.7
	B2G	34.2	99.7	0.0	0.3
상장	상장	44.3	57.6	18.8	23.6
	비상장	43.2	72.3	14.3	13.4

□ 위탁거래 결제기간/수단

- 중견기업이 수탁기업(협력사)에 대금을 결제하는 기간은 평균 41.5일이며, 결제 수단 비중은 위탁기업 결제와 동일하게 현금(72.2%)이 가장 높고, 이어서 어음대체결제(14.5%), 어음(13.2%) 순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이 수탁기업(협력사)에 대금을 결제하는 기간은 평균 41.3일이며, 결제 수단 비중은 현금(69.2%), 어음대체결제(14.9%), 어음(12.8%) 순으로 나타남

[그림 2-64] 위탁거래 결제기간/수단

(단위: %, 하도급 관계기업)



특성별 분석

- 제조업의 경우 수탁기업(협력사)에 대금을 결제하는 기간이 평균 43.5일, 결제수단은 현금(61.7%), 어음대체결제(20.4%), 어음(17.9%) 순으로 나타났으며, 비제조업은 대금을 결제하는 기간이 평균 39.1일, 결제수단은 현금(84.9%), 어음(7.7%), 어음대체결제(7.5%) 순으로 나타남
- 비제조업은 제조업에 비해 현금 결제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매출규모별로는 1조원 이상 기업은 어음결제 비중이 20.9%로 타 기업군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3천억원~5천억원 미만 기업은 어음대체결제 비중이 26.6%로 타 기업군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남
- 이는 매출규모가 커질수록 위탁거래금액 또한 증가하여 현금보다는 어음 및 어음대체결제 비중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임

[표 2-93] 위탁거래 결제기간/수단

(단위 : %, 하도급 관계기업 1,806개사)

구분		평균 결제기간	결제수단별 비중		
			현금	어음대체결제	어음
전체		41.5	72.2	14.5	13.2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41.3	72.4	14.9	12.8
	관계기업	42.4	71.3	12.5	16.2
업종	제조업	43.5	61.7	20.4	17.9
	비제조업	39.1	84.9	7.5	7.7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39.2	92.9	2.3	4.8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41.1	79.2	10.1	10.7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40.2	74.2	11.8	14.0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44.1	65.6	18.4	16.0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37.6	70.5	16.0	13.5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46.3	59.9	26.6	13.5
	5천억원 ~ 1조원미만	39.9	64.7	15.5	19.8
	1조원이상	44.0	55.3	23.8	20.9
수출여부	수출있음	44.9	62.8	20.8	16.4
	수출없음	38.1	81.7	8.2	10.1
종사자수	50명미만	38.6	88.7	3.1	8.2
	50 ~ 100명미만	41.4	70.8	17.9	11.3
	100 ~ 200명미만	42.7	73.3	10.2	16.5
	200 ~ 300명미만	42.4	69.1	18.5	12.4
	300 ~ 500명미만	41.0	65.3	22.8	11.9
	500 ~ 1,000명미만	42.8	62.5	19.0	18.5
	1,000명이상	43.9	60.5	23.5	16.0
업력	0 ~ 7년미만	46.4	83.4	5.3	11.4
	7 ~ 20년미만	37.9	80.8	8.9	10.2
	20 ~ 30년미만	40.7	66.3	20.4	13.4
	30 ~ 40년미만	44.2	71.3	14.3	14.4
	40 ~ 50년미만	43.0	58.8	22.8	18.4
	50년이상	45.6	60.8	21.7	17.5
매출유형	B2B	42.6	70.4	16.4	13.2
	B2C	39.0	77.9	7.2	14.9
	B2G	25.4	92.1	2.1	5.8
상장	상장	43.0	60.3	21.3	18.4
	비상장	40.8	77.6	11.5	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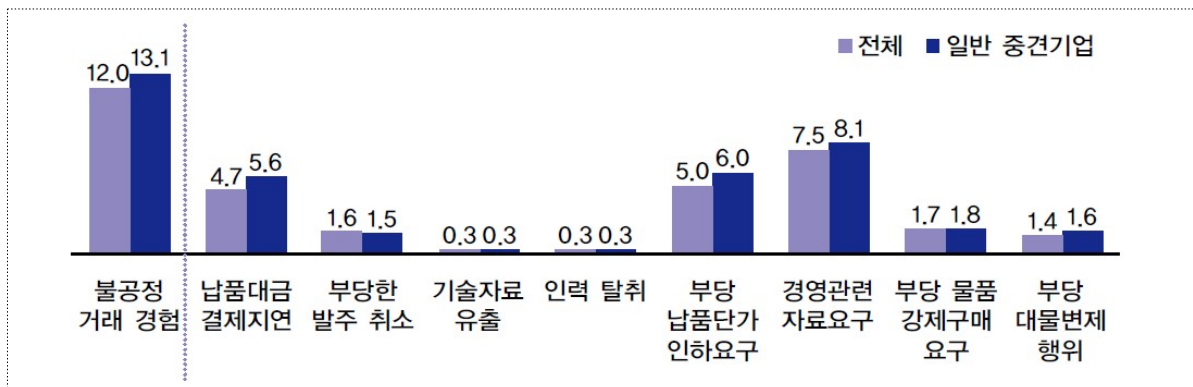
2.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 불공정거래

- 수탁 중견기업 중 12.0%는 불공정거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험유형은 경영관련 자료요구(7.5%), 부당 납품단가 인하요구(5.0%), 납품대금 결제지연(4.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의 13.1%가 불공정거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험유형은 경영관련 자료요구(8.1%), 부당 납품단가 인하 요구(6.0%), 납품대금 결제지연(5.6%)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2-65] 불공정거래 경험율

(단위: %, 하도급 관계기업)



특성별 분석

- 제조업의 10.1%가 주거래 위탁기업과의 거래에서 불공정 거래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반면, 비제조업은 15.1%가 불공정 거래를 경험함
 - 비제조업이 제조업에 비해 약 1.5배 정도 불공정 거래 경험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음
- 매출 1백억원 미만의 기업은 경영관련 자료를 요구받은 비중이 15.0%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력 0~7년 미만 기업도 경영관련 자료를 요구받은 비중이 11.3%로 높게 나타남
 - 매출액이 낮거나 업력이 짧은 중견기업은 경영관련 자료를 요구받는 형태의 불공정거래 경험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음

[표 2-94] 불공정거래 경험율

(단위 : %, 하도급 관계기업 1,088개사)

구분		불공정거래 경험율	불공정거래 유형별 경험율			
			납품대금 결제지연	부당한 발주취소	기술자료 유출	인력탈취
전체		12.0	4.7	1.6	0.3	0.3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13.1	5.6	1.5	0.3	0.3
	관계기업	5.9	0.0	1.6	0.0	0.0
업종	제조업	10.1	3.3	1.6	0.0	0.0
	비제조업	15.1	7.1	1.5	0.7	0.7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15.0	0.0	0.0	0.0	0.0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11.5	2.9	1.9	0.0	0.0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4.6	4.6	0.0	0.0	0.0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15.3	7.0	0.0	1.3	1.3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12.6	5.3	3.6	0.0	0.0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13.0	6.4	0.0	0.0	0.0
	5천억원 ~ 1조원미만	15.0	10.9	10.9	0.0	0.0
	1조원이상	0.0	0.0	0.0	0.0	0.0
수출여부	수출있음	13.2	6.3	1.9	0.0	0.0
	수출없음	10.5	2.9	1.1	0.6	0.6
종사자수	50명미만	6.5	0.0	0.0	0.0	0.0
	50 ~ 100명미만	8.6	3.5	0.0	0.0	0.0
	100 ~ 200명미만	15.4	5.6	1.3	1.3	1.3
	200 ~ 300명미만	12.6	4.1	0.0	0.0	0.0
	300 ~ 500명미만	17.5	8.2	2.4	0.0	0.0
	500 ~ 1,000명미만	13.4	7.5	3.9	0.0	0.0
	1,000명이상	10.3	6.6	6.5	0.0	0.0
업력	0 ~ 7년미만	11.3	5.2	0.0	0.0	0.0
	7 ~ 20년미만	12.2	4.3	2.1	0.0	0.0
	20 ~ 30년미만	12.4	2.0	0.0	1.2	1.2
	30 ~ 40년미만	8.3	2.0	0.0	0.0	0.0
	40 ~ 50년미만	12.0	9.4	1.8	0.0	0.0
	50년이상	19.5	15.7	10.9	0.0	0.0
매출유형	B2B	12.5	4.9	1.6	0.3	0.3
	B2C	0.0	0.0	0.0	0.0	0.0
	B2G	0.0	0.0	0.0	0.0	0.0
상장	상장	13.0	6.0	3.6	0.0	0.0
	비상장	11.5	4.2	0.7	0.4	0.4

[표 2-95] 불공정거래 경험율(계속)

(단위 : %, 하도급 관계기업 1,088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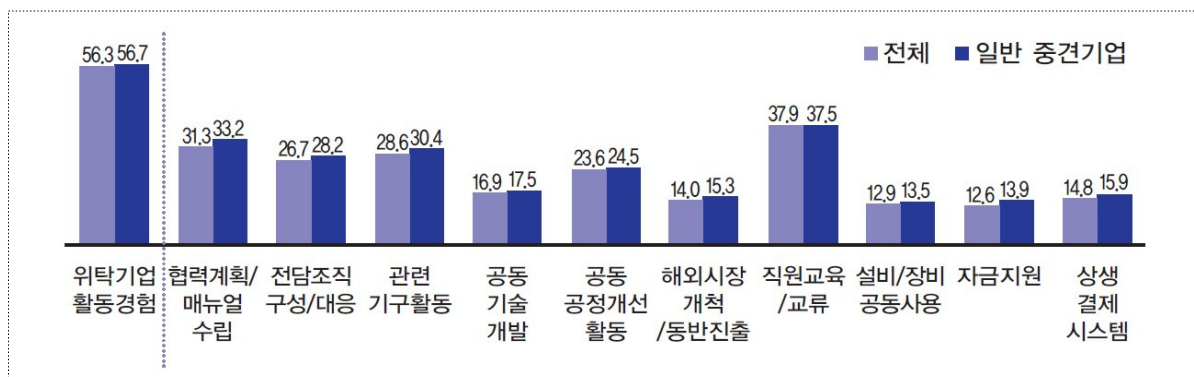
구분		불공정거래 경험율	불공정거래 유형별 경험율			
			부당 납품단가 인하요구	경영관련 자료요구	부당 물품 강제구매 요구	부당대물 변제행위
전체		12.0	5.0	7.5	1.7	1.4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13.1	6.0	8.1	1.8	1.6
	관계기업	5.9	0.0	4.3	1.4	0.0
업종	제조업	10.1	4.4	6.6	0.5	0.8
	비제조업	15.1	6.0	8.9	3.8	2.3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15.0	12.7	15.0	8.7	6.3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11.5	3.8	5.8	0.0	0.0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4.6	0.0	4.6	2.3	0.0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15.3	5.8	6.7	2.8	2.8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12.6	7.3	9.1	0.0	0.0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13.0	2.2	8.7	0.0	2.2
	5천억원 ~ 1조원미만	15.0	8.2	8.2	0.0	0.0
	1조원이상	0.0	0.0	0.0	0.0	0.0
수출여부	수출있음	13.2	5.2	7.7	1.6	0.9
	수출없음	10.5	4.8	7.2	1.9	1.9
종사자수	50명미만	6.5	6.5	6.5	3.3	3.3
	50 ~ 100명미만	8.6	5.2	3.6	0.0	1.9
	100 ~ 200명미만	15.4	4.0	11.4	0.0	0.0
	200 ~ 300명미만	12.6	8.5	4.1	0.0	0.0
	300 ~ 500명미만	17.5	0.0	8.5	4.5	0.0
	500 ~ 1,000명미만	13.4	6.4	9.9	2.2	1.4
	1,000명이상	10.3	2.7	6.6	3.8	3.8
업력	0 ~ 7년미만	11.3	6.1	11.3	0.0	0.0
	7 ~ 20년미만	12.2	4.5	7.1	3.0	1.6
	20 ~ 30년미만	12.4	6.0	6.5	1.2	1.2
	30 ~ 40년미만	8.3	4.7	6.9	0.0	3.4
	40 ~ 50년미만	12.0	4.4	7.5	3.1	0.0
	50년이상	19.5	5.1	9.0	0.0	0.0
매출유형	B2B	12.5	5.3	7.8	1.8	1.4
	B2C	0.0	0.0	0.0	0.0	0.0
	B2G	0.0	0.0	0.0	0.0	0.0
상장	상장	13.0	4.2	9.0	1.9	0.9
	비상장	11.5	5.4	6.9	1.6	1.5

□ 위탁기업과의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활동

- 수탁 중견기업의 56.3%는 위탁기업(모기업)과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직원교육/교류(37.9%), 협력계획 및 매뉴얼 수립(31.3%), 관련 기구활동(28.6%) 등이 높게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의 56.7%는 위탁기업(모기업)과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원교육/교류(37.5%), 협력계획/매뉴얼 수립(33.2%), 관련 기구활동(30.4%) 등이 높게 나타남

[그림 2-66] 위탁기업과의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활동 수행비중

(단위: %, 하도급 관계기업)



특성별 분석

- 제조업의 64.0%, 비제조업의 43.3%가 위탁기업과의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활동을 진행 중으로 제조업의 수행율이 높게 나타남
- 제조업은 직원교육/교류(40.8%), 관련 기구활동(37.7%) 등의 순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비제조업은 직원교육/교류(33.0%), 협력계획/매뉴얼 수립(23.2%) 등의 순으로 수행함
- 매출 1조원 이상 기업은 전담조직 구성/대응, 관련 기구활동, 공동기술개발, 공동 공정개선 활동, 직원교육/교류 등의 활동을 추진하는 반면, 협력계획/매뉴얼 수립, 해외시장 개척/동반진출, 설비/장비 공동사용, 자금지원, 상생 결제 시스템의 활동은 전혀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B2B기업과 B2C기업이 지난 1년동안 위탁기업과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활동을 활발히 추진한 반면, B2G기업은 정부/공공기관을 주 거래처로 하는 특성상 타 기업군과 달리 상생협력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표 2-96] 위탁기업과의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활동 수행비중

(단위 : %, 하도급 관계기업 1,088개사)

구분		동반성장/ 상생협력 추진율	동반성장/상생협력활동 유형별 추진 여부				
			협력계획/ 매뉴얼 수립	전담조직 구성/대응	관련 기구활동	공동 기술 개발	공동 공정개선 활동
전체		56.3	31.3	26.7	28.6	16.9	23.6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56.7	33.2	28.2	30.4	17.5	24.5
	관계기업	54.4	21.2	18.8	19.0	14.0	18.6
업종	제조업	64.0	36.1	31.0	37.7	23.9	29.6
	비제조업	43.3	23.2	19.5	13.2	5.1	13.4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51.9	21.5	10.8	10.8	12.6	19.2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40.4	22.8	18.8	17.8	10.4	14.3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51.4	30.8	24.2	18.6	9.7	16.7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62.3	32.6	22.8	34.5	15.5	21.8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64.6	32.3	34.3	41.6	21.6	34.1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78.3	52.2	50.0	50.1	32.8	41.4
	5천억원 ~ 1조원미만	83.5	60.3	58.8	47.9	41.2	43.8
	1조원이상	37.6	0.0	37.6	37.6	37.6	37.6
수출여부	수출있음	67.9	36.0	32.9	39.1	25.2	31.4
	수출없음	43.2	25.9	19.6	16.5	7.5	14.7
종사자수	50명미만	46.6	23.3	20.8	11.9	6.2	14.8
	50 ~ 100명미만	42.3	21.2	13.0	15.2	9.7	11.4
	100 ~ 200명미만	55.6	30.8	23.4	28.3	22.4	24.0
	200 ~ 300명미만	55.6	32.1	30.5	32.9	16.4	26.0
	300 ~ 500명미만	66.4	37.2	35.1	40.6	24.5	36.3
	500 ~ 1,000명미만	73.0	40.8	35.4	53.0	21.4	36.5
	1,000명이상	65.8	45.8	44.1	25.0	25.0	20.4
업력	0 ~ 7년미만	64.2	26.9	17.0	31.9	21.7	25.9
	7 ~ 20년미만	48.5	28.2	25.8	24.0	14.9	22.1
	20 ~ 30년미만	60.3	31.9	26.1	30.2	17.7	23.1
	30 ~ 40년미만	61.9	36.5	28.5	34.0	17.3	31.2
	40 ~ 50년미만	64.2	41.4	35.4	35.4	20.5	23.6
	50년이상	49.7	24.9	32.3	20.2	11.2	11.4
매출유형	B2B	58.5	32.8	28.0	29.7	17.7	24.5
	B2C	15.1	0.0	0.0	6.5	0.0	6.5
	B2G	0.0	0.0	0.0	0.0	0.0	0.0
상장	상장	68.0	36.6	39.0	42.3	27.4	28.5
	비상장	51.7	29.2	21.9	23.2	12.8	21.7

[표 2-97] 위탁기업과의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활동 수행비중(계속)

(단위 : %, 하도급 관계기업 1,088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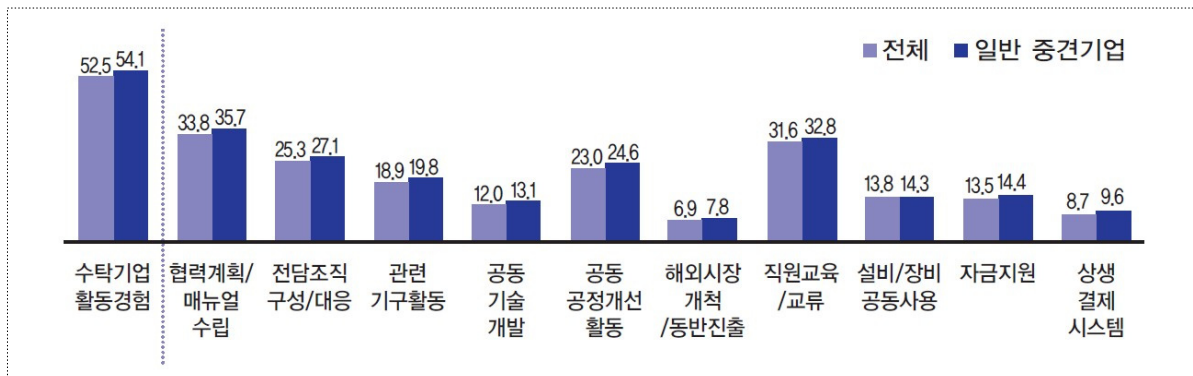
구분		동반성장/ 상생협력 추진율	동반성장/상생협력활동 유형별 추진 여부				
			해외시장 개척 /동반진출	직원교육 /교류	설비/장비 공동사용	자금지원	상생 결제 시스템
전체		56.3	14.0	37.9	12.9	12.6	14.8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56.7	15.3	37.5	13.5	13.9	15.9
	관계기업	54.4	7.0	40.0	9.8	5.9	9.0
업종	제조업	64.0	17.7	40.8	15.8	15.1	20.3
	비제조업	43.3	7.7	33.0	8.0	8.5	5.5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51.9	4.9	43.5	10.8	6.3	2.3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40.4	2.8	29.1	6.7	11.5	4.7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51.4	7.7	37.2	9.1	5.3	8.2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62.3	18.7	32.6	18.8	16.0	24.4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64.6	26.8	46.5	17.8	23.3	30.9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78.3	28.3	52.3	13.1	10.9	15.3
	5천억원 ~ 1조원미만	83.5	31.5	46.4	27.3	12.4	31.5
	1조원이상	37.6	0.0	37.6	0.0	0.0	0.0
수출여부	수출있음	67.9	22.4	43.3	16.1	14.3	23.8
	수출없음	43.2	4.3	31.7	9.2	10.7	4.6
종사자수	50명미만	46.6	2.5	30.1	10.8	9.2	2.8
	50 ~ 100명미만	42.3	5.1	32.3	6.8	6.8	8.6
	100 ~ 200명미만	55.6	8.9	40.6	13.1	13.8	11.9
	200 ~ 300명미만	55.6	27.6	38.1	17.2	16.9	17.5
	300 ~ 500명미만	66.4	15.0	33.6	12.8	19.0	33.1
	500 ~ 1,000명미만	73.0	31.6	49.1	16.8	13.4	24.8
	1,000명이상	65.8	14.7	46.4	15.5	10.9	13.6
업력	0 ~ 7년미만	64.2	10.0	56.1	12.5	13.6	5.9
	7 ~ 20년미만	48.5	9.7	33.8	11.0	13.0	11.9
	20 ~ 30년미만	60.3	24.1	37.4	15.2	13.9	21.2
	30 ~ 40년미만	61.9	9.8	38.7	16.6	11.8	15.8
	40 ~ 50년미만	64.2	19.2	36.7	16.4	15.4	24.2
	50년이상	49.7	9.3	34.7	0.0	0.0	3.8
매출유형	B2B	58.5	14.6	39.7	13.5	13.2	15.2
	B2C	15.1	0.0	0.0	0.0	0.0	8.6
	B2G	0.0	0.0	0.0	0.0	0.0	0.0
상장	상장	68.0	21.5	35.6	14.3	11.0	28.1
	비상장	51.7	11.0	38.8	12.3	13.3	9.6

□ 수탁기업과의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활동

- 위탁 중견기업의 52.5%는 수탁기업(협력사)과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협력계획 및 매뉴얼 수립(33.8%), 직원교육/교류(31.6%), 전담조직 구성/대응(25.3%) 등이 높게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의 54.1%는 수탁기업(협력사)과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협력계획/매뉴얼 수립(35.7%), 직원교육/교류(32.8%), 전담조직 구성/대응(27.1%) 등이 높게 나타남

[그림 2-67] 수탁기업과의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활동 수행비중

(단위: %, 하도급 관계기업)



특성별 분석

- 수출기업의 62.4%, 내수기업의 42.5%가 수탁기업과의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활동을 진행 중으로 수출기업의 수행을 높게 나타남
- 수출기업, 내수기업 모두 협력계획/매뉴얼 수립, 직원 교육/교류 순으로 나타남
- 대체적으로 매출규모가 클수록, 종사자수가 많을수록 상생결제 시스템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2-98] 수탁기업과의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활동 수행비중

(단위 : %, 하도급 관계기업 1,806개사)

구분		동반성장 /상생협력 추진율	동반성장/상생협력활동 유형별 추진 여부				
			협력계획/ 매뉴얼 수립	전담조직 구성/대응	관련 기구활동	공동 기술 개발	공동 공정개선 활동
전체		52.5	33.8	25.3	18.9	12.0	23.0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54.1	35.7	27.1	19.8	13.1	24.6
	관계기업	42.8	22.6	14.8	13.8	5.7	13.5
업종	제조업	57.7	37.4	28.7	24.5	17.7	30.3
	비제조업	46.1	29.6	21.3	12.2	5.3	14.3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52.9	29.0	17.9	4.7	9.3	10.8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30.6	21.1	12.9	8.2	3.7	9.0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45.2	27.8	18.8	16.9	9.6	17.2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54.8	34.8	25.9	18.7	13.6	23.8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60.7	35.5	31.2	30.2	13.9	32.5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63.6	44.1	31.9	25.7	11.1	35.5
	5천억원 ~ 1조원미만	87.4	66.7	53.4	32.8	27.8	47.2
	1조원이상	70.8	51.3	56.1	48.7	39.1	48.7
수출여부	수출있음	62.4	40.0	30.8	25.8	19.2	30.9
	수출없음	42.5	27.7	19.8	12.0	4.8	15.1
종사자수	50명미만	42.3	24.8	17.4	8.0	2.2	10.2
	50 ~ 100명미만	39.3	21.0	14.6	9.7	4.2	12.8
	100 ~ 200명미만	45.1	29.6	19.0	14.7	13.3	21.4
	200 ~ 300명미만	61.0	39.3	29.7	26.4	15.3	27.1
	300 ~ 500명미만	58.3	35.9	25.2	21.8	12.0	31.3
	500 ~ 1,000명미만	67.5	48.4	40.7	36.2	20.6	34.8
	1,000명이상	67.8	50.5	45.9	23.7	28.0	35.2
업력	0 ~ 7년미만	68.3	40.5	24.6	17.0	9.7	19.6
	7 ~ 20년미만	41.5	26.7	21.7	13.2	8.6	18.1
	20 ~ 30년미만	51.8	33.4	24.5	18.7	12.6	23.4
	30 ~ 40년미만	60.2	40.0	25.1	27.8	12.9	32.7
	40 ~ 50년미만	53.8	36.6	29.8	27.6	17.2	23.0
	50년이상	65.6	42.2	36.3	16.1	17.5	30.2
매출유형	B2B	51.9	32.4	24.6	19.3	13.5	23.0
	B2C	55.6	39.1	26.7	16.6	4.2	25.0
	B2G	50.5	45.6	36.1	19.6	9.9	14.9
상장	상장	61.9	39.7	32.3	25.7	19.5	30.2
	비상장	48.2	31.2	22.2	15.8	8.6	19.8

[표 2-99] 수탁기업과의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활동 수행비중(계속)

(단위 : %, 하도급 관계기업 1,806개사)

구분		동반성장 /상생협력 추진율	동반성장/상생협력활동 유형별 추진 여부				
			해외시장 개척 /동반진출	직원교육 /교류	설비/장비 공동사용	자금지원	상생 결제 시스템
전체		52.5	6.9	31.6	13.8	13.5	8.7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54.1	7.8	32.8	14.3	14.4	9.6
	관계기업	42.8	1.9	24.5	10.7	7.9	2.9
업종	제조업	57.7	9.1	34.5	19.9	17.6	11.8
	비제조업	46.1	4.4	28.2	6.4	8.5	4.9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52.9	2.8	32.4	1.3	4.7	1.3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30.6	0.7	15.6	4.5	3.8	2.3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45.2	1.4	26.9	11.4	5.6	4.1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54.8	10.6	33.4	20.3	17.3	12.0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60.7	15.0	38.8	19.8	20.7	15.1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63.6	8.6	35.4	17.2	19.6	11.0
	5천억원 ~ 1조원미만	87.4	17.6	55.3	29.7	30.9	10.7
	1조원이상	70.8	0.0	53.8	14.7	29.2	31.7
수출여부	수출있음	62.4	11.4	38.4	21.1	17.9	13.1
	수출없음	42.5	2.5	24.8	6.5	9.1	4.3
종사자수	50명미만	42.3	1.5	22.6	1.5	2.0	1.5
	50 ~ 100명미만	39.3	2.8	28.8	8.0	9.4	3.9
	100 ~ 200명미만	45.1	4.2	25.7	12.6	9.1	3.9
	200 ~ 300명미만	61.0	16.6	44.1	23.4	21.2	11.4
	300 ~ 500명미만	58.3	6.5	32.2	16.9	14.5	15.3
	500 ~ 1,000명미만	67.5	14.8	38.1	23.3	28.5	14.8
	1,000명이상	67.8	5.0	43.7	20.9	20.1	21.6
업력	0 ~ 7년미만	68.3	4.6	37.2	4.5	12.6	3.4
	7 ~ 20년미만	41.5	4.9	26.0	11.3	7.8	5.0
	20 ~ 30년미만	51.8	10.1	30.7	13.5	16.0	10.2
	30 ~ 40년미만	60.2	7.5	30.0	16.6	21.0	7.9
	40 ~ 50년미만	53.8	7.9	35.5	21.2	13.6	18.9
	50년이상	65.6	7.7	47.3	18.8	19.1	11.4
매출유형	B2B	51.9	7.7	30.5	15.2	14.1	9.4
	B2C	55.6	0.0	34.9	7.2	9.8	3.4
	B2G	50.5	20.4	45.6	9.9	15.7	15.4
상장	상장	61.9	10.9	35.9	22.6	18.3	14.1
	비상장	48.2	5.2	29.7	9.8	11.3	6.2

7절 금융 및 자금조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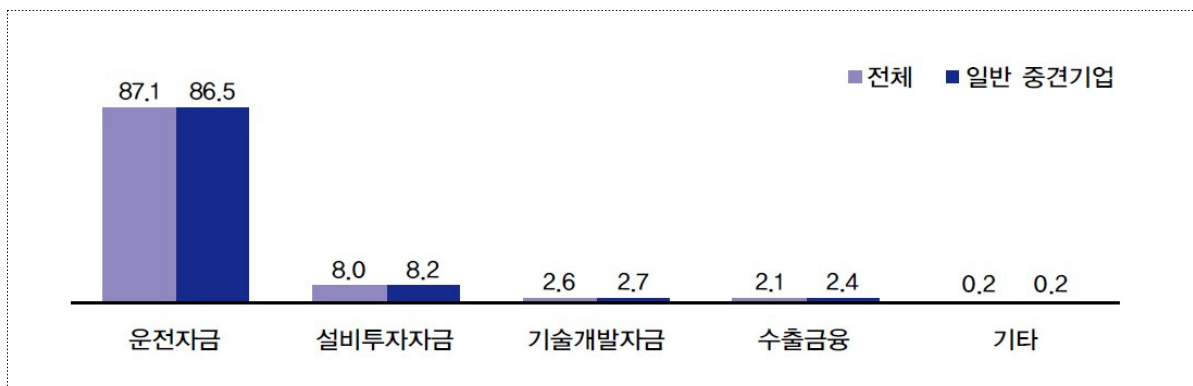
1. 자금조달

□ 자금조달 용도

- 중견기업의 자금조달 용도는 운전자금(87.1%)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설비투자자금(8.0%), 기술개발자금(2.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의 자금조달 용도는 운전자금(86.5%), 설비투자자금(8.2%), 기술개발자금(2.7%) 등의 순임

[그림 2-68] 주요 자금조달 용도

(단위: %)



특성별 분석

- 운전자금 비중이 제조업 80.7%, 비제조업 91.7%로 양쪽 모두 가장 높았으나, 제조업은 설비투자자금(10.3%), 기술개발자금(4.6%), 수출금융(4.3%) 등의 비중이 비제조업에 비해 높게 나타남
- 매출규모별로는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운전자금 용도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규모가 클수록 설비투자 자금, 기술개발자금 용도 비중이 높음
- 수출기업은 내수기업에 비해 운전자금의 비중이 낮은 반면, 설비투자·기술개발·수출금융을 위한 자금 조달 비중이 크게 높았음

[표 2-100] 주요 자금조달 용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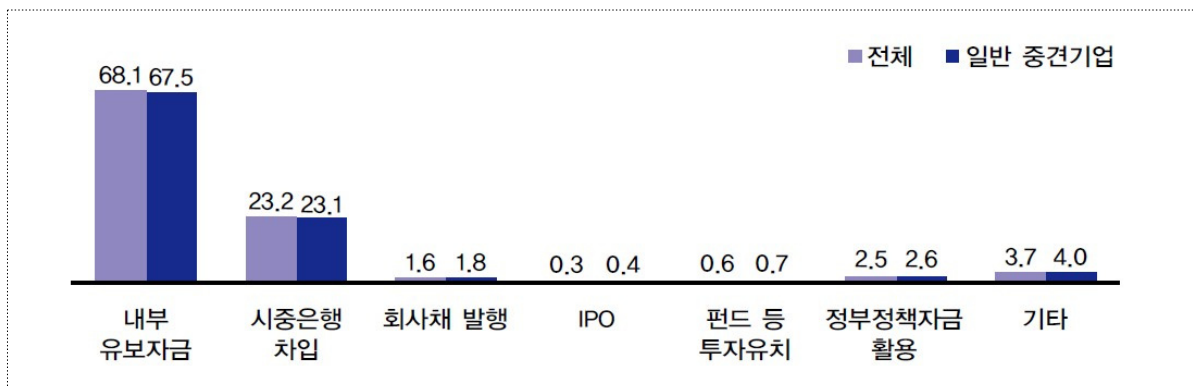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운전자금	설비투자 자금	기술개발 자금	수출금융	기타
전체		(3,558)	87.1	8.0	2.6	2.1	0.2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2,885)	86.5	8.2	2.7	2.4	0.2
	관계기업	(673)	89.4	7.2	2.2	1.1	0.2
업종	제조업	(1,488)	80.7	10.3	4.6	4.3	0.1
	비제조업	(2,070)	91.7	6.3	1.2	0.6	0.3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625)	93.7	3.9	1.7	0.2	0.4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934)	91.7	6.0	1.4	0.8	0.1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474)	87.5	8.9	2.4	1.2	0.0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636)	82.6	9.5	4.2	3.5	0.2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367)	81.8	9.4	3.0	5.5	0.3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253)	83.5	10.0	3.1	3.3	0.1
	5천억원 ~ 1조원미만	(179)	78.2	14.7	3.7	3.2	0.2
	1조원이상	(90)	70.7	18.2	5.3	5.9	0.0
수출여부	수출있음	(1,320)	78.9	10.1	5.1	5.8	0.2
	수출없음	(2,238)	91.8	6.8	1.2	0.0	0.2
종사자수	50명미만	(1,197)	94.4	4.0	0.7	0.8	0.1
	50 ~ 100명미만	(508)	88.6	7.7	2.1	1.1	0.5
	100 ~ 200명미만	(610)	86.7	8.7	2.8	1.6	0.2
	200 ~ 300명미만	(363)	79.1	13.3	2.9	4.7	0.0
	300 ~ 500명미만	(360)	81.9	9.2	4.7	4.0	0.3
	500 ~ 1,000명미만	(347)	78.1	11.7	5.8	4.1	0.3
	1,000명이상	(173)	78.2	13.0	5.6	3.1	0.1
업력	0 ~ 7년미만	(541)	90.1	6.3	2.4	1.0	0.2
	7 ~ 20년미만	(1,398)	88.9	7.5	1.9	1.7	0.0
	20 ~ 30년미만	(633)	87.5	7.4	2.4	2.3	0.4
	30 ~ 40년미만	(414)	83.5	9.9	3.5	3.0	0.1
	40 ~ 50년미만	(328)	81.3	10.9	3.8	3.7	0.3
	50년이상	(244)	86.1	7.5	4.3	1.7	0.4
매출유형	B2B	(2,832)	86.5	7.9	2.9	2.6	0.1
	B2C	(622)	88.5	9.2	1.3	0.5	0.4
	B2G	(104)	92.7	3.9	2.6	0.0	0.8
상장	상장	(760)	78.9	11.1	5.3	4.4	0.2
	비상장	(2,798)	89.6	7.0	1.8	1.4	0.2

□ 자금조달원

- 중견기업의 자금조달원은 내부 유보자금(68.1%)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시중은행 차입(23.2%), 정부정책자금 활용(2.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의 자금조달원은 내부 유보자금(67.5%), 시중은행 차입(23.1%), 정부정책자금 활용(2.6%) 등의 순임

[그림 2-69] 주요 자금조달원 비중

(단위: %)



특성별 분석

- 기업 유형별로는 일반 중견기업의 67.5%, 관계기업의 70.9%가 내부 유보자금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나타남
-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비제조업에 비해 시중은행 차입 및 정부 정책자금을 활용한 비중이 높게 나타남
- 기업의 매출규모가 클수록 회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많음
- 매출유형별로 B2G기업의 경우 78.5%가 내부유보자금을 활용하는 반면, B2C 기업의 경우 64.0%만이 내부유보자금을 활용

[표 2-101] 주요 자금조달원 비중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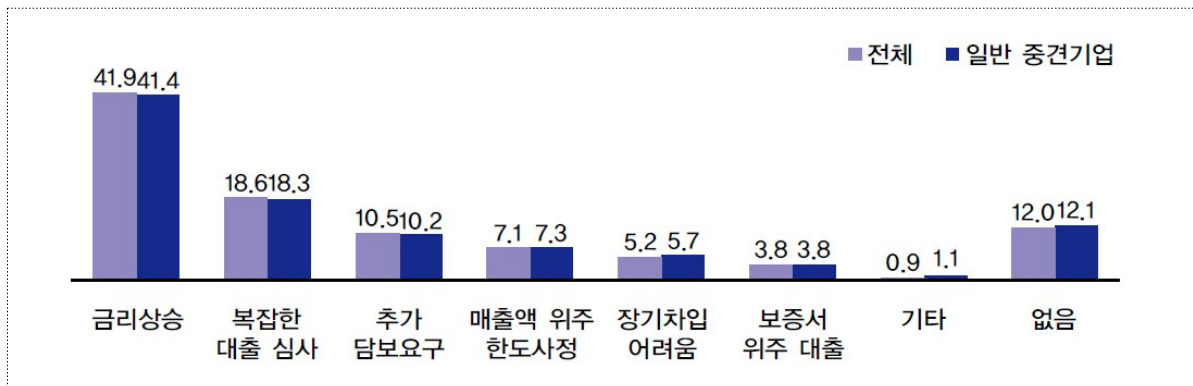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내부 유보자금	시중은행 차입	회사채 발행	IPO	펀드 등 투자유치	정부정책 자금활용	기타
전체		(3,558)	68.1	23.2	1.6	0.3	0.6	2.5	3.7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2,885)	67.5	23.1	1.8	0.4	0.7	2.6	4.0
	관계기업	(673)	70.9	23.6	0.8	0.2	0.4	1.8	2.4
업종	제조업	(1,488)	65.6	25.2	2.8	0.4	0.6	4.1	1.4
	비제조업	(2,070)	70.0	21.7	0.7	0.3	0.7	1.3	5.3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625)	77.6	9.1	0.5	0.1	1.1	1.7	9.9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934)	77.7	19.1	0.2	0.1	0.4	0.6	1.9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474)	66.0	26.4	1.2	0.0	1.2	2.7	2.5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636)	58.5	30.1	2.6	1.2	0.6	3.9	3.2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367)	63.3	27.1	2.6	0.4	0.3	4.4	2.0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253)	61.2	31.0	2.8	0.0	0.5	2.7	1.8
	5천억원 ~ 1조원미만	(179)	56.6	35.0	3.5	1.2	0.2	3.1	0.4
	1조원이상	(90)	44.1	35.4	6.8	0.0	0.0	5.7	7.9
수출여부	수출있음	(1,320)	64.4	26.1	2.5	0.5	0.4	4.4	1.8
	수출없음	(2,238)	70.3	21.4	1.0	0.3	0.8	1.3	4.8
종사자수	50명미만	(1,197)	74.1	17.3	0.4	0.1	0.9	1.2	6.0
	50 ~ 100명미만	(508)	66.6	25.9	1.4	0.1	0.0	2.5	3.6
	100 ~ 200명미만	(610)	67.4	26.7	0.8	0.2	1.2	1.3	2.5
	200 ~ 300명미만	(363)	62.4	25.5	3.6	1.0	0.3	5.4	1.9
	300 ~ 500명미만	(360)	66.9	25.6	1.9	1.0	0.0	2.8	1.8
	500 ~ 1,000명미만	(347)	61.0	29.9	2.8	0.0	0.4	4.9	1.0
	1,000명이상	(173)	62.8	19.6	5.5	1.8	1.1	3.3	5.9
업력	0 ~ 7년미만	(541)	70.4	19.4	1.4	0.0	0.0	1.5	7.3
	7 ~ 20년미만	(1,398)	69.4	22.3	1.1	0.3	0.7	2.0	4.1
	20 ~ 30년미만	(633)	65.9	26.0	1.5	0.6	1.7	2.3	2.2
	30 ~ 40년미만	(414)	65.8	25.9	1.0	0.2	0.2	3.5	3.5
	40 ~ 50년미만	(328)	67.3	23.7	2.2	0.5	0.0	3.5	2.8
	50년이상	(244)	68.7	20.7	4.6	0.4	0.1	3.3	2.2
매출유형	B2B	(2,832)	68.7	22.5	1.6	0.3	0.5	2.6	3.7
	B2C	(622)	64.0	26.8	1.5	0.5	1.3	2.1	3.9
	B2G	(104)	78.5	18.6	0.4	0.0	0.0	0.1	2.3
상장	상장	(760)	60.7	25.9	4.5	1.4	0.7	4.4	2.4
	비상장	(2,798)	70.5	22.3	0.6	0.0	0.6	1.9	4.1

□ 외부 자금조달 애로사항

- 중견기업의 외부자금조달 애로사항으로는 금리상승(41.9%)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복잡한 대출심사(18.6%), 추가 담보요구(10.5%) 등의 순으로 나타남(없음 제외)
- 일반 중견기업의 외부자금조달 애로사항은 금리상승(41.4%), 복잡한 대출심사(18.3%), 추가 담보요구(10.2%) 등의 순임

[그림 2-70] 외부 자금조달 애로사항

(단위: %)



특성별 분석

- 기업 유형별로는 일반 중견기업(41.4%)과 관계기업(43.7%) 모두 금리상승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응답함
- 일반 중견기업에 비해 관계기업은 복잡한 대출심사(19.9%)와 추가 담보요구(11.6%)를 애로사항이라고 응답한 기업의 비중이 높음
- 수출여부에 상관없이 금리상승을 애로사항으로 응답한 기업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업력 50년 이상 중견기업은 타 기업군에 비해 금리상승(49.3%)으로 인한 애로사항을 겪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표 2-102] 외부 자금조달 애로사항 : 1순위

(단위 : %)

구분		사례수	금리상승	복잡한 대출 심사	추가 담보요구	매출액 위주 한도사정
전체		(3,558)	41.9	18.6	10.5	7.1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2,885)	41.4	18.3	10.2	7.3
	관계기업	(673)	43.7	19.9	11.6	6.3
업종	제조업	(1,488)	46.3	19.9	11.1	5.3
	비제조업	(2,070)	38.7	17.7	10.0	8.4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625)	33.6	20.2	9.1	7.9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934)	39.1	19.6	9.8	8.1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474)	41.9	17.5	9.1	4.0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636)	45.8	18.8	11.8	6.4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367)	48.0	22.6	16.2	7.0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253)	48.1	14.5	9.4	10.2
	5천억원 ~ 1조원미만	(179)	48.9	16.0	8.2	5.2
	1조원이상	(90)	42.8	3.1	7.9	7.9
수출여부	수출있음	(1,320)	44.2	19.8	10.9	6.5
	수출없음	(2,238)	40.5	17.9	10.2	7.5
종사자수	50명미만	(1,197)	36.6	18.8	9.3	9.4
	50 ~ 100명미만	(508)	44.2	15.4	15.2	5.5
	100 ~ 200명미만	(610)	43.7	20.7	9.7	6.5
	200 ~ 300명미만	(363)	45.0	21.9	10.8	7.3
	300 ~ 500명미만	(360)	42.3	16.3	13.5	5.1
	500 ~ 1,000명미만	(347)	51.3	19.5	9.5	3.8
	1,000명이상	(173)	38.5	16.1	2.5	8.5
업력	0 ~ 7년미만	(541)	39.9	19.8	14.0	5.4
	7 ~ 20년미만	(1,398)	39.8	18.2	11.1	8.4
	20 ~ 30년미만	(633)	38.7	25.4	9.3	8.1
	30 ~ 40년미만	(414)	44.4	16.0	11.3	4.8
	40 ~ 50년미만	(328)	48.6	13.1	5.6	6.7
	50년이상	(244)	49.3	14.4	11.6	4.1
매출유형	B2B	(2,832)	42.1	18.0	10.1	7.2
	B2C	(622)	42.4	21.7	12.3	5.5
	B2G	(104)	31.2	16.8	10.2	13.1
상장	상장	(760)	51.0	15.0	6.5	5.7
	비상장	(2,798)	39.0	19.8	11.7	7.5

[표 2-103] 외부 자금조달 애로사항 : 1순위(계속)

(단위 : %)

구분		사례수	장기차입 어려움	보증서 원주 대출	기타	없음
전체		(3,558)	5.2	3.8	0.9	12.0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2,885)	5.7	3.8	1.1	12.1
	관계기업	(673)	3.0	3.8	0.0	11.6
업종	제조업	(1,488)	6.6	2.1	0.4	8.4
	비제조업	(2,070)	4.3	5.0	1.3	14.6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625)	4.6	3.0	3.7	18.0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934)	2.4	3.9	0.0	17.1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474)	5.8	5.8	1.5	14.5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636)	6.2	3.2	0.5	7.2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367)	3.2	0.7	0.0	2.3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253)	6.8	4.2	0.0	6.8
	5천억원 ~ 1조원미만	(179)	10.9	6.7	0.0	4.1
	1조원이상	(90)	22.3	7.9	0.0	7.9
수출여부	수출있음	(1,320)	7.2	3.4	0.7	7.2
	수출없음	(2,238)	4.1	4.0	1.0	14.8
종사자수	50명미만	(1,197)	4.3	4.2	1.9	15.6
	50 ~ 100명미만	(508)	2.2	2.9	1.9	12.7
	100 ~ 200명미만	(610)	4.5	2.7	0.0	12.2
	200 ~ 300명미만	(363)	5.1	3.9	0.0	6.0
	300 ~ 500명미만	(360)	6.0	4.3	0.0	12.6
	500 ~ 1,000명미만	(347)	7.8	3.0	0.0	5.1
	1,000명이상	(173)	17.4	7.7	0.0	9.2
업력	0 ~ 7년미만	(541)	2.1	0.8	2.7	15.3
	7 ~ 20년미만	(1,398)	7.0	4.0	0.9	10.5
	20 ~ 30년미만	(633)	2.9	5.4	0.5	9.7
	30 ~ 40년미만	(414)	4.2	4.4	1.6	13.3
	40 ~ 50년미만	(328)	7.2	1.6	0.0	17.2
	50년이상	(244)	4.6	4.7	0.0	11.3
매출유형	B2B	(2,832)	5.8	3.1	0.9	12.6
	B2C	(622)	3.4	5.1	1.1	8.6
	B2G	(104)	0.0	13.9	0.0	14.7
상장	상장	(760)	8.5	3.1	0.4	9.8
	비상장	(2,798)	4.2	4.0	1.1	12.7

[표 2-104] 외부 자금조달 애로사항 : 1+2순위

(단위 : %)

구분		사례수	금리상승	복잡한 대출 심사	추가 담보요구	매출액 위주 한도사정
전체		(3,558)	52.1	35.6	27.6	14.9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2,885)	51.4	36.2	26.8	15.1
	관계기업	(673)	54.8	33.1	31.2	13.8
업종	제조업	(1,488)	58.2	38.3	28.6	13.7
	비제조업	(2,070)	47.6	33.6	26.9	15.8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625)	40.7	33.5	21.2	14.0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934)	48.1	38.8	22.4	16.8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474)	51.2	29.3	30.4	11.5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636)	57.8	33.3	35.9	17.7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367)	61.3	42.0	37.6	10.8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253)	60.0	31.6	26.6	17.9
	5천억원 ~ 1조원미만	(179)	66.2	44.0	25.3	12.7
	1조원이상	(90)	47.6	35.0	19.0	11.1
수출여부	수출있음	(1,320)	56.5	36.3	31.2	16.2
	수출없음	(2,238)	49.5	35.2	25.5	14.1
종사자수	50명미만	(1,197)	46.5	36.0	22.8	14.5
	50 ~ 100명미만	(508)	52.5	33.9	34.5	15.2
	100 ~ 200명미만	(610)	51.7	35.0	31.3	17.0
	200 ~ 300명미만	(363)	54.6	36.6	28.1	16.8
	300 ~ 500명미만	(360)	54.5	31.2	33.1	11.6
	500 ~ 1,000명미만	(347)	67.4	37.1	24.0	11.6
	1,000명이상	(173)	49.4	44.4	22.3	18.4
업력	0 ~ 7년미만	(541)	50.5	32.4	24.5	17.0
	7 ~ 20년미만	(1,398)	49.8	37.4	26.9	15.4
	20 ~ 30년미만	(633)	48.6	42.3	28.2	14.7
	30 ~ 40년미만	(414)	55.1	34.7	34.7	13.6
	40 ~ 50년미만	(328)	60.1	28.1	25.0	9.5
	50년이상	(244)	58.5	26.1	27.1	19.5
매출유형	B2B	(2,832)	52.6	35.6	26.9	14.9
	B2C	(622)	51.7	36.2	31.0	12.7
	B2G	(104)	39.0	31.6	26.4	28.2
상장	상장	(760)	60.8	32.0	25.5	14.3
	비상장	(2,798)	49.3	36.7	28.3	15.1

[표 2-105] 외부 자금조달 애로사항 : 1+2순위(계속)

(단위 : %)

구분		사례수	장기차입 어려움	보증서 위주 대출	기타	없음
전체		(3,558)	14.9	7.8	1.4	12.0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2,885)	15.3	7.7	1.7	12.1
	관계기업	(673)	13.0	8.4	0.4	11.6
업종	제조업	(1,488)	17.6	5.6	1.4	8.4
	비제조업	(2,070)	12.9	9.5	1.4	14.6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625)	16.7	9.2	3.7	18.0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934)	8.6	8.4	0.3	17.1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474)	12.3	6.8	1.5	14.5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636)	15.7	8.2	1.4	7.2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367)	19.0	3.1	0.8	2.3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253)	20.5	7.6	0.9	6.8
	5천억원 ~ 1조원미만	(179)	19.1	9.6	0.0	4.1
	1조원이상	(90)	33.4	11.1	4.8	7.9
수출여부	수출있음	(1,320)	19.1	7.3	1.9	7.2
	수출없음	(2,238)	12.3	8.2	1.2	14.8
종사자수	50명미만	(1,197)	13.0	9.3	2.2	15.6
	50 ~ 100명미만	(508)	9.1	6.2	1.9	12.7
	100 ~ 200명미만	(610)	15.8	6.1	0.0	12.2
	200 ~ 300명미만	(363)	16.8	12.4	1.6	6.0
	300 ~ 500명미만	(360)	19.1	4.9	1.4	12.6
	500 ~ 1,000명미만	(347)	20.5	6.1	0.0	5.1
	1,000명이상	(173)	17.4	8.8	2.5	9.2
업력	0 ~ 7년미만	(541)	14.6	6.3	2.7	15.3
	7 ~ 20년미만	(1,398)	15.9	8.1	1.3	10.5
	20 ~ 30년미만	(633)	12.6	11.5	1.3	9.7
	30 ~ 40년미만	(414)	9.1	6.7	1.6	13.3
	40 ~ 50년미만	(328)	20.4	4.4	0.7	17.2
	50년이상	(244)	16.0	5.5	1.6	11.3
매출유형	B2B	(2,832)	15.4	7.4	1.4	12.6
	B2C	(622)	12.9	8.7	1.8	8.6
	B2G	(104)	10.5	13.9	0.0	14.7
상장	상장	(760)	17.5	5.7	2.0	9.8
	비상장	(2,798)	14.0	8.5	1.3	1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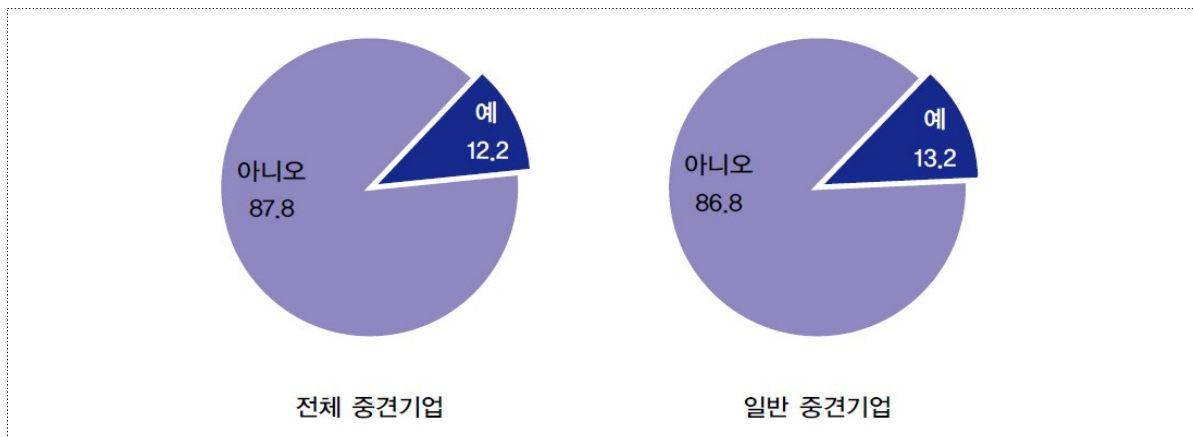
2. 정책자금의 활용

□ 정책자금 활용 여부

- 중견기업의 12.2%는 정책자금을 활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 중견기업은 13.2%로 나타남

[그림 2-71] 정책자금 활용 여부

(단위: %)



특성별 분석

-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21.9%가 정책자금을 활용한 경험이 있는데 비해 비제조업은 5.2%만이 활용한 것으로 나타나 비제조업의 활용 비중이 크게 낮음
- 대체적으로 매출규모가 클수록 정책자금 활용률이 높음
- 수출기업의 24.4%가 정책자금을 활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반면, 내수기업은 5.0%만이 정책자금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남
- 종사자수별로는 500~1,000명 기업의 29.7%가 정책자금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나 가장 높은 활용률을 보임

[표 2-106] 정책자금 활용 여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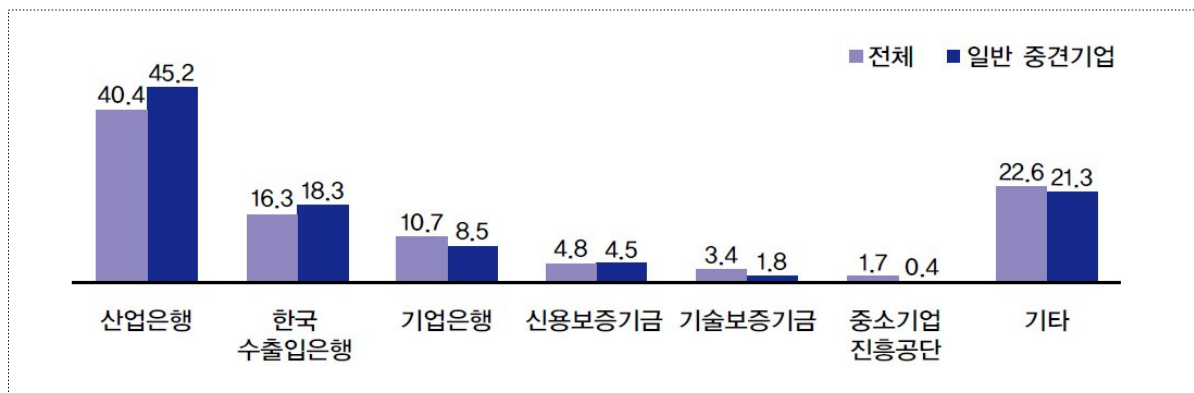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정책자금 활용	정책자금 미활용
전체		(3,558)	12.2	87.8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2,885)	13.2	86.8
	관계기업	(673)	7.8	92.2
업종	제조업	(1,488)	21.9	78.1
	비제조업	(2,070)	5.2	94.8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625)	4.2	95.8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934)	3.8	96.2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474)	9.8	90.2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636)	21.2	78.8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367)	19.8	80.2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253)	20.7	79.3
	5천억원 ~ 1조원미만	(179)	21.7	78.3
	1조원이상	(90)	28.7	71.3
수출여부	수출있음	(1,320)	24.4	75.6
	수출없음	(2,238)	5.0	95.0
종사자수	50명미만	(1,197)	4.3	95.7
	50 ~ 100명미만	(508)	8.8	91.2
	100 ~ 200명미만	(610)	7.5	92.5
	200 ~ 300명미만	(363)	23.9	76.1
	300 ~ 500명미만	(360)	19.3	80.7
	500 ~ 1,000명미만	(347)	29.7	70.3
	1,000명이상	(173)	18.6	81.4
업력	0 ~ 7년미만	(541)	6.0	94.0
	7 ~ 20년미만	(1,398)	9.4	90.6
	20 ~ 30년미만	(633)	12.0	88.0
	30 ~ 40년미만	(414)	14.7	85.3
	40 ~ 50년미만	(328)	18.7	81.3
	50년이상	(244)	21.8	78.2
매출유형	B2B	(2,832)	13.8	86.2
	B2C	(622)	6.5	93.5
	B2G	(104)	2.7	97.3
상장	상장	(760)	24.8	75.2
	비상장	(2,798)	8.2	91.8

□ 기관별 정책자금 활용 비중

- 중견기업의 기관별 정책자금 활용 비중은 산업은행(40.4%)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한국수출입은행(16.3%), 기업은행(10.7%) 순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의 정책자금 기관별 출처는 산업은행(45.2%), 한국수출입은행(18.3%), 신용보증기금(8.5%) 순임

[그림 2-72] 기관별 정책자금 활용 비중

(단위: %, 정책자금 활용 기업)



특성별 분석

- 산업은행 활용비중은 일반 중견기업 45.2%, 관계기업 5.3%로 일반 중견기업이 관계기업보다 많이 활용한 것으로 나타남
- 매출규모 1백억원 미만 기업은 신용보증기금(29.7%), 1백억원~5백억원 미만 기업은 기술보증기금(21.3%), 1조원 이상 기업은 산업은행(58.3%) 활용 비중이 타 기업군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정책자금 활용 비중이 매출규모별로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음
- 모든 매출규모에서 산업은행 조달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매출액 1백억원 미만 제외)
- 산업은행 활용 비중이 상장기업은 44.8%, 비상장기업은 36.2%로 상장기업이 비상장기업에 비해 산업은행을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보임

[표 2-107] 기관별 정책자금 활용 비중

(단위 : %, 정책자금 활용 기업 433개사)

구분		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기타
전체		40.4	16.3	10.7	4.8	3.4	1.7	22.6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45.2	18.3	8.5	4.5	1.8	0.4	21.3
	관계기업	5.3	2.3	26.7	7.1	15.3	11.3	32.1
업종	제조업	42.8	18.1	13.1	1.4	4.4	1.5	18.7
	비제조업	33.1	11.1	3.4	15.3	0.5	2.3	34.4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0.0	0.0	11.3	29.7	10.9	13.5	34.5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23.4	0.0	16.3	7.8	21.3	0.0	31.2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36.3	10.1	16.2	1.0	3.6	5.1	27.6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45.6	14.2	12.1	5.1	1.4	1.1	20.4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49.3	22.5	5.4	3.9	1.2	0.0	17.6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45.8	24.9	10.8	0.0	0.0	0.0	18.5
	5천억원 ~ 1조원미만	34.2	17.2	10.8	0.0	0.0	0.0	37.7
	1조원이상	58.3	41.7	0.0	0.0	0.0	0.0	0.0
수출여부	수출있음	40.7	21.6	12.0	2.2	2.9	2.0	18.6
	수출없음	39.6	1.1	6.9	12.5	4.9	1.0	33.9
종사자수	50명미만	16.0	8.6	6.0	29.1	10.7	6.8	22.8
	50 ~ 100명미만	27.3	6.3	26.9	7.1	9.5	0.0	22.9
	100 ~ 200명미만	54.9	13.9	6.0	0.0	6.4	0.0	18.8
	200 ~ 300명미만	43.2	20.5	3.9	2.7	1.2	0.0	28.4
	300 ~ 500명미만	40.6	17.7	13.8	0.7	1.6	3.5	22.1
	500 ~ 1,000명미만	48.4	14.4	11.5	0.0	0.0	1.5	24.3
	1,000명이상	43.7	38.0	11.5	0.0	0.0	0.0	6.9
업력	0 ~ 7년미만	33.3	19.7	0.0	0.0	21.6	16.1	9.4
	7 ~ 20년미만	31.8	16.7	12.6	8.6	5.0	1.8	23.5
	20 ~ 30년미만	45.2	13.3	15.0	10.1	0.2	0.0	16.1
	30 ~ 40년미만	37.9	9.6	19.1	1.5	5.5	2.6	23.8
	40 ~ 50년미만	40.7	28.5	2.9	0.0	0.0	0.0	27.9
	50년이상	58.2	9.6	5.9	0.0	0.0	0.0	26.3
매출유형	B2B	40.4	16.9	11.8	4.6	3.2	1.9	21.2
	B2C	36.6	11.7	1.5	6.9	5.8	0.0	37.6
	B2G	100.0	0.0	0.0	0.0	0.0	0.0	0.0
상장	상장	44.8	20.2	8.2	0.2	0.9	0.7	25.0
	비상장	36.2	12.7	13.1	9.2	5.9	2.7	2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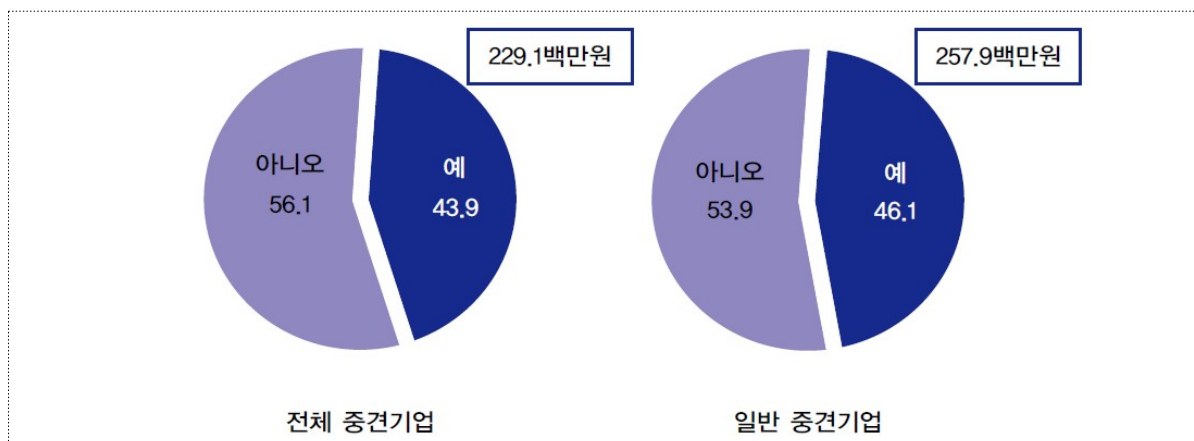
8절 기업의 사회적 책임

□ 사회공헌활동 수행 여부

- 중견기업의 43.9%는 사회공헌활동 수행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 중견기업은 46.1%로 나타남

[그림 2-73] 사회공헌활동 수행 여부

(단위: %)



특성별 분석

- 일반 중견기업의 46.1%(평균: 257.9백만원), 관계기업의 34.6%(평균: 69.8백만원)가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하여 일반 중견기업이 관계기업에 비해 많은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임
- 매출액 1백억원 미만 기업은 19.2%(평균: 20.4백만원)만이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1조원 이상 기업은 77.7%(평균: 1,492.9백만원)가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것으로 조사됨
 - 매출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사회공헌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 매출규모와 사회공헌활동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매출유형별로는 소비자가 주 거래처인 B2C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수행비중이 51.5%로, B2B기업(42.8%), B2G기업(30.3%)에 비해 사회공헌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보임

[표 2-108] 사회공헌활동 수행 여부

(단위 :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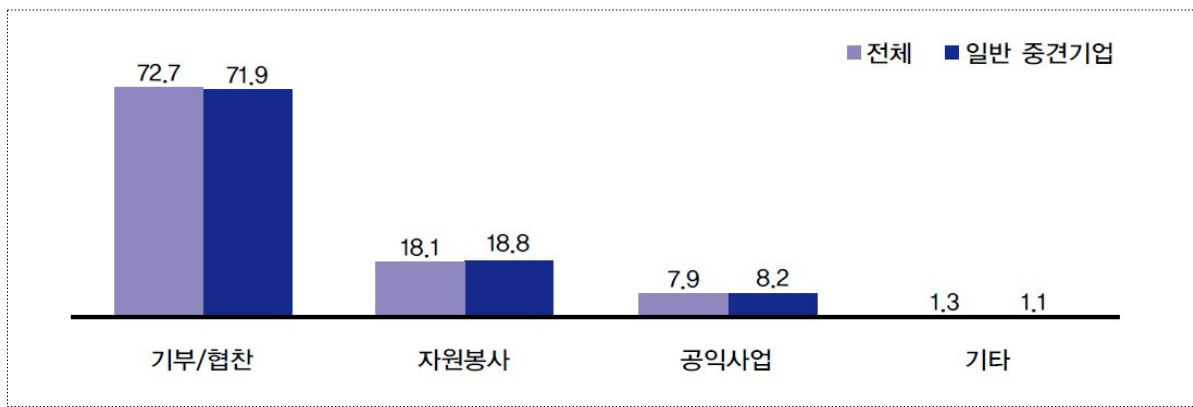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수행	평균금액	미수행
전체		(3,558)	43.9	229.1	56.1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2,885)	46.1	257.9	53.9
	관계기업	(673)	34.6	69.8	65.4
업종	제조업	(1,488)	52.3	301.1	47.7
	비제조업	(2,070)	37.9	156.6	62.1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625)	19.2	20.4	80.8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934)	31.6	79.6	68.4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474)	42.4	98.3	57.6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636)	58.7	169.7	41.3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367)	59.2	174.9	40.8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253)	61.6	232.8	38.4
	5천억원 ~ 1조원미만	(179)	72.8	604.6	27.2
	1조원이상	(90)	77.7	1,492.9	22.3
수출여부	수출있음	(1,320)	56.8	344.0	43.2
	수출없음	(2,238)	36.3	123.7	63.7
종사자수	50명미만	(1,197)	21.5	52.5	78.5
	50 ~ 100명미만	(508)	41.3	56.8	58.7
	100 ~ 200명미만	(610)	45.1	129.9	54.9
	200 ~ 300명미만	(363)	55.7	178.7	44.3
	300 ~ 500명미만	(360)	63.8	127.8	36.2
	500 ~ 1,000명미만	(347)	76.5	465.7	23.5
	1,000명이상	(173)	70.9	891.4	29.1
업력	0 ~ 7년미만	(541)	30.0	97.5	70.0
	7 ~ 20년미만	(1,398)	34.6	115.5	65.4
	20 ~ 30년미만	(633)	48.6	125.9	51.4
	30 ~ 40년미만	(414)	52.6	328.0	47.4
	40 ~ 50년미만	(328)	61.5	421.5	38.5
	50년이상	(244)	60.6	444.0	39.4
매출유형	B2B	(2,832)	42.8	192.4	57.2
	B2C	(622)	51.5	369.9	48.5
	B2G	(104)	30.3	281.6	69.7
상장	상장	(760)	65.5	436.3	34.5
	비상장	(2,798)	37.1	114.4	62.9

□ 사회공헌활동 유형

- 중견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수행 유형으로는 기부/협찬(72.7%)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자원봉사(18.1%), 공익사업(7.9%) 순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수행 유형은 기부/협찬(71.9%), 자원봉사(18.8%), 공익사업(8.2%) 순임

[그림 2-74] 사회공헌활동 유형별 비중

(단위 : %, 사회공헌활동기업)



특성별 분석

- 제조업, 비제조업 상관없이 기부/협찬, 자원봉사활동, 공익사업 순으로 나타나 기부와 협찬 활동을 가장 많이 한 것으로 조사됨
- 대체적으로 종사자 수가 많은 기업일수록 기부/협찬은 줄어들며, 공익사업 및 자원봉사활동 수행 비중이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2-109] 사회공헌활동 유형별 비중

(단위 : %, 사회공헌활동기업 1,563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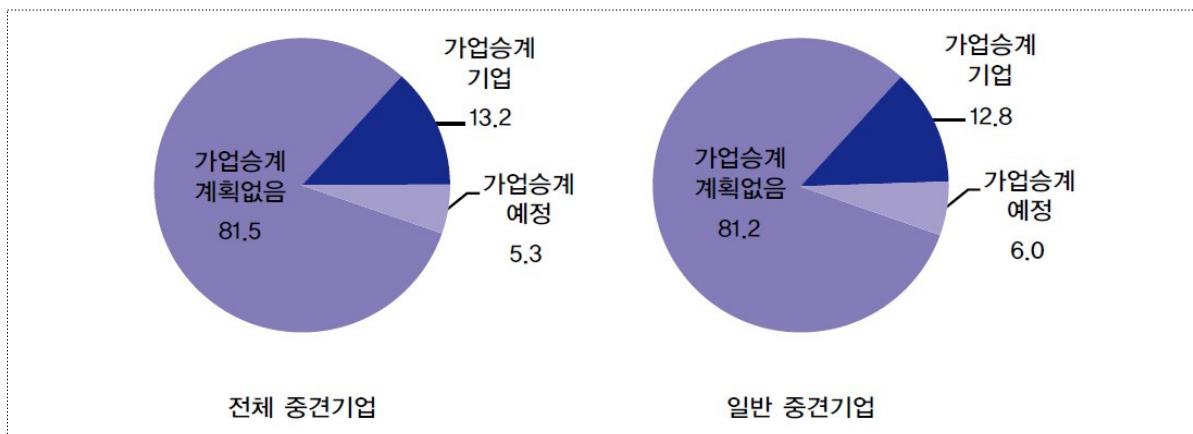
구분		기부/협찬	자원봉사	공익사업	기타
전체		72.7	18.1	7.9	1.3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71.9	18.8	8.2	1.1
	관계기업	77.5	14.0	6.2	2.3
업종	제조업	73.3	17.9	7.6	1.3
	비제조업	72.2	18.2	8.2	1.4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69.2	19.0	9.4	2.5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77.0	13.7	7.5	1.8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79.6	17.8	1.3	1.2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74.2	15.4	8.9	1.5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76.0	19.8	3.9	0.3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68.5	20.1	11.3	0.1
	5천억원 ~ 1조원미만	66.5	19.8	11.3	2.4
	1조원이상	43.8	36.4	19.4	0.5
수출여부	수출있음	70.7	18.8	9.1	1.4
	수출없음	74.6	17.4	6.7	1.3
종사자수	50명미만	77.8	13.7	6.1	2.3
	50 ~ 100명미만	75.2	13.2	10.2	1.4
	100 ~ 200명미만	74.0	20.0	4.8	1.1
	200 ~ 300명미만	74.2	17.5	7.8	0.5
	300 ~ 500명미만	72.0	19.7	8.1	0.3
	500 ~ 1,000명미만	72.5	16.8	9.1	1.6
	1,000명이상	54.3	31.7	11.8	2.2
업력	0 ~ 7년미만	81.3	13.1	2.8	2.7
	7 ~ 20년미만	68.5	23.4	6.4	1.8
	20 ~ 30년미만	77.5	11.6	10.4	0.5
	30 ~ 40년미만	78.1	16.9	3.4	1.6
	40 ~ 50년미만	64.4	20.3	14.2	1.1
	50년이상	75.9	16.5	7.0	0.7
매출유형	B2B	72.7	18.5	7.7	1.1
	B2C	72.7	16.3	8.7	2.3
	B2G	74.7	18.2	7.2	0.0
상장	상장	70.2	19.6	9.6	0.6
	비상장	74.1	17.2	7.0	1.7

□ 가업승계

- 중견기업의 81.5%는 가업승계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3.2%는 가업승계 기업, 5.3%는 가업승계 예정 기업인 것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의 81.2%는 가업승계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2.8%는 가업승계 기업, 6.0%는 가업승계 예정 기업인 것으로 나타남

[그림 2-75] 가업승계 도입 여부

(단위: %)



특성별 분석

- 제조업의 17.1%는 이미 가업승계기업이라고 응답한 반면, 비제조업은 10.3%만이 가업승계기업으로 제조업이 비제조업보다 가업승계를 통해 기업활동을 영위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가업승계 예정 기업 비중도 제조업이 비제조업보다 많음
- 대체적으로 업력이 길수록 가업승계기업이 많으며, 가업승계 예정 기업도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업력 0~7년 미만 가업승계기업이 5.9%인 반면, 50년 이상 가업승계기업은 33.7%로 약 6배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기업의 영속성을 이어가기 위한 노력으로 보임
- 상장기업의 경우 가업승계기업 및 예정기업이 전체의 약 32%이며, 비상장기업은 14%로 2배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조사됨

[표 2-110] 가업승계 도입 여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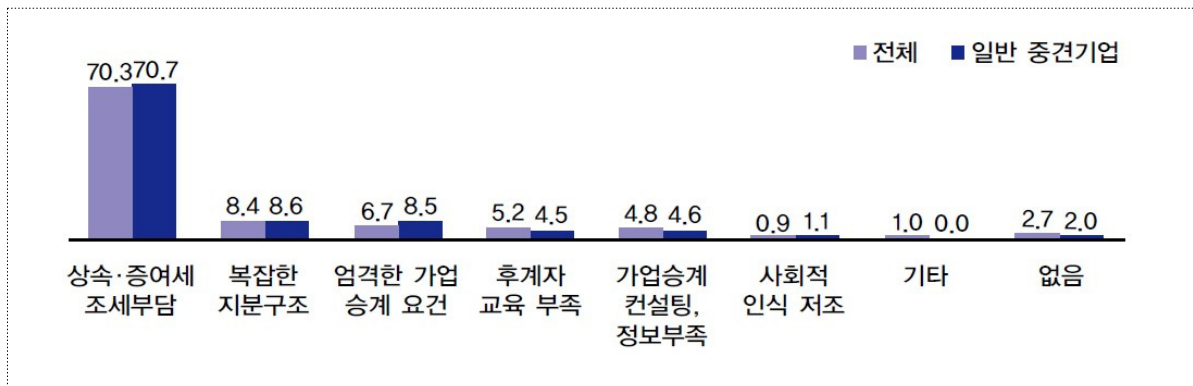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가업승계기업	가업승계예정	가업승계계획없음
전체		(3,558)	13.2	5.3	81.5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2,885)	12.8	6.0	81.2
	관계기업	(673)	14.7	2.7	82.7
업종	제조업	(1,488)	17.1	6.8	76.1
	비제조업	(2,070)	10.3	4.3	85.4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625)	8.5	0.4	91.1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934)	6.6	1.5	91.9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474)	11.0	7.1	81.9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636)	21.9	9.0	69.1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367)	20.9	10.2	68.8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253)	13.8	12.0	74.3
	5천억원 ~ 1조원미만	(179)	24.6	8.2	67.2
	1조원이상	(90)	7.9	0.0	92.1
수출여부	수출있음	(1,320)	17.0	8.5	74.5
	수출없음	(2,238)	10.9	3.5	85.6
종사자수	50명미만	(1,197)	8.9	3.4	87.7
	50 ~ 100명미만	(508)	9.5	2.7	87.8
	100 ~ 200명미만	(610)	13.7	2.4	83.9
	200 ~ 300명미만	(363)	15.6	10.0	74.4
	300 ~ 500명미만	(360)	17.6	9.2	73.1
	500 ~ 1,000명미만	(347)	25.4	11.8	62.9
	1,000명이상	(173)	12.7	6.0	81.3
업력	0 ~ 7년미만	(541)	5.9	0.0	94.1
	7 ~ 20년미만	(1,398)	7.5	2.3	90.1
	20 ~ 30년미만	(633)	8.3	8.7	83.0
	30 ~ 40년미만	(414)	23.6	11.3	65.1
	40 ~ 50년미만	(328)	23.7	6.6	69.7
	50년이상	(244)	33.7	9.0	57.3
매출유형	B2B	(2,832)	14.2	5.4	80.4
	B2C	(622)	8.6	4.9	86.4
	B2G	(104)	13.1	6.8	80.1
상장	상장	(760)	22.9	9.6	67.5
	비상장	(2,798)	10.1	4.0	85.9

□ 가업승계시 애로사항

- 중견기업의 가업승계 애로사항으로는 상속·증여세 조세부담(70.3%)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복잡한 지분구조(8.4%), 엄격한 가업 승계 요건(6.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일반 중견기업의 가업승계 애로사항은 상속·증여세 조세부담(70.7%), 복잡한 지분구조(8.6%), 엄격한 기업 승계 요건(8.5%) 등의 순임

[그림 2-76] 가업승계시 애로사항

(단위: %, 가업승계기업)



특성별 분석

- 제조업의 70.1%, 비제조업의 70.7%가 상속/증여세 조세부담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응답함
- 비제조업은 상대적으로 엄격한 가업 승계 요건(8.0%), 가업승계 컨설팅, 정보부족(6.3%) 등을 선택한 비중이 높음
- 업력별로는 50년 이상의 업력을 가진 기업이 복잡한 지분구조(19.5%)를 많이 선택한 것으로 나타남
- B2C기업의 상속/증여세 조세부담 응답율이 80.6%로 집중된 것에 비해 B2G기업은 복잡한 지분구조(20.8%), 후계자 교육부족(17.8%) 등이 높게 도출되어 매출유형에 따라 다른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지됨

[표 2-111] 가업승계시 애로사항 : 1순위

(단위 : %, 가업승계기업 421개사)

구분		상속·증여세 조세부담	복잡한 지분구조	엄격한 가업 승계 요건	후계자 교육부족
전체		70.3	8.4	6.7	5.2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70.7	8.6	8.5	4.5
	관계기업	69.1	7.7	0.0	7.7
업종	제조업	70.1	9.9	5.6	5.4
	비제조업	70.7	6.7	8.0	5.0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76.6	10.1	0.0	4.6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54.4	9.4	9.1	13.4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83.8	11.3	0.0	4.9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72.2	4.3	6.7	4.5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70.6	7.4	14.4	3.8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50.1	31.4	0.0	0.0
	5천억원 ~ 1조원미만	74.2	0.0	12.1	4.6
	1조원이상	100.0	0.0	0.0	0.0
수출여부	수출있음	68.9	9.9	7.6	3.6
	수출없음	71.7	7.1	5.9	6.7
종사자수	50명미만	61.9	5.0	10.9	10.0
	50 ~ 100명미만	76.6	11.9	5.6	0.0
	100 ~ 200명미만	76.9	2.8	7.0	10.5
	200 ~ 300명미만	71.8	13.7	5.2	0.0
	300 ~ 500명미만	80.7	3.4	8.1	3.2
	500 ~ 1,000명미만	57.3	18.4	3.5	3.3
	1,000명이상	90.8	0.0	0.0	0.0
업력	0 ~ 7년미만	73.7	0.0	26.3	0.0
	7 ~ 20년미만	61.5	5.5	2.9	15.5
	20 ~ 30년미만	54.1	3.9	20.3	5.5
	30 ~ 40년미만	76.2	11.9	6.0	2.7
	40 ~ 50년미만	86.8	2.5	2.1	2.1
	50년이상	66.6	19.5	3.6	0.0
매출유형	B2B	69.3	8.6	7.8	4.8
	B2C	80.6	4.1	0.0	4.8
	B2G	61.4	20.8	0.0	17.8
상장	상장	76.0	6.0	4.2	4.1
	비상장	66.3	10.2	8.4	6.0

[표 2-112] 가업승계시 애로사항 : 1순위(계속)

(단위 : %, 가업승계기업 469개사)

구분		가업승계 컨설팅, 정보부족	사회적 인식저조	기타	없음
전체		4.8	0.9	1.0	2.7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4.6	1.1	0.0	2.0
	관계기업	5.7	0.0	4.6	5.3
업종	제조업	3.7	1.6	1.8	2.0
	비제조업	6.3	0.0	0.0	3.4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0.0	0.0	4.1	4.6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9.1	0.0	0.0	4.6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0.0	0.0	0.0	0.0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10.8	0.0	1.7	0.0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0.0	0.0	0.0	3.8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6.1	0.0	0.0	12.4
	5천억원 ~ 1조원미만	0.0	9.2	0.0	0.0
	1조원이상	0.0	0.0	0.0	0.0
수출여부	수출있음	3.7	1.8	1.0	3.5
	수출없음	5.9	0.0	0.9	1.9
종사자수	50명미만	5.3	0.0	2.0	4.9
	50 ~ 100명미만	5.8	0.0	0.0	0.0
	100 ~ 200명미만	0.0	0.0	2.8	0.0
	200 ~ 300명미만	5.5	0.0	0.0	3.9
	300 ~ 500명미만	0.0	0.0	0.0	4.6
	500 ~ 1,000명미만	12.7	2.3	0.0	2.4
	1,000명이상	0.0	9.2	0.0	0.0
업력	0 ~ 7년미만	0.0	0.0	0.0	0.0
	7 ~ 20년미만	7.8	0.0	2.0	4.8
	20 ~ 30년미만	11.0	0.0	0.0	5.2
	30 ~ 40년미만	3.2	0.0	0.0	0.0
	40 ~ 50년미만	2.2	2.1	0.0	2.3
	50년이상	3.1	2.2	2.6	2.3
매출유형	B2B	4.3	1.0	1.1	3.1
	B2C	10.5	0.0	0.0	0.0
	B2G	0.0	0.0	0.0	0.0
상장	상장	2.5	2.1	0.0	5.1
	비상장	6.5	0.0	1.7	0.9

[표 2-113] 가업승계시 애로사항 : 1+2순위

(단위 : %, 가업승계기업 469개사, 중복응답)

구분		상속·증여세 조세부담	복잡한 지분구조	엄격한 가업 승계 요건	가업승계 컨설팅, 정보부족
전체		80.5	27.1	26.0	16.6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82.9	26.4	27.6	16.2
	관계기업	71.7	29.9	20.2	18.3
업종	제조업	82.3	27.0	22.6	15.9
	비제조업	78.4	27.3	30.1	17.5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76.6	35.8	13.3	4.1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59.2	18.2	27.1	27.3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95.5	43.0	9.1	11.3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83.1	19.5	29.6	25.6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81.5	36.8	40.3	11.5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81.3	31.4	18.9	6.1
	5천억원 ~ 1조원미만	83.3	12.1	33.3	15.0
	1조원이상	100.0	39.7	0.0	0.0
수출여부	수출있음	82.2	31.1	27.7	13.3
	수출없음	79.0	23.5	24.4	19.7
종사자수	50명미만	61.9	21.3	32.6	12.6
	50 ~ 100명미만	88.4	29.0	17.4	35.4
	100 ~ 200명미만	87.0	27.4	23.5	10.2
	200 ~ 300명미만	91.4	19.1	24.3	16.6
	300 ~ 500명미만	89.0	29.1	42.6	4.5
	500 ~ 1,000명미만	74.6	36.1	18.5	26.7
	1,000명이상	100.0	28.8	9.2	15.0
업력	0 ~ 7년미만	73.7	11.5	48.0	0.0
	7 ~ 20년미만	64.3	22.0	25.2	24.3
	20 ~ 30년미만	89.3	23.5	31.1	16.0
	30 ~ 40년미만	84.8	15.1	30.6	15.9
	40 ~ 50년미만	91.1	37.4	21.5	16.0
	50년이상	80.2	41.0	18.5	13.3
매출유형	B2B	79.8	27.6	27.1	15.8
	B2C	85.4	19.8	14.1	27.4
	B2G	82.2	41.5	40.7	0.0
상장	상장	84.1	22.8	21.6	17.6
	비상장	77.9	30.2	29.2	1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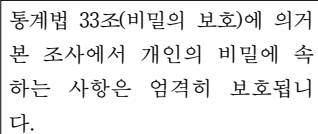
[표 2-114] 가업승계시 애로사항 : 1+2순위(계속)

(단위 : %, 가업승계기업 469개사, 중복응답)

구분		후계자 교육부족	사회적 인식저조	금융기관 자금활용	기타	없음
전체		9.1	7.7	1.9	1.0	2.7
기업유형	일반 중견기업	8.9	9.8	1.7	0.0	2.0
	관계기업	10.1	0.0	2.7	4.6	5.3
업종	제조업	10.4	8.1	3.5	1.8	2.0
	비제조업	7.6	7.2	0.0	0.0	3.4
매출규모	1백억원미만	10.1	12.4	0.0	4.1	4.6
	1백억원 ~ 5백억원미만	22.5	9.1	4.3	0.0	4.6
	5백억원 ~ 1천억원미만	9.5	6.4	0.0	0.0	0.0
	1천억원 ~ 2천억원미만	6.7	6.7	4.5	1.7	0.0
	2천억원 ~ 3천억원미만	3.8	0.0	0.0	0.0	3.8
	3천억원 ~ 5천억원미만	12.6	0.0	0.0	0.0	12.4
	5천억원 ~ 1조원미만	4.6	25.8	0.0	0.0	0.0
	1조원이상	0.0	0.0	0.0	0.0	0.0
수출여부	수출있음	9.3	5.5	1.4	1.0	3.5
	수출없음	9.0	9.8	2.3	0.9	1.9
종사자수	50명미만	18.0	12.2	0.0	2.0	4.9
	50 ~ 100명미만	0.0	18.1	0.0	0.0	0.0
	100 ~ 200명미만	13.3	10.1	3.1	2.8	0.0
	200 ~ 300명미만	0.0	0.0	5.5	0.0	3.9
	300 ~ 500명미만	3.2	0.0	0.0	0.0	4.6
	500 ~ 1,000명미만	11.9	4.6	3.5	0.0	2.4
	1,000명이상	0.0	9.2	0.0	0.0	0.0
업력	0 ~ 7년미만	26.3	40.5	0.0	0.0	0.0
	7 ~ 20년미만	18.2	10.9	0.0	2.0	4.8
	20 ~ 30년미만	9.4	0.0	5.5	0.0	5.2
	30 ~ 40년미만	5.9	5.3	5.9	0.0	0.0
	40 ~ 50년미만	4.6	2.1	0.0	0.0	2.3
	50년이상	2.4	9.5	0.0	2.6	2.3
매출유형	B2B	8.9	9.0	2.2	1.1	3.1
	B2C	8.9	0.0	0.0	0.0	0.0
	B2G	17.8	0.0	0.0	0.0	0.0
상장	상장	5.2	9.1	1.6	0.0	5.1
	비상장	11.9	6.7	2.1	1.7	0.9

부록

설문지



주최 :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수행 : 한국기업데이터

ID				

- 주관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담당자 : 중견기업정책과 김정미 주무관 044-203-4367)
- 수탁기관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담당자 : 백장미 대리 02-3275-2108)
- 조사업체 : 한국기업데이터(주)
- 설문제출 : 한국기업데이터(주)

작성자 성명	작성자 소속/부서	작성자 직위	1. 대표이사 3. 부장·차장·과장	2. 임원 4. 대리·주임·사원
작성자 전화번호	작성자 이메일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기 업 명		주생산물*													
기 업 주 소															

대표이사 성명		대표이사 성별	① 남 ② 여	대표이사 출생년도	1 9 _ _ 년도
대표이사 경영유형	① 창업자 ② 승계자 ③ 전문경영인 ④ 기타		대표이사 전공*	① 공학계열 ② 자연과학계열 ③ 상경계열 ④ 인문사회계열 ⑤기타	

설문지 | 201

A3. 귀사의 2016년 매출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B2B 거래	()%	B2C 거래	()%	B2G 거래	()%
--------	------	--------	------	--------	------

* B2B기업 : 주 거래처가 기업 / B2C기업 : 주 거래처가 소비자 / B2G기업 : 주 거래처가 정부·공공기관

B. 중견기업 진입 및 성장

B1. 중소기업 정책수혜를 위해 중소기업으로 회귀를 검토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 [illegible]

B1-1. (문 B1에 '㉠' 응답한 경우),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 중소기업 정책은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 ① 기술개발 지원 ② 조세혜택 ③ 전문인력확보 지원 ④ 금융지원
⑤ 해외시장 개척 ⑥ 공공조달 지원 ⑦ 중소기업 적합업종 ⑧ 기타()

B2. 귀사는 2016년 M&A를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 ① 경험있음(인수규모 : _____ 억원) ② 경험없음(☞ B2-2로 이동)

B2-1. (문 B2에 '㉠' 응답한 경우), 귀사가 경험한 인수합병은 어떤 형태입니까?

- ① 동종업종의 중견기업과의 인수합병 ② 타업종의 중견기업과의 인수합병
- ③ 동종업종의 중소기업과의 인수합병 ④ 타업종의 중소기업과의 인수합병
- ⑤ 동종업종의 대기업과의 인수합병 ⑥ 타업종의 대기업과의 인수합병
- ⑦ 해외 외국계 기업과의 인수합병 ⑧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B2-2. 귀사는 M&A를 활성화하기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2순위

- ① 법인세 등 세제 혜택부여 ② 규제완화 ③ 정책자금 확대
- ④ M&A 컨설팅 지원 ⑤ 기타(구체적으로 :)

B3. 귀사의 가장 큰 경영애로는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 ① 내수부진 ② 해외수요 부진 ③ 우수인재 유치 ④ 인건비 부담
- ⑤ 자금조달 애로 ⑥ 동종업계 과당경쟁 ⑦ 과도한 규제 ⑧ 기타()

C. 기술혁신

C1. 귀사의 2016년도 R&D 및 설비투자실적 및 2017년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2016년 (실적)	① R&D투자 금액 : () 백만원	2017년 (계획)	① R&D투자 금액 : () 백만원
	② 설비투자 금액 : () 백만원		② 설비투자 금액 : () 백만원
<p>※ R&D투자 금액 = (a)+(b)+(c)</p> <p>(a) 당기개발비(재무상태표) - 전기개발비(재무상태표) (b) 경상개발비·연구비(손익계산서)</p> <p>(c) 경상개발비(제조/공사/용역원가명세서)</p> <p>※ 설비투자 금액 = 1년간 토지, 건물구축물, 기계장치, 선박, 차량운반구, 공구, 기구, 비품 등 모든 설비(시설, 유형자산)에 투자한 총액</p>			

C2. 귀사의 2016년도 기술개발 방식별 비중을 말씀해 주십시오.

구분	자체(단독) 개발	외부기관과 공동개발*	외부기관 위탁개발	국내 기술도입	해외 기술도입	기술개발 해당없음	합계
활용비율	%	%	%	%	%	%	100 %

*외부기관 : 타 기업, 대학, 연구소 등

C3. 귀사의 2016년 R&D관련 정부지원사업(자금지원, 인력, 기자재, 보증서 활용 등) 활용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지원 R&D 사업 활용 경험	① 있다()건	② 없다
-------------------	----------	------

C3-1. (문 C3에 ‘②’ 응답한 경우) 정부지원 R&D 사업 참여에 소극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관심사업의 부재 ② 지원요건 복잡 ③ 지원규모 및 기대효과 미미 ④ 관련정보 부족
⑤ 지원했으나 미선정 ⑥기타(구체적으로 :)

C4. 귀사의 현재(2016년 12월 31일 기준) 연구개발 조직형태를 말씀해 주십시오.

- ① 기업부설연구소 ② 연구개발전담부서 ③ 연구개발 조직 없고, 인력만 있음 ④ 연구개발 조직 및 인력 없음

C4-1. (문 C4에 ‘①,②,③’ 응답한 경우), 현재 귀사의 연구개발 인력*은 몇 명입니까?(명)

* 연구개발인력 : 연구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인력

C5. 귀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력기술(서비스)은 세계최고 기술(서비스) 대비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 기술개발, 연구개발과 무관한 업종인 경우 동종분야에서 귀사의 산업 경쟁력 수준 평가 요망

세계최고 기술(서비스)대비 수준	%
· 해당분야에서 독보적인 수준 : 100% 수준 · 국내시장에서 독보적이며 세계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수준 : 80%~100% 미만 · 국내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나 세계시장에서는 일반적인 수준 : 60%~80% 미만 · 국내시장에서도 범용적인 기술수준 : 60% 미만	

C6. 귀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등 지식재산권 등록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2016. 12. 31 기준)

구분	지식재산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의장권)	상표권
국내	()건	()건	()건	()건
해외	()건	()건	()건	()건
합계	()건	()건	()건	()건

C6-1. 귀사는 2016년 지식재산권을 침해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예()건 ② 아니오

C6-2. (문 C6-1에 ‘①’ 응답한 경우) 귀사의 지재권을 침해한 주체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 ① 해외기업 ② 국내 대기업 ③ 국내 중견기업 ④ 국내 중소기업 ⑤ 기타()

※ 문D1과 내국인 남녀 합계가 일치하도록 기입해 주십시오.

구분	1년 미만	1년 이상~3년 미만	3년 이상~5년 미만	5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
남성					
여성					

D4-1. 귀사 인력의 2016년 이직자는 어느 정도입니까? (내국인근로자 기준)

남성	()명	여성	()명
----	------	----	------

D4-2. 귀사 이직자의 주요 이직원인은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 ① 대기업 스카우트 ② 중견기업 스카우트 ③ 중소기업 스카우트 ④ 진학
⑤ 자사 인원감축 ⑥ 낮은 임금 수준 ⑦ 복지 수준 불만 ⑧ 기타()

D5. 2016년 귀사가 보유한 적이 있는 인력을 모두 체크해주십시오.

대기업 정년퇴직인력	① 있다(_____명) ② 없다	해외 전문인력	① 있다(_____명) ② 없다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	① 있다(_____명) ② 없다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	① 있다(_____명) ② 없다

※ 병역특례전문연구요원은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과 별개로 석사학력 이상의 연구직 병역특례자 임

D6. 귀사 인력의 성과를 보상하기 위해 활용하고 있는 제도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 ① 스톡옵션 ② 직무발명제도 ③ 성과급 ④ 해외연수 또는 여행 ⑤ 승진 ⑥ 기타()

E. 국제화 촉진

E1. 귀사는 2016년 해외수출(직접, 간접수출 모두 포함) 실적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E7로 이동)

E2. 귀사의 2016년 주요 수출국가 및 금액을 말씀해 주십시오. (수출금액이 큰 국가순으로 5순위까지 응답)

구분	수출국가	수출금액(직접+간접)
1 순위		()천불
2 순위		()천불
3 순위		()천불
4 순위		()천불
5 순위		()천불
수출총액 (1~5순위 지역을 포함한 모든 수출지역으로의 수출금액 합계)		직접수출 : ()천불
		간접수출 : ()천불

* 직접수출 : 해외 고객에게 직접 수출 / 간접수출 : 상사 등 중개업체를 통한 수출

* 2016년 평균 환율 : 1달러 = 1160.5원

E2-1. 2016년에 신규 진출한 국가가 있습니까?

- ① 예(국가명 : / 수출금액 : 천불) ② 아니오

E3. 귀사는 해외에 설립한 현지법인(해외지사 제외)이 있습니까?(합작투자, 기술투자 등 포함, 2016. 12. 31 기준)

- ① 예 ② 아니오 (☞ E4로 이동)

E3-1. 현지법인이 있는 국가는 어디입니까? (법인수가 많은 순으로 응답)

구분	현지법인 소재 국가	현지법인 수	구분	현지법인 소재 국가	현지법인 수
1 순위		()개	6 순위		()개
2 순위		()개	7 순위		()개
3 순위		()개	8 순위		()개
4 순위		()개	9 순위		()개
5 순위		()개	10 순위		()개

E4. 귀사가 지난 1년동안(2016년 1월~12월) 수출시 겪은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 ①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손 ② 무역금융 활용애로 ③ 인증 등 기술규제 ④ 통관 등 절차관련 규제
 ⑤ 수출 부대비용 부담 ⑥ 해외시장 정보부족 ⑦ 수출 전문인력 부족 ⑧ 현지 마케팅
 ⑨ 해외 거래선 확보 ⑩ 기타()

E5. 귀사는 FTA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 ① 활용 중 (☞ E5-2로 이동) ② 활용예정 ③ 활용계획 없음

E5-1. (문 E5에 '②, ③' 응답한 경우) FTA 미활용 사유는 무엇입니까? (응답 후 ☞ E6으로 이동)

- ① FTA 수혜효과 미미 ② 부적합 업종 ③ 활용절차 및 제도의 어려움
 ④ FTA 전문인력 부족 ⑤ 기타(구체적으로 :)

E5-2. (문 E5에 '①' 응답한 경우) 귀사의 FTA 활용을 위한 내부 시스템 구축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2016. 12. 31 기준)

세부내용	① 있음	② 없음
원산지 관리 및 사후검증을 위한 업무 매뉴얼 보유		
FTA 관련 전담부서		
원산지 관리 전문가(원산지 관리자, 관세사 등) 보유		
FTA활용을 위한 전산시스템		

E6. FTA를 활용하기 위해 귀사가 필요로 하는 정부지원은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 ① FTA 활용 해외시장 진출 지원 ② FTA 활용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
 ③ 원산지증명 관리 지원 ④ 비관세장벽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⑤ FTA 체결국 대상 홍보 강화 ⑥ 기타(구체적으로 :)

E7. 귀사는 향후 신규 해외 진출을 고려하고 있습니까?

- [illegible]

E7-1. (문 E7에 '①' 응답한 경우), 귀사가 신규 해외 진출을 고려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 ① 현지의 값싼 노동력 ② 제품에 대한 해외수요 증가 ③ 해외 유통망 확보
④ 자유로운 경영환경 ⑤ 현지 연구인력 채용 ⑥ 선진기술 확보를 위한 합작투자
⑦ 기타(구체적으로 :)

E7-2. (문 E7에 '①' 응답한 경우), 귀사가 계획하는 신규 해외 진출 시점은 언제입니까?

- ① 1년 이내 ② 1~3년 이내 ③ 3~5년 이내 ④ 5년 이후

E7-3. (문 E7에 '㉠' 응답한 경우) 귀사가 희망하는 신규 진출 국가는 어디입니까?-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국가명			

E7-4. (문 E7에 '②' 응답한 경우), 귀사가 신규 해외 진출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수출 부적합 업종 ② 국내 시장에 만족 ③ 마케팅 능력 부족
④ 자금 부족 ⑤ 기타(구체적으로 :)

E8. (문 E7에 '①' 응답한 경우)해외 수출 및 진출 시 귀사가 가장 우선하여 고려하는 전략은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	--	-----	--

- ① 해외 현지생산 ② 기술 및 품질경쟁력 강화 ③ 해외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 ④ 해외기업 M&A ⑤ 우수인력 확보 ⑥ 국내 대기업과의 동반진출
- ⑦ 기타(구체적으로 :)

F. 수·위탁 거래 및 동반성장

- 위탁기업(모기업) : 귀사에게 용역 등을 의뢰하는 기업
- 수탁기업(협력사) : 귀사로부터 용역 등을 의뢰받은 기업
- 주거래 위탁기업 : 귀사가 거래하는 위탁기업 중 거래비중이 가장 큰 기업

F1. 귀사는 수·위탁거래 단계 중 어느 단계에 해당하십니까?

- ① 하도급관계 없음 (☞ G1으로 이동) ② 최상위 원사업자 (☞ F4로 이동)
- ③ 1차 협력사 ④ 2차 협력사 ⑤ 3차 이하 협력사

F1-1. (문 F1에 '③, ④, ⑤' 응답한 경우), 2016년 전체 위탁기업과의 매출액 대비 거래금액 및 비중은 얼마입니까?

구 분	위탁기업과의 거래금액 및 비중 (2016년 총매출액보다 많을 수 없음)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합계
거래금액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비 중	%	%	%	100 %

F2. 귀사는 2016년 주거재 위탁기업과의 거래에서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받으신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예(_____회)
- ② 아니오 (☞ F3으로 이동)

F2-1. (문 F2에 ‘①’ 응답한 경우), 평균 단가인하율은 얼마나 됩니까?

- ① 3%미만
- ② 3~5%미만
- ③ 5~10%미만
- ④ 10~20%미만
- ⑤ 20~30%미만

F3. 귀사는 2016년 주거재 위탁기업과의 거래에서 불공정 거래를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구 분	① 경험있음	② 경험없음
1. 납품대금 결제지연(지연이자 미지급 포함)		
2. 부당한 발주(구주발주) 취소		
3. 기술자료 유출		
4. 인력 탈취		
5.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요구		
6. 경영 관련자료(재무 및 인력자료 등) 요구		
7. 부당한 물품 등의 강제구매 요구		
8. 부당한 대물변제 행위		

F4. 2016년 수·위탁 거래 기업과의 결제기간 및 수단을 말씀해 주십시오.

결제기간	위탁기업(모기업)으로부터 대금을 결제 받는 기간 (평균 _____ 일)			수탁기업(협력사)에 대금을 결제하는 기간 (평균 _____ 일)		
	현금 (수표포함)	어음대체결제 (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 대출, 구매론)	어음 (전자어음 포함)	현금 (수표포함)	어음대체결제 (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 대출, 구매론)	어음 (전자어음 포함)
결제수단별 비중	%	%	%	%	%	%

F5. 귀사는 지난 1년 동안(2016년 1월~2016년 12월)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을 위해 어떠한 활동을 추진 하였습니까? (해당란에 V 표시)

구 분	위탁기업(모기업)과의 활동		수탁기업(협력사)과의 활동	
	① 활동있음	② 활동없음	① 활동있음	② 활동없음
1. 협력계획 및 매뉴얼 수립				
2. 전담조직 구성 및 대응				
3. 협의회 등 관련 기구활동				
4. 공동기술개발				
5. 공동 공정개선활동				
6. 해외시장 개척 및 동반진출				
7. 직원교육 및 교류				
8. 생산설비 및 실험장비 공동사용				
9. 자금지원				
10. 상생결제시스템('15년 산업부 시행)				

G. 금융 및 자금조달

G1. 귀사의 2016년 전체 자금 사용 용도는 무엇입니까?

구 분	운전자금	설비투자자금	기술개발자금	수출금융	기타()	합 계
비 중	%	%	%	%	%	100 %

G2. 귀사의 2016년 전체 자금(조달)원은 무엇입니까?

구 분	내부 유보자금	시중은행 차입	회사채 발행	IPO (주식공개상장)	펀드 등 투자유치	정부정책자금* 활용	기타	합 계
비 중	%	%	%	%	%	%	%	100 %

* 정책자금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기업은행, 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을 통해 조달한 자금

* 비상장 기업의 주식 매매를 통한 자금조달, 사채 등은 기타에 해당

G3. 귀사가 외부 자금 조달시 겪는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 2016년 외부자금 조달이 없었더라도 외부 자금 조달시 겪는 일반적인 애로사항 응답 요망

1순위

2순위

- ① 금리상승 ② 복잡한 대출 심사 ③ 매출액 위주의 한도사정 ④ 보증서 위주의 대출
⑤ 추가 담보요구 ⑥ 장기차입의 어려움 ⑦ 기타(구체적으로 :)

G4. (문 G2 정책자금 활용 기준)귀사는 2016년 정책자금을 활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 H1으로 이동)

G4-1. (문 G4에 '①'에 응답한 경우), 기관별 활용 비중을 말씀해 주십시오.

구 분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기업은행	산업은행	한국 수출입은행	중소기업 진흥공단	기타	합 계
비 중	%	%	%	%	%	%	%	100 %

H. 기업사회적 책임 등

H1. 귀사는 2016년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예(백만원) ② 아니오 (☞ H2로 이동)

H1-1. (문 H1에 '①'에 응답한 경우), 귀사의 사회공헌활동 유형은 무엇입니까?

구 분	공익사업활동	기부/협찬활동	자원봉사활동	기타	합 계
비 중	%	%	%	%	100 %

· 공익사업활동 : 문화예술지원, 체육진흥, 교육/학습지원, 지역홍보, 지역행사지원, 지역공공시설 건립, 환경보호 등
· 기부협찬활동 : 기부금/성금, 아동·청소년 장학금 지원 및 관련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불우이웃돕기, 재해구호, 난민구호 등
· 자원봉사활동 : 소년소녀 가장 돕기, 사회복지시설 방문, 의료활동, 의료/보건/재활서비스 제공 등

H2. 귀사는 가업승계* 도입 또는 가업승계 계획중에 있습니까?

* 가업승계 : 상속이나 증여를 통하여 그 기업의 경영권(소유권)과 경영자의 창업정신, 경영노하우 등 무형자산까지 상속인에게 이전함으로써 기업가 정신을 승계하고 기업의 연속성을 이어가는 것

- ① 가업승계 완료 또는 진행 중 ② 가업승계 예정 ③ 가업승계 계획 없음

H2-1. (문 H2에 '①'에 응답한 경우), 가업승계 시 애로사항은 무엇이었습니까?

1순위

2순위

- ① 상속·증여세 등 조세부담 ② 복잡한 지분구조 ③ 엄격한 가업승계 요건*
④ 후계자 교육 부족 ⑤ 가업승계 컨설팅, 정보 부족 ⑥ 사회적 인식 저조
⑦ 금융기관 자금 활용 ⑧ 기타()

* 가업승계 요건

- 사전요건 : (피상속인) 10년 이상 계속 경영, 대표이사 재직기간(가업기간 중 50% 등), 최대주주 등 지분 50%(상장 30%) 이상 보유 (상속인) 18세 이상, 상속개시 전 2년 이상 가업종사(배우자 동일)
- 사후요건 : ①상속인 가업종사(대표이사) 유지 ②10년간 상속지분 100% 유지 ③10년이상 계속하여 피상속인을 포함한 최대주주 등 지분 50%(상장법인은 30%)이상을 계속하여 보유 ④정규직 근로자수 10년간 평균 120%(중견기업) 유지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과 김정미 주무관 044-203-4367,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백장미 대리 02-3275-2108

♠ 수고하셨습니다. 귀사의 응답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2017년 중견기업실태조사

2017년 12월 29일 인쇄
2017년 12월 29일 발행

발행처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기획총괄팀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34(도원빌딩)
전화 : 02-3275-2108
팩스 : 02-3275-2980

인 쇄 : 경성문화사
